

11-1541000-001178-01

남미지역 양자협력 및 수산투자활성화 방안

2011. 12.

연구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 출 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남미지역 양자협력 및 수산투자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1년 12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김학소

주관연구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총괄책임자 : 홍 현 표

연구진 : 마 창 모, 장 홍 석, 한 덕 훈, 김 진 경

연구감리 : 신 영 태

자문위원 : 미국 알칸소대학교 위용석 교수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권기수 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최윤국 박사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필요성과 목적	3
1. 연구의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추진체계	5
제2장 남미 주요국의 경제 현황 및 전망	7
제1절 남미 개관	9
1. 40년만의 최장의 경기호황	9
2. 글로벌 금융위기가 라틴아메리카 경제에 미친 영향	12
3. 2012년 경제 전망과 과제	34
제2절 페루	40
1. 지리적 여건	40
2. 정치·사회적 여건	41
3. 경제적 여건	44
제3절 브라질	48
1. 지리적 여건	48
2. 정치·사회적 여건	49
3. 경제적 여건	51
제3장 한·남미 협력관계의 실태분석	57
제1절 FTA 추진 현황	59
1. 개요	59
2. 페루와의 경제관계	60
3. 브라질과의 경제관계	67
제2절 ODA 사업 추진 현황	76
1. 일반 현황	76

2. ODA 사업 현황	77
3. ODA 핵심 분야	83
제3절 민간부문 진출사례와 문제점	89
1. 페루 넵치양식 사업체 진출 사례	89
2. 페루 자이언트 오징어 가공사업 진출 사례	90
제4장 남미 수산업 현황과 수산협력 필요성	101
제1절 남미 수산업 현황	103
1. 생산현황	103
2. 수출입현황	106
제2절 한·남미 수산협력 필요성	108
1. 개요	108
2. 필요성	109
제5장 페루 수산업과 수산협력 현황	113
제1절 수산정책 현황	115
1. 개요	115
2. 주요 수산 관련 기관	116
3. 주요 관련 정책 및 제도	117
4. 시사점	125
제2절 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현황	127
1. 개요	127
2. 수산업 생산구조	129
3. 수산물 공급구조	133
4. 수산물 가공 및 유통 실태	136
5. 엔초비산업(Engle and Wui, 2010)	143
제3절 주요 조업국의 협력사업 추진 현황	147
1. 개요	147
2. 국가별·분야별 원조	148
3. 수산협력 사업의 사례	150

제6장 브라질 수산업과 수산협력 현황	157
제1절 수산정책 현황	157
1. 개요	157
2. 주요 수산 관련 기관	158
3. 수산관련 정책 및 제도	158
4. 시사점	160
제2절 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 현황	162
1. 개요	162
2. 수산업 생산구조	163
3. 수산물 수급구조	169
4. 수산물 가공 및 유통 실태	172
제3절 주요 조업국의 협력사업 추진 현황	175
1. 개요	175
2. 국가별·분야별 원조	175
3. 수산협력 사업의 사례	178
제7장 수산협력 추진전략 및 결론	183
제1절 한·남미 수산협력 기본방향	185
제2절 한·페루 협력사업 추진전략	187
1. 기본방향	187
2. 추진전략	188
제3절 한·브라질 협력사업 추진전략	195
1. 기본방향	195
2. 추진전략	198
제4절 결론 및 기대효과	214
1. 결론	214
2. 기대효과	217
참고문헌	219

표 목 차

<표 2-1> 라틴아메리카 거시경제지표	10
<표 2-2> 라틴아메리카의 대미 및 1차 상품 수출의존도, 해외송금 의존도 현황	12
<표 2-3> 글로벌 금융위기의 라틴아메리카 전염효과 전망	13
<표 2-4>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수출증가율 추이	14
<표 2-5>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수입증가율 추이	15
<표 2-6>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무역수지 추이	15
<표 2-7> 중남미 주요국의 소비증가율 추이	17
<표 2-8>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산업생산 증가율 추이	18
<표 2-9>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투자 증가율 추이	19
<표 2-10>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순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추이	19
<표 2-11>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	20
<표 2-12>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21
<표 2-13>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정부지출 증가율 추이	22
<표 2-14>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재정수지 추이	22
<표 2-15>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환율제도의 유형	25
<표 2-16>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들의 재정준칙 도입 및 운영 현황	26
<표 2-17>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공공부채 추이	26
<표 2-18>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들의 경기부양책	27
<표 2-19>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경기부양책	28
<표 2-20> 최근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금리정책 추이	30
<표 2-21> 중남미 주요국의 국가신용등급(2010년 6월 현재)	30
<표 2-22> 각 지역 은행의 신용평가1) 현황	32
<표 2-23> 중남미 수출입 상대국으로서 중국의 순위 변화	33
<표 2-24> 주요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2009년 지역별 수출 증감액	34
<표 2-25> 중남미 주요국의 경제성장 전망	36
<표 2-26> 연도별 라틴아메리카 경제성장의 원천	37
<표 2-27> 연도별 브라질 경제성장의 원천	38
<표 2-28> 페루의 일반 개요	41
<표 2-29> 페루의 정치 개요	42
<표 2-30> 페루의 사회 지표	44

<표 2-31> 페루의 경제 개요	45
<표 2-32> 페루의 주요 경제 지표	46
<표 3-33> 한국과 페루의 교역 및 투자 현황	46
<표 2-34> 브라질의 일반 개요	49
<표 2-35> 브라질의 정치 개요	50
<표 2-36> 브라질의 사회 지표	51
<표 2-37> 브라질의 경제 개요	52
<표 2-38> 브라질의 주요 경제 지표	52
<표 2-39> 한국과 브라질의 교역 및 투자 현황	53
<표 2-40> 브라질 경제성장 전망	54
<표 3-1> 한국-페루 연도별 수출입	64
<표 3-2> 한국의 대 페루 품목별 수출실적	65
<표 3-3> 한국의 대 페루 수입실적	66
<표 3-4> 對브라질 수출입 동향	67
<표 3-5> 對브라질 10대 수출 품목 및 증가율	68
<표 3-6> 對브라질 10대 수입 품목 및 증가율	69
<표 3-7> 연도별 對브라질 직접투자 추이(총투자 기준)	70
<표 3-8> 우리나라의 對브라질 업종별 투자현황	71
<표 3-9> 對브라질 주요 투자진출 기업 현황	72
<표 3-10> 세계의 대상지역별 수산분야 협력 내용	77
<표 3-11> 한국의 대상지역별 수산분야 협력 내용	78
<표 3-12> OECD/DAC의 다자원조 기관 설명	79
<표 3-13> 남미의 ODA 수혜 형태-양자 및 다자 비교	80
<표 3-14> 對남미 다자ODA의 기관별 원조 규모 추이	82
<표 3-15> 페루의 자이언트오징어 가공공장(한인업체) 명단 및 실적	90
<표 4-1> 남미 지역의 수산물 생산량	103
<표 4-2> 남미지역의 어선어업 생산량	104
<표 4-3> 남미의 양식어업 생산량	104
<표 4-4> 남미 주요 4개국의 전체 수산물 생산량	105
<표 4-5> 남미 주요 4개국의 어선어업 생산량	105
<표 4-6> 남미 주요 4개국의 양식어업 생산량	106
<표 4-7> 남미 주요 4개국의 수산물 수출현황	107
<표 4-8> 남미 주요 4개국의 수산물 수입현황	107

<표 5-1> 페루의 수산자원 보호의 주요 조치	118
<표 5-2> 페루의 수입금지 및 제한 품목	122
<표 5-3> 페루의 관세구조(2008년, 총 6,994개 품목)	123
<표 5-4> 세계의 수산물 생산량 순위	129
<표 5-5> 페루의 어업별 생산량 추이(대세계 비교)	131
<표 5-6> 페루 ‘어선어업’의 어종별 생산량 추이	131
<표 5-7> 페루 ‘양식어업’의 어종별 생산량 추이	132
<표 5-8> 페루의 수산물 수급(2007년)	133
<표 5-9> 2008년 페루 수산업의 총어획량과 소비	135
<표 5-10> 페루의 ODA 수혜 규모	147
<표 5-11> 페루에 ODA를 지원한 국가별 지원 추이	148
<표 5-12> 페루의 어업분야 ODA와 전체 비교	149
<표 5-13> 페루의 어업분야 ODA 수혜 규모	150
<표 6-1> 세계의 수산물 생산량 순위	164
<표 6-2> 브라질의 어업별 생산량 추이(대세계 비교)	164
<표 6-3> 브라질의 생산 환경별 수산물 생산량 추이	165
<표 6-4> 브라질 어선어업의 어종별 생산량	167
<표 6-5> 브라질 양식어업의 어종별 생산량	168
<표 6-6> 브라질의 수산물 수급(2007년)	170
<표 6-7> 브라질과 한국의 수산물 도매가격 비교	174
<표 6-8> 브라질의 ODA 어업분야 수혜 실적	176

그림 목차

<그림 1-1>	남미지역 수산부문 연구의 필요성	4
<그림 1-2>	연구의 추진 방법	5
<그림 1-3>	연구의 추진 체계	6
<그림 2-1>	라틴아메리카 국별 중산층 비중 현황	11
<그림 2-2>	라틴아메리카 교역조건 변화(2008~2009년)	13
<그림 2-3>	라틴아메리카 외환보유고 추이	16
<그림 2-4>	라틴아메리카 각국 경제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2010년) ·	17
<그림 2-5>	2009년 라틴아메리카 요소별 경제실적	21
<그림 2-6>	브라질의 연방국채 발행규모(누적기준)	33
<그림 2-7>	중남미 경제성장률과 수출증가율 추이	36
<그림 2-8>	연도별 라틴아메리카 경제성장의 원천	38
<그림 2-9>	중남미 각국의 투자율 비교	38
<그림 2-10>	BRCIs 국가와 투자율 비교(2008년)	38
<그림 2-11>	페루의 지도	40
<그림 2-12>	브라질의 지도	48
<그림 2-13>	브라질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 추이(%)	55
<그림 3-1>	남미의 산업구조 및 FTA 현황	59
<그림 3-2>	남미의 다자원조 참여 기관의 수 추이	81
<그림 3-3>	INHOPE의 외경과 가공공장 입장 전(HACCP)	91
<그림 3-4>	자이언트오징어 반가공 원료 상품과 크기 비교	92
<그림 3-5>	INHOPE의 가공과정(생산-보관-출하)	93
<그림 3-6>	MIK 기업의 전경	94
<그림 3-7>	MIK의 건조작업 과정	95
<그림 3-8>	DAEWON SUSAN의 전경(HACCP 이행)	96
<그림 3-9>	붕장어 가공(전 과정 수동)	96
<그림 3-10>	자이언트오징어 원료 반입과 진미채 가공(조미하지 않음)	97
<그림 3-11>	FREEKO의 입지 및 전경	98
<그림 3-12>	PESCO MARINA의 전경 및 HACCP	99
<그림 3-13>	붕장어 가공-출하 과정	99

<그림 4-1> 한·남미 수산협력 필요성	108
<그림 5-1> 페루의 수산관련 기관	117
<그림 5-2> 페루 양식연구소 현황	121
<그림 5-3> 세계의 주요 국별 연간 1인당 수산물 소비량(2007년)	134
<그림 5-4> 페루의 연간 1인당 수산물 소비량(kg/인/연) 추이	135
<그림 5-5> 자이언트오징어의 크기	136
<그림 5-6> 자이언트오징어 주요 산지인 파이타의 소규모 어선들	137
<그림 5-7> 리마의 수산물 도소매시장	139
<그림 5-8> 피우라의 수산물 도매시장	140
<그림 5-9> 페루 대형소매점에서의 수산물 소매가격	142
<그림 5-10> 페루의 엔초비 가공 현황(1999~2008)	143
<그림 5-11> 페루의 어분의 생산과 수출(1999~2008)	144
<그림 5-12> 페루의 어유의 생산과 수출(1999~2008)	144
<그림 5-13> 페루산 엔초비의 국제가격(2003~2008)	145
<그림 5-14> 어분과 어유의 FOB 수출가격(1999~2008)	145
<그림 5-15> 페루산 65% 단백질 어분의 CIF 수출가격	146
<그림 6-16> 브라질 어선어업의 어업 구역별 생산량 추이	166
<그림 6-17> 브라질 양식어업의 어업 구역별 생산량 추이	166
<그림 6-18> 브라질의 수산물 총 소비량과 1인당 소비량(1976~2008년)	170
<그림 6-19> 브라질의 소매상소비 증가율 추세(2008년~2011년)	171
<그림 6-20> 브라질의 총가계지출액 추이(1965년~2010년)	171
<그림 6-21> 브라질의 ODA 수혜실적	176
<그림 6-22> 브라질의 수산물 소비량 추이	177
<그림 6-23> 브라질의 어업분야 국가별 수혜 실적(%)	177
<그림 6-24> 나탈 시의 어항	180
<그림 7-1> 한·남미 협력사업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186
<그림 7-2> 한·페루 수산협력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187
<그림 7-3> 한·페루 다자협력사업 추진전략	189
<그림 7-4> EU 위생규정 이행을 위한 페루 11개 지역 시설개선 희망 사업	191
<그림 7-5> 한·페루 양자협력 사업 추진전략	193
<그림 7-6> 한·페루 정부와 민간 역할분담 추진전략	194
<그림 7-7> 한·브라질 수산협력의 기본방향	198
<그림 7-8> 양식어업 협력사업의 수직적 통합 연결의 사례	202

<그림 7-9> 브라질의 주요 양륙지역과 양륙량	206
<그림 7-10> 한·브라질 협력사업 추진전략	213
<그림 7-11> 남미 양자협력사업의 기대효과	217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추진체계

제1장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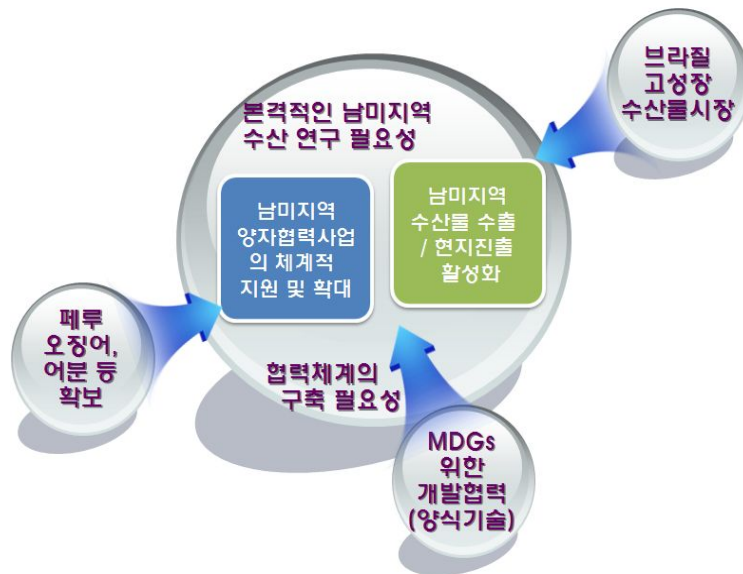
제1절 연구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남미지역은 지난 5년간(2004~2008년) 연평균 5.4%의 성장을 기록하며 40년 만에 최장기 경기호황(Goldilocks Economy)을 기록하고 있으며, 남미의 33개 독립국들은 UN을 위시한 국제기구 및 역내 협의체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국제위상이 증대되고 있다. 더욱이 페루와 브라질 등 남미지역은 천연자원의 보고로서 우리나라 자원외교의 중심에 있는 국가들이다. 2000년대 이후 남미지역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우리나라는 최초로 한·칠레 FTA를 체결하였고, 2011년에는 한·페루 FTA를 체결하여 남미지역에 대한 경제통합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는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포함된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 FTA 공동연구를 실시한바 있으며, 한·콜롬비아 FTA도 추진하고 있어 경제통합의 무대가 남미의 주요 국가들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가 남미지역과 경제통합을 확대하는 것은 수산부문에 있어서도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FTA가 발효되었거나 추진되고 있는 국가들은 남미에서도 수산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이며, 경제성장으로 인해 수산물 소비확대가 기대되는 국가들이다. 따라서 우리가 남미국가들과 어떻게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수산부문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남미 진출과 투자 확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남미지역 양자협력사업의 체계적 지원 확대, 남미지역 수산물 수출 확대, 수산부문의 현지 진출 활성화 등을 위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미지역의 국가들은 전체 인구 중 1/3 정도가 1일 생활비 1.25달러 이하의 ODA 대상 개도국들이 많이 상존해 있다. 지금까지는 지리적인 요인으로 수산부문의 협력 사업이 미진하였으나 향후 남미지역의 개도국들에 대해 새천년개발계획을 실천하여 우리나라의 국격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림 1-1> 남미지역 수산부문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한·페루 FTA에 의거하여 수산부문의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것과 남미 최대의 수산물 소비국으로 부상하는 브라질 수산업의 특성을 파악하고 진출전략 및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첫째, 한국과 페루는 한·페루 FTA 협정서 제 20.5항(수산업 및 양식업 협력)에 의거해서 협정 발효 후 2년 이내에 수산협력 약정 체결을 위한 수산협력사업을 발굴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페루의 수산부문 현황과 정책을 검토하고 양 당사국이 협력사업을 통해 서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우리나라의 원활한 수산부문 진출을 위한 추진 전략을 수립한다.

둘째, 브라질은 어선어업 뿐만 아니라 아마존을 활용한 양식어업의 발전 등 수산부문의 잠재력이 매우 높은 국가이며, 최근 수산물 소비량이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협력사업 및 진출이 요구되는 국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브라질 시장으로의 수산부문 진출을 위해 협력 사업의 발굴 및 추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한다.

그러나 남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원거리에 위치한 대륙으로 지리적 접근성 문제와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등 언어적 이질성으로 인해 남미 국가들에 대한 수산부문의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이들 국가들에 대한

인문, 사회, 경제 여건에 대해 살펴보고, 주요 대상국의 수산업 현황을 조사한 다음 수산부문 협력 및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여 협력사업 추진전략을 수립하도록 한다.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추진체계

본 연구는 남미지역의 수산부문 양자협력 및 수산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선 남미지역의 전반적인 경제현황과 수산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중점 국가인 페루와 브라질에 대해서 각각의 경제실태와 수산업 실태를 살펴본다. 이후 이를 토대로 대상국의 현지출장, KOICA 및 대사관을 통해 발굴된 해당국 협력사업 수요와 민간진출 희망자들의 수산부문 진출 수요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여 양자협력 및 수산투자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단계별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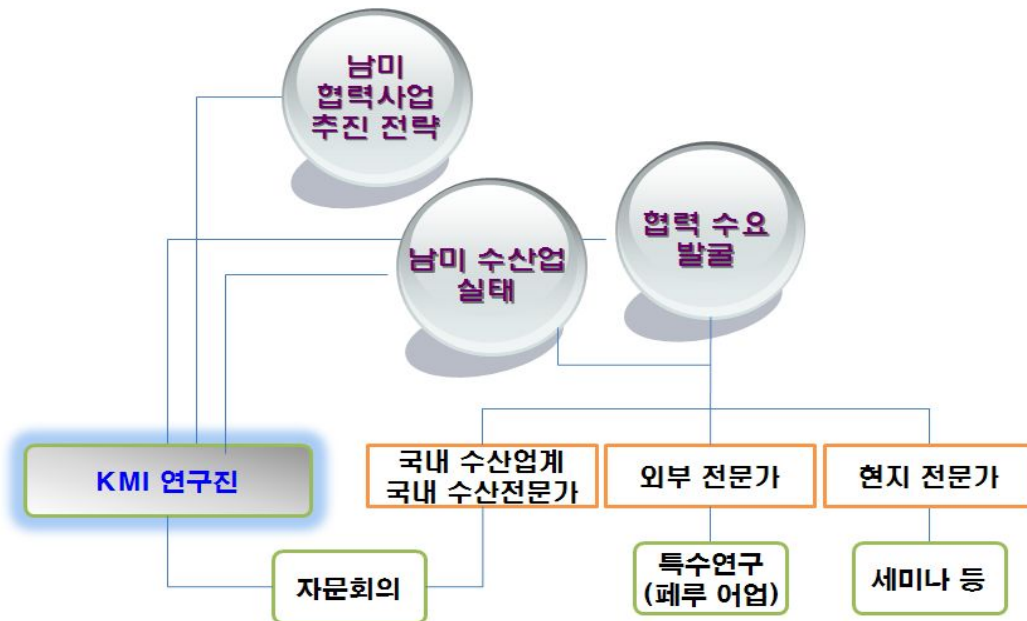
<그림 1-2> 연구의 추진 방법



본 연구는 KMI 연구진 이외에 미국 알칸소 대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연구진들이 원고작성 및 자문회의에 참여하였다. 미국의 알칸소 대학에서는 페루와 브라질의 수산업에 대해서 연구하였으며,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국외국어대학에서는 남미지역과 페루, 브라질 각각의 경제사정에 대해 거시적 관점에서 원고

작업 및 자문을 하였다. 또한 수산부문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원양업계, 원양산업진출센터, 남미지역 대사관, 해외진출 사업체 등을 통해 협력사업 수요를 발굴하였다.

<그림 1-3> 연구의 추진 체계



제2장 남미 주요국의 경제 현황 및 전망

제1절 남미 개관

제2절 페루

제3절 브라질

제2장 남미 주요국의 경제 현황 및 전망

제1절 남미 개관

1. 40년만의 최장의 경기호황

라틴아메리카 경제는 잃어버린 5년(1998년~2002년)을 탈피해, 지난 5년간(2004년~2008년) 연평균 5.4% 성장을 기록하며 40년 만에 최장의 경기호황을 기록했다. 일부에서는 이 같은 라틴아메리카 경제의 안정적 성장세를 라틴아메리카 경제의 골디락스(Goldilocks, 고성장-저물가 경제)¹⁾라고도 평가한다.

최근 라틴아메리카 경제의 빠른 성장세는 수출, 소비 및 투자 증가 등 경제성장의 3박자가 조화를 이룬 결과로 평가한다. 먼저 최근 라틴아메리카 경제의 높은 성장세는 빠른 수출 증가에 힘입은바 컸다. 세계 경제호황에 따른 국제상품 수요 급증과 이에 따른 교역조건²⁾ 개선에 힘입어 2000년대 들어 수출은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했다. 교역조건은 2000년대 들어 꾸준히 개선되어 2008년 교역조건은 2000년 대비 21.4% 증가했다. 교역조건 개선에 힘입어 2003년~2008년 기간 수출은 연평균 17% 증가해 2008년 수출액은 사상 최고인 8,835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 급증에 힘입어 무역흑자는 2003년 565억 달러에서 2006년 904억 달러로 정점에 달했으며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 2008년에는 345억 달러에 그쳤다. 무역흑자 확대에 힘입어 2003년 이후 경상수지도 흑자로 전환되었다. 경상수지는 2007년까지 흑자세가 지속되어오다 2008년 적자세로 돌아섰다. 이 같은 쌍둥이 흑자 증가에 힘입어 외환보유고도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하며, 라틴아메리카 경제의 대외취약성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라틴아메리카 외환

1) 골디락스 경제(Goldilocks)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호황을 의미하는 경제학 용어이다. 영국 전래동화 《골디락스와 곰 세마리》에 등장하는 소녀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으로, 소녀는 곰이 끓인 세 가지 스프 중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 그리고 적당한 것 중에서 적당한 것을 먹고 기뻐한 것에서 따온 말이다.

2) 교역조건(交易條件 Terms of Trade)이란 상품 1단위의 수출로 얻은 외화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단위, 즉 수출입품의 교환비율을 말한다. 특정한 기준연도의 수출입품 물가지수를 100으로 하고 그 후 어떤 시기의 수출입품 물가 180이 되고 M이 150이 됐다면 그 값은 1.2가 돼 교역조건은 20% 유리한 것으로 된다. 이같이 수출입품의 가격을 비교해서 얻어지는 교역조건을 상품교역조건이라 한다.

보유고는 2002년부터 꾸준한 증가세로 돌아서 2008년에는 5,000억 달러를 상회했다. 2008년 외환보유고 규모는 2002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였다.

<표 2-1> 라틴아메리카 거시경제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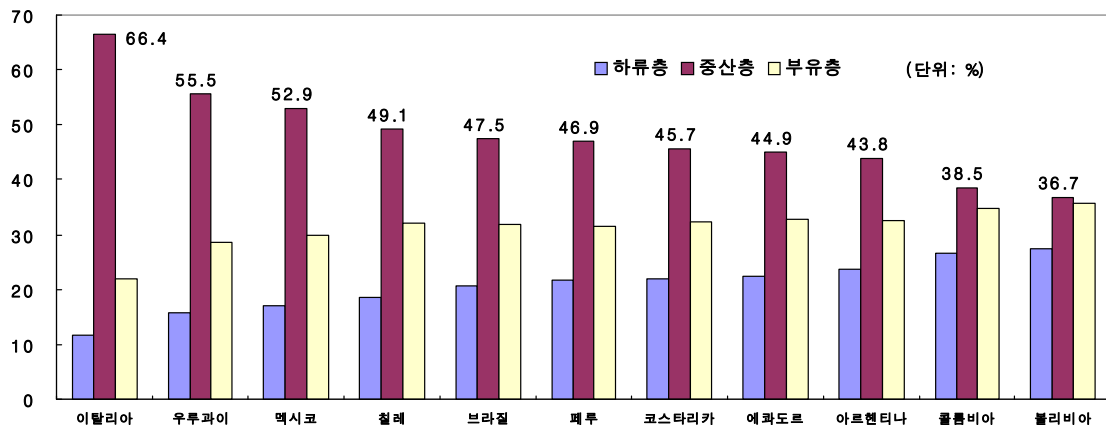
항목	단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GDP	연증	4.0	0.4	-0.4	2.2	6.1	4.9	5.8	5.8	4.2	
1인당GDP	가율	2.5	-1.0	-1.7	0.9	4.7	3.6	4.4	4.4	2.9	
소비자물가	(%)	9.0	6.1	12.2	8.5	7.4	6.1	5.0	6.4	8.4	
실업률	%	10.4	10.2	11.0	11.0	10.3	9.1	8.6	7.9	7.4	
총외채 (GDP대비)		35.2	36.4	40.2	40.4	34.8	25.2	20.9	20.5	18.0	
경상수지	백만 달러	-48,701	-54,048	-16,188	8,580	20,889	33,921	43,817	11,301	-33,542	
무역수지		-1,301	-8,123	19,868	40,155	55,423	75,395	90,448	62,998	34,512	
수출		363,967	348,998	352,903	384,246	473,449	569,286	677,875	763,336	883,553	
수입		365,269	357,121	333,035	344,092	418,026	493,891	587,428	700,337	849,092	
외환보유고		171,298	169,408	167,959	201,185	227,838	263,207	320,757	459,550	512,214	
순FDI		71,520	66,111	50,261	37,197	48,680	53,766	30,173	85,384	90,484	
재정수지		GDP	-2.6	-3.2	-2.9	-3.0	-1.9	-1.1	0.0	0.3	-0.3
정부부채		대비, %	47.3	49.5	64.3	61.9	55.1	47.4	39.7	32.7	30.8

자료 : ECLAC

여기에 높은 소비지출도 라틴아메리카 경제성장세를 견인했다. 라틴아메리카 경제는 2000년대 들어 적극적인 개방정책에 힘입어 수출입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수입대체산업화의 전통이 남아 있어 아직까지 내수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소비증가는 라틴아메리카 경제성장의 가장 큰 동력원으로 작용했다. 대표적으로 브라질의 경우 GDP에서 차지하는 소비의 비중이 60%를 상회했다. 물가안정에 따른 금리 인하는 가계신용대출을 증가시켰으며, 교역조건 개선에 따라 국민소득(GNI) 증가는 구매력을 증가시켰다. 또한 해외거주 라틴아메리카인들의 송금 증가, 고용증대 및 실질임금 증가에 따른 가처분 소득 확대 등의 요인에 힘입어 소비는 2003년 이후 두 자리 수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경제성장을 견인했다. 소비자물가는 신중한 물가안정 정책과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 물가하락 등의 영향에 힘입어 2002년 12.2%에서 점차 하락해 2006년에는 5%까지 떨어졌지만, 2008년에는 8.4%로 증가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확대로 실업률은 2002년 11%에서 점차 하락해 2008년 7.4%까지 줄었다. 해외직접투자에 이어 제2의 자본조달 창구로 주목받고 있는 해외송금유입은 2000년

대 들어 두 자리 수의 증가율을 기록해 2008년에는 600억 달러를 넘어섰다. 특히 왕성한 소비층을 형성하고 있는 중상류층이 크게 증가하며 소비확대를 견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브라질의 경우 최근 5년간(2004~08년) 중산층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2.26%에서 51.89%로 증가하였으며, 상류층 가구의 비중도 11.61%에서 15.52%로 증가했다. 그에 반해 빈곤층 가구의 비중은 46.13%에서 32.59%로 크게 감소했다.

<그림 2-1> 라틴아메리카 국별 중산층 비중 현황



자료 : OECD(2010)

2006년부터 높은 투자 증가세도 견조한 라틴아메리카 경제성장세를 견인했다. 내수 팽창, 금리인하, 주식시장 발전에 따른 자본조달의 용이성 등에 힘입어 그간 주춤했던 투자도 2006년부터 두 자리 수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천연자원 보고로서 라틴아메리카 경제의 중요성 부각, 안정적 경제성장세에 힘입은 투자환경 개선 등의 덕택으로 그간 주춤했던 외국인직접투자도 2007년부터 큰 폭의 증가세로 돌아서 2008년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 결과, GDP대비 투자율은 2004년 17.4%에서 2008년 21.8%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지속된 라틴아메리카 경제의 안정적 성장세는 중남미 경제의 체질을 크게 강화시켰다. 먼저 라틴아메리카 대부분의 국가들이 신중한 재정정책을 추진한 결과, 재정수지가 크게 개선되며 라틴아메리카 경제의 만성적인 불안요인인 정부부채가 크게 감소했다. 브라질, 칠레, 페루 등 일부 국가들의 경우 재정지출의 상한선을 법으로 제한한 재정책임법, 구조적재정수지준칙 등의 제도를 도입해 방만한 재정지출을 억제했다. 또한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과거와 달리 최근 경기호황기에도 재정지출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 라틴아메리카의 재정수지는 2003년

GDP대비 3.0% 적자에서 지속적으로 하락, 2007년에는 일시적으로 플러스로 전환되었다. 이 같은 재정수지 개선에 힘입어 라틴아메리카의 정부부채는 2002년을 기점(GDP대비 64.3%)으로 하락세로 돌아서 2008년에는 절반 수준(GDP대비 30.8%)으로 하락했다. 둘째, 지속적인 수출확대에 따른 큰 폭의 무역흑자로 대외수지도 크게 개선되었다. 외환보유고 증가에다 국내자본시장의 발달로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국제자본시장에 대한 의존도도 크게 감소했다. 그 결과, GDP대비 총 외채 규모는 2003년 40.4%를 기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서 2008년에는 18.0%로 크게 감소했다. 셋째,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제고되었다. 멕시코, 칠레, 브라질, 페루, 콜롬비아 등 시장친화적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국가들에서 변동환율, 물가목표제, 건전재정 등 거시경제정책의 3각축이 공고하게 추진되며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경제정책에 대한 대내외의 신뢰도가 크게 제고되었다.

2. 글로벌 금융위기가 라틴아메리카 경제에 미친 영향

1) 글로벌 금융위기의 라틴아메리카 전염 경로

글로벌 금융위기는 수출 둔화, 1차 상품 가격 급락, 해외송금 유입 감소, 관광수입 감소, 해외직접투자 유입 감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라틴아메리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대미 의존도가 높을수록, 1차 상품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을수록 피해가 컸다. 국별로는 대미 의존도가 가장 높고 석유 등 1차 상품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멕시코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표 2-2> 라틴아메리카의 대미 및 1차 상품 수출의존도, 해외송금 의존도 현황

분류	국가
대미 수출의존도 (07년, 총수출대비)	멕시코(75.9%), 도미니카공화국(67.1%), 엘살바도르(47.3%), 베네수엘라(42.4%), 과테말라(39.6%), 콜롬비아(28.5%), 코스타리카(24.9%), 브라질(14.1%), 칠레(12.5%), 아르헨티나(7.4%)
1차상품 의존도 (03~06년 평균, 총수출대비)	베네수엘라(96%), 페루(69%), 아르헨티나(59%), 칠레(58%), 콜롬비아(53%), 브라질(42%), 멕시코(15%)
해외송금 의존도 (07년, GDP대비)	온두라스(20.8%), 엘살바도르(18.1%), 니카라과(12.9%), 과테말라(12.3%), 콜롬비아(2.6%), 코스타리카(2.5%), 멕시코(2.3%)

자료: EIU Viewswire, IMF, Global Insight 자료를 토대로 작성

<표 2-3> 글로벌 금융위기의 라틴아메리카 전염효과 전망

구 분	1차 상품 순수입국	1차 상품 순수출국
高(대미 의존도)	(1)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2) 멕시코
低(대미 의존도)	(3) 자메이카, 파나마, 파라과이, 우루과이	(4)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베네수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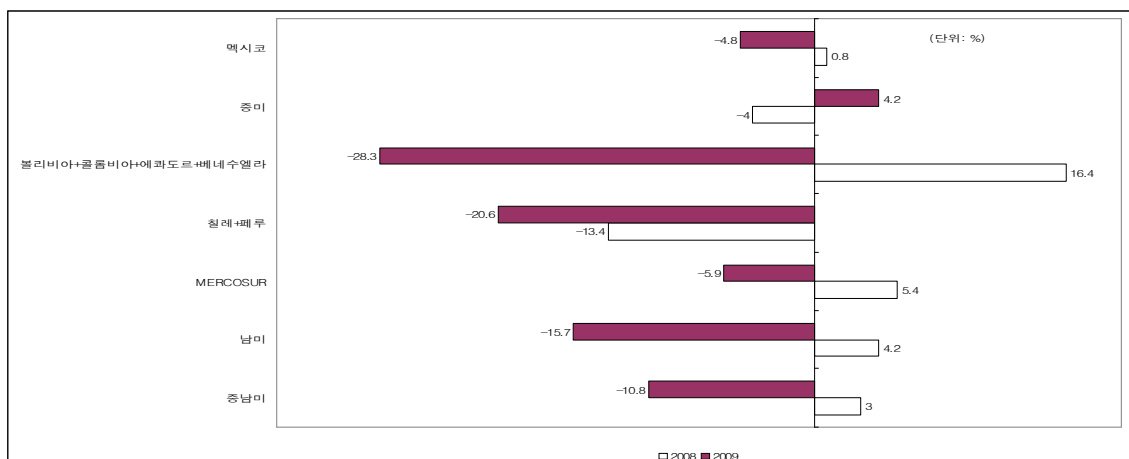
자료 : Lustig(2008)

2) 실물부문에 미친 영향

가. 수출입

글로벌 금융위기는 먼저 라틴아메리카 수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경제의 침체는 1차산품의 수출 가격하락을 가져와 라틴아메리카 자원부국의 수출하락을 부채질했다. 라틴아메리카의 교역조건은 2008년 3%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2009년에는 10.8%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중미보다는 남미의 교역조건 하락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국별로는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등 대표적인 석유/가스 수출국 경제의 교역조건 하락세(2009년 -28.3%)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광물 수출국보다는 석유/가스 등 에너지 수출국의 교역조건 악화가 보다 현저하게 나타났다.

<그림 2-2> 라틴아메리카 교역조건 변화(2008~2009년)



자료 : ECLAC

그 결과, 라틴아메리카의 수출은 2008년 4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세로 진입했다. 국별로는 칠레가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 가장 빠른 2008년 3분기부터 수출 감소세를 기록했다. 라틴아메리카의 수출은 2009년 4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세로 반전되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의 수출은 2009년 4분기까지도 감소세를 기록했다.

2009년 라틴아메리카의 수출은 전년비 21.1% 감소한 7,580억 달러에 머물렀다. 국별로는 베네수엘라의 수출 감소세(전년비 38.3% 감소)가 가장 두드러졌으며 에콰도르(-25%), 볼리비아(-24.8%), 브라질(-22.7%), 멕시코(-21.1%), 아르헨티나(-20.5%), 칠레(-18%) 순으로 높은 감소세를 기록했다. 2009년 라틴아메리카의 수출 감소세는 전 세계 수출 감소세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표 2-4>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수출증가율 추이

단위 : %

국가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아르헨티나	17.5	16.7	15.2	20.1	25.6	-20.5
볼리비아	34.3	30.1	38.8	15.1	44.6	-24.8
브라질	32.0	22.6	16.5	16.6	23.2	-22.7
칠레	50.4	26.9	41.8	15.7	-3.0	-18.0
콜롬비아	24.6	26.3	15.9	21.3	26.2	-11.6
에콰도르	23.6	31.3	25.9	12.9	28.8	-25.0
멕시코	14.1	13.9	16.7	8.9	7.2	-21.1
페루	40.9	35.6	37.2	17.0	13.1	-14.7
베네수엘라	46.5	40.2	17.5	5.8	34.6	-38.3
중남미	21.4	18.6	18.1	11.8	15.4	-21.1
전 세계	21.3	14.1	15.6	15.4	14.4	-22.2

자료 : Global Insight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내수 침체로 수입도 2008년 4분기부터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으며, 2009년 1분기부터 두 자릿수 마이너스 성장세로 진입했다. 국별로는 멕시코가 2008년 4분기부터 감소세를 기록했다. 그에 반해 베네수엘라는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보다 가장 늦은 2009년 2분기부터 수입 감소세를 나타냈다. 수출과 달리 라틴아메리카의 수입은 2009년 4분기까지도 지속적인 감소세를 기록했다.

2009년 라틴아메리카 전체 수입은 전년비 24% 감소한 6,850억 달러에 그쳤다. 국별로는 아르헨티나(전년비 31.9% 감소), 칠레(-31%), 브라질(-26.3%), 페루(-26.1%), 멕시코(-24%) 순으로 수입 감소세가 현저했다. 2009년 라틴아메리카의 수입 감소세는 전 세계 수입 감소세를 상회하는 수준을 나타냈다.

<표 2-5>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수입증가율 추이

단위 : %

국가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아르헨티나	62.0	28.0	19.3	30.6	28.4	-31.9
볼리비아	14.1	26.6	20.6	22.8	44.2	-12.1
브라질	30.1	17.1	24.1	32.0	43.5	-26.3
칠레	27.7	32.9	17.8	22.5	30.9	-31.0
콜롬비아	19.6	26.8	23.4	25.5	20.6	-16.1
에콰도르	20.5	26.3	17.5	14.5	36.4	-19.7
멕시코	15.4	12.7	15.5	10.2	9.5	-24.0
페루	19.0	23.2	23.4	32.0	45.1	-26.1
베네수엘라	65.0	41.6	39.5	37.0	8.0	-20.8
중남미	20.0	16.7	18.2	18.1	20.4	-24.0
전 세계	21.8	13.8	15.1	15.0	15.0	-22.7

자료 : Global Insight

수출 감소세를 증가하는 수입 하락세로 2009년 라틴아메리카의 무역수지흑자는 2008년보다 120억 달러 증가한 740억 달러를 기록했다. 국별로는 브라질이 250억 달러로 가장 큰 무역흑자를 기록했으며, 그 뒤를 베네수엘라(190억 달러), 아르헨티나(190억 달러), 칠레(140억 달러), 페루(60억 달러) 등이 이었다. 멕시코는 무역적자를 기록했으나, 그 규모는 2008년보다 크게 감소했다.

<표 2-6>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무역수지 추이

단위 : 10억 달러

국가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아르헨티나	13.2	13.0	13.8	13.2	15.5	18.5
볼리비아	0.3	0.5	1.1	1.0	1.5	0.5
브라질	33.6	44.7	46.5	40.0	24.8	25.3
칠레	9.8	11.0	22.9	24.1	8.5	14.4
콜롬비아	1.3	1.6	0.4	-0.6	1.0	2.6
에콰도르	0.3	0.8	1.8	1.8	1.4	0.1
멕시코	-8.7	-7.5	-6.1	-10.1	-17.3	-4.6
페루	3.0	5.3	8.9	8.2	3.0	5.8
베네수엘라	22.9	31.9	32.2	23.6	44.0	18.6
중남미	73.9	96.4	113.1	86.6	62.1	74.8
전 세계	5.6	25.0	82.7	145.3	100.6	15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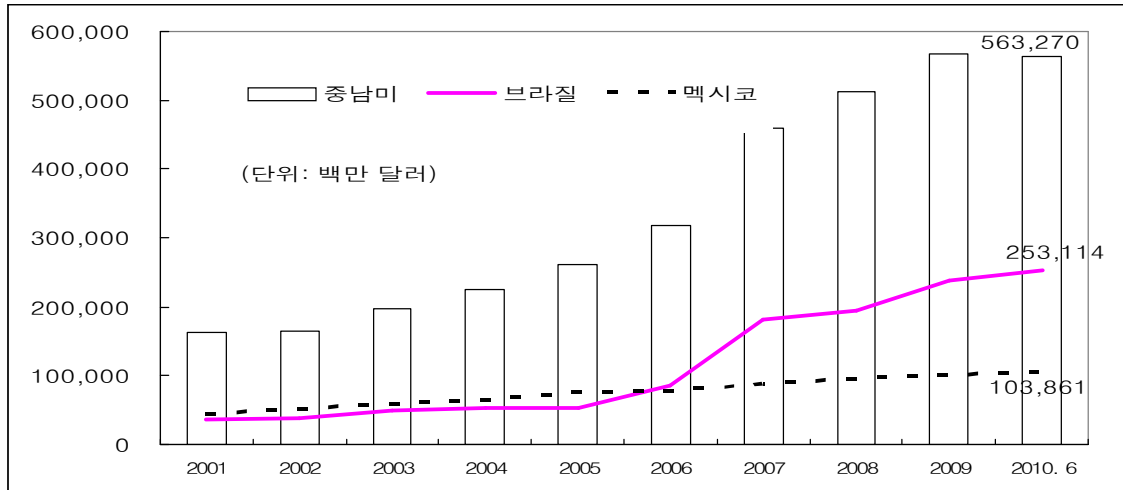
자료 : Global Insight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속에서도 라틴아메리카의 외환보유고는 무역흑자 증가에 힘입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2009년 외환보유고는 2008년보다 860억 달러 증가

한 5,530억 달러를 기록했다. 국별로는 브라질(전년비 23% 증가), 칠레(10%) 순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그에 반해 베네수엘라의 경우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 유일하게 외환보유고가 감소세(전년비 13%)를 보였다.

<그림 2-3> 라틴아메리카 외환보유고 추이

단위 : 10억 달러, 연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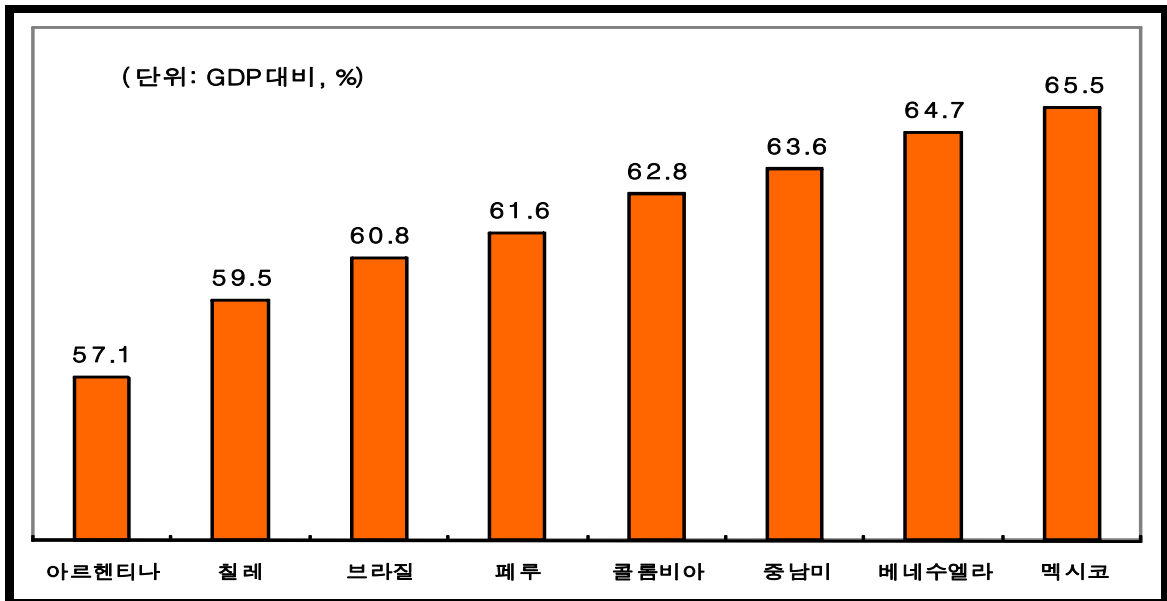
자료 : EIU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라틴아메리카 경제는 예외없이 커다란 타격을 받았다. 당초 중국 등 아시아 경제권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남미 국가들의 수출 감소세가 멕시코나 중미 국가들의 수출 감소세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실제 결과는 커다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남미 국가들의 수출 하락세가 더욱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 소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본격화되며 그간 라틴아메리카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소비도 타격을 받기 시작했다. 라틴아메리카 경제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상회하기 때문에 소비의 향방은 라틴아메리카 경제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간주되어왔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소비는 2009년 1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세로 진입했다. 국별로는 멕시코가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 가장 빠른 2008년 4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세로 전환되었다. 2009년 4분기 들어서야 라틴아메리카지역의 소비는 플러스 성장세로 반전되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멕시코는 2009년 4분기까지도 소비 감소세를 탈피하지 못했다.

<그림 2-4> 라틴아메리카 각국 경제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2010년)



자료 : EIU

2009년 라틴아메리카의 소비는 전년비 0.2% 감소에 그쳤다. 국별로는 멕시코(전년비 6.1% 하락), 베네수엘라(-3.2%), 에콰도르(-0.7%) 순으로 소비 하락세가 현저했다. 그에 반해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콜롬비아 등 대부분 남미국가들에서 소비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증가세를 보였다. 이 같은 소비 증가세는 남미 각국이 실시한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의 결과로 해석된다.

<표 2-7> 중남미 주요국의 소비증가율 추이

(단위: %)

국가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아르헨티나	9.5	8.9	7.8	9.0	6.5	0.5
볼리비아	2.9	3.3	4.1	4.2	5.5	3.7
브라질	3.8	4.5	5.2	6.1	7.0	4.1
칠레	7.2	7.4	7.1	7.0	4.6	0.8
콜롬비아	3.9	4.0	6.4	7.3	3.0	1.1
에콰도르	4.6	7.3	5.4	3.7	6.9	-0.7
멕시코	5.6	4.8	5.6	4.0	1.9	-6.1
페루	3.6	4.6	6.4	8.3	8.7	2.4
베네수엘라	15.4	15.7	15.5	18.7	7.1	-3.2
중남미	5.5	5.5	6.0	6.3	5.0	-0.2
전 세계	3.3	3.4	3.6	3.5	1.5	-0.5

자료 : Global Insight

다. 산업생산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라틴아메리카의 산업생산은 2008년 4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했다. 국별로는 멕시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의 산업생산이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보다 빨리 침체에 직면했다. 그에 반해 아르헨티나와 페루의 산업생산은 다른 중남미 국가보다 늦은 2009년 1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세로 진입했다. 라틴아메리카의 산업생산은 2009년 4분기부터 성장세로 반전되었다. 그러나 칠레, 페루, 베네수엘라, 멕시코의 산업생산은 2009년 4분기까지도 마이너스 성장세를 지속했다.

2009년 전체적으로 라틴아메리카의 산업생산은 큰 폭의 감소세(-6.8%)를 기록했다. 국별로는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 비교적 제조업 기반이 강한 베네수엘라(-11.9%), 브라질(-7.4%), 멕시코(-7.3%), 페루(-7.2%)가 지역 평균보다 심각한 산업생산 감소를 기록했다. 그에 반해 아르헨티나는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 유일하게 미미하나마 산업생산 증가세를 기록했다.

<표 2-8>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산업생산 증가율 추이

단위 : %

국가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아르헨티나	10.7	8.0	8.4	7.5	4.7	0.6
브라질	8.3	3.1	2.8	6.0	3.1	-7.4
칠레	8.8	5.4	3.2	4.1	0.2	-6.7
콜롬비아	6.3	4.1	11.0	11.0	-2.7	-5.7
멕시코	3.7	2.8	5.7	2.0	-0.6	-7.3
페루	7.4	7.5	7.5	11.1	9.1	-7.2
베네수엘라	28.9	11.3	10.1	6.9	1.4	-11.9
중남미	7.5	4.2	5.3	5.3	1.8	-6.8
전 세계	4.1	3.2	4.2	4.2	-0.4	-8.8

자료 : Global Insight

산업생산의 감소로 그간 소비와 더불어 라틴아메리카 경제성장을 견인해왔던 투자도 큰 폭의 감소세로 돌아섰다. 국별로 칠레가 가장 큰 폭의 투자 감소세(전년대비 15.2% 하락)를 기록했으며 그 뒤를 아르헨티나(-10.2%), 멕시코(-10.1%), 브라질(-9.9%) 등이 이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에서는 볼리비아와 콜롬비아만이 투자 증가세를 기록했다.

<표 2-9>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투자 증가율 추이

단위 : %

국가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아르헨티나	34.5	22.7	18.2	13.7	9.1	-10.2
볼리비아	-1.1	6.7	9.3	12.6	18.7	2.9
브라질	9.1	3.6	10.0	13.9	13.4	-9.9
칠레	9.9	23.9	2.5	11.2	18.7	-15.2
콜롬비아	11.1	13.2	18.1	14.4	4.9	2.7
에콰도르	4.9	10.8	3.8	2.5	16.1	-4.3
멕시코	8.0	7.4	9.9	6.9	4.4	-10.1
페루	7.7	12.0	18.9	22.6	28.3	-8.6
베네수엘라	49.7	38.4	29.3	25.3	-3.3	-8.2
중남미	11.6	10.0	11.9	12.0	8.6	-9.0
전 세계	6.0	6.3	6.2	5.2	0.9	-7.1

자료 : Global Insight

2008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던 외국인직접투자(FDI)도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전년비 41.8%% 감소한 773억 달러를 기록했다. 국별로는 멕시코(전년비 50.7% 감소), 아르헨티나(-49.8%), 브라질(-42.4%), 콜롬비아(-32%), 페루(-31.3%) 순으로 높은 감소세를 기록했다.

<표 2-10>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순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추이

단위 : 10억 달러

국가	2000-2005 연평균	2006	2007	2008	2009	증감률 (2008-09)
브라질	19,197	18,782	34,585	45,058	25,949	-42.4
칠레	5,012	7,298	12,534	15,181	12,702	-16.3
콜롬비아	3,683	6,656	9,049	10,583	7,201	-31.9
아르헨티나	4,296	5,547	6,473	9,726	4,895	-49.6
페루	1,604	3,467	5,491	6,924	4,760	-31.2
에콰도르	839	271	194	1,001	312	-68.8
볼리비아	350	278	362	508	418	-18.0
베네수엘라	2,546	-508	1,008	349	-3,105	-990.0
멕시코	22,327	19,779	27,311	23,170	11,418	-50.7
남미	37,974	43,370	71,227	91,279	54,454	-40.3
중미	2,549	5,756	7,235	7,487	5,027	-32.8
라틴아메리카	66,370	74,794	111,844	131,938	76,681	-41.8

자료 : ECLAC

라. 경제성장률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수출 감소, 소비 및 산업생산 하락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경제는 2009년 1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세로 진입했다. 국별로는 미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멕시코, 콜롬비아 등이 2008년 4분기부터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보다 빨리 경기침체에 직면했다. 그에 반해 아르헨티나, 페루, 베네수엘라 등은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비해 뒤늦은 2009년 2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세에 진입했다.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2009년 4분기부터 경기침체를 탈피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은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은 2009년 4분기 까지도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했다.

<표 2-11>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 전년동기대비

국가	2008-Q3	2008-Q4	2009-Q1	2009-Q2	2009-Q3	2009-Q4	2010-Q1	2010-Q2
아르헨티나	6.9	4.1	2.0	-0.8	-0.4	2.6	6.4	12.2
볼리비아	7.1	4.2	2.1	4.2	3.3	3.7	3.4	4.3
브라질	7.1	0.8	-2.1	-1.6	-1.2	4.3	9.0	8.8
칠레	4.4	0.6	-1.9	-4.1	-1.8	2.1	1.5	6.5
콜롬비아	3.1	-1.5	-0.4	-0.2	0.9	3.0	4.2	4.5
에콰도르	6.5	4.2	0.3	-0.2	0.3	1.1	1.7	2.1
멕시코	1.6	-1.1	-7.9	-10.0	-6.1	-2.3	4.3	7.6
페루	10.9	6.5	1.9	-1.2	-0.6	3.4	6.1	10.1
베네수엘라	3.8	3.5	0.5	-2.6	-4.6	-5.8	-5.2	-1.9
라틴아메리카	4.7	0.9	-2.4	-3.6	-2.3	1.0	5.3	6.8
전 세계	1.7	-0.9	-3.4	-3.0	-1.9	0.9	3.8	4.2

자료 : Global Insight

2009년 전체적으로 라틴아메리카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1990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했다. 국별로는 멕시코가 -6.5% 경제성장률로 가장 큰 경기침체를 겪었으며 그 뒤를 베네수엘라(-3.2%), 칠레(-1.4%), 브라질(-0.2%) 등이 이었다.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경기침체를 겪었으나 아르헨티나, 페루, 콜롬비아 등은 플러스 성장세를 기록했다.

<표 2-12>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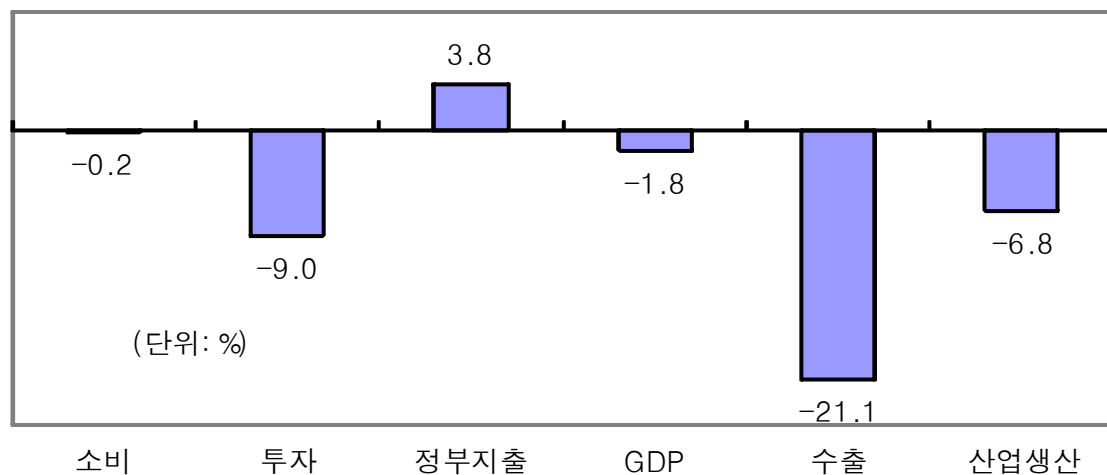
단위 : %

국가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격차 (2009-2008)
아르헨티나	9.0	9.2	8.5	8.7	6.8	0.9	-5.9
볼리비아	4.2	4.4	4.8	4.6	6.1	3.4	-2.8
브라질	5.7	3.2	4.0	6.1	5.1	-0.2	-5.3
칠레	5.9	5.6	4.8	4.7	3.4	-1.4	-4.9
콜롬비아	5.3	4.7	6.7	6.9	2.7	0.8	-1.9
에콰도르	8.8	5.7	4.8	2.0	7.2	0.4	-6.9
멕시코	4.0	3.2	4.9	3.3	1.5	-6.5	-8.1
페루	5.0	6.8	7.7	8.9	9.8	0.9	-8.9
베네수엘라	18.5	10.3	9.8	8.2	4.8	-3.1	-8.0
라틴아메리카	5.6	4.5	5.4	5.4	4.0	-1.8	-5.8
전 세계	3.9	3.6	4.2	4.1	1.8	-1.8	-3.6

자료 : Global Insight

요소별로 2009년 라틴아메리카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은 수출 감소(전년비 21.1% 감소), 투자 감소(-9%), 산업생산 감소(-6.8%)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에 반해 라틴아메리카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통한 정부지출 확대(전년비 3.8% 증가)는 라틴아메리카 경제의 경착륙을 막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다. 이 같은 중남미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소비는 전년비 0.2% 하락에 그쳤다.

<그림 2-5> 2009년 라틴아메리카 요소별 경제실적



자료 : Global Insight

국별로 2009년 재정지출은 페루(전년비 16.5% 증가), 아르헨티나(7.3%), 칠레(6.8%), 에콰도르(4.0%), 볼리비아(3.8%), 브라질(3.7%) 순으로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2009년 라틴아메리카의 재정지출 증가율은 전 세계 재정지출 증가율을 상회하는 것이었다.

<표 2-13>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정부지출 증가율 추이

단위 : %

국가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아르헨티나	2.7	6.1	5.2	7.6	6.9	7.3
볼리비아	3.1	3.4	3.3	3.8	3.9	3.8
브라질	4.0	2.5	2.5	5.3	1.6	3.7
칠레	6.0	5.9	6.4	7.2	0.5	6.8
콜롬비아	6.3	5.2	5.6	6.0	2.6	2.8
에콰도르	3.6	3.5	3.6	6.1	11.5	4.0
멕시코	-2.7	2.6	1.9	3.1	0.9	2.3
페루	4.1	9.1	7.6	4.5	2.1	16.5
베네수엘라	14.2	10.7	9.6	6.1	6.7	2.3
라틴아메리카	2.3	3.6	3.2	5.0	2.2	3.8
전 세계	2.2	2.2	2.5	2.7	3.2	3.3

자료 : Global Insight

라틴아메리카 각국이 경기침체 억제를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함에 따라 2009년 라틴아메리카의 재정수지는 2008년 대비 크게 악화되었다. 국별로는 베네수엘라(-6.5%), 칠레(-4.7%), 콜롬비아(-3.8%)가 지역 평균 이상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에서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등의 경우 재정수지가 흑자에서 적자로 반전되었다.

<표 2-14>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재정수지 추이

단위 : %, GDP대비

국가	2007	2008	2009
아르헨티나	1.2	1.4	-0.6
브라질	-2.7	-1.9	-3.3
칠레	9.9	6.2	-4.7
콜롬비아	-2.8	-1.8	-3.8
멕시코	0.0	-0.6	-2.8
페루	3.1	2.1	-2.1
베네수엘라	-2.6	-2.4	-6.5
중남미	-1.0	-0.9	-3.4

자료 : Global Insight

3) 라틴아메리카 경제의 위기대응능력 개선 배경

선진국에서의 경기침체와 금융위기가 라틴아메리카에서 통화위기나 외채위기 혹은 은행위기로 비화되지 않은 것은 1800년대 초 독립이후 처음이다. 이 같이 라틴아메리카 경제가 위기에 강해진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그 이유를 통화불일치 감소, 유연한 환율제도, 은행제도의 건전성 강화, 팽창적 재정 및 통화정책 추진,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 개도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 증가 등으로 설명한다.

가. 통화불일치 감소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많은 신흥시장경제에서 통화불일치(currency mismatch)는 금융위기의 주범이었다. 통화 불일치란 외화로 표시된 부채와 자국통화로 계산된 자산이 다른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달러를 빌려 원화로 교환해 쓰는 기업의 경우 원화 가치가 낮아지면 갑자기 원화를 기준으로 한 부채 규모가 커져 부도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최근 라틴아메리카에서 통화불일치의 대표적인 사례는 2001~02년 발생한 아르헨티나 경제위기를 들 수 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라틴아메리카 각국에서 통화불일치가 크게 감소했다. 통화 불일치 감소는 먼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부채 중 외화표시 부채가 줄어든데서 발견할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외화표시 부채의 비중은 2000년대 초반 40%에서 2007~08년 20%미만으로 하락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금융위기를 통해서 뼈아픈 교훈을 체득한 많은 라틴아메리카 기업, 은행 및 정부는 통화위기에 대한 익스포저를 줄이기 위해 외화표시 부채를 자국통화 표시 부채로 전환했다. 때마침 라틴아메리카 각국에서 채권시장의 발전과 연기금의 전면적 혹은 부분적인 민영화에 따른 민간연기금의 성장도 라틴아메리카 각국에서 자국통화 부채로의 전환에 크게 일조했다.

또한 라틴아메리카 각국에서 통화불일치 감소는 순외화표시자산의 크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순외화표시자산은 2000년대 초 -2,600억 달러에서 2008년 말에는 1,500억 달러로 급증했다. 이 같이 라틴아메리카 순외화표시자산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한 이유는 라틴아메리카 외환보유고의 급증에서 찾을 수 있다. 2000년대 초 이후 라틴아메리카지역의 외환보유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속에서도 전년비 860억 달러 증가한 5,530억 달러를 기록했다.

나. 유연한 환율제도

최근 라틴아메리카 경제 성장 패턴의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대외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점이다. 이 같이 라틴아메리카 경제의 대외취약성이 개선된 이유는 환율제도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1990년대 후반 라틴아메리카 경제의 위기 요인 중의 하나는 경직된 환율제도에 기인한 측면이 강했다. 1990년대 들어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인플레이 억제에 한 수단으로 고정환율제도를 도입했다. 고정환율제는 실제로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인플레이 억제에 크게 기여하긴 했으나 환율 고평가에 따른 불안요인을 낳았다. 실증적 연구에 따르면 대외충격은 보다 엄격한 환율제도를 실시하는 국가들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 대외충격에 따른 부정적 비용이 긍정적 이익을 능가한다. 다른 변수들을 다 통제할 경우 보다 유연한 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이 고정환율제를 갖고 있는 국가들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경향을 보인다. 게다가 최근의 실증연구에 따르면 보다 유연한 환율제도는 기업들이 통화불일치 피해를 막아주는 역할도 한다.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1990년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환율제도를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전환했다. 1994년 멕시코를 필두로 1999년 브라질, 2002년에는 중남미 국가 중 가장 경직된 고정환율제(통화위원회제도³⁾)를 유지해오던 아르헨티나가 변동환율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달러라이제이션을 채택하고 있는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이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게 되었다. 또한 많은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 통화정책이 종전 환율목표에서 물가목표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경기침체와 갑작스런 자금유입의 중단(sudden stop)이 2008년 9월부터 라틴아메리카를 강타했을 때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환율을 평가절하 해서 충격을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었다.

3) 통화위원회제도(通貨委員會制度 Currency Board System)란 미국달러화의 유입과 유출에 맞춰 자국 통화량을 조절하고 환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일종의 고정환율제도이다. 이 제도는 달러화가 국내에 유입되면 그만큼 자국통화를 시장에 방출하고 달러화가 국외로 유출되면 그만큼 자국통화를 시장에서 거둬들여 달러화에 대한 자국통화의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 제도가 유지되기 위해선 정부가 충분한 외화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통화량은 달러화의 유출입에 맞춰 변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통화량 조절책을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아르헨티나의 통화위원회제도는 외환보유고를 본원통화의 100% 이상 유지, 미달러화에 대한 폐소화 환율을 1:1로 고정, 무제한 달러화 교환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지급준비금제도 유지, 공공부문과 금융기관에 대한 중앙은행의 대출한도 설정 등 중앙은행이 재량적으로 통화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둬으로써 정통적인 통화위원회제도에서는 다소 벗어났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한국은행, 1997. 『아르헨티나의 통화위원회제도 운용경험 및 Dollarization 논의』 참조.

<표 2-15>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환율제도의 유형

국가	변동 환율제	중간 환율제	고정 환율제
아르헨티나	X		
브라질	X		
칠레	X		
콜롬비아	X		
멕시코	X		
페루		X	
베네수엘라			X

다. 팽창적 재정 및 통화정책 추진

과거 수 십 년간 라틴아메리카지역에서 재정 및 통화정책은 경기동행성(fiscal procyclicality)이 강했다. 즉 경제가 호황일 경우 팽창적 정책이 추진되었으며 경기가 불황일 경우 긴축적 정책이 실시되었다. 그 결과 라틴아메리카 경제는 거시경제적 혼란과 거시금융적 변동성을 겪어야 했다. 경제가 호황일 경우 정부 수입은 증가하고 재정지출은 증가하게 마련이다. 이에 따라 은행대출도 활발하고 통화는 고평가된다. 그에 반해 경기가 불황일 경우 정부는 필요한 유동성 및 국채를 발행할 신용을 갖지 못해 재정적자 정책을 실시해야 했다.

한편 중앙은행은 경기가 불황일 경우 환율 목표를 훼손하거나 외환보유고를 고갈시키지 않고 팽창적 통화정책을 실시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경기침체에 긴축재정 및 통화정책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설상가상으로 라틴아메리카 경제의 침체를 더욱 부추겼다.

그러나 이번 금융위기에서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재정 및 통화정책은 과거와 사뭇 달랐다. 최근 라틴아메리카 각국은 경기팽창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달리 재정지출을 자제했다.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에 걸친 경제위기를 통해 라틴아메리카 각국은 재정지출 억제를 통한 정부부채 축소만이 지속적 경제성장의 필수요소임을 절감했다. 이에 따라 많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2000년대 들어 재정준칙(fiscal rule)을 도입하여 방만한 지출을 제도적으로 억제했다. 특히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에서도 재정적자에 따른 과도한 정부부채로 1999년 위기를 맞았던 브라질 정부는 지속적인 긴축재정정책에다 지방정부의 지출 상한선을 제한하는 책임재정법을 제정해 기초재정수지(명목재정수지-이자지급분)를 흑자로 유지해오고 있다. 또한 많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외화표시 채무를 국내화 표시 채무로 전환할 수 있었다.

<표 2-16>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들의 재정준칙 도입 및 운영 현황

국가	준칙 형태	도입 시기	구속력	대상	대상기간
아르헨티나	ER.BBR.DR	2000	성문	일반정부	매년
브라질	ER.BBR DR	2000 2001	성문 (헌법)	일반정부	매년
칠레	BBR	2000	정치공약	중앙정부	다년(Cyclical Adjustment)
멕시코	BBR, RR	2006	성문	일반정부	다년 지출 상한
페루	ER, BBR	2000	성문	일반정부	매년

주 : ER: 지출준칙(Expenditure Rule), RR: 수입준칙(Revenue Rule), BBR: 재정수지준칙(Budget Balance Rule), DR: 채무준칙(Debt Rule)

자료 : IMF(2009.12), Fiscal Rules-Anchoring Expectations for Sustainable Public Finance

이에 따라 남미 경제위기가 발발했던 1998~1999년 GDP대비 4~5%에 달했던 재정적자는 라틴아메리카 각국이 IMF의 지도하에 긴축재정 정책을 실시해옴에 따라 지속적으로 하락해 2006년에 적자규모는 GDP대비 0.3%에 그쳤다. 재정수지 개선에 힘입어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부채 비중 또한 크게 감소했다. 라틴아메리카의 GDP대비 부채비중은 1990년대 후반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브라질(1999년), 아르헨티나(2001년)에서의 연이은 경제위기로 2002년 62.7%에 달했으나 2009년에는 33.2%선까지 하락했다.

<표 2-17>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공공부채 추이

단위 : GDP대비 비중, %

국가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아르헨티나	64.8	184.4	156.9	143.3	87.6	76.3	66.7	57.8	57.3
볼리비아	76.7	80.2	89.5	83.9	78.1	52.4	40.0	36.8	39.5
브라질	52.2	60.6	54.9	50.6	38.5	47.0	45.1	38.4	42.8
칠레	20.2	22.1	19.5	16.8	13.0	10.6	9.1	12.0	12.7
콜롬비아	51.6	58.4	56.5	51.6	50.1	47.3	43.8	42.9	45.1
에콰도르	62.7	54.7	49.5	43.7	38.9	32.0	30.2	25.0	19.5
멕시코	24.1	25.7	26.1	24.2	22.9	22.6	22.9	27.0	35.2
페루	44.2	45.7	47.4	41.8	38.2	31.3	27.2	24.5	23.8
베네수엘라	30.4	42.4	46.3	38.1	32.8	24.1	19.5	14.2	18.4
라틴아메리카	48.5	62.7	61.4	54.2	46.5	39.6	33.6	31.6	33.2

자료 : ECLAC

결과적으로 많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해 경기부양책을 실시할 만한 여유를 갖게 되었다. 실제로 라틴아메리카 18개국에서 주택건설이나 인프라 건설, 빈곤층이나 실업자에 대한 현금지원(직접지원), 법인세나 개인소득세 삭감, 브라질에서와 같이 국영은행을 통한 대출 및 보증 등의 경기부양책이 실시되었다.

<표 2-18>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들의 경기부양책

항목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멕시코	페루
지출	인프라투자	T	T	T	S	T
	중소기업/농민지원	T	T	T	S	T
	사회안전망	T		T		T
	주택/건설부문지원	T	T	T	S	
수입	법인세		T	T		T
	개인소득세	P		T		
	간접세		T	T	T	T
GDP대비 비중(% , 2009년)		1.5	0.6	2.9	1.5	2.0

주 : T(임시조치), S(자동 변화 조치, 미래보상<compensatory> 조치들에 의해 비용 조달), P(영구 조치)
 자료 : IMF(2009.5), Regional Economic Outlook: Western Hemisphere

국별로 보다 구체적인 경기부양책을 살펴보면, 먼저 아르헨티나의 경우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 가장 적극적인 공공사업을 추진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내수침체를 막기 위해 2008년 11월 초 공공사업 확충, 제조업 금융지원, 소비자 신용대출 확대 등을 포함한 13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마련했다. 특히 2008년 11월 25일에는 △710억 페소(약 212억달러) 규모의 공공사업 투자 계획, △신규 고용 창출이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업들에 대한 세금 감면, △해외 거주자들의 본국 송금시 각종 혜택부여 등의 추가적인 대책을 발표하는 등 가장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실시했다.

<표 2-19>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경기부양책

국가	주요 내용
아르헨티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사업 확충, 제조업 금융지원, 소비자 신용대출 확대 등을 포함한 13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실시(2008.11) - △710억 페소(약 212억달러) 규모의 공공사업 투자 계획, △신규 고용 창출이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업들에 대한 세금 감면, △해외 거주자들의 본국 송금시 각종 혜택부여 등의 추가적인 대책 발표(2008.11.25)
브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부문 신용 확대(50억 헤알, 2008.10.1) - 건설업 금융 지원(30억 헤알, 2008.10.29) - 농촌생산업자 금융 지원(10억 헤알, 2008.11.5) - 중소기업 금융 지원(50억 헤알, 2008.11.6) - 자동차기업의 소비자 신용 지원(40억 헤알, 2008.11.11) - 건설자재 구입시 금융지원 한도 확대(2008.11.11) - 가전제품(TV, 비디오 등) 및 가구 등에 대한 소매소비 금융 지원(20억 헤알, 2008.11.12) - △21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개발 프로젝트(PAC), △암염하층(Pre-Slat) 해역의 대규모 유전개발, △2014년 월드컵 준비 공사 추진 (2008.11.24)
칠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2009.1.6) · 370만 명의 저소득층에게 월 62달러의 생활보조금 지급 · 10만 명의 직간접 고용창출 기대
콜롬비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지원기금 창설 · 미주개발은행(IDB)과 안데스개발공사(CAF)로부터 기금 확보
멕시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 및 고용촉진프로그램(PICE) 실시(2008.11.22) · 인프라부문에 대한 추가 지출(GDP비 0.7%, 903억 페소) · 석유공사(Pemex)의 투자제도 개선, 인프라 투자촉진법 개혁, 중소기업으로부터 정부조달 규모 확대, 석유정제공장 건설 - 1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2009.1.7) · 대규모 인프라구축 사업 착수, 노후 학교시설과 도로 및 역사유적지 보수 등을 통해 단기일자리 25만개 창출 · 조업을 중단하거나 단축한 업체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50만개 보호 · 유가 1년간 동결, 가정용 가스 가격 10% 인하, 실업수당 확대
페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주택, 병원 등 인프라부문 프로젝트 추진 촉진 - 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IDB), IMF, 안데스개발공사(CAF) 등 다자금융기구로부터 17억 달러 투자자금 확보

자료 : 중남미 각국의 주요 일간지; ECLAC

브라질도 대규모 SOC 사업 및 해저유전개발 사업을 실시했다. 브라질 정부는 수출업자 지원을 위해 수출금융지원을 늘리는 한편, 중소기업, 건설산업, 농촌기업을 위한 직간접적인 금융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브라질 정부는 자동차 구매 소비자신용 확대, 가전제품 소비금융 확대 등 소비 진작을 위한 각종 조치를 실시했다. 특히 2008년 11월 24일 룰라 대통령은 △대규모 인프라 개발 계획인 성장촉진계획(PAC), △암염하층(Pre-Slat) 해역의 대규모 유전개발, △2014년 월드컵 준비 공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2009년 4% 경제성장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멕시코도 성장 및 고용촉진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멕시코 정부는 2008년 11월 인프라 부문에 대한 추가 지출(GDP비 0.7%, 903억 페소), 석유공사(Pemex)의 투자제도 개선, 인프라 투자촉진법 개혁, 중소기업으로부터 정부조달 규모 확대, 석유정제공장 건설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성장 및 고용촉진프로그램(PICE)을 발표했다. 또한 2009년 1월 7일에는 1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대규모 인프라구축 사업 착수, 노후 학교시설과 도로 및 역사유적지 보수 등을 통해 단기 일자리 25만개 창출, 조업을 중단하거나 단축한 업체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50만개 보호, 유가 1년간 동결, 가정용 가스 가격 10% 인하, 실업수당 확대 등이다. 이밖에 칠레, 콜롬비아, 페루 등 대부분 중남미국가들이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각종 인프라 사업을 추진했다.

한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과거와 같이 은행 예금자와 대출자에 대한 구제금융(bail out) 조치 등으로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다. 과거 금융위기에서는 금융권의 구제금융 조치로 막대한 공공자금이 소요되곤 했다. 이번 금융위기에서 통화정책도 과거와 달랐다. 공식적으로 물가목표제(Inflation Targeting)⁴⁾를 실시하고 있는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등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은 팽창적 통화정책을 실시할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

라틴아메리카 각국은 경기침체에 대응해 일련의 금리인하 정책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각국에서 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과거와 달리 특정 환율을 방어하거나 통화밴드를 방어할 필요가 없었다.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베네수엘라도 외환보유고를 소진해가며 팽창정책을 실시했다.

4) 물가목표제(Inflation Targeting)란 통화정책의 궁극적 목표를 물가안정에 두고 중앙은행이 명시적인 인플레이션 목표를 사전에 설정해 대외적으로 공표한 후, 각종 통화정책 수단을 통해 목표에 도달하려는 통화정책 운용방식을 말한다. 우리나라도 지난 1998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현재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스웨덴 등 여러 국가에서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표 2-20> 최근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금리정책 추이

단위 : %

국가	금리인하 개시 시점	금리인하 개시기 금리	최저금리	2010년 8월말 현재 금리
브라질	2009.1	13.75	8.75	10.75
멕시코	2009.1	8.25	4.50	4.50
페루	2009.2	6.50	1.25	2.50
칠레	2009.1	8.25	0.50	1.50
콜롬비아	2009.4	10.00	3.00	3.00
베네수엘라	2009.1	33.50	29.50	29.50
도미니카공화국	2009.4	9.50	4.00	4.00
우루과이	2009.4	10.00	6.25	6.25

자료 : Global Insight

이 같은 경기 역행적 재정 및 통화정책 실시에도 불구하고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주식, 채권 및 통화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떨어지지 않았으며, 국제 신용평가기관의 투자등급 하락도 발생하지 않았다.5)

<표 2-21> 중남미 주요국의 국가신용등급(2010년 6월 현재)

국가	Moody's		S&P		Fitch	
	등급	전망	등급	전망	등급	전망
아르헨티나	B3	안정	B-	안정	B-	안정
브라질	Baa3	긍정	BBB-	안정	BBB-	안정
칠레	Aa3	안정	A+	안정	A	안정
페루	Baa3	안정	BBB-	안정	BBB-	긍정
콜롬비아	Ba1	안정	BBB-	안정	BB+	안정
베네수엘라	B2	안정	BB-	안정	B+	안정
멕시코	Baa1	안정	BBB	안정	BBB	안정

주 : 굵은 글씨는 투자적격 등급 의미

자료 : Moody's, S&P, Fitch

5) 국제금융기관들도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유동성 부족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라틴아메리카지역의 대표적인 개발은행인 안데스개발공사(CAF), 미주개발은행(IDB), 중남미준비기금(LARF)은 라틴아메리카 금융기관에 총 93억 달러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IDB는 2009년 라틴아메리카지역에 대한 대출규모를 120억 달러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국제금융공사(IFC)와 세계은행도 각각 20억 달러, 10억 달러의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멕시코,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등은 IMF 금융지원을 요청했다. 대외유동성 확보를 위해 엘살바도르(2008.12, 8억 달러)를 필두로 과테말라(2009.3, 9억 달러), 코스타리카(2009.4, 7억 달러) 등이 IMF에 대기성 차관을 요청했으며 멕시코도 2009년 4월 470억 달러의 신축적 신용공여제도(Flexible Credit Line) 차관을 신청했다. 브라질과 멕시코는 2008년 10월 29일 미국과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협정을 체결, 금융위기 전염효과 차단을 위한 국제공조체제를 구축했다. 아르헨티나도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통화 스왑을 체결했다. 민간채권단과의 채무조장과 파리클럽에 대한 채무상환의 지연으로 신규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르헨티나는 중국과 102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왑을 체결했다.

오히려 무디스(Moody's)사는 2009년 초 칠레, 우루과이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기까지 했다. 유일하게 자메이카 기업의 신용등급이 하락했을 뿐이다. 멕시코의 경우 심각한 경기침체와 재정수지 악화로 투자등급 하락이 예상되었으나 안정적 전망을 부여받았다.

라. 은행시스템의 높은 건전성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견고한 은행시스템도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이번 금융위기를 수월하게 극복한 배경이 되었다. 라틴아메리카와 중·동구 유럽 국가들과의 차이점 비교를 통해 라틴아메리카의 은행시스템의 건전성을 살펴보면, 먼저 라틴아메리카에서 외국계은행들은 국내 소매금융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갖고 대부분의 국내 대출 업무를 수행했다. 그에 반해 중·동구 유럽에서 외국계은행의 대출자금은 주로 도매금융, 즉 외국으로부터 차입한 것이었다. 특히 중·동구 유럽에서 많은 외국계은행들은 국제자본의 현지 대출 통로로 현지 은행을 활용했다. 국경간 도매 금융을 통한 국내(현지) 대출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기는 하나 국내(현지) 저축을 통한 대출보다 자본의 갑작스러운 유입 중단(sudden stop)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에 따라 중동구 유럽에서 보다 라틴아메리카에서 금융시스템이 더욱 안정적이었다. 2008년 중순 현재 라틴아메리카에 진출한 외국계은행의 국내부채(local claims)는 총 부채의 60%이상을 차지했으며, 국내부채의 80%이상이 국내 저축에 의존하고 있다. 그에 반해 중·동구 유럽에서 그 비중은 40%, 60%에 불과했다. 2008년 라틴아메리카 7개국에서 은행간, 국경간 대출의 크기는 GDP의 10% 미만이었다. 그에 반해 중동구 유럽 7개국에서 그 비중은 30%에 달했다. 또한 외국계든 국내계든 라틴아메리카은행들의 유동성 수준이 매우 높았다. 일례로 총자산에서 순자산의 비중이 35%를 상회했으며 BIS 자기자본비율⁶⁾(2009년 기준)도 평균 15%로 국제기준 8%를 크게 상회했다. 금융위기 이후 부실여신(NPL)⁷⁾의 비중이 높아지긴 했으나 충당금 적립은 미국이나 일

6) 자기자본비율(Capital adequacy ratio)은 국제결제은행(BIS)이 일반은행에게 권고하는 자기자본비율 수치이다. 보통 BIS 자기자본비율이라고 불린다. BIS에서는 자기자본비율의 8% 이상을 안정, 합격권으로 보고 있다. 자기자본비율은 자기자본을 총자본으로 나눠 구하는데, 총자산을 산정할 때는 투자대상별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부여한다. 예컨대 정부 발행 채권은 위험가중치 0%, 주택담보 대출은 50%이다. 8%를 밑돌면 해외에서의 차입과 유가증권 발행이 불가능해지는 등 소위 '부실은행' 취급을 받는다.

7) 무수익여신(NPL: Non-Performing Loan)이란 부실대출금(장기연체/손실비용)과 부실지급 보증액을 합친 금액으로 수익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부실여신이라고도 한다. 즉 돈을 빌려주고 되돌려 받지 못하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말한다.

본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라틴아메리카은행들은 금융위기 기간 보다 쉽게 NPL의 증가를 관리할 수 있었다. 게다가 라틴아메리카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외국계은행인 영국의 HSBC와 스페인의 BBVA 및 Santander 은행들의 경우 첨단금융 상품 및 모기지에 대한 투자 손실도 중·동구 유럽국가들에 대한 대출 비중도 크지 않았다.

신용평가기관들도 양 지역 은행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Fitch는 2009년 2분기 유럽계 모(母)은행들의 취약성을 반영해 중동구 유럽 18개 은행의 신용등급을 강등시켰다. 그에 반해 2009년 2분기 현재 라틴아메리카 어느 은행도 신용등급의 하락을 겪지 않았다.

<표 2-22> 각 지역 은행의 신용평가¹⁾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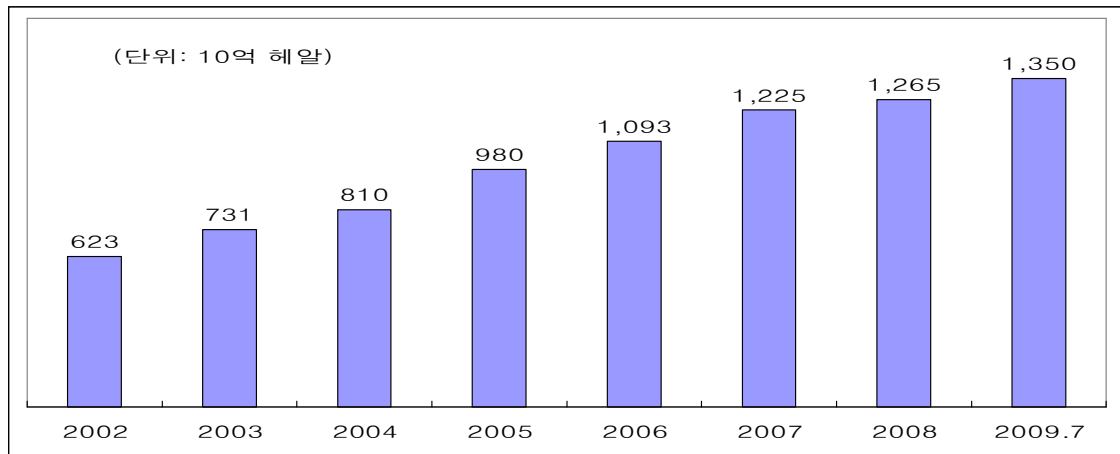
구 분	2009			
	1/4	2/4	3/4	4/4
선진국	27.7	30.8	33.0	29.6
개도국	34.4	35.7	33.1	26.3
중남미	20.9	25.7	24.2	16.6
아시아	31.2	26.9	10.8	4.3
동유럽	57.6	62.0	66.0	56.7

주 : 1) 부정적 전망(Negative Outlook) 및 부정적 관찰대상(Negative Watch) 비중
 자료 : Fitch(2010.2), Global Bank Ranking Trends Q4 2009

마. 국내자본시장의 발전

라틴아메리카에서 채권시장의 발전은 매우 더디었다. 오랜 기간 거시경제 불안정, 장기 계획을 가진 다양한 투자자 기반 부족, 민간 및 정부 등 채권발행자의 투명성 및 책임감 부족, 사법제도의 높은 불확실성, 그리고 일부 정부의 전면적인 디폴트와 지불 유예 등이 라틴아메리카에서 채권시장의 빠른 성장을 가로막았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정치경제가 안정되고, 민간연기금회사 및 뮤추얼펀드가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상당한 자산을 관리하기 시작하며 브라질, 멕시코 등 라틴아메리카 대국을 중심으로 채권시장이 크게 성장했다. 일례로 브라질 국채시장의 발행규모(누적기준)는 2002년 6,230억 헤알에서 2009년 7월말현재 1조 3,500억 헤알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림 2-6> 브라질의 연방국채 발행규모(누적기준)



자료 : BM&F Bovespa

바. 개도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 증가

2000년대 들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수출 다각화 정책에 힘입어 선진국의 수출 비중이 하락한 반면 개도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선진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2000년 73.2%에서 2008년에는 62.1%로 크게 감소했다. 그에 반해 같은 개도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24.3%에서 32.6%로 크게 증가했다.

<표 2-23> 중남미 수출입 상대국으로서 중국의 순위 변화

국가	수출		수입	
	2000년	2008년	2000년	2008년
라틴아메리카	16	2	9	2
아르헨티나	6	2	4	3
브라질	12	1	11	2
칠레	5	1	4	2
콜롬비아	35	4	15	2
페루	4	2	13	2
베네수엘라	37	3	18	3
코스타리카	26	2	16	3
멕시코	25	5	6	3
쿠바	5	2	5	2
우루과이	4	5	7	4
볼리비아	18	10	7	6
에콰도르	20	17	12	4

자료 : ECLAC

특히 중국과의 교역 규모는 2003년 이후 연평균 40%씩 증가하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그 결과, 라틴아메리카 수출대상국으로서 중국의 순위는 2000년 16위에서 2008년에는 2위로 경천 추었다. 같은 기간 라틴아메리카 수입대상국으로서 중국의 순위도 9위에서 2위로 부상했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 증가는 최근 글로벌 금융유위기로 선진국 경제가 커다란 침체를 겪은 상황에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수출 하락을 상쇄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표 2-24> 주요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2009년 지역별 수출 증감액

단위 : 억 달러

국가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인도
브라질	-119	-591)	-18	38	23
멕시코	-486	-59	-4	2	-5
아르헨티나	-18	-34	-	-27	-1
칠레	-22	-79	-27	16	-8
페루	-17	-10	-4	3	2

주 : 1)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자료 : CEIC, 한국은행

또한 원유 등 1차 상품 가격의 신속한 회복세도 주요 수출국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신속히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크게 일조했다. 대표적으로 원유 가격은 2009년 평균 기준으로 2008년 대비 약 37% 하락했으나 2010년 7월 현재 21% 증가했다.

3. 2012년 경제 전망과 과제

1) 경제 전망

2012년 중남미 경제 성장세는 2011년보다 주춤할 전망이다. 중남미 경제는 2010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서 신속히 벗어나 6%대 성장세를 기록했으나 2011년에는 대외경제 여건 악화에다 본격적인 출구전략의 여파로 4%대의 성장세에 멈추었다. 2012년 중남미 경제는 대외경제 여건의 지속적인 악화를 반영해 2011년보다 다소 낮은 3%대에 그칠 전망이다. 최근 중남미 경제의 명암은 세계 경제의 양대 축인 미국과 중국 경제의 향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왔다. 이는 그 만큼 중남미 경제의 대외의

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2008년 발발한 미국발 금융위기는 중남미 경제 중에서도 미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멕시코 및 중미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쳤다. 그에 반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남미 경제는 상대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덜 받았으며 중국의 왕성한 자원 수요에 힘입어 경제회복도 빨랐다. 사실 2000년대 중국 경제 고성장의 최대 수혜자는 남미였다. 1차 산품 의존형인 남미 경제는 중국의 지칠 줄 모르는 천연자원 수요에 힘입어 20년 만에 최장의 경제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2012년 중국 경제에 대한 다소 어두운 전망은 그간 중남미 경제 성장세를 이끌어 왔던 남미 경제에도 그림자를 드리울 전망이다. 무엇보다 직접적인 영향은 수출 감소로 나타날 전망이다.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에다 대중국 수출 증가세 둔화, 미국 등 선진국에 대한 수출 감소로 2012년 중남미 경제의 수출 증가율은 2011년의 1/3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대외경제 여건 악화로 외수보다는 내수가 경제성장을 견인할 전망이다. 2011년 하반기부터 물가인상 압박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중남미 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금리인하 정책이 완만하나 소비 성장세를 이끌 전망이다. 2008년~2009년 실시한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의 후유증에 따른 재정수지 악화로 칠레, 페루 등을 제외하고 추가적인 경기부양을 실시할 여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그에 반해 투자는 2011년에 이어 중남미 경제 성장의 동력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브라질(PAC 성장촉진계획), 콜롬비아(PND 국가개발계획) 등 중남미 각국이 의욕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단위 인프라개발 프로젝트 등에 힘입어 투자는 높은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안정적 중남미 내수시장과 자원·인프라개발을 겨냥한 외국인직접투자(FDI)도 지속적인 투자 성장세를 추동할 전망이다.

2012년에도 글로벌 경제위기가 중남미 경제의 위기로 비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무엇보다 중남미 경제가 그간 기초체력을 탄탄히 구축했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등 일부 반(反)시장적인 정책을 실시하는 국가들에 대한 경제위기 발발 의혹이 제기되고는 있으나 이들 국가의 거시경제 지표는 다른 어느 때보다 양호한 상황이다.

지역별로 2012년에도 중남미 경제는 남미 경제권이 성장을 주도할 전망이다. 그러나 멕시코·중미 경제권과의 성장 격차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국별로 중남미 경제는 페루, 볼리비아, 칠레, 콜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이 성장을 견인할 전망이다. 그에 반해 멕시코,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경제는 중남미 평균 성장세를 밀돌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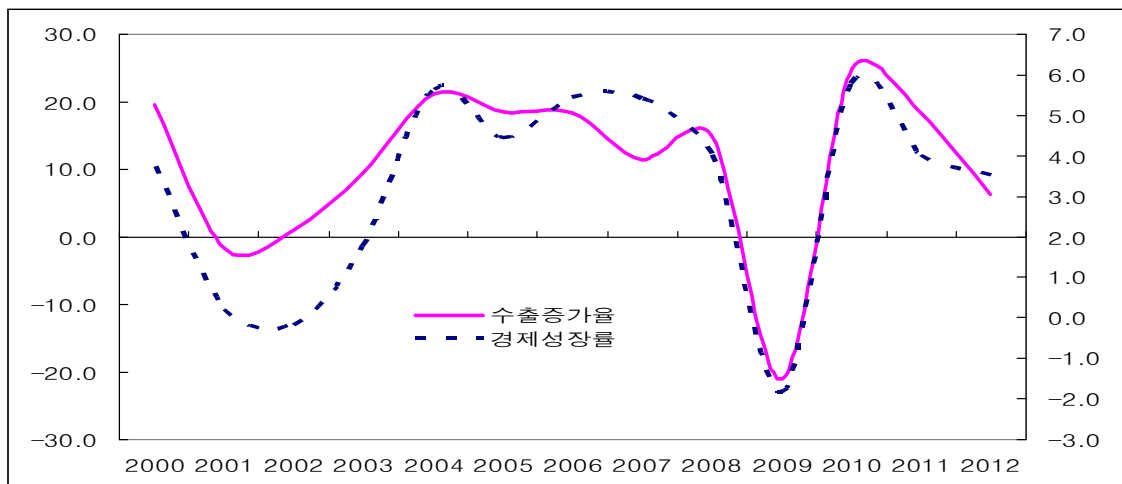
<표 2-25> 중남미 주요국의 경제성장 전망

국 가	2008	2009	2010	2011	2012
아르헨티나	6.8	0.9	9.2	6.9	3.6
볼리비아	6.1	3.4	4.1	4.8	4.5
브라질	5.2	-0.6	7.5	3.6	3.9
칠레	4.0	-1.7	5.2	5.6	4.5
콜롬비아	3.5	1.5	4.3	4.8	4.2
에콰도르	7.2	0.4	3.6	3.2	2.9
멕시코	1.2	-6.1	5.4	3.9	2.5
페루	9.8	0.9	8.8	6.7	5.3
베네수엘라	5.3	-3.0	-1.5	2.9	2.6
중남미	4.0	-1.8	5.8	4.0	3.5

자료 : Global Insight(2011.10)

<그림 2-7> 중남미 경제성장률과 수출증가율 추이

단위 : %



자료 : Global Insight(2011.10)

중남미 경제의 최대 성장 엔진인 브라질의 경우 2014년 월드컵, 2016년 올림픽, 고속철 사업, 심해유전 개발, 성장촉진계획(PAC-2) 등 대단위 국가 프로젝트에다 금리 인하 효과가 가시화되며 2011년보다 높은 성장세를 달성할 전망이다. 2011년 하반기부터 지속되고 있는 헤알화 약세 기조도 수출 확대에 일조할 전망이다. 그에 반해 멕시코 경제는 수출의 80%를 의존하는 미국 경제의 침체, 2012년 대선을 둘러싼 정치적 변수, 마약 관련 폭력 심화에 따른 투자 환경 악화 등의 영향으로 2011년에 비해 성장세가 주춤할 전망이다. 안데스지역의 성장 3각축인 페루, 칠레, 콜롬비아 경제는 양호한 투자환경과 에너지·광물 투자 확대에 힘입어 2011년에 이어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콜롬비아의 경우 미국과 FTA 발효로 추가적인 경제성장 효과가 기대된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석유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경우 최근 2년간(2009~10) 경기침체를 벗어났으나 산유량 감소에다 비즈니스 환경 악화에 따른 투자 감소로 그 성장세는 여전히 미미할 전망이다.

2) 중장기 전망 및 과제

중장기적으로 라틴아메리카 경제는 그간 구축한 탄탄한 기초체력과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바탕으로 한 일차산품의 높은 가격에 힘입어 4%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 경제가 대외경제의 부침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최근 5년간 기록한 5%대의 안정적 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투자나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라틴아메리카 경제 전문가들의 평가다. 최근 라틴아메리카 경제 성장세를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기술진보)⁸⁾ 등 생산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자본축적에 대한 의존도가 큼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성장구조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해외자본 유입이 크게 감소할 경우 급격한 성장 하락세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BRICs 국가 중 중국, 인도의 경우 투자율(GDP대비)이 35%를 상회하는 등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비해 크게 높은 상황이다.

<표 2-26> 연도별 라틴아메리카 경제성장의 원천

단위 :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노동생산성	-0.6	-2.5	-0.6	4.4	2.8	3.8	3.7	3.0	-3.1	3.0
총요소생산성	-1.2	-2.5	-0.1	5.1	2.6	3.1	2.8	1.8	-3.9	2.4
자본축적	2.8	1.8	1.6	3.3	4.3	5.3	6.0	6.5	4.5	4.6

주 :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베네수엘라 7개국 단순 평균 기준

자료 : EIU

8)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이란 전체 생산요소의 결합적 투입에 대한 전체 산출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성을 분석하기 위해 널리 활용되는 지표다. 기술진보 외에 인적 자본(human capital)과 같은 노동의 질적 개념도 여기에 포함시켜 생각할 수 있다. 흔히들 총요소생산성이란 같은 투입량으로 더 많은 생산이 이루어지는 정도를 말한다. 여기에서 투입량이란 노동과 자본의 결합을 말하는데 생산이 늘어나는 것은 노동투입량이 늘어나거나 자본투입량이 늘어나던가 했을 때 뿐만 아니라 이 둘의 증가와 관계없이 늘어나기도 하는데 이 경우가 바로 생산성이 증가하는 경우다. 즉, 생산량 증가분에서 노동 증가에 따른 생산 증가분과 자본 증가분에 따른 생산 증가분을 제외한 생산량 증가분이 바로 총요소생산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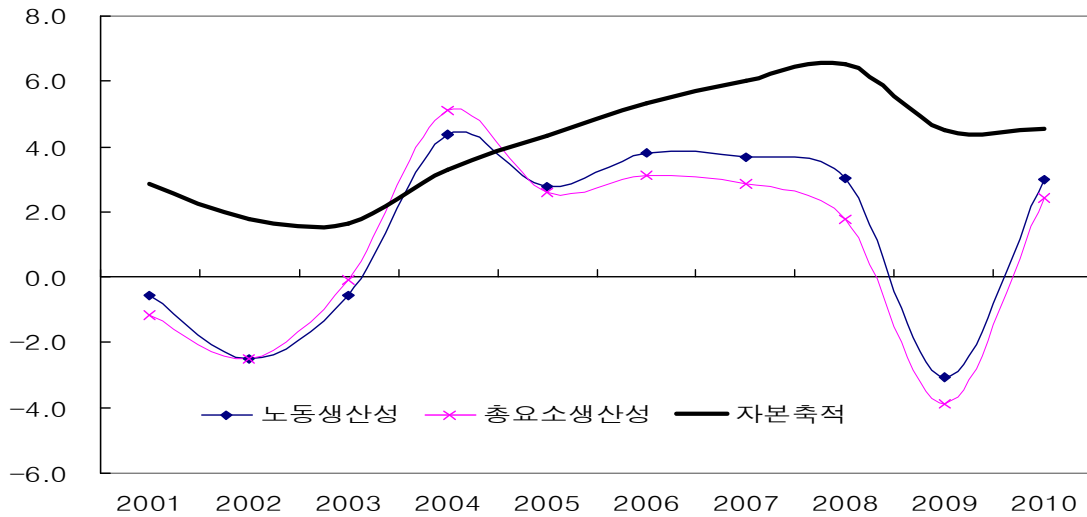
<표 2-27> 연도별 브라질 경제성장의 원천

단위 :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노동생산성	2.2	-1.6	-0.8	1.7	-1.4	2.4	4.3	2.3	-2.1	4.8
총요소생산성	0.7	-1.4	-1	1.9	-1	2	3	1.7	-2.3	4.3
자본축적	3.5	2.7	2	2.7	2.6	2.8	4.1	5.1	2.9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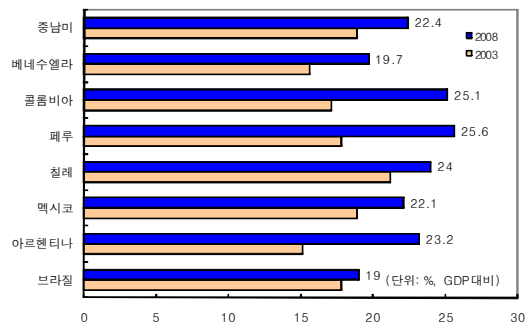
자료 : EIU

<그림 2-8> 연도별 라틴아메리카 경제성장의 원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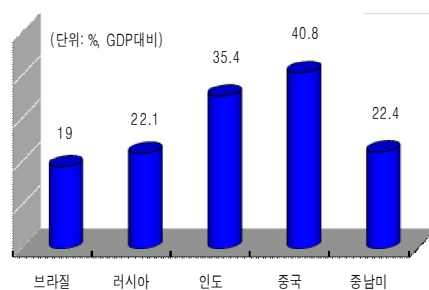
자료 : EIU

<그림 2-9> 중남미 각국의 투자율 비교



자료 : EIU, IIF.

<그림 2-10> BRICs 국가와 투자율 비교(2008년)



최근 라틴아메리카 경제의 투자율이 증가하긴 했으나 아직 그 수준(2008년 GDP 대비 22.4%)은 라틴아메리카 경제가 안정적 성장세를 지속하기에는 크게 낮은 상황이다.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에서는 페루(25.6%), 콜롬비아(25.1%)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에 반해 라틴아메리카 최대 경제규모인 브라질의 경우 투자율(19%)이 지역 평균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라틴아메리카 경제가 5%대의 안정적 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세제개혁, 재정개혁, 저축률 확대, 자본시장 발전 등을 통해 투자율을 신속히 확대하는 게 급선무이다.

라틴아메리카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고 선진국과의 경제발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도 필수적이다. 불행하게도 최근 라틴아메리카 경제가 전례 없는 고성장을 보이기는 했으나 기술진보를 의미하는 총요소생산성은 미미한 성장에 그쳤다. 라틴아메리카 경제가 일차산품의 국제가격 변동에 따른 붐-버스트 주기에서 탈피해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라틴아메리카 각국 정부는 인적자본 개발, 기업환경 개선,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생산구조의 재편에 필요한 투자 확대, 혁신 및 기술개발 등에 보다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2절 페루

1. 지리적 여건

페루는 남미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국가로 광물자원이 풍부한 신흥 개발도상국이다. 페루의 인구는 약 3천만 여 명이며 수도인 리마(Rima)에 전체 인구의 30%에 달하는 900만여 명이 살고 있다. 페루는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영향을 받아 스페인어를 공용어로 하고 있으며, 사회·경제·문화·정치 등의 다방면에서 스페인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림 2-11> 페루의 지도

페루의 민족은 잉카 문명의 중심 인종인 인디언(전체 인구의 45%)과 메스티조(37%)가 전체 인구의 약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외에 기타 인종으로는 백인종(15%), 중국인 등이 있다.

<표 2-28> 페루의 일반 개요

항목	내용	비고
위치	남미 태평양 연안, 칠레 북부(남위 10°00', 서경 76°00')	
면적	128만km ² (20위), 해안선 2,414km	한반도의 6배
기후	온대(해안고지대), 열대(정글, 아마존)	
인구	29,248,943명(세계 42위)	2011년 7월
수도	Lima(인구 8.8백만 명)	전체 인구의 30%
민족	인디언(45%), 메스티소(37%), 백인(15%)	2007년
언어	스페인어(공용어), 케추아어, 아미마라어	2007년
종교	가톨릭(81%), 기독교(13%)	2007년
정치	대통령중심제(공화제)	

자료 : CIA, World Factbook(www.cia.gov); 한국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http://keri.koreaexim.go.kr/)

2. 정치·사회적 여건

페루는 대통령 중심제의 공화제이며, 오안타 모이세스 우말라 타소(Ollanta Moisés Humala Tasso)가 올해 강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딸인 케이코 후지모리를 제치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페루는 대통령제의 대의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다당제를 채택하고 있다. 현행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정부 수반이자 국가 원수이며, 5년마다 선출되나 연임은 불가능하다.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지명하며, 총리의 권고에 따라 나머지 각료를 임명한다. 페루 의회는 단원제이며, 5년 임기의 의원 120명으로 구성된다. 법안은 입법부나 행정부에서 입안하며, 법안은 의회에서 통과하여 대통령이 공포한다. 사법부는 보통 독립되어 있으나, 페루 역사에서는 아직까지도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간섭이 문제가 되곤 한다. 페루는 일반 국가와 같이 다양한 국제기구에 가입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969년에 안데스 공동시장(Andean Community of Nations ; ACN))을 설립한 바 있다. 또한 중남미 지역적 경제통합기구인 라틴아메리카통합연합(Latin American Integration Association ; LAIA)에도 가입되어 있다. 또한 남미 최대의 지역경제통합인 남미공동시장(Mercado Común del Sur ; MERCOSUR)의 준회원국이기도 하다.

<표 2-29> 페루의 정치 개요

항목	내용	비고
정치	대통령중심제(공화제)	
국가 원수	오안타 모이세스 우말라 타소(Ollanta Moisés Humala Tasso)	2011년 당선
의회	단원제 120석	
주요 정당	페루 통합당(UPP), 인민행동당(PAP), 국민연합(UN)	
국제기구가입	UN, IMF, APEC, IBRD, IFC, UNCTAD, WHO, WTO 등	
지역경제통합	안데스 공동시장(ACN), 라틴아메리카통합연합(LAIA), 남미공동시장(MERCOSUR)	MERCOSUR는 준회원국
대한국 관계	수교(1963), 통상협정(1974), 경제과학기술협정(1981), 압국사증면제협정(1982), 문화협정(1983), 투자보장협정(1993), 남극협력협정(1996), 관광협정(2002), 범죄인도조약(2003), FTA협정(2011)	북한 수교 (1988)
대일 관계	다수 이민 정책(일본→페루), 후지모리 전 대통령	

자료 : CIA, World Factbook(www.cia.gov); 한국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http://keri.koreaexim.go.kr/)

2011년 약 3천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페루는 아메리카 원주민(인디언)이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인디언과 백인의 혼혈인 메스티조가 37%를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 백인종이 15% 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흑인,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 등이 3% 정도 살고 있다. 한국인은 교민과 체류자를 포함해 약 1,000명 정도가 살고 있다. 2011년 인구 기준으로 연령 구조를 보면, 0~14세가 전체 인구의 28.5%, 15~64세가 65.1%, 65세 이상이 6.4%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인구 성장률은 2011년을 기준으로 1.0%로 세계 114위를 기록하고 있어 높은 편은 아니며, 인구 1,000명당 19.4명을 출산하고 있어 세계 95위를 차지하고 있다. 페루의 도시인구 집중률은 77%로 매우 높은 편이며, 도시화율은 2010년에서 2015년 동안 매년 1.6%씩 늘어날 전망이다.

페루는 서부와 동부, 도시와 지방, 평지와 산악 지대간 생활 모습에 큰 차이가 있다. 도시의 중산층 이상은 스페인의 영향을 받아 유럽식 의복을 입고 동부 산악지대의 인디언들은 전통적인 모직 옷을 착용한다. 또한 도시는 서구적인 주거생활을 하고 있는 반면에 산악 및 밀림지대에서는 여전히 오두막과 같은 주거생활이 대부분이다. 즉, 도시는 국제화에 많이 진전되어 있는 반면, 지역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모습이 남아 있다. 페루의 언어는 스페인의 3백년 간 식민지화로 스페인어가 공용어로서 약 83.1% 정도 사용되고 있다. 이 외에 토속 언어인 카추아(13.0%)와 아이마라어(1.7%)가 사용되고 있다. 문맹률은 전체 인구의 7.1%로 높지 않은 편이다.

페루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질병·임산부·신체장애자에게 금전적 혜택과 의료 혜택을 제공하며, 노인, 병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 무능력자, 무의탁자에게는 연금을 지급한다. 고용조건은 노동법에 의해 보장된다. 그러나 장티푸스, 결핵, 위장질환, 백일해, 말라리아, 감기를 비롯한 전염병이 정부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널리 퍼져 있다. 어린이들 사이에서 영양결핍이 특히 심각하며, 시골에는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물과 하수설비가 부족하여 도시 외곽의 무허가촌과 시내의 값싼 도시빈민 아파트에는 증가하는 도시빈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2009년 기준 빈곤계층은 전체 인구의 34.8%에 해당하며, 절대빈곤계층은 13.7%에 달했다.⁹⁾ UNDP은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국가별로 비교하고, 보다 쉬운 객관화를 위해 다양한 지표로 나뉘었다. UNDP는 국가 혹은 국가들의 사회적 환경을 건강, 교육, 차별, 빈곤, 성차별, 사회의 지속유지, 인간안보 등의 개별 지표를 확립해 놓고 있다. 이러한 변수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 HDI), 다차원 빈곤지수 등의 복합 지수를 공표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페루의 사회적 객관화를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페루의 HDI는 0.723으로 조사가 가능했던 172개국 중 65위를 차지했으며, 이는 상위 37.8%에 해당한다. 각 개별 항목과 관련해서 보면, 전 국가 중에 상위 50% 이내에 대부분의 항목이 포함되고 있다. 그러나 건강 관련 지출비율(130위, 69.1%), 문맹퇴치율(49위, 50.0%), HDI 불평등 지수(77위, 52.5%), 조정 순저축률(68위, 55.3%) 등은 조사 결과가 나온 국가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즉, 이러한 지표들을 고려하여 각 항목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과 관련해서는 공공분야의 건강관련 재정 투입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기대 수명은 길다는 점으로 개별 국민들의 건강과 수명에 대한 노력이 내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교육과 관련해서는 문맹퇴치율의 절대적 비율은 높지만 전 세계를 대상으로 볼 때, 높은 편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나 일단 초기 교육 과정에 진학을 할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친 교육 과정을 이수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점은 페루의 사회가 지리적으로 열대우림 및 산악지역과 서부 도심지로 구분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 불평등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를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 높은 편에 속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앞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페루의 지역간 불균형과 이에 따른 소득격차, 높은 실업률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넷째, 페루 사회의 지속

9)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http://hdrstats.undp.org>)

성과 관련해서는 조정 순저축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즉, 페루 국민들은 소비 성향이 강하다는 점이 페루 사회의 지속적인 미래를 약속하기는 어렵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섯째, 이해 비해 인간 안보와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점을 감안할 때, 페루의 사회는 불평등의 요소가 강하지만,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민들이 건강하며, 교육 수준이 높은 사회라고 평가할 수 있다.

<표 2-30> 페루의 사회 지표

항목	지표	지표 연도/조사기관	비고	대세계 ¹⁾		
				순위	백분율	
건강	출생 시 기대수명	73.7세	2010/UNDESA		74/183	40.4
	건강 관련 지출비율	2.5%	2007/세계은행	공공, GDP대비	130/188	69.1
교육	평균 학년력	9.6년	2010/NBER	성인 기준	49/173	28.3
	문맹퇴치율	89.6%	2010/UNESCO	15세 이상 성인	77/154	50.0
불평등	HDI 불평등 지수	0.501	2010/UNDESA		73/139	52.5
빈곤	빈곤 인구 비율	19.8%	2008/HLS	변수 10개 중 3개 이하로 공통	-	-
	극빈층 인구 비율	7.7%	2007/세계은행	1.55\$/일 이하	-	-
성차별	성차별지수	0.562	2008/HDRO	1에 근접할수록 차별 高	65/138	47.1
지속성	조정 순저축률	7.0	2010/세계은행	GNI 대비(%)	68/123	55.3
인간 안보	난민수	7.3	2008/UNHCR	천 명	57/187	30.5
	살인율	3.2%	2008/UNODC		65/147	44.2
	자연재해 인구수	18,031명	2009/EMDAT	백만 명 중	-	-
복합 지수	인간개발지수(HDI)	0.723	2010/UNDESA	1에 근접할수록 긍정적	65/172	37.8
	다차원 빈곤지수	0.085	2008/HLS		51/103	-

주 : 1) 조사된 국가들 사이에서의 순위 및 백분율

2) 2006~2008년 평균으로 순위 산정

자료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http://hdrstats.undp.org>)

3. 경제적 여건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페루는 다양한 기후와 지역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경제적으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부의 산악지대에서는 광물자원이 풍부하며, 서부의 연안에는 세계적인 어장을 가지고 있다. 페루는 이러한 자원 중심의 경제에 기반으로 두고 있다. 또한 신흥개발도상국의 특성과 같이 농어업, 제조업, 서비스업, 광업이 혼재한 혼합경제체를 이루고 있다.

페루 경제는 과거 격심했던 인플레이션을 지나 2000년대에 들어서에는 안정적인 환율 유지, 낮은 인플레이션, 6% 이상의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성장은 민간의 투자와 정부 재정 지출이 주도하면서 2007년에는 9%, 2008년에는 10%의 경제성장

를 보였다. 그러나 2009년에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경제성장률이 1%로 크게 떨어졌다. 2010년에 페루의 중앙은행은 물가 상승을 1~3% 정도로 억제하는데 성공했다. 2000년대 페루의 경제 성장은 자원을 바탕으로 한 대외 개방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페루는 2006년부터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여 2011년에는 한국과의 FTA도 체결하였다.

<표 2-31> 페루의 경제 개요

항목	내용	비고
화폐단위	Nuevo Sol(NS)	
회계연도	1.1~12.31	
산업구조	GDP 기준 : 서비스업 55% > 제조업 35% > 농업 10%	2009
주요 수출품	구리, 금, 원유 및 석유 관련 제품, 커피, 농수산물 등	2009
주요 수입품	석유 및 석유 관련 제품, 플라스틱, 기계류, 철강	2009
주요 부존자원	금, 은, 구리, 아연, 원유, 천연가스, 임산자원, 몰리브덴 등	
실업률	8.4%(09) → 7.9(10)	
경제적 강점	광물 등 풍부한 천연자원	
경제적 약점	높은 실업률, 지역 및 계층간 빈부 격차 심화	

자료 : CIA, World Factbook(www.cia.gov); 한국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http://keri.koreaexim.go.kr/)

그러나 페루 경제는 실업률, 양극화 등과 같이 배분의 문제가 내적으로 심해지고 있으며, 식료품과 에너지 등과 같은 일부 품목에서는 경제 성장에 따른 내수 수요가 늘어나 물가를 상승시키고 있고, 사회간접자본이 충분하지 못하는 등의 저해 요인이 아직 남아 있다. 페루의 GDP는 2007년 1,072억 달러에서 2010년 1,528억 달러로 매년 12.5%씩 늘어나는 기염을 토했다. 이에 따라서 1인당 GDP 역시 2007년의 3,722달러에서 5,417달러로 매년 13.2%씩 늘어났다. 경제성장률은 2009년의 미국발 금융위기를 제외하고는 10%에 가까운 성장을 보이고 있다. 교역은 2007년에 82.8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2010년 67.5억 달러로 6.6%씩 줄어들고는 있지만, 2008년 이후에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페루의 주요 수출품은 구리, 금, 원유, 커피, 수산물 등으로 주로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수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요 수입품은 석유 및 관련 제품, 플라스틱, 기계류, 철강 등으로 2차 산품을 주로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페루는 자원 수출 중심의 교역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페루의 교역 수지 흑자 경향은 페루의 외환보유액을 동기간에 걸쳐 매년 16.7%씩 늘리는 결과로 나타나 2010년의 외환보유액은 426억 달러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다. 총외채잔액은 경제 및 교역 규모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0년 현재 415억 달러에 달하고는 있지만 전체 경제규모에 비해 그 비율은 동 기간에 걸쳐 다소 늘어나다가 2010년에는 26.5%로 2007년의 32.1%에 비해 5.6%p 감소했다.

<표 2-32> 페루의 주요 경제 지표

항목	2007	2008	2009	2010	비고	
GDP	1,072	1,274	1,267	1,528	억 달러	
1인당 GDP	3,722	4,363	4,280	5,417	달러	
경제성장률	8.9	9.8	0.9	8.8	%	
재정수지/GDP	3.2	2.2	-2.1	-0.9	%	
물가상승률	1.8	5.8	2.9	1.5	%	
교역	수출	27,882	31,529	26,885	35,564	백만 달러
	수입	19,595	28,439	21,011	28,816	
	수지	8,287	3,090	5,874	6,748	
외환보유액	26,856	30,272	32,013	42,648	백만 달러	
총외채잔액	34,379	36,564	40,576	41,549	백만 달러	
총외채잔액/GDP	32.1	28.7	32.0	26.5	%	

자료 : CIA, World Factbook(www.cia.gov); 한국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http://keri.koreaexim.go.kr/)

페루와 우리나라의 교역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페루에 주로 자동차, 합성수지, 철광관 등을 수출하고 페루로부터 구리, 기타 금속 광물, 아연 등을 수입하고 있다. 페루의 수출입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다음과 같다. 페루의 수출 시장 점유율은 약 2.9%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즉, 페루의 수출에서 약 2.9%가 한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반대로 페루의 수입 시장에서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의 2.5%에서 2010년에는 3.6%로 1.1%p 늘어나는 성과를 보였다. 한국의 대 페루 현지 투자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7.7억 달러에 총 13개 업체가 진출했다. 법인 당 진출 규모는 5,953만 달러였다.

<표 3-33> 한국과 페루의 교역 및 투자 현황

항목	2008	2009	2010	비고	
교역	수출(백만 달러)	720	641	944	14.5(연평균증감율, %)
	수입(백만 달러)	904	919	1,039	7.2
	교역 수지(백만 달러)	-184	-278	-95	28.1
	페루의 한국 수입비중(%)	2.5	3.1	3.6	20.0
	페루의 한국 수출비중(%)	2.9	3.4	2.9	0.0
투자 현황	신규법인 수(개)	5	3	5	누계 : 13
	투자 규모(천 달러)	82,149	40,138	48,185	누계 : 773,886
	법인 당 투자 규모	16,430	13,379	9,637	59,530

자료 : 전계서

페루에 대해서 세계 주요의 신용평가기관에서는 B등급을 전후로 해서 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입은행은 B2, OECD는 3, S&P는 BBB-, Muddy's는 Baa3, Fitch는 BBB-를 주고 있다. 페루는 2004~10년 연평균 6.8%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중남미 평균 4.1%를 훨씬 상회하는 중남미 핵심 국가 중의 하나로 변모하였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평가에서도 중남미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양호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어 좋은 투자환경을 보이고 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률과 함께 투자 등급 역시 칠레와 멕시코에 이어 높게 평가되고 있다. 세계 신용등급 평가 기관에 따르면 투자 등급의 경우, 투자적격등급인 BBB-를 받아 상향 조정되고 있다. 페루는 남미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고 안정된 경제성장률을 보이면서 멕시코, 칠레와 더불어 신용등급 평가기관들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 역시 광업 분야의 개발 프로젝트로 인해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0년 약 208억 달러에 달했다. 부문별 투자 비중을 보면 광업부문이 23.3%로 가장 높으며, 주요 투자업체는 Southern Perú, Xstrata, Gold Fields, Yanacocha, Cerro Verde, Antamina, Quellaveco 및 Cajamarquilla 등으로, 이들 업체는 향후 5년간 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기로 공표하였다. 제2의 투자 부문은 정보통신부문으로 총 투자의 18.2%를 차지하고 있으며, Telefónica de España가 페루의 통신부문 민영화 시대부터 투자를 하기 시작한 최대 투자기업이다. 최근 5년간 América Móvil 및 Nextel International 등이 이 부문의 주요 투자기업이다. 이외에 금융 14.9%, 제조업 14.7%, 에너지 13.4%로 이들 5개 부문이 전체 투자의 84.6%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부문은 수력에너지 부문에 Electrobras, OAS, Duke Energy, Inkia 및 SN Power 등의 업체가 2011년 약 6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이와같이 페루의 경제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양호한 투자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3절 브라질

1. 지리적 여건

브라질은 남미 중부 및 동부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국가로 최근 경제 성장이 두드러지면서 남미의 중국으로 불리며 BRIC's에 포함된 신흥 개발도상국이다. 인구는 약 1억 9천만 명으로 남한의 약 5배 정도이며, 과거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영향을 받아 공용어는 포르투갈어이다.

<그림 2-12> 브라질의 지도



브라질의 민족은 백인이 54% 정도로 절반 이상으로 차지하고 있으며, 이 외에 몰라토(39%), 흑인(6%)의 민족 구성비를 보이고 있다. 브라질의 국토 면적은 총 8,515천 km²로 한반도의 38배에 달할 정도로 광활하다. 기후는 넓고 긴 국토가 말해주듯 북부 지역은 열대성, 중부지역은 아열대성, 남부지역은 온대성 기후를 보이고 있다.

<표 2-34> 브라질의 일반 개요

항목	내용	비고
위치	남미 중부 및 동부	
면적	8,515천 km ² (해안선 7,491km)	한반도의 38배
기후	열대 (북부), 아열대 (중부), 온대 (남부)	
인구	190.7백만 명	2010년
수도	Brasilia	380만 명
민족	백인 (54%), 물라토 (39%), 흑인 (6%)	
언어	포르투갈어	
종교	가톨릭(81%), 기독교(13%)	
정치	가톨릭 (74%), 기독교 (15%)	

자료 : CIA, World Factbook(www.cia.gov); 한국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http://keri.koreaexim.go.kr/)

2. 정치·사회적 여건

브라질은 대통령 중심제의 연방공화제이며, 현재 룰라 대통령의 뒤를 이어 Dilma Rousseff 대통령이 현직에 있다. 입법기관인 국회는 양원제로 상원이 81석, 하원이 581석으로 하원 중심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 주요 정당으로는 자유전선당(PFL), 사회민주당(PSDB), 노동자당(PT) 등이 있다. 브라질은 다양한 국제기구에 가입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남미 최대의 지역경제통합인 남미공동시장(Mercado Común del Sur ; MERCOSUR)의 회원국이다.

브라질과 우리나라는 1959년 수교 이후에 10여개에 이르는 다양한 협정을 맺고 있으며, 약 5만 여명의 한국인이 현지에 살고 있다. 수산분야에서 경쟁조업국인 일본의 경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남미 이민정책으로 현재 약 160만 여명이 브라질에 거주하면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약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인은 주로 소매업, 유통업, 식료품업, 요식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5> 브라질의 정치 개요

항목	내용	비고
정치	대통령중심제 (연방공화제)	
국가 원수	Dilma Rousseff 대통령	
의회	양원제 (상원 81석, 하원 513석)	
주요 정당	자유전선당 (PFL), 사회민주당 (PSDB), 노동자당 (PT)	
국제기구가입	UN, WTO, IMF, IBRD, IFC, IDA, IDB, OAS, MERCOSUR, AfDB, BIS 등	
지역경제통합	MERCOSUR	MERCOSUR는 준회원국
대한국 관계	수교(59), 무역협정(63), 문화협정(66), 이중과세방지협정(89), 과학기술협력협정(91), 투자보장협정(95), 범죄인인도조약(95), 관광협력협정(96), 사증면제협정(01), 형사사법공조조약(02), 국방협력협정(06)	북한 수교 (01)
대일 관계	다수 이민 정책(일본→브라질), 브라질 거주 일본인 160만 명	

자료 : CIA, World Factbook(www.cia.gov); 한국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http://keri.koreaexim.go.kr/)

약 2억 명에 가까운 인구를 보유한 브라질은 남미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다. 포르투갈의 식민지 영향으로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포르투갈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여전히 포르투갈의 문화가 남아 있다. UNDP의 인간개발 기수를 기준으로 브라질은 0.741로 세계 187개국 중에서 84위를 차지해 중간 정도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 외에 한 국가의 사회적 지표를 구성하는 각 개별 항목과 관련해서 보면, 25세 성인을 기준으로 평균 학력은 7.2년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해서 중학교에 들어가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187개국 중 111위를 점해 교육과 관련해서는 중하위를 기록했다. 사회적인 불평등을 나타내는 HDI 불평등 지수는 0.519로 평가 대상 국가 134개국 중 73위를 차지해 중위권 정도를 기록했다. 절대빈곤 계층은 국민 수 대비 21%로 심각한 수준에 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의 지역별·계층별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국가의 경제 지속성을 엿볼 수 있는 GNI 대비 순저축률은 4.6% 정도였다. 브라질의 사회지표를 살펴본 결과, 상대적인 관점에서 대체적으로는 중위권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장기적인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늘어나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36> 브라질의 사회 지표

	항목	지표	참고	순위
건강	출생 시 기대수명	73.5세	-	82위/187국
	건강 관련 지출비율	3.5%	GDP 대비	-
교육	평균 학년력	7.2년	25세 성인 기준	115위/187국
	문맹퇴치율	90.0%	15세 이상 기준	-
불평등	HDI 불평등 지수	0.519	-	73위/134국
빈곤	극빈층 인구 비율	21%	-	태국 10.8%, 에콰도르 5.1%
지속성	조정 순저축률	4.6%	GNI 대비	-
안보	자연재해 인구수	3,440명	백만명 당	-
복합 지수	인간개발지수(HDI)	0.741	-	세계 84위
	다차원 빈곤지수	0.011	-	-

자료 : CIA, World Factbook(www.cia.gov); 한국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http://keri.koreaexim.go.kr/)

3. 경제적 여건

브라질의 경제는 최근에 크게 성장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브라질 경제의 최고 강점은 역시 철광석, 임산자원, 보크사이트, 석유로 대표되는 부존자원이 풍부하다는 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주목할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과중한 외채부담, 높은 실업률, 지역과 계층 간의 소득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브라질 정부는 경제 성장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중산층을 확보하여 소득 양극화 현상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우선적인 경제정책으로 삼고 있다.

브라질 경제를 구체적으로 들어가 거시적인 경제 지표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GDP는 2007년 13,663억 달러에서 2010년 20,879억 달러로 늘었다. 이에 따라서 1인당 GDP와 경제성장률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교역은 2010년을 기준으로 201,915백만 달러를 수출하고, 181,694백만 달러를 수입하여 20,221백만 달러의 교역흑자를 기록했지만 최근 들어 교역 흑자폭이 좁아지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교역규모는 늘고 있다. 이러한 브라질의 교역 흑사 경향은 외환보유액을 2007년에 179,433백만 달러에서 287,056백만 달러로 늘리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제 성장에 힘입어 2000년대 중반에 10%에 육박했던 실업률은 2010년 현재 6.7%로 줄었다.

<표 2-37> 브라질의 경제 개요

항목	내용	비고
화폐단위	Real(R)	
회계연도	1.1~12.31	
산업구조	3차 산업 67.5% > 2차 산업 26.4% > 1차 산업 6.1%	2010
주요 수출품	운송장비, 대두, 커피, 자동차 등	2010
주요 수입품	기계, 전자 및 운송기기, 원유, 화학제품 등	2010
주요 부존자원	철광석, 임산자원, 보크사이트, 석유 등	
실업률	8.1%(09) → 6.7%(10)	
경제적 강점	부존자원 풍부, 높은 경제 성장률	
경제적 약점	과중한 외채부담, 높은 실업률, 지역·계층간 빈부 격차	

자료 : CIA, World Factbook(www.cia.gov); 한국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http://keri.koreaexim.go.kr/)

<표 2-38> 브라질의 주요 경제 지표

항목	2007	2008	2009	2010	비고	
GDP	13,663	16,526	15,945	20,879	억 달러	
1인당 GDP	7,281	8,716	8,327	10,800	달러	
경제성장률	6.1	5.2	-0.7	7.5	%	
재정수지/GDP	-2.8	-2.0	-3.4	-2.1	%	
물가상승률	3.6	5.7	4.9	5.0	%	
교역	수출	160,649	197,943	152,995	201,915	백만 달러
	수입	120,618	173,107	127,705	181,694	
	수지	40,031	24,836	25,290	20,221	
외환보유액	179,433	192,844	237,364	287,056	백만 달러	
총외채잔액	282,270	307,310	361,560	460,000	백만 달러	
총외채잔액/GDP	20.5	18.5	22.6	22.0	%	

자료 : CIA, World Factbook(www.cia.gov); 한국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http://keri.koreaexim.go.kr/)

한국과 브라질의 교역을 보면 한국은 브라질로부터 철광, 철강품, 식물성 물질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으며, 브라질은 한국으로부터 주로 자동차, 무선통신기, 평판디스크 플레이어 등을 수입하고 있다. 브라질의 수출 실적에서 한국으로의 수출실적은 2.2~2.4%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수입 실적에서 한국에서 수입한 비중은 3.4%에서 4.3%로 늘고 있다.

상호 투자 현황을 보면 쌍방간 투자는 크게 늘고 있지만, 브라질에 비해 한국의 투자가 거의 60배에 이를 정도로 일방적인 투자 흐름을 가지고 있다.

<표 2-39> 한국과 브라질의 교역 및 투자 현황

항목		2008	2009	2010	비고	
교역	수출(백만 달러)	5,926	5,311	7,753	자동차, 무선통신기, 평판디스플레이	
	수입(백만 달러)	4,380	3,744	4,712	철광, 철강품, 식물성 물질	
	교역 수지(백만 달러)	1,546	1,567	3,041		
	브라질의 한국 수입비중(%)	3.4	4.2	4.3		
	브라질의 한국 수출비중(%)	2.2	2.4	2.3		
투자 현황	규모 (백만 달러)	한→브	635,089	131,531	1,053,960	EDCF 없음
		브→한	-	222	30,139	

자료 : 전계서

2012년 브라질 경제는 2011년보다 다소 나으나 2010년의 성장세에는 크게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2010년 브라질 경제는 2009년의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7.5%의 신속한 회복세를 보였다. 이는 1986년 이후 최고의 성장세며, 중국이나 인도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G-20 국가 중에서는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높은 경제성장세에 힘입어 브라질의 명목 GDP는 처음으로 2조 달러를 넘어, 브라질은 세계 7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1인당 GDP 증가율도 6.5%를 기록해 브라질은 역사상 처음으로 명목 국민소득 1만 달러대에 진입했다. 2010년 브라질 경제의 괄목할 성장은 10월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일부 선심성 정책과 경기부양책 효과 등에 따른 내수 확대, 2014년 월드컵 및 2016년 올림픽 개최 특수에 따른 투자 확대 등에 힘입은바 컸다. 그러나 2011년 들어 브라질 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 심화 및 긴축 통화재정정책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뚜렷이 둔화되며, 성장률은 2010년의 절반에 그쳤다.

2012년 브라질 경제는 대외경제 여건의 지속적인 악화로 2011년보다 다소 높은 3%대 후반의 성장세에 그칠 전망이다. 중국, 미국, EU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제성장 둔화는 브라질의 주력 수출상품인 1차산품의 국제 가격 하락을 부채질하고 수출을 감소시킬 전망이다. 특히 2009년부터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성장세 둔화는 브라질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은 2000년 2%에서 2011년 1~6월 현재 17%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서 벗어나 두 자리 수 성장세를 보이던 수출 증가세는 2012년에는 한 자리 수에 그칠 전망이다. 전반적으로 수출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서도 2011년 9월부터 지속되어온 헤알화 약세 기조는 크지는 않지만 브라질의 수출 확대에 일조할 전망이다.

수출 증가세 둔화로 대외수지도 2011년보다 다소 악화될 전망이다. 수출 증가세를 상회하는 수입 증가세로 무역수지흑자 규모는 2011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무역흑자 규모 감소에다 브라질 현지 진출 기업들의 이윤 송금 확대로 경상수지적자 규모도 6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2011년과 마찬가지로 경상수지적자는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를 통해 보전이 가능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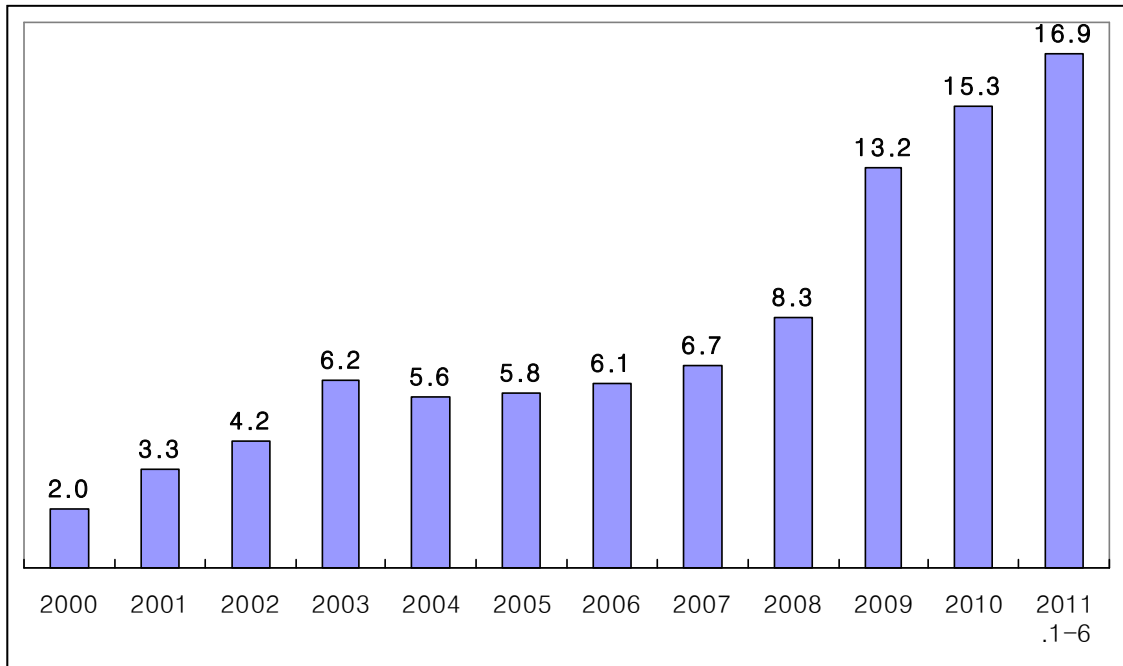
2012년 브라질 경제성장은 외수보다는 내수가 견인할 전망이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국내 경제 곳곳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그 성장세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보다 증가세가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투자 증가세가 경제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월드컵과 2016년 올림픽, 고속철 사업, 심해유전 개발, 성장촉진계획(PAC-2) 등 대단위 국가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며 투자 증가세를 이끌 전망이다. 특히 브라질 경제의 높은 잠재력을 겨냥해 2011년부터 큰 폭으로 유입되고 있는 FDI도 투자 증가세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FDI 유입 규모는 2011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600억 달러에 버금갈 전망이다. 또한 2011년 하반기부터 물가인상의 압박 속에서도 브라질 정부가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금리인하 효과가 가시화되며 브라질 경제의 경착륙을 막는 효과 노릇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 정부는 2011년 8월말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성장세가 뚜렷이 꺾이자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2년 만에 처음으로 정책금리(Selic)를 0.5%포인트 전격 인하(12.5% → 12.0%)한바 있다. 정책금리는 2012년 말 10.5% 수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지속적인 물가인상 압력으로 큰 폭의 금리인하 가능성은 높지 않다. 소비자물가는 2011년 처음으로 정부의 목표치(4.5±2%)를 벗어났으나 2012년에는 전반적인 경기둔화에 따른 소비수요 감소로 5%대 중반 수준에서 안정을 되찾을 전망이다.

<표 2-40> 브라질 경제성장 전망

구 분	2011	2012
EIU	3.6	3.8
Global Insight	3.6	3.9
IMF	3.8	3.6
브라질 중앙은행	3.4	3.6

자료 : EIU(2011.10.5), Global Insight(2011.10.15), IMF(2011.9), 브라질 중앙은행(2011.10.14)

<그림 2-13> 브라질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 추이(%)



자료 : 브라질전국경제인연합회(CNI)

2012년에도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브라질 경제가 커다란 혼란을 겪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만큼 브라질의 기초경제여건이 과거와 달리 튼실하기 때문이다. 은행시스템의 건전성이 높아(2010년 BIS자기자본비율 16.9%) 은행부문의 위기 가능성도 높지 않으며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많은 막대한 외환보유고(2010년 10월 19일 현재 3,512억 달러)를 확보하고 있고 순채권국의 지위를 누리고 있어 외환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경기부양을 위해 크진 않지만 재정 및 통화정책을 추진할 여력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 다만 여전히 브라질의 금리 수준이 높아 이를 겨냥한 단기성 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에 따라 큰 폭의 환율변동은 2012년에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 브라질 경제는 높은 경제발전잠재력에다 강화된 경제체질을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인 국가발전 전략과 산업정책 추진에 힘입어 안정적 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다. 최근 브라질 경제 성장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브라질 경제의 Big-5 진입 전망도 앞당겨 지고 있다. 2003년 골드만삭스는 브라질이 향후 50년간 연평균 3.6% 경제 성장을 달성해 2050년에는 미국, 중국, 인도, 일본에 이어 세계 5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에 반해 2010년 1월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브라질 경제가 2013년 세계 5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3장 한·남미 협력관계의 실태분석

제1절 FTA 추진 현황

제2절 ODA 사업 추진 현황

제3절 민간부문 진출사례와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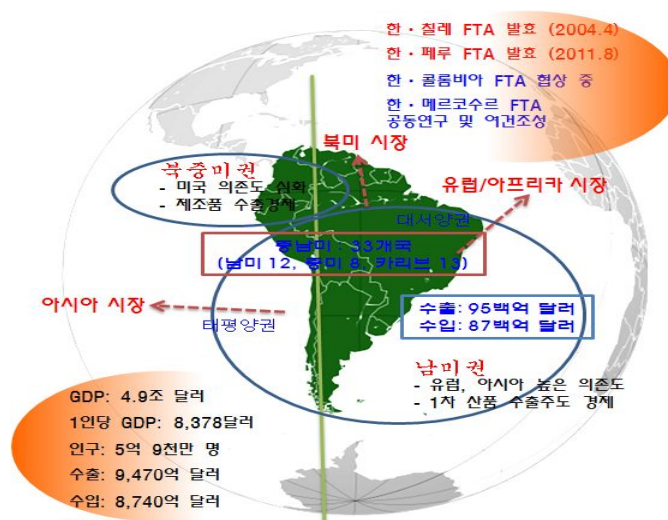
제4절 정책적 시사점

제3장 한·남미 협력관계의 실태분석

제1절 FTA 추진 현황

1. 개요

남미대륙은 33개국의 독립국가가 존재하고 있으며, 남미 12개국, 중미 8개국, 카리브 13개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이들 국가를 시장의존도를 중심으로는 북중미권 국가들과 남미권 국가들로 나눌 수 있다. 북중미권은 제조품 수출경제로 미국의존도가 심화되어 있으며, 남미권은 1차 상품 수출주도 경제로 유럽, 아시아 시장에 높은 의존도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태평양권에 있는 칠레, 페루 등의 국가들은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에 용이한 지리적 특징을 갖고 있으며, 브라질 등 대서양권의 국가들은 유럽 및 아프리카 시장으로의 진출에 용이하다. 남미대륙은 지역적으로 매우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다. 한국은 남미지역과 한·칠레 FTA, 한·페루 FTA, 한·콜롬비아 FTA, 한·메르코수르 FTA 등을 추진하였다. 한·칠레 FTA와 한·페루 FTA는 이미 발효되었으며, 한·콜롬비아 FTA는 협상 중에 있다. 그리고 한·메르코수르 FTA는 공동연구 및 여건조성 중에 있다.



<그림 3-1> 남미의 산업구조 및 FTA 현황

한·칠레 FTA는 1989년 11월 APEC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FTA를 추진하기로 한 후 약 4년에 걸친 총 6차례의 협상 끝에 2002년 10월에 타결되었고, 2004년 4월 1일에 발효되었다. 이는 우리나라가 첫 번째 체결한 FTA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또한 2011년 8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된 페루와의 FTA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칠레에 이어 두 번째이며, 우리나라 전체로는 일곱 번째 발효된 FTA이다. 경제규모가 한국의 1/7 수준인 페루와의 FTA는 단기적인 경제적 이해보다는 중남미의 대표적인 성장엔진을 선점한다는 의미와 천연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는 점, 중남미 진출의 새로운 교두보 확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과 콜롬비아와는 2008년 11월 APEC 정상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 추진의 필요성에 합의한 후 현재까지 협상 중에 있다. 콜롬비아의 FTA는 자원협력, 안정적 소비 시장 확보, 자동차 및 부품 수출 확대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4개국으로 구성된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의 FTA를 위해 공동연구 및 여건을 조성 중에 있다. 남미공동시장은 1991년 자유무역지대로 출범하여 관세동맹 관계로 발전한 개도국간 경제통합체 중 제도적으로 가장 앞선 통합체로서 개도국간 경제통합의 대표적인 성공모델로 주목받아 오고 있다. 특히, 세계최대의 수산물 생산국 중 하나인 페루와 수산물 소비대국으로 부상하는 브라질이 포함된 남미공동시장은 수산부문에서의 협력이 절실한 지역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페루와의 경제관계

가. FTA 주요 내용

한·페루 FTA는 우말라 대통령 당선 이후 최초로 작동이 된 외국과의 FTA 첫 발효 국가이다. 우말라 정권에서의 FTA 발효 성사 여부가 관건이었는데, 예정대로 발효가 된 것은 향후 우말라의 한국과의 다양한 부문의 교류에 시금석을 놓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페루의 경제규모는 한국의 1/7 수준인 점을 고려해 볼 때 금번 FTA는 천연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과 중남미 진출의 새로운 교두보 확보라는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양 측이 얻을 수 있는 FTA 기대 효과를 보면 우리나라로서는 포괄적 경제협력 기반을 구축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 진출 여건

조성, 자원개발 협력 기반, 수산협력 확대 기반 조성, 수출 저변 확대,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및 국가 이미지 개선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페루 측 입장에서는 최근 2004~10년 연평균 6.8%(Global Insight 2011)에 달하는 고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 유치, 기술 이전, 발전모델 공유, 아시아 시장 진출 기반 확보 등을 들 수 있다.

한-페루 FTA 협정문은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정부조달, 협력 등의 부문을 포함하고 있다. 발효 후 현재 교역되고 있는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는 10년 이내의 일정으로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협정에서 우리나라는 전체 농산물(HSK 기준 1,496개)중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쇠고기, 고추, 마늘, 양파, 인삼류, 분유, 사과, 배, 감귤 등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오렌지와 포도는 계절관세를 부과해 우리나라 성출하기(오렌지 11~4월, 포도 5~10월)에는 현행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비출하기 에는 포도는 5년간 관세(45%)를 폐지하고 오렌지는 10년간 관세(50%)를 폐지한다. 또 망고(30%)는 10년간 장기로 관세를 폐지한다. 이러한 관세 협정에 따라 정부는 한-페루 FTA 발효 시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커피 이외의 농산물 수입이 115만 9,000달러로 미미하고 주요 농산물이 대부분 양허 제외 또는 현행관세가 유지돼 생산 감소가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산물 가운데 냉동 민어, 냉동 명태에 대해 현행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페루는 관상어, 뱀장어(HS 기준 3개)를 제외한 모든 수산물의 관세를 5년 이내로 폐지하기로 했다. 커피를 제외하면 주요 농산물 대부분 양허가 제외되거나 현행관세를 유지하기 때문에 농산물 수입(115만 9,000달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추정된다. 페루의 관심품목인 오징어(현행 관세율 10~22%) 중 냉동, 조미, 자숙, 건조 품목에 대해서는 10년 이내, 기타 오징어에 대해서는 5~7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향후 수산물은 오징어, 붕장어를 중심으로 국내 생산 감소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7개의 민감 농산물 -닭고기, 오리고기, 무당연유, 치즈, 천연꿀, 맨더린, 녹두, 팥 등에 대해서는 농산물 셰이프가드 제도를 운용하기로 하였다. 서비스 및 투자 분야의 개방 또한 페루의 전기, 가스, 발전 서비스 부문에 진출을 모색할 좋은 시점이다.

정부조달 및 민자사업 시장을 상호 개방하기로 하여, 우리기업의 페루 입찰 시장에 진출이 확보되었다. 입찰 절차의 투명성 확대는 우리나라 건설과 플랜트 부문의 조달 시장 참여시 이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9%인 중장비 부품 및 철강관의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경우 저렴하게 부품 확보가 가능해져 우리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정부조달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양국 간 중소기업 공동 입찰 참여의 기회도 확대되었으므로 중소기업 간 교류의 장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페루 역시 중소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향후 중소기업의 정보화 및 경쟁력 촉진 등이 중요한 과제다.

나. FTA 특징 및 기대효과

페루와의 FTA는 우리나라가 8번째 체결한 FTA이며, 중남미 국가와는 칠레에 이어 2번째 FTA가 된다. 양국의 관심 협력분야를 10개(중소기업, 어업 및 양식, 산림, 에너지 및 광물,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 해양 운송, 문화, 농업)로 명시하고 협력 추진의 구심체로 협력위원회 설립에 합의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수산부문의 경우 FTA 발효 후 2년 이내에 수산협력약정 타결을 합의함에 따라 페루의 수산부문에 진출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FTA 협정문에 에너지 및 자원협력을 명시화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의 자원개발 부문에의 진출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 특히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협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 FTA 20.4조에서 양국 간 중소기업 협력 환경 조성을 위한 조항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페루를 비롯한 중남미 모든 국가에서 중소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높다. 남미 시장 개척의 난관인 언어, 문화, 지리적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만을 위한 특별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

FTA 기대효과를 보면 페루 측의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 분야는 금융서비스로 페루는 금융 시스템이 안정적이고 외환보유고가 높아 양국 간 상생할 수 있을 것이며, 수산업분야는 페루의 해안선 길이가 2,500km에 달해 한국이 수산업 분야에 진출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

이외에 상품과 서비스, 투자, 통신, 금융 등 경제와 통상 자유화를 통한 교역과 투자가 증대되고 에너지 분야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 한국에서 진출하는 페루의 모든 부문에서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되어야 한다.

부문별로는 기존의 페루 시장에서 좋은 브랜드 이미지를 누리고 있는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가전, 자동차(부품), 기계, 철강, 석유제품, 의료기기 등 부문은 FTA 체결 이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중국과 일본과의 FTA 체결로 인한 대응 방안으로는 보다 엄격한 품질경쟁력 확보와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활동을 확대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한-페루 FTA 특징 중 하나가 중소기업의 참여 확보에 있다.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새로운 판로가 개척될 수 있으며, 페루를 거점국가로 하여 이웃 중남미 국가로 파급되는 롤 모델을 제시해 나갈 수 있다.

다. 한국과 페루 간 교역 동향

페루는 2010년 현재 한국의 57대 수출국이며 38대 수입국이다. 1966년 처음으로 미미한 수출액이 이루어진 이래 특별한 수출은 큰 의미를 지니지 못했다. 그러나 1994년 최초로 1억 달러를 돌파한 이래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수입은 수출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특히 21세기 들어 무역수지 면에서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페루는 FTA 체결 이전부터 한국기업의 독자적이고 지속적인 시장 개척 노력으로 무역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었다. 2011년 1~7월 기간 7억 6,000만 달러로 이는 2010년 동기 대비 38.3%라는 큰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2010년 기준 대페루 수출은 우리나라 총수출의 0.2%, 수입은 총수입의 0.24%를 기록하고 있어 향후 수출품목의 발굴이 시급한 문제다.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를 비롯해 합성수지, 전자제품, 가전제품, 자동차부품, 화학원료, 기계류, 냉난방공기조절기, 철강제품,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플라스틱, 석유화학제품 등이며, 특징으로는 수출액에 비해 다양한 품목군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중 자동차 수출액이 2억 7,1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36%의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수출품의 위치를 지키고 있다. 농산물 수출은 라면, 사료첨가제 등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표 3-2> 한국-페루 연도별 수출입

연도	수출		수입		한국의 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1965	0	-	0	-	0
1966	0	175	1	94.2	-1
1967	0	-54.5	0	-87.3	0
1968	0	-100	1	1,301.30	-1
1969	0	-	3	143.8	-3
1970	0	78.3	4	33.3	-3
1971	1	1,224.40	13	265	-12
1972	0	-86	1	-90.1	-1
1973	1	1,214.50	0	-84.3	1
1974	1	37.3	5	2,589.30	-4
1975	1	-25.7	5	-9.1	-4
1976	1	-39.2	5	-2.8	-4
1977	1	63.5	16	248.5	-15
1978	1	-1.7	18	6.8	-17
1979	2	149.4	41	135.5	-39
1980	7	174.2	54	29.5	-47
1981	16	129	72	33.8	-56
1982	13	-18.6	83	15.5	-70
1983	5	-63.8	53	-36.3	-48
1984	5	17.1	63	19.9	-58
1985	7	24.9	108	71.2	-101
1986	16	130.1	112	3.5	-96
1987	24	55.7	91	-18.8	-67
1988	10	-56.8	90	-0.6	-80
1989	3	-70	97	7.3	-94
1990	10	221	94	-3.2	-84
1991	25	145.2	136	45.3	-112
1992	78	216.7	115	-15.8	-37
1993	58	-26.2	86	-25.5	-28
1994	132	128.5	89	3.5	43
1995	194	47.6	130	47.4	64
1996	204	5.3	181	38.5	24
1997	236	15.5	104	-42.4	132
1998	260	10.2	62	-40.5	198
1999	190	-27.1	78	26	112
2000	213	12.5	143	83.1	70
2001	188	-12	116	-18.6	71
2002	196	4.3	205	75.8	-9
2003	204	4.4	194	-5	10
2004	245	19.9	283	45.6	-38
2005	282	15.2	249	-11.9	33
2006	359	27.1	676	170.9	-317
2007	466	29.9	1,040	53.9	-574
2008	720	54.5	904	-13.1	-184
2009	641	-10.9	919	1.7	-278
2010	944	47.2	1,039	13	-94
2011.1~6월	653	36.3	1,075	118.8	-422

자료 : 한국무역협회 KOTIS 통계

<표 3-3> 한국의 대 페루 품목별 수출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연도	수출		수입		연도	수출		수입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944	47.2	760	38.3					
자동차	372	104.6	271	37.5	레일 및 철구조물	2	427.9	3	638.5
합성수지	71	134.1	68	66.2	기계요소	1	-2.6	3	434.4
영상기기	6	-77.2	49	839.7	냉장고	4	58.3	3	23.3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11	222.5	38	3,908.2	가정용회전(rotary electric)기기	4	50.1	3	-1.9
철강판	55	79.1	28	-26.6	표면활성제	2	203.5	3	418.4
건설광산기계	21	107.9	26	172.5	항공기 및 부품	1	-93.8	2	68,225.8
주단조품	2	68.1	21	2,810.9	인조섬유	3	21.8	2	44.1
정밀화학원료	41	73	21	-26.8	인조섬유장섬유사	6	46.9	2	-37.1
섬유 및 화학기계	10	46.1	19	283.4	계측제어분석기	1	13.8	2	541.8
자동차부품	21	18.9	16	33.7	기타 산업기계	1	636.8	2	1,840.1
무선통신기기	25	47.5	16	-2.8	기타 섬유제품	2	25.3	2	56.8
기타 석유화학제품	19	51.1	15	9.9	금속공작기계	0	-74.8	2	1,094.9
고무제품	21	25.5	15	19.3	유선통신기기	1	9.1	1	122.3
정전(static electric)기기	4	94.4	13	685.4	건전지 및 축전지	3	69	1	-13.3
컴퓨터	19	59.5	12	-10.7	기타 잡제품	1	832.7	1	995.2
철강관 및 철강선	31	1,078.2	11	-28.8	칼륨비료	0	2,240.1	1	1,345.0
플라스틱 제품	10	51	9	58.4	토지측량기	0	-	1	-
시멘트	13	556	8	2.4	기타기계류	1	38.3	1	82.1
종이제품	7	8.2	8	318.7	기타 철강금속제품	1	92.6	1	89.3
기타직물	9	3	7	65.5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2	-52.4	1	16.5
전선	2	290.7	6	461.9	안경	1	-11.8	1	65.1
편직물	6	87.9	6	62.6	식탁용구	1	12.3	1	62.6
원동기 및펌프	3	46	4	124.7	연마제품	0	717.3	1	1,263.4
염료 및 안료	7	44.8	4	-13	합금철선철 및 고철	0	-30.9	1	1,082.4
농약 및 의약품	8	-13.9	4	-16.3	기타 정밀화학제품	1	8.3	1	15.7
합성고무	8	59.8	4	2.4	인조장섬유직물	1	76.8	1	6.4
전자응용기기	7	0.3	4	6	금형	1	-8.6	1	229.2
형강	7	-40.7	4	25.6	공구	1	115.6	1	36.9

자료 : 한국무역협회 KOTIS 통계

수입증대 효과는 섬유, 비철금속 순으로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비철금속, 천연자원의 1차 가공품목의 경우 관세율이 무관세에 가깝기 때문에 전체 가중평균 관세율도 거의 0에 가까운 수준을 보이고 있다. 현재 주요 수입 품목은 비철금속 및 천연자원이 주가 되고 있으며, 농산물로는 커피가 주 상품이다.

<표 3-4> 한국의 대 페루 수입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연도	수출		수입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1,039	13	1,302	128.9
천연가스	0	-	401	-
동광	486	58.3	370	59.6
기타 금속광물	192	13.7	248	122.6
아연광	172	-9.7	137	4.6
금은 및 백금	13	230.3	47	4,981.0
수산가공품	22	-4.4	30	111.5
기호식품	32	68.2	18	202.7
석유제품	71	-49.4	11	-76
동제품	6	-78.3	7	433.5
연체동물	9	1.3	7	9.6
의류	9	3	5	-11.5
어육 및 어란	7	43.7	4	10.9
염료 및 안료	2	118.9	3	258.6
천연섬유사	2	44.4	2	-7.9
기타 농산물	1	14.1	2	65.3
알루미늄	1	-23.8	1	149
컴퓨터	0	-31.2	1	1,914,388.2
곡실류	0	-22	1	1,520.4
아연제품	2	-10.6	1	31.4
수산부산물	3	-8.6	1	-61.2
무선통신기기	0	-29.2	1	152,745.2

자료 : 한국무역협회 KOTIS 통계

한·페루 FTA 이후 페루 농산물의 수입가능성은 우선 협상관심품목을 중심으로 살펴 볼 수 있다. 포도, 고추, 양파, 감자, 닭고기 등이다. 그러나 지리적 관점에서 페루의 수출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한국으로의 수입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포도(1.9달러/kg)는 칠레 등 경쟁국이 있으며, 고추(1.8달러/kg)와 양파(0.3달러/kg)는 중국, 감자(1.1달러/kg)는 호주와 미국, 닭고기(1.7달러/kg)는 미국에 비해 각각 수출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당장은 이들 품목의 수입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투자의 경우 우리나라의 대 페루 직접투자액은 2010년 4,819만 달러로 우리나라 총 투자액의 0.21%에 그치는 수준이다. 투자액의 대부분은 광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페루는 우리나라 34위의 투자대상국이며, 중남미 국가 중에는 브라질, 파나마, 멕시코에 이어 제4위의 투자대상국이다. 기존의 광업 위주 투자에서 벗어나 농산물, 바이오 에너지, 물류서비스, 컨설팅, 수산분야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술과 자본이 페루의 풍부한 원료와 저렴한 노동력이 결합되는 부분이 투자 적격 분야가 될 수 있다.

3. 브라질과의 경제관계

1) 무역관계

2010년 우리나라의 대브라질 수출은 전년대비 46% 증가한 77억 5,300만 달러에 달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 세계 수출 증가율(28.3%)을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이 같은 높은 수출 증가세로 우리나라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브라질의 비중은 2009년 1.5%에서 2010년 1.7%로 높아졌다. 수출 순위는 2009년에 이어 13위를 유지했다. 브라질로부터 수입도 전년대비 26% 증가한 47억 1,200만 달러에 달했다. 수입을 상회하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무역수지는 2009년보다 약 2배 증가한 30억 달러를 기록했다.

<표 3-5> 對브라질 수출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8	2009	2010
수 출	5,926(69.9)	5,311(-10.4)	7,753(46.0)
수 입	4,380(13.8)	3,744(-14.5)	4,712(25.9)
무역수지	1,545(851)	1,568(23)	3,040(1,472)

주 :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단 무역수지는 증감액

자료 : 한국무역협회

품목별로는 자동차 수출이 전년대비 66% 증가해 2009년에 이어 1위 수출품목의 자리를 차지했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 24%에서 27.2%로 높아졌다. 그에 반해 전통적으로 제1위 수출 품목이었던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2009년에 이어 하

락세(전년대비 7.4% 하락)를 면치 못했다. 그 결과, 수출 비중은 2009년 20%에서 12.6%로 크게 하락했다. 자동차 수출 확대에 힘입어 자동차부품의 수출도 매우 가파른 증가세(전년대비 427.3%)를 보였다. 브라질의 대규모 인프라 개발, 광산개발 붐에 힘입어 철강관(전년대비 140.6%)이나 건설광산기계(165%)의 수출도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표 3-6> 對브라질 10대 수출 품목 및 증가율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9		2010	
MTI3단위	품 목 명				
741	자동차	1,278	(26.3)	2,114	(65.5)
812	무선통신기기	1,056	(-6.8)	977	(-7.4)
836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270	(-32.6)	497	(84.0)
613	철강관	195	(35.1)	470	(140.6)
821	영상기기	289	(-24.2)	467	(61.6)
133	석유제품	448	(-47.2)	313	(-30.2)
742	자동차부품	54	(-4.8)	284	(427.3)
725	건설광산기계	103	(-58.8)	272	(165.0)
813	컴퓨터	214	(20.5)	250	(16.9)
214	합성수지	129	(-26.2)	228	(77.0)

주 :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자료 : 한국무역협회

품목별로 수입은 철광 및 철강제품, 제지원료의 수입이 크게 증가한데 반해 식물성 물질이나 곡식류의 수입은 감소세를 보였다. 전통적으로 제1위의 수입 품목인 철광의 수입은 전년 대비 67% 증가(18억 달러)했다. 높은 수입 증가세로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 28.8%에서 38.2%로 크게 뛰었다.

<표 3-7> 對브라질 10대 수입 품목 및 증가율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MTI3단위	품목명	2009		2010	
		112	철광	1,078	(-20.7)
619	강반제품및기타철강제품	479	(-51.5)	735	(53.5)
13	식물성물질	563	(97.2)	377	(-33.1)
251	제지원료	141	(15.3)	315	(123.8)
15	기호식품	240	(16.4)	288	(20.2)
11	곡실류	281	(-21.2)	233	(-17.1)
19	기타농산물	151	(-9.3)	187	(23.3)
618	합금철선철및고철	230	(-24.5)	186	(-19.2)
113	동광	89	(-50.7)	98	(10.4)
22	육류	62	(18.7)	83	(35.1)

주 :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MTI 3단위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제2위 수입 품목인 철강제품의 수입도 전년대비 54%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2010년 수입 품목 중에서는 제지원료의 수입 증가세(전년대비 123.8%)가 현저했다. 그에 반해 2009년 약 100%에 달하는 높은 증가세를 보였던 박류를 포함한 식물성 물질의 수입은 전년대비 33% 하락했다.

2) 투자관계

한국기업의 대 브라질 투자는 1980년대 말까지는 2건(2백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1990년대 들어 브라질의 경험잠재력이 부상되고 경제가 안정세를 되찾으면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표 3-8> 연도별 對브라질 직접투자 추이(총투자 기준)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 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총계	397	169	4,028,234	631	3,008,907
1980	3	2	24,049	2	269
1987	3	1	1,410	4	1,260
1988	1	0	200	2	350
1989	4	1	1,526	5	410
1990	0	0	0	0	0
1991	2	2	46	3	219
1994	4	3	3,439	3	439
1995	6	4	19,863	4	19,158
1996	10	5	164,510	14	50,137
1997	15	3	204,601	10	49,771
1998	7	3	89,030	13	70,448
1999	9	4	114,417	9	46,334
2000	3	2	5,483	8	28,505
2001	11	5	40,872	19	18,823
2002	7	3	14,430	12	3,073
2003	9	5	8,350	20	6,979
2004	9	1	23,414	18	19,892
2005	29	15	248,799	53	174,114
2006	22	13	207,716	53	110,203
2007	35	21	214,418	55	264,793
2008	37	10	739,840	49	635,089
2009	30	14	114,486	63	131,531
2010	74	31	1,564,068	121	1,051,153
2011	67	21	223,266	91	325,957

자료 : 수출입은행(11. 3)

1998년 경제위기와 2002년 금융 불안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2004년까지 투자가 다소 둔화되기도 하였으나, 2005년부터 브라질 내수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면서 해외직접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음. 그러나 2008~09년에는 세계경기침체, 기업영업환경 악화 등의 이유로 대 브라질 직접투자규모가 1.3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2010년 들어 브라질의 경기회복과 더불어 대 브라질 직접투자규모가 다시 급증하였음. 특히 2010년에는 SK네트웍스의 브라질 철광석 기업 MMX 지분인수를 위한 대규모 투자(7억 달러)로 인해 대 브라질 직접투자금액이 사상 최대치인 10.5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신규법인 수도 31개로 최고 기록을 경신하였다.

2011년 3월 기준, 대 브라질 직접투자규모는 신규법인 수 169개, 3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또한 대 브라질 총 투자 신고액은 40억 2,823만 달러(397건)이며 순 투자금액은 30억 890만 달러로, 투자업종은 주로 광업(16억 9,255만 달러)과 제조업(9억 2,625만 달러)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투자지역은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마나우스 지역, 상업중심지인 상파울루와 리우데자네이루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표 3-9> 우리나라의 對브라질 업종별 투자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 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합 계	397	169	4,028,234	631	3,008,907
농업, 임업 및 어업	8	3	56,344	26	12,641
광업	17	3	1,861,742	89	1,692,559
제조업	218	79	1,413,652	305	926,251
건설업	22	11	16,303	27	10,557
도매 및 소매업	62	34	123,383	82	40,574
운수업	12	10	6,296	16	3,419
숙박 및 음식점업	7	2	2,200	12	2,20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1	9	141,151	36	7,957
금융 및 보험업	6	3	236,170	6	225,561
부동산업 및 임대업	9	5	160,911	15	83,29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	2	1,557	5	1,55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6	6	8,185	7	2,03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	1	80	1	4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	1	258	4	256

자료 : 수출입은행('11. 3)

한국기업의 브라질 투자는 대기업 중심이며 전기전자, 자원개발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데, 현지투자진출 기업으로는 삼성전자, 삼성SDI, LG전자, POSCO, 서울전자통신, CJ, 효성, 현대자동차 등이 있다.

<표 3-10> 對브라질 주요 투자진출 기업 현황

업체 명	투자지역	주요 생산품목
삼성전자	마나우스(Manaus)	칼라TV, 모니터, 하드디스크, DVD, 오디오, 디지털카메라
	캄피나스(Campinas)	핸드폰, 모니터, 프린터, 노트북
LG전자	마나우스(Manaus)	칼라TV, VCR, 전자레인지, DVD, 에어컨
	타우바테(Taubaté)	모니터, 핸드폰, 광저장매체(CDR, CDRW)
	파울리니아(Paulínia) (투자 예정)	냉장고, 가스렌지 등 백색가전
POSCO	비토리아(Vitória)	Pallet(CVRD와 합작)
서울전자통신	마나우스(Manaus)	오디오용 트랜스포머, TV용 코일
CJ	피라시카바(Piracicaba)	동물 사료용 단백질(라이신)
효성(건설 중)	아메리카나(Americana)	타이어코드
현대자동차(건설 중)	피라시카바(Piracicaba)	승용차
두산(공장건설 추진 중)	아메리카나(Americana)	중장비

자료 : KOTRA

한국기업의 동향을 살펴보면, 이미 브라질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한 삼성전자 및 LG전자 등은 현지에서 시장성이 검증되었거나 유망한 품목을 중심으로 현지 판매 또는 생산품목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현재 가장 밀접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분야는 전자산업 분야다. 이미 LG전자, 삼성전자, 서울전자통신 등 많은 기업이 브라질에 생산 공장을 가동 중에 있으며, 3D TV, Side by Side 타입의 대형 냉장고, 나노 세탁기 등 상류층을 겨냥한 프리미엄 상품 판매 확대 및 3G기술을 탑재한 스마트폰 등 고급 사양의 휴대폰 제품 출시도 가속화되고 있다.

자동차도 급속한 투자증대가 예상되는 산업 분야다. 현대 자동차는 브라질 협력업체 카오아를 통해 수출한 투산의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브라질 시장 투자를 결정하고, 2011년 현지 생산 시설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와 함께 9개의 부품 공급사가 이미 동반진출을 결정하였고, 자동차 부품생산 중소기업들의 지속적인 투자 진출이 예상된다.

한국의 조선업계의 브라질 진출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STX에서 조선소 건설을 추진 중에 있고,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은 브라질 조선소의 지분 참여 방식으로 현지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 엄청난 물량을 구매하는 브라질의 페트로브라스(Petrobras) 등에 납품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한국의 조선기자재 생산업체들의 브라질 투자도 예상된다. 또한 선박 건조용 철강수요를 겨냥하여 동국제강 등 철강기업에서도 브라질에 제철소 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

향후 10년간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가장 주목하는 분야가 브라질의 사회간접자본(SOC)프로젝트 수주라고 할 수 있다. 고속철 건설, 공항 확장, 부두 건설 등 교통부문과 발전소 건설 등 에너지 분야를 감안하면 세계에서 최대 규모의 투자가 계속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고속철도 건설을 수주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 있다. 스페인, 독일, 일본 및 중국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3) 협력의 방향

가. 21세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구축

세계경제의 차세대 슈퍼파워로 부상하고 있는 브라질과의 협력은 전략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동반자적 성격을 띠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연구¹⁰⁾에 따르면 전략적 동반자관계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먼저, 전략적 동반자관계는 어떠한 가치관이나 세계관 보다는 이익을 공유하는 개념이다. 둘째, 전략적 동반자관계는 최상위 개념인 동맹과는 달리 제3의 적을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동맹보다는 느슨한 국가 간의 협력을 지향한다. 셋째,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군사적 협력 이외도 정치·경제 및 사회·문화에 걸쳐 포괄적 협력을 지향한다. 넷째, 양자관계를 통해 지구적 및 지역적 수준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추가해 나가는 관계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인도, 멕시코, 러시아, 유럽연합(EU), 아세안 등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멕시코가 유일하다. 브라질과는 우리나라가 책정하고 있는 6단계 경제협력 단계 중 가장 낮은 수준인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

10) Lo, Bobo, Axis of Convenience: Moscow, Beijing, and the New Geopolitics.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e Press, 2008; Wilkins, Thomas S. "Russo-Chinese Strategic Partnership: A New Form of Security Cooperation?" Contemporary Security Policy 29, No. 2(2008).

있다. 세계 정치경제에서 브라질이 차지하는 위상과 향후 발전 잠재력,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조속히 브라질과의 경제협력 단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

나. 상호 호혜적이며 대등한 수평적 협력 추구

그동안 우리가 브라질에 갖고 있는 시각은 브라질이 여러 면에서 우리보다 열등하다는 인식이었다. 실제로 1인당 국민소득 면에서 브라질이 우리보다 크게 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브라질은 경제규모면에서 우리를 한참 앞서고 있다. 2009년 기준으로 브라질 경제규모는 우리의 2배에 달한다. 또한 브라질은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 수준에 도달해 있다. 브라질의 바이오에탄올 등 바이오연료 기술은 세계 선도국의 위치에 있으며 항공우주 기술도 세계적인 수준에 와 있다. 이밖에도 브라질은 심해유전 개발, 생명공학, 농업학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수준을 자랑한다. 브라질은 또한 확대되고 있는 경제규모에 걸맞게 국제무대에서도 위상을 강화해 가고 있다. 브라질은 한국과 더불어 G20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세계 경제질서 재편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협상이나 WTO 협상에서도 개도국의 입장을 대변해오고 있다. 세계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브라질은 일방적 형태의 지원보다는 쌍방향의 동등한 협력을 존중한다. 따라서 브라질과의 협력은 양국이 동등하게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분야 발굴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다. 브라질 경제에 대한 인식전환을 통한 중장기 진출전략 추구

다음으로 기업차원에서 브라질 시장 진출은 브라질 시장에 대해 갖고 있는 기존의 선입견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새로운 인식을 통한 접근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 최근 세계 경제의 지형을 새롭게 그리고 있는 BRICs 국가 중의 하나인 브라질은 경제규모 및 소비시장 면에서 볼 때 우리 기업이 더 이상 잠재시장이란 안이한 인식으로 방치해서는 안 될 현재형의 주력 시장이다.

최근 브라질 경제의 안정과 성장, 향후 브라질 경제의 도약 가능성에 비추어볼 때 브라질 경제는 과거의 불안정하고 주기적인 특성에서 탈피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브라질 경제에 대한 인식에 기초한 단기적 이익 추구형의 진출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시장과 함께 성장해 간다는 인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세계 경제통합의 새로운 허브로 부상하고 있는 브라질 경제 환경 변화에 부응해 종전 현지 내수시장 공략 위주의 투자에서 벗어나 우회진출 및 제3국 시장 진출을 겨냥한 투자진출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향후 EU-MERCOSUR간 FTA를 대비해 기존의 단순한 현지 시장확보형 투자 형태에서 벗어나 인접시장 진출이나 세계 시장을 겨냥한 효율성 추구형 투자로도 전환이 필요하다.

그간 브라질 시장은 문화적, 지리적 거리감과 불안정한 브라질 경제의 특성 때문에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우리 중소기업의 브라질 시장에 대한 진출은 거의 부재했다. 그러나 최근 브라질의 경제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다. 우리 중소기업들은 그간의 소극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브라질 시장에 대한 과감한 진출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단독 진출의 경우 아직까지는 많은 한계가 있는바, 우선적으로는 기 진출 업체들과의 전략적 제휴나 협력업체와의 동반진출이 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제2절 ODA 사업 추진 현황

1. 일반 현황

남미 지역에 대한 ODA 사업은 1959년 ‘쿠바혁명’ 이후 남미 지역의 좌파세력 확장을 방지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 필요성에 의해 시작되었다. 남미 지역은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지만 여전히 전체 인구의 1/3이 하루 생활비 2달러 이하의 빈곤지역이기도 하다. 또한 남미 지역은 빈곤, 사회소득불평등, 마약, 부정부패, 질병과 전염병, 해양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어 다양한 원조사업이 필요한 지역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에야 남미지역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으며,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무상원조 규모를 ODA의 15% 선까지 끌어올리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200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남미지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무상 ODA 총액은 5~6%에 불과하지만 2015년까지 GNI 규모를 0.25%까지 늘린다면, 전체 ODA 규모는 연간 33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남미와의 양자간 무상원조 규모도 약 2.56억 달러로 증가할 계획이다¹¹⁾.

한국은 지난 20년간 신흥공여국으로서 중남미 지역에 대한 인프라 건설, 물자지원, 기술협력 그리고 재난구호 등 다양한 원조를 제공해 왔고 사업발굴과 추진에 있어서도 수원국의 ‘필요’를 적극 반영하여 원조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오고 있다. 핵심원조 분야인 ‘빈곤퇴치, 교육, 보건 및 의료, 정보통신,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양성평등과 여성의 권리보호, 환경보호, 자연재해, 마약, 조직범죄 및 분쟁 예방과 해결’ 등에 개발 역점 과제를 두고 사업을 확장시켜오고 있다(이현주 2008:11). 물론 지나치게 많은 협력분야 때문에 각 사업별 명확한 목표와 정책 가이드라인이 아직 잡혀 있지 않아 체계적인 전략의 부재 속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특히 중남미 지역에 가장 많은 ODA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미국, 스페인, 일본, 스웨덴의 경우와 비교하여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이 부족하거나 새로운 사업발굴에 다소 늦게 대처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기도 하다.

11) 홍현표·마창모, “수산분야 ODA 사업의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 2010.

2. ODA 사업 현황

전 세계의 공여국 및 공여기관에서 남미지역 12개국에 지원한 전체 ODA 지원금은 총 36,865백만 달러 규모이며, 콜롬비아가 가장 많은 9,857백만 달러, 볼리비아 8,431백만 달러, 브라질 5,800백만 달러의 순으로 많았다. 수산부문에 대한 ODA 원조 금액은 페루가 31백만 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에콰도르와 칠레가 각각 15백만 달러 규모였으며, 브라질도 수산과 관련해서 11백만 달러의 원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미 지역에 대한 전체 ODA 규모에서 수산부문이 차지하는 규모는 0.003%였다.

<표 3-11> 세계의 대상지역별 수산분야 협력 내용

단위 : 백만 USD

국가명	ODA 지원(2000년-2009년 누적), 백만 USD)		
	전체	수산업	수산업 비중
가이아나	1376.02	0.084	0.000
베네주엘라	613.45	0.95	0.002
볼리비아	8431.29	4.65	0.001
브라질	3623.67	10.93	0.003
수리남	1000.53	8.6	0.009
아르헨티나	1239.47	12.76	0.010
에콰도르	2536.89	15.42	0.006
우르과이	313.03	0.41	0.001
칠레	963.85	14.69	0.015
콜롬비아	9856.85	1.42	0.000
파라과이	1110.12	0.54	0.000
페루	5800.14	30.56	0.005
총계	36865.31	101.014	0.003

자료 : OECD StatExtracts, <http://stats.oecd.org/Index.aspx>;

최근 10년간 남미지역 12개국에 대한 한국의 ODA 사업 지원금은 총 231백만 달러 수준이다. 지원 금액 기준으로는 에콰도르가 57백만 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콜롬비아가 49백만 달러, 볼리비아 43백만 달러, 페루 33백만 달러의 순으로 많았다. 전체 ODA 사업 중 어업부문에 대한 원조금은 0.25백만 달러로 전체 ODA 사업비에서 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0.0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 공여국이 남미지역 수산업에 지원한 비중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3-12> 한국의 대상지역별 수산분야 협력 내용

단위 : 백만 USD

국가명	ODA 지원(2000년-2009년 누적, 백만 USD)		
	전체	수산업	수산업 비중
가이아나	0.74	-	-
베네주엘라	0.37	0.01	-
볼리비아	43.13	-	-
브라질	1.26	0.01	0.009
수리남	0.34	-	-
아르헨티나	0.51	0.02	0.039
에콰도르	57.36	0.07	0.001
우루과이	0.06	-	-
칠레	1.00	-	-
콜롬비아	48.83	0.02	0
파라과이	27.02	0.09	0.003
페루	32.58	0.03	0.001
총계	213.18	0.25	0.001

자료 : OECD StatExtracts, <http://stats.oecd.org/Index.aspx>;

일반적으로 원조 사업은 양자원조와 다자원조로 구분된다. 양자원조는 공여자와 수혜자 모두 1:1의 국가인 경우로 우리나라가 브라질에 직접 원조를 하는 것을 사례로 들 수 있다. 다자원조는 수혜자는 하나의 국가이지만, 이 국가에 대해 원조를 하는 주체가 2개 국가 이상의 경우를 의미한다. 즉, 한국과 미국이 브라질에 같이 원조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다자 원조의 경우에 복수 공여국이 ODA를 지원할 때, 발생하는 물리적, 금융적, 사업목적의 전문적인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자원조는 일반적으로 국제기구 혹은 지역국제기구 등을 통해 통합적인 관리 하에서 공여하는 경우가 일반화되어 있다. OECD/DAC에서는 이러한 국제기구에 24개의 통계를 집계하고 있다.

<표 3-13> OECD/DAC의 다자원조 기관 설명

약자	명칭	한국명	설립목적
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국제개발협회	저소득국가의 경제 개발 및 후생 향상
EU Institutions	EU Institutions	EU 기관	-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국제금융 안정
Global Fund	Global Fund	글로벌 펀드	-
GEF	Global Environment Facility	지구환경금융	개발도상국들의 환경분야 투자 및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UNDP, UNEP, 세계은행의 3자 관리)
IDB Sp.Fund	Inter-america Development Bank Sp.Fund	미주개발은행	세계최고, 최대의 지역개발은행(역내 28개, 역외 18개국)
UNICEF	UN Children's Fund	국제아동기금	유니세프는 144개 가난한 국가의 굶주리는 어린이를 위한 활동
UNFPA	UN Fund for Population Activities	UN인구기금	개발도상국의 인구 문제에 대한 계몽 및 지원
UNDP	UN Development Programme	UN개발계획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적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만들거나 관리하는
UNAIDS	UNAIDS	UN 에이즈	AIDS와 관련한 지원사업
WFP	World Food Programme	세계식량계획	식량 원조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GAVI	The Global Alliance for Vaccines and Immunization	국제백신면역연합	국제적으로 백신을 공급 지원
OFID	OPEC Fund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OECD 국제개발기금	OECD가 개도국 개발을 지원하기 설립한 기금
Nordic Dev.Fund	Nordic Dev.Fund	노르웨이 개발기금	저소득 국가의 기후변화에 무상 원조
AfDB	African Development Bank	아프리카개발은행	아프리카 국가들 사이에서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제개발 및 사회진보를 촉진
AfDF	African Development Fund	아프리카개발기금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경제적·사회적 개발에 대한 투자를 목적
AsDB	Asian Development Bank	아시아개발은행	아시아와 태평양 인구의 경제 발전과 협력을 촉진한다는 목적
AsDF	Asian Development Fund	아시아개발기금	아시아 여러 나라의 경제적·사회적 개발에 대한 투자를 목적
EBR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유럽부흥개발은행	구소련과 동유럽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지원
IDB	Inter-america Development Bank	미주개발은행	세계최고, 최대의 지역개발은행(역내 28개, 역외 18개국)
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국제 부흥 개발 은행	2차 세계대전으로 황폐해진 국가 재건 목적이었으나 현재는 빈곤 상태의 국가들을 구제로 확대
IFAD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국제농업개발기금	개발도상국의 농업개발 및 식량생산증대 촉진, 이를 위한 융자 및 보조금 지원
UNEC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UN유럽경제위원회	유럽경제의 발전과 가맹국간 및 타지역과의 경제협력 촉진을 목적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모든 사람들이 최상의 건강상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

남미가 받은 양자원조와 다자원조는 다음과 같은 동향을 보이고 있다. 우선 전체적으로 남미에 대한 ODA 원조가 크게 늘고 있다. 2002년~2009년 사이에 매년 8.3%씩 늘어나고 있다. 그 결과, 2009년에는 총 45억 달러 이상의 ODA가 남미에 지원되었다.

이를 양자와 다자로 구분해서 보면, 2002년에 92.9%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던 남미에 대한 양자원조가 2009년에는 79.5%로 줄고 있다. 즉, 아직은 남미의 ODA 수혜 규모는 양자원조의 비중이 높지만, 추세적으로 보면 다자원조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다자원조는 2002년 7.1%였던 것이 매년 25.9%씩 늘어나면서 2009년에는 그 비중이 20.5%까지 늘었다. 즉, 최근 들어 선진 원조공여국들의 남미에 대한 원조형태는 양자원조에서 다자원조로 전환되고 있다.

<표 3-14> 남미의 ODA 수혜 형태-양자 및 다자 비교

단위 : 백만 달러, %

연 도	합계	양자원조		다자원조	
		원조액	비중	원조액	비중
2002	2,594.5	2,410.0	92.9	184.5	7.1
2003	3,273.0	3,004.0	91.8	269.0	8.2
2004	3,892.1	3,594.9	92.4	297.2	7.6
2005	3,319.6	2,756.1	83.0	563.5	17.0
2006	5,611.8	3,085.2	55.0	2,526.6	45.0
2007	3,596.3	3,083.5	85.7	512.9	14.3
2008	4,216.4	3,534.6	83.8	681.8	16.2
2009	4,519.2	3,594.9	79.5	924.4	20.5
연평균증감율	8.3	5.9	-2.2	25.9	16.3

자료 : OECD/DA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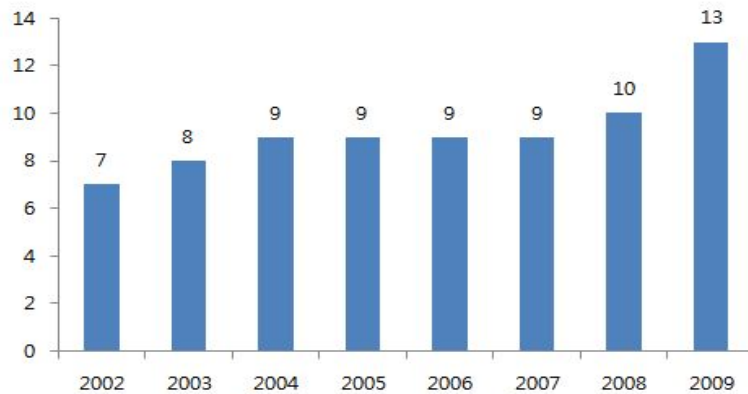
최근 들어 남미에 대한 ODA 공여에서 다자원조가 상대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어떠한 국제기구들이 남미와의 다자원조로 활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대남미 ODA에 참여하는 다자원조의 국제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2002년에 7개였던 것이 2009년에는 13개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다.

둘째, 2002년~2009년까지 다자원조 기구들의 남미에 대한 누적 ODA 공여 규모는 총 60억 달러 정도였는데, 이중 83.0%가 IDA와 EU Institutions를 통해서 지원되었다. 이 외에 IMF(8.0%), Global Fund(5.0%), GEF(4.8%), IDB Sp.Fund(4.2%)로 나타났다. 전

통적으로 남미에 대한 다자 ODA는 IDA와 EU Institutions가 수행해 왔으나 과거에 비해 참여 기관이 늘면서 아직은 낮은 비중이지만, 일부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다.

<그림 3-2> 남미의 다자원조 참여 기관의 수 추이



자료 : OECD/DAC

특히, 우리나라는 남미에 대한 ODA 경험이나 실물경제, 사회문화적 친숙감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미에 대한 ODA 공여주체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다자 기관을 통한 남미로의 ODA 전략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기존에 남미를 대상으로 ODA를 전통적으로 공여해 오던 다자원조 기관을 통해 우리의 대남미 ODA에 있어 약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표 3-15> 對남미 다자ODA의 기관별 원조 규모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2	2009	누적합계	비중	누적비중
IDA	120.5	42.2	2,411.9	40.5	40.5
EU Institutions	3.2	483.7	1,935.9	32.5	73.0
IMF (Concessional Trust Funds)	24.7	-	476.8	8.0	81.0
Global Fund	-	60.1	300.1	5.0	86.0
GEF	12.8	38.8	288.6	4.8	90.8
IDB Sp.Fund	-	248.2	248.2	4.2	95.0
UNICEF	8.9	11.3	109.5	1.8	96.8
UNFPA	13.4	12.3	83.1	1.4	98.2
UNDP	-	12.8	66.4	1.1	99.3
UNAIDS	1.1	4.1	17.5	0.3	99.6
WFP		3.5	11.7	0.2	99.8
GAVI		3.9	6.9	0.1	99.9
OFID		2.6	2.6	0.0	100.0
Nordic Dev.Fund		0.7	0.7	0.0	100.0
AfDB			0.0	0.0	100.0
AfDF			0.0	0.0	100.0
AsDB			0.0	0.0	100.0
AsDF			0.0	0.0	100.0
EBRD			0.0	0.0	100.0
IDB			0.0	0.0	100.0
IBRD			0.0	0.0	100.0
IFAD			0.0	0.0	100.0
UNECE			0.0	0.0	100.0
WHO			0.0	0.0	100.0
합계	184.5	924.4	5,959.9	100.0	-

자료 : OECD/DAC

3. ODA 핵심 분야

1) 기후변화 대응

지난 10년 동안 중남미와 카리브 지역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가장 큰 행사는 영양소가 풍부한 한류성 해양과 플랑크톤과 수많은 물고기 어종이 사라지면서 동시에 기후 패턴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엘니뇨현상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준비된 1997-1998년 엘리뇨(ENSO; El Nino Southern Oscillation) 대응 회의였다. 이러한 엘리뇨의 발생은 태평양으로부터 커다란 규모의 해양대기 변동으로부터 발생하여 엄청난 규모의 수온상승은 결과적으로 광범위할 정도의 어업(어획량)에 심한 타격을 주며 플랑크톤의 대량 말살과 더불어 먹이사슬 구조가 파괴되어 바다사자 같은 종유지에 영향을 주며 해양생물 다양성 유지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최근 이 지역에서 엄청난 규모와 범위로 발생하는 엘리뇨의 영향과 더불어 반드시 고려해야하는 일은 지역 차원의 기후변화가 향후 엘리뇨의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력이다. 지난 몇 년 동안 과학자들은 대기오염에 의해 유발되는 기후변화가 ‘온난화 효과’에 의한 것이라는 공동의 합의에 도달했다. 화석연료의 연소와 더불어 방출되는 이산화탄소, 메탄 등과 같은 온실가스들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기후변화는 심각하게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전 세계의 생태계, 경제 그리고 사회 시스템에 위협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중남미 지역의 경우 대기이산화 탄소 방출량은 2004년 기준 1인당 연 2.6톤으로 전 세계의 배출량의 4.9%에 불과했으며 2004년 경제성장의 대기이산화탄소 집중도(Carbon Intensity of Growth)역시 0.3667으로 개도국 평균 0.56, OECD 평균 0.45에 비하여 낮은 편이지만, 세계야생생물기금(World Wildlife Fund)은, 브라질에서는 매년 1%의 수목림이 파괴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극지방 해빙수의 증가로 중남미와 카리브 지역에서는 해수면이 1미터(40인치)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IPCC의 보고에 의하면 이는 연안도시가 많은 이 지역에는 거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상기했다시피, 이 지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연안 도시들로의 인구집중 현상은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해수면의 상승의 이 지역의 대도시들로 꼽히고 있는 리오 데 자네이루(Rio de Janeiro)나 브에노스 아이레스(Buenos Aires)를 위협에 빠트릴 수 있다. 수많은 해변들과 휴양지 그리고 사

회 인프라 기반시설들, 심지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맹그로브 숲들과 여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중요한 동식물 서식지들이 치명적인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

엘리뇨 현상이 보여 주듯이 기후변화는 대규모의 어획량 축소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카리브 지역의 모든 도서 국가들은 그들의 모든 국토의 상당 부분이 침수되는 경험을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보다 작은 섬 국가들 예를 들어, 세인트 키츠(St. Kitts)나 네비스(Nevis)같은 국가들의 경우는 인간 거주지마저 침식당할 우려가 있어 더욱 문제시 된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따라 중남미 해양지역에서 흔히 발생하는 엘니뇨, 허리케인, 등의 자연 재해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그 예측가능성은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는 그렇지 않아도 빈곤인구가 많은 어촌지역이나 대다수의 인구가 거주하는 해양연안 지역 거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중남미 지역의 자연재해와 이에 따른 잠재적인 해양환경위기에 대한 대처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대처능력(coping capacity)강화로서, 이는 '재해에 대응할 수 있고 그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집단적 능력' 을 키우는 것을 뜻하며, 둘째는 적응능력(adaptive capacity)향상으로서, '존속을 위협하는 재해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조직 구조, 기능, 구성을 점진적으로 변화시켜나갈 수 있는 집단의 능력' 을 증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처능력의 대표적인 예에는 해양안보 경계 시스템 구축, 기상예보 시스템 구축 등이 있다. 대처능력이 얼마나 효과적인가는 중앙 정부의 대응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지방정부가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달려있다. 여기서 요구되는 지방정부의 대응력이란, 재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안건을 우선순위로 취합, 복구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며, 이를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선진 기기 도입, 이에 상응하는 전문기술교육뿐 아니라, 긴급구조플랜, 위기대응방안 등 정책적인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2) 연안지역 보존과 보호평가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수많은 국가들과 시민사회들은 경제성장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역의 해양과 연안 지방의 환경 생태적 상태를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1992년 브라질의 리오 데 자네이루 지구정상회의이후 중남미 국가들은 환경 이슈들을 그들의 삶의 질 향상, 경제사회적 의미와 관련에 많은 인식의 지평을 넓혀 오고

있다. 오늘날 중남미의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자연 보물들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대중적 관심과 지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이런 새로운 정신적 분위기 속에서 이 지역의 국가들은 해양과 해양연안 지역에 대한 환경보호를 증진시키기 위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다. 따라서 중남미 국가들은 나름대로 생태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해 오고 있고, 법 제도를 강화하고 그리고 이를 이행할 다양한 형태의 정부 부처들을 조직하여 그들의 수로와 연안을 관리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국경을 넘는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1976년 세워진 '카리브 환경 프로그램(Caribbean Environment Program; CEP)' 이 지역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분수령이 되었다. UNEP(유엔환경프로그램)과 유엔의 중남미경제위원회(ECLA)의 지원으로 설립된 이 기구는 모든 카리브 국가들이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있을 정도이다.

장기적 관점의 경제사회 발전과 관련해 환경이 중요하다는 대중적 지지와 인식의 증가는 중미와 남미 지역에서도 이웃국가인 카리브의 경험과 똑같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환경법의 강화와 이에 대한 효율적인 이행은 개별 국가마다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고 실질적인 이행은 더욱 어렵기도 하다. 대체로 이러한 어려움은 중남미 국가들의 상대적 빈곤에서 그리고 이러한 빈곤이 상주하는 일반 대다수의 빠듯하게 살아가는 빈민 계층들의 압력에서 대부분 기인하는데, 이들로부터 치르는 환경 비용은 국가마다 상당할 정도이다. 하지만 많은 성공 사례들도 동시에 존재한다. 커다란 규모의 환경보호구역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주요 국립공원과 보호지 확대, 토지이용 계획 체제의 채택, 천연자원보호 및 환경보호와 이의 관리를 담당하는 각종 정부 기구들의 탄생을 포함된다. 환경영향평가 및 이에 대한 연구도 개별 정부들의 공통적인 관심사로 발전했다(Sheppard 2000). 물론 이러한 환경평가는 정치 및 경제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더욱 소중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현재 중남미 환경평가제도 발전은 이러한 시스템적 접근과 정치경제적 압력의 중간에서 혼재되어 있다.

그동안 중미와 남미지역에서도 파괴된 해양연안지역의 회복 그리고 서로 인접한 해양의 오염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 간 수준의 몇몇 조치가 취해져 왔다. 1981년 파나마,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그리고 칠레 정부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요한 사항에 합의의 하였다. 해양 환경과 남동 태평양 지역 연안 보호를 위한 협정서 채택과 오일 및 탄화수소와 독성물질의 남동 태평양지역의 오염 방지를 위한 긴급 대처에 대한 합의가 그것들이다. 이에 더하여 모든 중남미 국가들은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

방지를 위한 협정문(MARPOL)'에 모두 참여하였다. 이와 관련된 오염원들은 특히 카리브와 주요 중미 및 남미 지역의 항구도시에서 많이 발생한다.

남미지역에서 연안 관리는 브라질에 의해 주도되어 오고 있다. 30년 전에 이미 환경사무국(SEMA)을 설립한 브라질은 그 보호 구역에 있어 엄청난 규모에 달하는 연안 지역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창의적 시도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현재까지 브라질은 29개에 달하는 보호구역들, 예를 들어 국립공원, 국립산림보호지역, 환경보호구역, 그리고 생물 및 생태학적 보호구역 등을 두어 특별히 관리하고 있으며, 1988년에는 국가적 차원의 해양연안관리 프로그램을 선포했고 이후에는 좀 더 상세한 국가프로그램들이 발표되었다. 이 모든 경우에 성공적인 해양연안의 관리와 보존을 위해서는 각 지방정부들의 참여는 필수적인 요소이며, 특히 보호와 관리에 적은 선호도를 보이는 브라질 주정부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핵심적인 요소였다.

영향력 있는 환경보호 단체들 및 환경관련 시민사회 단체들의 활동들도 중남미 몇몇 국가들에서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조직들(기구들)은 점점 특정 환경 이슈들 - 특정지역, 생물종, 수로, 등 - 과 연관을 맺고 활동의 지평을 넓혀가기 시작했다. 이들의 활동이나 전망은 국제적 수준의 환경보호단체들인 세계야생기금(World Wildlife Fund)이나 그린피스(Greenpeace) 등과 연계해 발전하기 시작했다.

몇몇 지역에서는 정책 결정자들, 풀뿌리 공동체 그룹들, 국제환경기구들 그리고 과학자들의 노력으로 인하여 연안지역의 수질을 개선시키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엄청난 규모의 복원 및 보존의 일들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대부분의 어업 지대에서 남획은 장기적 관점의 어장 보호에 위협할 정도로 지속되고 있고 북적대는 해상 교통로의 문제뿐만 아니라 새로운 오염 규제 및 이의 오염 방지에 대한 제도적 강화가 진행 중 임에도 각종 화물선과 오일 수송선들은 여전히 폐기물들을 해양에 무차별적으로 투척하고 있다. 농업, 산업 그리고 개별 가정들에서 처리되지 않은 혹은 부분적으로만 처리된 폐기 퇴적물들은 실질적으로 여전히 모든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들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하는 문제로 남아있다. 게다가 이를 처리하기 위한 금융적 자원들은 여타 유럽 국가들이나 북미 국가들에 비해 대단히 한정적이다. 이를 두고 '환경은 포위당해 있다'라고 유엔환경프로그램(UNEP)의 한 관리는 한탄한다. '만일 단기적-장기적 차원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지속가능발전의 논리는 단지 불가능한 희망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UNEP 2002).

만일 중남미 국가들이 그들의 해양과 연안 지역을 성공적으로 보호 및 회복을 원한다면 지역의 정부들은 단순히 단기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만을 위해 진행 중인 많은 과정들과 절차로부터 환경 이슈들만을 보호한다는 일종의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들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남미 국가들은 국제적 공동체의 도움이 절실하다. 모든 중남미 국가들에게 부채의 문제는 중남미 국가들의 목을 쥐고 있는 장애 같은 것이다. 게다가 중미 및 남미 국가들에게 외채부담은 흔히 그들의 해양환경 악화와 연안 지역의 오염과 싸우기 위해 필요한 에이전시의 설립 혹은 이를 위한 기금 조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이야기 된다. 이 문제가 성공적으로 해결되기 전까지 중남미 국가들은 환경 및 자연환경의 파괴에서 구제될 수가 없을 것이다. 환경법을 강화하고 이행하기 위한 재정 그리고 인적 자원의 필요성은 말할 나위도 없다. 더욱이 빈곤 국가들에게 이러한 요구는 더욱 힘든 일임에는 틀림없다.

이러는 동안 맹그로브숲, 해양식물군, 산호초 그리고 해변들과 물고기를 포함하여 다양한 해양생물들, 해양 주위에 서식하는 다양한 포유동물들은 점증하는 환경파괴에 의해 삶과 생존의 압력을 받을 것이고 이러한 압박의 강도는 이 지역에서 점점 증가하는 인구성장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점점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중남미 지역의 해양환경 파괴의 원인으로서는, 해양에 대한 지속가능한 개발과 해양 자원 보호에 대한 공공정책의 이해 부족, 물론 많은 제도적 발전을 이루어 오고 있지만 여전히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할 만한 책임 기관의 부재 혹은 무능력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지역 국가의 최근 경제성장 정책이 해양 환경보호와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많은 해양 전문가들은 해양환경 보호가 일반 원칙이라기보다는 예외로 여겨지는 이 지역에서, 해양환경이 더 이상 경제와 사회 문제에 부수적으로 추가되는 문제가 아니라 개발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지속가능한 해양개발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인식이 없이는 현재 해양보호구역 등을 통해 보존하고 있는 해양 생태계의 추가적인 파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해양환경 보호를 고려한 경제성장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해양환경 정책수립에 관한 기술지원, 다양한 환경 친화적인 해양에너지원 개발, 해양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인프라, 기술지원 등 외부국가의 지원 역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해양 위기와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해양 정책의 다양화와 전략화

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뿐 아니라, 다양한 해양보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선진 공여국, 기관, NGO 등 외부 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다. 21세기 글로벌 차원의 해양협력 시대를 맞아 한국의 ODA사업을 통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남미 해양 진출로 이어져야 할 시점이다. 한국의 우수한 조선업뿐만 아니라 해양기술과 해양탐사 해양위기를 방어하는 수많은 기술협력이 이제는 대륙적 이슈에서 벗어나 해양으로 진출을 도모해야 한다.

제3절 민간부문 진출사례와 문제점

1. 페루 넙치양식 사업체 진출 사례

현재 페루 정부에서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대표적 어종은 넙치이다. 페루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 칠레에서도 넙치를 세비체(리몽과 양파에 버무린 새콤한 무침 회 종류)나 튀김요리로 즐겨먹고 있으며 다른 일반 생선에 비해 매우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 남미에서 넙치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세비체에 대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페루는 활어를 유통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맛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선도의 문제로 인해 점심 영업에 한정해서 세비체를 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 전문 회사인 “(주)월드드림피쉬”는 2010년 3월에 WORLD DREAM FISH - PERU S.A.C 라는 페루 현지 법인을 설립한 후 페루 남쪽 180Km 지점 친차시에 1만평 규모의 땅을 구매하여 넙치 양식 시설을 건설 중이다. 그러나 페루 진출 이후에 몇 가지 애로요인에 의해 현지 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 페루 현지법상 한국인 직원 1인을 고용하여 서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현지인 직원 5명을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인력고용의 문제점이 있다. 특히 양식업의 특성상 집단폐사의 위험성으로 양식 전문가들이 하루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실정이므로 불가피하게 현지인들을 더 많이 고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한 한국의 넙치알은 우수한 종자들을 2~3세대 개량하여 부화율이나 성장이 매우 좋기 때문에 수입을 추진하였지만 외래 어종에 대한 책임 문제로 인해 수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넙치알은 미국, 캐나다, 일본, 홍콩 등 세계 각지에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선진국들보다 더 엄격한 환경규제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한국산 양식기자재, 약품, 영양제 등의 통관 및 관세부분도 잘 정리되지 않아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지막으로 페루 현지의 이마르페(해양연구원) 및 생산부와의 상호협조 체계의 구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적조 위험성에 무방비 상태에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 넙치 양식장은 해수를 이용하지만 육상에서 양식을 하고 있어 정기적인 수질 검사로 적조, 바이러스 등 양식업에 위해가 되는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충분히 대비할 수 있지만 협력체계의 미비로 집단폐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지역에서의 양식산업 개발 수요는 점차 많아지고 있으며 우리 양식업자들의 진출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페루의

사례에서와 같이 예견하지 못했던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양식진출 사업자들의 위험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양자간 협력의 틀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2. 페루 자이언트 오징어 가공사업 진출 사례

1) 개요

페루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자이언트오징어 가공공장은 10개(공장 건설 중인 것을 포함하면 12개)이며, 이 중 7개 업체를 이번 조사를 위해 방문하였다. 동 기업들의 현황을 보면, 파이타(Paita) 지역에 입지 기업들은 5개, 탈나라(Talara) 2개, 리마(Rima)가 2개, 아레키파(Arequipa)가 1개로 대부분이 페루의 북쪽에 위치한 파이타와 탈나라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지역에서 자이언트오징어의 최대 산지임과 동시에 파이타에 수출항(최소규모 정기 컨테이너선 1척-MAERSK)이 있기 때문이다. 페루의 자이언트오징어 가공업체 중 한인이 운영하는 업체는 페루의 수산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인이 운영하는 기업들의 총자본금은 2,084만 달러이며, 연간 매출액은 약 6,489만 달러를 올리고 있다. 고용인원은 사무직과 생산직을 포함하여 약 3,000명인데, 이 중 사무직에 한인들이 일부 있을 뿐 대부분이 현지 페루인을 고용하고 있다.

<표 3-16> 페루의 자이언트오징어 가공공장(한인업체) 명단 및 실적

기업명	사업자명	장소	자본금	매출액	고용인원	
					사무	생산
Dawon	김백운	Paita	5,000	10,000	9	620
PERUCO	서병규	Rima	1,000	4,000	25	150
Ultra Frio	이현수	Rima	1,000	500	6	20
Kope E.I.R.L.	홍선배	Arequipa	700	1,875	8	120
FREEKO PERU	안덕진	Paita	10,000	5,000	2	100
Pesco Marine	김두삼	Talara	500	13,000	20	450
MIK Carpe	김태호	Paita	300	7,500	7	200
Pacifico Sur	남병준	Tacna	60	3,700	16	180
Inhope	이종민	Paita	275	7,811	22	181
CNC	정석준	Paita	2,000	11,500	30	800
평균	11명	4지역	20,835	64,886	145	2,821
합계	-	-	2,084	6,489	15	282

주 : 직접 방문 조사에 의거

페루의 현지 한인 가공공장들의 평균 실적을 보면, 자본 대비 매출 비중이 3.1배로 건전한 경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기업당 평균 자산규모는 208만 달러이며, 평균 매출 규모는 649만 달러 수준이다. 업체당 평균 15명의 사무직과 282명의 생산직을 고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비, 시설관리 등의 아웃소싱을 포함하면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지의 주요 금융기관(제1금융권)에서의 한인 기업에 대한 신용 평가는 최우수 기업 반열에 포함되고 있지만, 현지 한인 기업들은 현지의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 페루 현지 금융기관의 기업대출 이자는 20% 이상으로 한인업체는 현지의 금융기관의 대출을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용하더라도 자본금의 10%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이언트오징어가 나지 않는 시기에 운영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고, 페루의 노동법 조건에 따라서 비성수기 시기에도 임금을 줘야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2) 업체별 현황

가. INHOPE

INHOPE는 2003년 7월에 페루 파이타의 해군기지를 빌려 공장을 운영하다가 2007년 2월에 지금의 공장을 설립하였다. 동 기업은 원료기준으로 일일 최대 150톤을 가공할 수 있으며, 이 외에 냉동실(63T/D), 냉동냉장보관(600톤, 완제품 기준)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 매출은 약 900만 달러였지만, 2009년과 2010년에는 원료부족 현상이 심화되어 480만 달러(330컨테이너, 40피트 기준) 정도의 매출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익률은 약 4~5% 정도이다.

<그림 3-3> INHOPE의 외경과 가공공장 입장 전(HACCP)



INHOPE 정문

가공공장 내부 출입 전

탈의실(위생복)

신발 세척장(입장 전)

자이언트오징어는 인근의 원료공급업자(객주)로부터 구매하고 있으며, 생산자와는 직접적인 거래를 하지 않고 있다. 가공공장이 생산자와의 직접 거래를 하고 있지 못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규모 어항마다 거래할 수 있는 인력 배치 등의 거래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

둘째,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다양한 어업자와 연계된 객주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INHOPE에서는 자이언트오징어를 전량 반가공 원료로 수출하고 있으며, 그 상대국은 한국, 중국, 일본, 태국인데 이들 국가가 요구하는 품목의 형태도 다양하다.

한국으로는 전체 수출량의 35~40%를 수출하고 있으며, 주로 건다루마¹²⁾, 다리, 자숙 귀를 수출하고 있는데, 건다루마의 경우에는 한국의 오징어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다리는 (주)농심에서 수입하고, 자숙 귀는 한성기업에서 수입하고 있다.

중국도 한국과 비슷한 비중인 35~40%를 차지하며 물다루마, 자숙 귀, 다리를 수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건다루마인 반면 중국은 물다루마(건조시키지 않은 다루마)를 수입하는 것이 차이점이다.¹³⁾

태국으로는 15~20%를 수출하고 있으며, 주로 오징어 다리(빨판 제거, 장족 제거, 개별 다리로 하여 20kg으로 포장)를 수출하고 있다. 일본으로는 약 5% 정도를 수출하고 있으며, 동결 다루마를 수출하고 있다.

상품별 매출 순위는 건다루마 > 물다루마 > 자숙 귀 > 다리의 순이다.

<그림 3-4> 자이언트오징어 반가공 원료 상품과 크기 비교



자숙 귀(중국 수출)와 Iphone 비교



건다루마와 Iphone 비교
(크기 및 두께)

12) ‘다루마’는 일어로 오징어의 다리와 귀를 제거한 몸통 부분의 껍질을 벗겨내고 삶은 것으로 하얀색을 띠며, 조미하거나 진미채로 가공하기 편리하게 반가공한 것을 의미함.

13) 이는 한국과 중국의 가공공장의 차이에서 발생함.

INHOPE의 경우, 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해외 판매경쟁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바로 판매 채널의 구조화 혹은 고정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두 가지 이유로 집약된다.

첫째, 한국은 필요한 때마다 주문을 해서 생산하고 있으며 주로 한 달 단위로 주문을 하는데, 한국의 기업과는 강력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다.

둘째, 중국시장은 오징어 가공공장들이 매우 많고 이들 업체들까지 반가공 원료를 조달하기 위한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중국으로의 판매도 어렵지 않다.

공장 시설은 HACCP를 실시하고 있는 수준이며, 페루 정부(ITP)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HACCP 인증을 강력하게 검사하고 있다. 공장은 HACCP가 요구하는 수준을 만족하고 있으며, 가공과정에서 일부 과정은 자동화가 되어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자동화는 첫째, 오징어의 가공에서 구조적으로 자동화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둘째, 페루 정부에서 고용 우선 정책을 펼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셋째, 자동화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최근의 경영 상황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단·중기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5> INHOPE의 가공과정(생산-보관-출하)



대왕오징어 자숙기



대왕오징어 자숙틀



염 추가



보관용 냉동냉장창고



보관실 내 온도



상품 출하(폐쇄적 셀터 방식)

나. MIK

MIK는 자이언트오징어를 1차 가공(반가공)하여 전량 수출하는 업체로 동결 60T/D, 건조기 10T/D, 냉동냉장보관 1,000톤 정도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수출 상대국은 주로 한·중·일이며, 수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으로는 매출의 60%를 수출하고 있으며, 건다루마가 주력 수출품이다. 중국으로는 매출의 35%를 수출하고 있으며 물다루마와 자숙 귀가 주력 상품인데, 한국보다 오히려 10~15% 높은 단가로 수출하고 있고 수출원자재에 대한 관세환급제도가 있어서 중국의 관세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한국보다 원료 구매력이 높다. 일본으로는 매출의 5%를 수출하고 있으며, 물다루마가 주력 상품이다.

<그림 3-6> MIK 기업의 전경



페루의 파이타에 입지한 이유는 크게 원료 산지, 저렴한 인건비, 부대여건(수출항, 전기, 수도 등) 등의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페루의 자이언트오징어 산지는 크게 파이타 및 탈나라(페루 북부 연안), 리마(페루 중부 연안), 아레키페(페루 남부)인데, 이 중에서 파이타가 최대 산지라는 점이다.

둘째, 페루의 경제 성장으로 인건비가 오르고 있지만, 파이타는 지역 소도시(거의 시골 수준임)이기 때문에 페루의 인건비 상승을 회피하는 지역이다. 생산직 근로자 월 임금은 약 300달러 수준이다.

셋째, 부대 여건이 타 지역에 비해 잘 갖추어져 있는데, 파이타 항에 페루 북부 유일의 MAERSK의 정기선이 있어서 물류비 경감이 가능하고, 산업지구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 및 수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잘 갖추어져 있다.

자이언트오징어의 반가공원료 상품의 판로는 거대한 중국 시장이 있어 판로 확보 경쟁이 치열하지 않지만 어획량의 변동이 심한 것이 단점으로 나타나 다품목 가공을

통해 연간 운영비의 확보 전략에 나서고 있다. 현재 동 기업은 자이언트오징어 가공만을 하고 있지만, 비슷한 가공 과정을 적용할 수 있는 어종으로 상품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들 품목에는 한치(총알오징어, 한국 및 일본 시장), 만세기(흰살고기 피레트로 미국 시장), Fish Meal(어분) 등이 포함된다.

<그림 3-7> MIK의 건조작업 과정



대왕오징어 다루마

다루마 건조 팬 하역 작업

건조 팬에 놓은 다루마

건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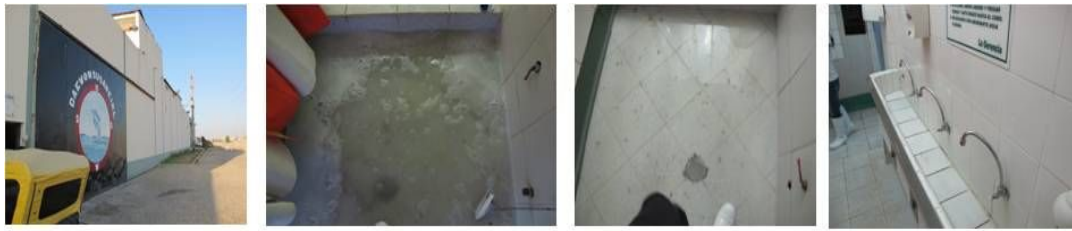
어분은 페루의 수출수산물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인데, 현재 페루의 안초비 생산량이 줄고 자원관리가 강화되고 있어 어분 원료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오징어를 어분으로 가공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나 오징어 어분만을 Fish Meal로 하기에는 기술적 한계가 있어 기존의 안초비 어분에 오징어 어분을 혼합하는 형태로 개발 중이다.

다. DAEWON SUSAN

DAEWON SUSAN은 페루의 한국인 수산가공업체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12년)를 가진 기업으로 본래는 붕장어 어업이 주 사업이었으나, 2000년 중반 이후 자이언트오징어 반가공 원료에 대한 국제 수요가 많아져 이 사업도 병행 중이다.

동 기업은 12월부터 익년 3월(페루에는 여름임)까지는 붕장어를 어획하여 피레트 가공을 하여 한국과 일본에 수출하는 것이 주 사업이다. 현재, 붕장어 연안통발어선 9척을 소유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에는 1항차(2일 조업)에 척당 20~22톤의 붕장어를 어획했으나, 자원 상태의 악화와 라니냐 현상에 의해 최근에는 척당 3톤 정도로 어획량이 급감했다. 뿐만 아니라 자원 감소 현상 중에서 가장 나쁜 상태를 의미하는 사이즈 감소가 과거 80cm에서 현재 55cm로 약 30%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림 3-8> DAEWON SUSAN의 전경(HACCP 이행)



DAEWON SUSAN의 정문과 HACCP(입장 위생)

동 기업은 객주로부터 자이언트오징어 원료를 구입하는 한편, 자사 어선(붕장어 연안 통발)을 이용하여 원료를 직접 생산하고 있다. 페루의 어선어업허가제도는 잡을 수 있는 어종명에 대해 허가를 주고 있어 동 기업은 붕장어와 자이언트오징어의 허가를 받아 놓은 상태이다. 따라서 9척의 어선을 각 어종의 성수기에 맞추어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붕장어의 경우에는 통발, 오징어의 경우에는 집어등과 낚시를 병용하고 있다.

<그림 3-9> 붕장어 가공(전 과정 수동)



붕장어 가공(일일이 수잡업화=고용창출효과 높음)

자이언트오징어 반가공품은 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별도의 거래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현지에 조미오징어 가공공장이 있으며, 붕장어도 이 루트를 통하고 있다. 자이언트오징어와 붕장어(피레트)를 스페인으로도 수출하고 있는데, 스페인 수출을 위해서는 EU등록인증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HACCP 인증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페루 정부도 수산가공품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ITP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자이언트오징어 원료는 가격 상승 반영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부족한 상태이다. 자이언트오징어의 원료가격은 2004년에 80숄(60달러)/톤~270숄(90달러)/톤이었으나, 2010년

현재(10월) 1,650슬(500달러)/톤~1,800슬(600달러)/톤으로 약 9배 정도 상승하여, 수출가격에 반영되고 있지만, 거래처 수요가 많아 원료 물량이 부족한 상태이다.

<그림 3-10> 자이언트오징어 원료 반입과 진미채 가공(조미하지 않음)



대왕오징어의 크기(작은 편임)

건다루마

진미채 가공

따라서 자이언트오징어의 사업성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바탕으로 현재의 가공공장 바로 옆에 제2공장을 설립하여 운영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

라. FREEKO

FREEKO는 한국에 본사를 둔 페루 현지의 기업으로 1997년에 현지 파이타의 자유 무역지대에 입지하여, 게맛살을 세계 각 지역으로 수출하였다. 2000년대 초반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게맛살 기술은 세계를 제패하는 수준이었으며, 이를 배경으로 동 기업은 페루의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하여 유럽, 미국, 남미 등에 게맛살을 수출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이후 리투아니아 등의 동구권에서 저가격의 게맛살을 대량 공급하면서 한국 및 동 기업을 포함한 기존 가공기업들이 도태되기 시작했다.

이에 동 기업은 2002년에 연육 설비를 도입하여 페루의 풍부한 자원을 원료로 연육 기술 향상과 생산에 박차를 가했지만, 페루의 원료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페루의 날치 자원을 이용하여 연육을 만드는 것에는 성공하였으며, 연육 품질의 결정요소인 탄력도(기준치 800치)가 1,400~1,500치를 기록하여 고품질의 연육 생산이 가능했다. 그러나 2000년 중반 이후 페루의 날치 자원이 감소하고, 날치의 살(적미)을 흰 살로 바꾸는 데 들어가는 식용 색소의 비용이 높아 판매에는 연결되지 못했다.

<그림 3-11> FREEKO의 입지 및 전경



페루 Paita의 자유무역지대



자유무역지대 내의 FREEKO 기업

게맛살과 연육의 사업화 부진에 따라서 동 기업의 매출은 2000년대 중반 최대 250만 달러/월까지 육박했으나 현재는 50% 이상 감소한 상태이다. 이에 2000년대 중반 이후 사업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자이언트오징어 가공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자이언트오징어 가공사업에는 게맛살 사업에서 획득한 ‘EU인증’ 및 HACCP 인증이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주로 중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기존의 게맛살 수출 루트를 이용하여 EU 시장에도 진출할 예정인데, 페루는 EU 무관세 국가 중의 하나이다.

마. PESCO MARINA

페루 현지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자이언트오징어 가공업은 가공만을 주력으로 하고 있지만, PESCO MARINA는 자이언트오징어의 어획(원료 조달)에서 가공까지 수직적 통합을 이루고 있다. 동 기업은 페루의 북단에 위치한 파이타에서 차를 타고 북쪽으로 3시간 이상 더 올라가면 있는 탈나라에 입지하고 있다.

파이타의 수출항이 멀어 물류비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탈나라에 입지한 가장 큰 이유는 자이언트오징어 원료를 산지에서 바로 조달하기 쉽기 때문이다.

동 기업은 연안에 입지하여 자사 소유의 어항이 가공공장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자사 소유의 어선(5척-척당 20톤급, 여기에 따라 자이언트오징어, 붕장어를 어획)이 바로 가공공장으로 양륙하여 원료를 공급하고 있다.

<그림 3-12> PESCO MARINA의 전경 및 HACCP



PESCO MARINA의 정문



사무실



가공공장 출입=위생복(HACCP)



가공공장 출입=신발 세척

이 기업은 자이언트오징어와 붕장어를 한·중·일에 주로 수출하고 있다. 자이언트오징어 반가공 원료와 붕장어 피레트 주력 상품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근에서 정책적으로 양식·생산되고 있는 가리비도 적은 양이지만 수출하고 있다. 자이언트오징어는 한·중·일·대만에 수출하고 있는데, 한국이 수출액의 50%, 중국이 30%, 대만과 일본이 각각 10%이다. 상품별로는 한국은 건다루마, 중국은 물·건다루마 및 자숙 귀, 대만은 오징어 다리를 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붕장어 피레트는 한국과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다.

<그림 3-13> 붕장어 가공-출하 과정



붕장어 필레트(회질)



사이즈별(대중소) 선별



포장 작업



포장 완료



셀 단위 팔레트 체계(표준화)



냉동냉장탑차 운송

이 기업은 주로 자이언트오징어와 붕장어 피레트를 한·중·일이라는 고정적 시장에 수출하고 있는데, 향후 품목 다양화를 통해 남미 시장(특히, 브라질 시장)을 공략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최근 자이언트오징어의 자원 변동을 감안해서 연간 가공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이언트오징어의 성어기 이외의 시기를 버틸 수 있는 운영 자금이 필요한 상태이다. 그러나 페루 금융기관(1차)의 대출이자율은 15~25% 정도로 이자율이 너무 높은 것이 문제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이언트오징어, 붕장어 외에 품목 다양화를 통해 수익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품 조미의 가공방법은 페루 현지, 브라질 등에 맞추어서 한·중·일이라는 고정 시장에서 탈피할 계획이다.

제4장 남미 수산업 현황과 수산협력 필요성

제1절 남미 수산업 현황

제2절 한·남미 수산협력 필요성

제4장 남미 수산업 현황과 수산협력 필요성

제1절 남미 수산업 현황

1. 생산현황

2009년 남미지역의 수산물 생산량은 15백만 톤으로 전세계 수산물 생산량의 9.3%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수산물 생산량이 많은 남미 주요 4개국인 페루,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의 수산물 생산량은 14백만 톤 규모로 남미 수산물 생산량의 91%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남미지역의 수산물 생산량은 2005년 18백만 톤 규모에서 2006년부터 수산물 생산량이 16백만 톤으로 감소하였고, 최근에는 15백만 톤 규모까지 감소하였다. 이는 전세계 수산물 생산량이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양식 산업의 발달에 힘입어 수산물 생산량이 증대된 반면, 남미지역은 어선어업의 수산물 생산량이 감소하였지만 양식어업의 기반이 미약하여 세계 생산량과의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2> 남미 지역의 수산물 생산량

단위 : M/T, %

국 가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세계(A)	151,209,534	152,299,010	156,081,468	159,471,540	162,881,562
남미(B)	18,255,390	15,938,154	15,492,111	15,743,223	15,137,859
남미주요4개국(C)	16,837,414	14,568,831	14,259,081	14,414,242	13,770,939
B/A	12.1	10.5	9.9	9.9	9.3
C/B	92.2	91.4	92.0	91.6	91.0

자료 : FAO, fishstat

2009년 남미지역의 어선어업 생산량은 13백만 톤 규모이며, 전세계 어선어업 생산량의 15.0%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남미 주요 4개국의 어선어업 생산량은 남미지역 어선어업을 통한 수산물 생산량의 9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미지역의 어선어업의 생산량은 2005년 17백만 톤 규모였지만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이다.

<표 4-3> 남미지역의 어선어업 생산량

단위 : M/T, %

국 가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세계(A)	93,384,293	90,911,867	91,162,887	90,646,354	89,836,958
남미(B)	17,007,572	14,536,664	14,093,430	14,198,989	13,472,186
남미주요4개국(C)	15,811,852	13,433,885	13,121,379	13,132,221	12,427,292
B/A	18.2	16.0	15.5	15.7	15.0
C/B	93.0	92.4	93.1	92.5	92.2

자료 : FAO, fishstat

2009년 남미지역의 양식어업 생산량은 17십만 톤에 불과하여 세계 양식어업 생산량의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미지역에서 주요 4개국의 양식어업 생산량은 13십만 톤 수준으로 남미지역의 80.7%를 차지하지만, 어선어업 생산량의 비중인 92.2%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미지역의 다양한 국가에서 수산물 양식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4> 남미의 양식어업 생산량

단위 : M/T, %

국 가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세계(A)	57,825,241	61,387,143	64,918,581	68,825,186	73,044,604
남미(B)	1,247,818	1,401,490	1,398,681	1,544,234	1,665,673
남미주요4개국(C)	1,025,562	1,134,946	1,137,702	1,282,021	1,343,647
B/A	2.2	2.3	2.2	2.2	2.3
C/B	82.2	81.0	81.3	83.0	80.7

자료 : FAO, fishstat

남미 주요국의 수산물 생산 현황을 살펴보면, 페루가 연간 7백만 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칠레 47십만 톤, 브라질 12십만 톤, 아르헨티나 9십만 톤을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페루는 연평균 7.4%씩 감소하였고, 칠레는 3.7%씩 감소한 반면, 브라질의 경우에는 연평균 5.3%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남미 주요 4개국의 전체 수산물 생산량

단위 : M/T, %

국 가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연평균 증감율
페루	9,419,469	7,049,329	7,260,862	7,448,994	6,964,446	-7.4
칠레	5,477,534	5,294,185	4,937,628	4,810,216	4,702,902	-3.7
브라질	1,008,044	1,050,809	1,072,225	1,157,249	1,241,048	5.3
아르헨티나	932,367	1,174,508	988,366	997,783	862,543	-1.9
합계	16,837,414	14,568,831	14,259,081	14,414,242	13,770,939	-4.9

자료 : FAO, fishstat

남미 주요국의 어선어업 생산량을 살펴보면, 페루가 연간 7백만 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칠레 38십만 톤, 아르헨티나 9십만 톤, 브라질 8십만 톤을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페루는 연평균 7.4%씩 감소하였고, 칠레는 5.2%씩 감소한 반면, 브라질의 경우에는 연평균 2.4%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남미 주요 4개국의 어선어업 생산량

단위 : M/T, %

국 가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연평균 증감율
페루	9,393,488	7,020,936	7,221,331	7,405,875	6,920,129	-7.4
칠레	4,738,166	4,461,856	4,131,462	3,939,371	3,821,818	-5.2
아르헨티나	929,937	1,171,980	985,409	995,083	859,933	-1.9
브라질	750,261	779,113	783,177	791,892	825,412	2.4
합계	15,811,852	13,433,885	13,121,379	13,132,221	12,427,292	-5.8

자료 : FAO, fishstat

남미 주요국의 양식어업 생산량을 살펴보면, 주요 4개국은 총 13십만 톤을 생산하였으며, 칠레가 9십만 톤을 생산하여 주요 4개국 중에서 가장 양식어업 생산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브라질이 4십만 톤, 페루 4만 톤, 아르헨티나 3천 톤을 생산하였다. 그러나 페루는 2005년 이후 연평균 14.3%씩 양식어업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브라질의 경우에도 연평균 12.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 아르헨티나는 여전히 양식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남미 주요 4개국의 양식어업 생산량

단위 : M/T, %

국 가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연평균 증감율
칠레	739,368	832,329	806,166	870,845	881,084	4.5
브라질	257,783	271,696	289,048	365,357	415,636	12.7
페루	25,981	28,393	39,531	43,119	44,317	14.3
아르헨티나	2,430	2,528	2,957	2,700	2,610	1.8
합계	1,025,562	1,134,946	1,137,702	1,282,021	1,343,647	7.0

자료 : FAO, fishstat

2. 수출입현황

남미 주요 4개국의 수산물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페루의 수출량이 2백만 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칠레 1백만 톤, 아르헨티나 6십만 톤, 브라질 5만 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출금액 기준으로는 칠레가 40억 달러를 수출하여 수출금액이 가장 많았으며, 페루는 수출량이 가장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출금액은 24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칠레의 경우 연어 등 고가의 수산물을 수출하는데 반해, 페루의 경우에는 엔초비를 이용한 어분과 어유 중심으로 수출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브라질의 경우 2005년 이후 수출량과 수출금액이 각각 연평균 16%, 10% 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브라질이 경제성장하면서 수산물 소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4-8> 남미 주요 4개국의 수산물 수출현황

단위 : M/T, 천 달러, %

국 가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연평균 증가율
아르헨티나	수출량	494,128	494,049	627,524	540,700	564,794	3.4
	수출금액	818,199	804,356	1,249,411	1,104,477	1,307,128	12.4
브라질	수출량	107,185	93,759	81,663	65,242	53,437	-16.0
	수출금액	432,115	409,456	374,441	320,069	282,766	-10.1
칠레	수출량	1,308,965	1,584,184	1,384,829	1,405,784	1,348,734	0.8
	수출금액	2,547,235	3,042,735	3,638,936	3,770,338	4,026,769	12.1
페루	수출량	2,273,463	2,529,903	2,008,383	1,963,254	2,262,311	-0.1
	수출금액	1,389,162	1,636,291	1,773,198	1,966,878	2,438,291	15.1

자료 : FAO, fishstat

남미 주요 4개국의 수산물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브라질의 수산물 수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8년 수입량과 수입금액이 각각 23만 톤, 7억 달러 규모이다. 이는 2004년 이후 수입량과 수입금액이 각각 연평균 6.9%, 25.2%씩 증가한 것으로 브라질의 수산물 소비급증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으로 수산물 수입이 많은 국가는 칠레이며, 칠레는 수입물량이 연평균 0.3%씩 증가한 반면, 수입금액은 연평균 22.1%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아르헨티나와 페루는 수산물 수입물량이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남미 주요 4개국의 수산물 수입현황

단위 : M/T, 천 달러, %

국 가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연평균 증가율
아르헨티나	수입량	29,430	35,491	37,345	43,724	35,734	5.0
	수입금액	47,636	63,546	78,795	102,513	103,005	21.3
브라질	수입량	174,060	161,129	190,382	218,360	226,936	6.9
	수입금액	282,931	309,902	477,847	572,901	695,211	25.2
칠레	수입량	158,231	98,164	153,822	186,550	160,253	0.3
	수입금액	127,805	99,826	176,379	203,582	284,201	22.1
페루	수입량	35,649	67,580	27,757	41,274	48,156	7.8
	수입금액	27,535	48,077	30,432	36,785	73,758	2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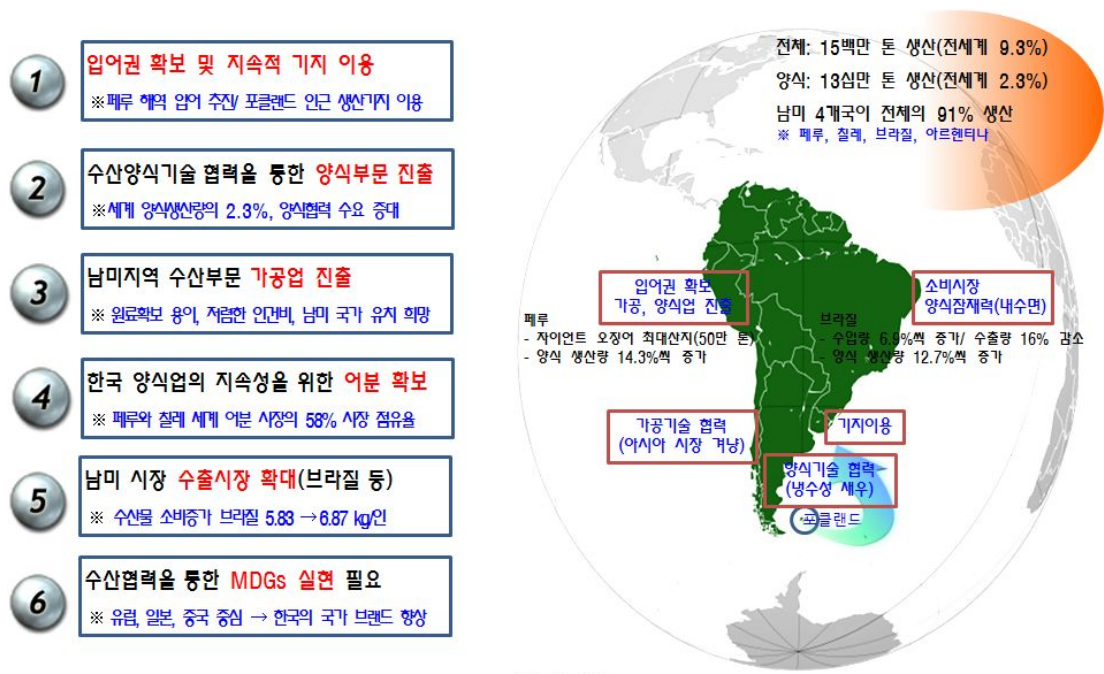
자료 : FAO, fishstat

제2절 한·남미 수산협력 필요성

1. 개요

남미지역은 전체 15백만 톤(전세계의 9.3%)의 수산물을 생산하는 세계 수산물의 주요 생산기지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대한 입어권 확보 및 지속적 기지 이용은 우리나라 원양어업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여기에 남미의 양식 수산물 생산량은 13십만 톤 수준으로 양식수산물 생산의 잠재력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양식산업의 불모지로 남아 있어 양식수산물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따라서 수산부문 양식어업 협력사업이 필요한 지역이다. 또한 남미지역은 북미지역 시장을 겨냥한 식품 가공업 진출이 용이한 지역으로 원료확보의 용이성, 저렴한 인건비 등을 이용한 가공업 진출과 내수소비가 활발한 남미지역의 수산물 시장확대에 대비한 수출시장 공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재 유럽, 일본, 중국 중심의 남미지역을 수산협력을 통한 MDG 실현으로 국가 브랜드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1> 한·남미 수산협력 필요성



2. 필요성

1) 수산협력을 통한 국격 제고 및 국가브랜드 향상

남미지역의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ODA 중점지원 대상국으로서 개도국 원조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미 국가들은 주로 어선어업을 통해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지만 기후변화 대응에 무방비 상태에 있으며, 연안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양환경 오염은 수산물의 생산량을 급격히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에 대해 해양환경 관리와 병행한 수산자원 및 어업생산 관리, 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개발 등이 필요하다. 여기에 남미지역은 수산인프라가 부족하여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수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수산전문 인력 양성 등이 필요하다. 이미 유럽과 일본, 중국 등이 진출하여 남미 사람들에 있어 한국의 국가 브랜드가 높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남미지역에서 OECD/DAC의 새천년개발계획에 맞는 원조사업을 추진하여 한국의 국가 브랜드를 높일 필요가 있다.

2) 한국 국적선의 입어권 확보 및 지속적 기지 이용

세계 수산물 생산량의 9.3%가 생산되는 남미지역은 세계 수산물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원양 오징어의 최대 생산지인 포클랜드 어장에서 조업하기 위해 우루과이 몬테비데오항 등 남미지역에 기지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세계 최대의 자이언트 오징어 생산지인 남미지역은 우리나라 국적선들이 입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페루의 경우에서 보듯이 협력사업의 부진으로 협력사업이 인정되는 스페인과 일본 어선을 제외한 한국어선은 페루 영해 밖에서 공해 조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페루는 2011년 개정 어업법(Reglamento de Ordenamiento Pesquero, Supreme Decree, Decreto Supremo 014-2011)의 실행하였다. 이 법에 따르면 자국 어선의 보호차원에서 자국 어선에 자이언트 오징어 쿼터를 우선 배정하고, 잉여분이 있는 경우에만 외국 국적 어선에 공개 입찰하여 쿼터를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자이언트 오징어의 조업에 있어서도 엔초비와 같이 페루 국적 선단만이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페루의 정책적 변화로 인해 향후 우리 국적선이 페루 영해에서 자이언트 오징어를 조업하는데 더욱 힘들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현재 페루와의 협력사업 추진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3) 수산업 양식기술 협력을 통한 양식부문 진출

남미지역은 어선어업의 생산량이 세계 생산량 대비 15%를 차지할 정도로 수산물 생산량이 많지만 양식어업의 생산량은 불과 17십만 톤 수준으로 세계 양식어업 생산량 대비 2.3%만을 생산할 정도로 양식업 발전이 늦은 지역이다. 이로 인해 남미의 각국들은 양식기술 협력사업을 희망하고 있으며, 직접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페루의 경우에는 넙치양식 기술을 희망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는 고부가가치 냉수성 새우의 양식기술의 공동 개발을 희망하고 있다. 이외에도 브라질은 틸라피아 및 새우 양식산업의 확대를 위해 직접투자를 희망하고 있다.

4) 남미지역 수산부문 가공업 진출

2005년 말까지 우리나라의 수산물 가공업은 원료 확보의 어려움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중국으로 많이 이전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국에서도 수산물 수급이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인건비 상승, 인플레이션, 신노동법 제정 등으로 인해 경영여건이 악화되면서 많은 수산물 가공공장들이 중국에서 동남아 국가들로 이전하였다. 이는 여전히 동남아 국가들이 양식산업의 급성장에 따른 풍부한 원료 수산물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 값싼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일본, 중국, 한국 등 수산물 소비국에 인접해 있다는 점 때문에 수산물 가공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동남아 국가들 이외에도 남미지역은 수산물 생산량이 많고 북미 시장과 브라질 등 수산물 소비국 및 소비급증 국가들이 배후에 있어 수산가공업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특히 현재까지는 양식업의 발전이 아시아 지역보다 더디지만 좋은 양식 환경을 가지고 있어 양식수산물을 이용한 수산물 가공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으로 수산부문 가공업 진출이 용이한 지역이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한 국가는 우루과이와 남미 밖에 없으며 이들 기업들은 자이언트 오징어 등 특정 어종을 목표로 하여 진출한 기업들이다. 따라서 수산물 가공산업의 진출 확대와 이미 진출한 기업들의 현지 사업의 확대를 위해 수산부문의 남미지역과의 협력 사업이 필요하다.

5) 한국 양식산업의 지속적 확대를 위한 어분 확보

남미 국가 중 엔초비 자원이 풍부한 페루와 칠레는 각각 연간 49만 톤, 13만 톤의 어분을 수출하여 약 30억 달러의 세계 어분 시장에서 약 58%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

고 있다. 세계 양식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어분의 주요 원료가 되는 엔초비 자원을 보유한 남미국가들이 세계 양식산업 발전의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남획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엔초비 지원이 감소하여 2007년에는 세계 어분과동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세계 어분과동은 세계적으로 양식산업을 육성시키는 국가들에게 어분확보에 대한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페루에서는 외국국적의 선박이 엔초비 자원을 어획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어분시장은 메이저 회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어분 및 어유 생산을 위한 진입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 양식산업의 지속적 확대를 위해서는 어분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페루 현지 기업과의 적극적인 M&A 등을 통해서 어분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미국가와의 수산부문의 협력사업 확대를 통해 투자 진출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6) 수산물 소비가 확대되는 남미 시장에 대한 진출 필요

최근 남미지역의 수산물 소비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브라질은 러시아, 미국, 중국과 더불어 인구 규모 1억 이상, GDP 1조 달러 이상, 영토규모 400만 km²의 국가로 경제의 위상과 잠재력이 매우 큰 국가로 브릭스 국가 중에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다. 또한 대표적인 소비중심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브라질은 가계소비가 전체 경제에서 6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비 주체인 중산층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7년 기준으로 중산층 42.5%가 2013년에는 52.7%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브라질은 중국에 이은 세계 최대의 수산물 소비국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수산협력사업을 통해 브라질 등 남미 시장에 진출할 필요가 있다.

제5장 페루 수산업과 수산협력 현황

제1절 수산정책 현황

제2절 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 현황

제3절 주요 조업국의 협력사업 추진 현황

제5장 페루 수산업과 수산협력 현황

제1절 수산정책 현황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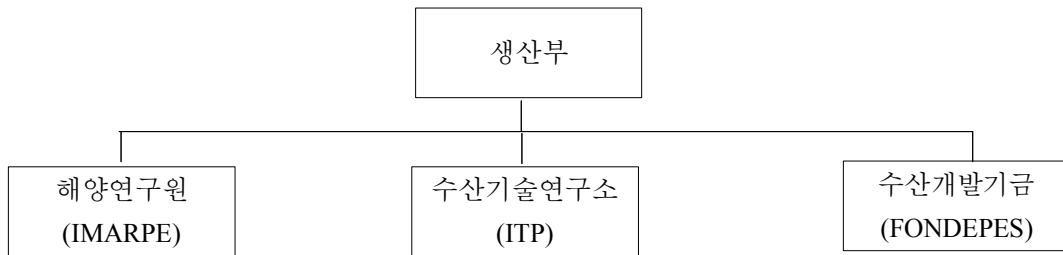
페루는 연안 어획 활동과 더불어 양식업 진흥을 위해 2001년 5월 「양식 진흥개발법」(법률 제27,460호)을 공포하여 소득세 감면, 각종 세금 환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2003년과 2006년에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일시적으로 어로 금지를 실시했으며, 2005년에는 전갱이, 고등어 및 다랑어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이들 어종의 조업어선에 대해 각종 연료비를 면제하였다. 페루 수산법에서는 외국 어선의 페루 해역 내 어업을 허용하며, 외국어선은 어획과 항해의 허가를 받고 어획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외국 어선들은 주로 대형 오징어 등을 어획하고 있다. 수산물 관련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 규제가 있는데, 해산물 및 어패류는 수입 시 수산물 검사소의 위생 적합 증명서 필요하다. 또한 페루정부는 국가 소규모어업 발전 계획(Plan Nacional de Desarrollo Pesquero Artesanal)에 따라 수산업의 발전을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육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수산업 분야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전통적인 수출효자 상품 역할을 해 왔던 엔초비(anchoveta)의 남획 때문이다. 이는 수산업의 발달은 엔초비의 과잉포획을 억제하고 지속가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는 것이 페루 수산부문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2010년 현재 페루의 엔초비는 연간 약 10~17억불에 달하는 생산을 기록하고, 경제활동인구의 2%, 수출의 11~16%를 기록하는 등 세계에서 중국에 이어 2번째로 큰 산업이다. 엔초비는 연간 약 1,000만 톤이 포획되고 있으나, 과잉포획으로 인해 점차 어획량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 안초비의 어획, 어분 공정, 국내 소비 및 수출 등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이 가동될 전망이다. 페루 수산업체의 문제는 어선과 가공공장의 현대화에 있으며, 현재 대다수 어선인 350~500톤급의 현대화뿐만 아니라 향후 800톤급 이상의 어선을 도입하는 것이 과제가 되고 있다. 슈퍼프라임 급의 어분의 가격이 톤당 900에서 1800불로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어 수산업체는 어선의 현대화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2. 주요 수산 관련 기관

한·페루 FTA 발효를 계기로 한국은 페루와 다양한 형태의 수산부문 협력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가 페루와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페루의 수산관련 기관들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페루 수산업을 관장하는 기관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페루의 수산부문은 생산부(Ministerio de Produccion)에서 담당하고 있다. 에너지 생산부문을 포함하는 페루의 생산부는 정부부처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정부부처 중 하나이다. 또한 생산부 내에서 수산부문은 엔초비 생산량에 기반을 둔 메이저 어분회사 등이 관련되어 있어 생산부 내에서도 수산부문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페루 생산부 내에는 수산부문의 연구개발사업, 수산식품사업, 수산발전기금사업 등을 위해 IMARPE(페루해양연구원), ITP(수산기술연구소), FONDEPES(페루수산개발기금)와 같은 기관들이 설립되어 있다.

우선 페루의 해양연구원(IMARPE)은 한국의 국립수산과학원과 유사한 조직으로 해양수산 R&D를 담당하고 있으며, 총허용어획량(TAC) 산정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부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수산기술연구소(ITP)는 우리나라의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과 유사한 조직으로 수산물 검사·검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기관 설립의 주요목적은 페루 최대 생산물인 엔초비의 식용화를 위한 식품개발에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지역에 수출하기 위한 식품개발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식품개발을 위한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다양한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페루수산개발기금(FONDEPES)은 소규모 낚시어업, 어업인 교육, 양식어업, 기금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생산부 소속 기관 중에서 가장 어업인 밀착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페루수산개발기금은 소규모, 영세 어업자들의 교육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생산부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다. 현재에는 전국에 현지의 특성에 맞는 6개의 양식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친어관리 및 시험양식을 하고 있다.

<그림 5-1> 페루의 수산관련 기관



이와 같이 페루의 생산부와 해양연구원(IMARPE), 수산기술연구소(ITP), 수산개발기금(FONDEPES) 등의 소속기관이 각자 독자적인 역할을 갖고 수산부문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페루 생산부의 수산부문 협력사업 수요는 생산부에 소속된 수산부문 기관들의 사업수요가 반영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페루와의 주요 협력사업은 페루 수산개발기금(FONDEPES)의 협력사업 수요가 가장 많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페루 수산개발기금의 역할과 사업 등을 고려하여 페루와의 장단기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간다면 실질적인 협력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주요 관련 정책 및 제도

페루 정부의 수산정책은 i) 생태계(eco-systems) 보호, ii) 청정기술 사용, iii) 생물 다양성 보전, iv) 사회정의, v) 해양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 등 다섯 가지 원칙에 기초한다. 페루 정부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주기적으로 어로 금지를¹⁴⁾ 실시하는 한편 구형 어선의 신형 교체와 고품질 어분 생산을 위한 저온건조공법 사용, 첨단공장 설립 등에 투자를 집중해오고 있다. 또한 페루 정부는 어족 생산 다변화를 위해 국제기구로부터 지원을 받아 심해 수산물 연구개발에도 투자하고 있다.

페루에서 수산정책의 핵심은 지속가능한 어획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안초비 조업 어선에 대한 최대 어획 한도를 지정하고 있다. 또한 남태평양 대구에 대해서는 개별조업 쿼터를 부과하고 있다. 대형 오징어, 전갱이, 고등어, 다랑어 및 관련 어종, 심해 대구 등에 대해서도 조업 규정을 두고 있다.

14) 페루 정부는 해양연구원이 제공하는 정보에 기초해 안초비, 전갱이 및 대구의 어획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어획량은 당해 연도 특정 시기에 특정 어족자원의 지속가능한 어획에 기초해 정해진다. 대형 오징어와 기타 어종은 아직까지 쿼터 대상이 아니다.

직접 식용 어족에 대한 페루 정부의 정책 목표는 식품안전과 수출 촉진이다. 주요 정책으로는 고부가가치 수산물 생산, 안초비 및 오징어를 사용한 제품의 개발 촉진, 대양어선(high seas fleet)의 개발 촉진,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 확대, 여러 도시 내 냉장유통(cold chains) 체계의 설립 촉진 등을 들 수 있다.

1) 수산자원 보호

최근 페루 정부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은 ‘어선당 최대의 어획 한도(Maximum Catch Limits per Vessel : MCLV)’ 제도의 도입이다. 2009년 도입된 이 제도에 따라 북부/중부 및 남부 지역에서 조업하는 각 어선은 어획 할당량을 부여받는다. 예를 들어 철선(steel vessel)과 목선(wooden vessel)의 경우 어획 경력 및 어선의 수용능력 등에 따라 어획 할당량이 다르게 적용된다.

<표 5-1> 페루의 수산자원 보호의 주요 조치

항목	주요 내용
바이오메스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업 개시 및 폐장을 법적으로 규정 - 연간 및 계절별 총어획 한도 제도 도입 - 5마일 이내에서는 생계형 어선만 조업 가능 - 어획 시 10% 이상의 유치어가 잡히거나 어획 허용 한도에 도달했을 때 조기 폐장 - 어선당 최대 어획 한도(MCLV) 제정
혼획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잡어 한도 5%(2007년 현재 3.6%) - 최저 그물 크기 : 1/2인치(12mm)
하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재용량 공식 신고 - 신규 어선의 진입 금지 - 200마일 이내에서 조업 시 허가 필요 - 5마일 이내에서 조업하는 모든 어선에 대해 위성추적장치 부착 - 134개 하역지점에서 24시간 어획 기록 - 규정 위반 시 허가 취소 및 벌금 부과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부는 매일 웹사이트에 당일 조업허가 어선과 조업금지 어선에 대해 공지 - 가공공장은 허가를 받지 않은 어선이나 생계형 어선으로부터 생선을 받을 수 없음 - 가공기계나 환경보호 장비에 이상이 있을 시 가공공장은 생선 반입 금지 - 생선의 훼손을 막기 위해 트럭이나 생계형 어선으로 벌크 수송 금지 - 펌프와 파이프를 통한 생계형 어선의 어획 금지

주 : 직접 방문 조사에 의거

MCLV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50일 이내의 조업기간 동안에 전체 쿼터를 채우기 위해 많은 어선들이 경쟁적으로 조업을 하다 보니 항구와 어분공장이 포화상태를 맞기도 했다. 이에 따라 MCLV의 도입 목적 중 하나는 조업 기간에 어선들의 조업을 적절히 조정하여 어군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다. 또한 생계형 어업 생산을 장려하고 선원의 안전을 보장하며 어분의 질을 개선하려는 등 다각적인 포석을 갖고 있다. MCLV 도입으로 페루 정부는 식용 생선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수산가공 장려 : 어분·어유

페루 정부는 안초비 및 어분·어유와 관련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어분 및 어유 공장에서 배출·방출되는 각종 쓰레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출 및 방출에 관한 최대허용한도(Maximum Permissible Limits : MPLs)’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페루 정부는 2009년 청정기술 도입 정책의 일환으로 배출(effluents)에 관한 최대허용한도제를 도입했다. 방출(emissions)에 관한 제도는 수년 전에 도입해 이미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페루에 있는 모든 어분 공장은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둘째, 페루의 대표 어항인 피스코(Pisco)와 침보테(Chimbote) 항에서 배출되는 각종 쓰레기를 규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먼저 2004년에 피스코 항구를 대상으로 ‘Apropisco’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 도입으로 피스코 항구에 위치한 7개의 어분 공장에서 나오는 각종 배출물은 먼저 1차 처리 과정을 거쳐 펌프로 중앙처리장치로 옮겨지고 여기서 처리된 배출물은 바다로 방출된다. 2007년에는 침보테에서도 같은 제도가 도입되었다. 침보테에서는 어분, 냉동 및 통조림 제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모든 쓰레기뿐만 아니라 광산물 쓰레기도 처리 대상에 포함된다.

셋째, 자발적인 윤리규정이 도입되었다. 저인망 어선의 70%를 차지하는 페루 수산 회사들은 자발적으로 전국수산업협회(Sociedad Nacional de Pesqueria : SNP)를 설립하고 엄격한 규정 준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윤리행동강령을 제정했다. 또한 공장 및 어선 소유주, 공장 기술자, 선장 및 선원 등을 중심으로 어업행동강령(Fishing Behaviour Code)을 제정했다.

넷째, 국가정책 차원에서 어린이 영양실조 개선을 위해 안초비의 소비를 장려하고 있다. 페루 정부는 사회프로그램과 관련해 모든 식자재 구입 시 그중 8%를 안초비와 오징어가 차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 확대를 위해 안초비 통조림 등을 포함, 식용 부문에 신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MCLV의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지원, 훈련프로그램 및 조기 퇴직자를 위한 연금계획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3) 양식산업 육성책

페루 정부는 수산부문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양식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양식산업 육성에도 적극적이다.

페루에서 양식업은 지형별로 크게 해안 양식업, 고원 양식업, 아마존 강 유역 즉 정글 양식업으로 나뉜다. 해안가에서 양식되는 주요 어종에는 새우, 가리비, 넙치, 틸라피아 등이 있다. 그에 반해 내륙 및 고원지대에서 양식되는 어종은 송어가 대표적이다. 마지막으로 아마존 강 유역의 정글지역에서 양식되는 어종에는 파이체(paiche), 관상어, 기타 아마존 어종 등이 있다.

페루 정부는 양식업에 민간부문의 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기대보다 성과가 더딘 편이다. 특히 육상 양식부문의 투자 유치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우와 가리비 양식은 해외시장에서의 높은 수요와 지리적 이점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새우 양식업은 1998년에 엘니뇨와 폭풍우, 뒤이은 치명적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기도 했다. 가리비 양식은 페루 전 해안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페루 정부는 가리비의 불법 양식을 막기 위해 민간투자자에게 특정 지역을 지정해 주고 있다.

티티카카 호수 등 내륙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양식 어종은 송어다. 페루 정부는 아마존 지역에서 식용 어종의 개발을 독려하고 있으나 민간투자자의 관심은 아직까지 미약한 상황이다.

페루 정부는 2001년에 기업등록세 면제 및 소득세 삭감 등의 조치를 통해 양식산업 육성책을 실시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최근 페루 정부의 양식산업 육성은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관료적 절차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30일 안에 양식업 허가를 내주는 'An Aquaculture One Stop Shop'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페루정부는 양식산업 육성을 위해 폰데페스 산하에 모두 6개의 연구소를 두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양식 수산물을 개발하고 있다.

<그림 5-2> 페루 양식연구소 현황



4) 외국어선에 대한 조업 허가

페루 어업법에 따라 외국 어선들은 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페루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80척의 에콰도르 다랑어 어선이 페루 EEZ에서 허가를 받고 조업 중이다. 선주들은 수산물이 직접 에콰도르 통조림업자에게 전달될 경우 등록된 다랑어 어선의 순 중량의 톤당 50달러를 지불한다. 그에 반해 다랑어가 페루에서 가공을 위해 하역될 경우 10달러만 지불하면 된다. 조업은 참치 시즌인 특정 기간에만 허가된다. 현재 페루 해역에서 어획된 모든 다랑어는 페루 국경 밖으로 반출된다. 해양연구원(IMARPE)의 공식 검사관이 어선에 승선하여 다랑어의 어획을 감시한다.

한국과 중국 어선들은 EEZ에서 대형 오징어를 어획할 수 있는 조업 허가권을 받았으나 페루의 생계형 어선과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는 페루 정부의 판단에 따라 조업권을 박탈당했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 어선은 200해리 밖에서 조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5) 교역 정책

가. 수출입관리 제도

페루는 후지모리 정권이 들어선 1990년 7월 이후, 기존의 완제품 수입금지 등의 규제 조치를 전면 해제하여 수입자유화 정책을 실행해오고 있다. 페루 상법이 규정하는 형태의 회사는 별도의 무역업 허가 및 등록 없이 모든 전통산품 및 비전통산품의 수출입을 행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게도 별도 제한이 없다. 단, 국가의 안전 및 국민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금지 및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페루는 수산물(해산물 및 어패류)의 수입에 대해서 관세 이외에 수산물 검사소(CERPER)로부터 발행된 위생 적합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동식물이나 축산물이 수출국 발행의 검역증명서가 필요한 반면에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페루 정부의 관련 검역국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차이를 보인다.

<표 5-2> 페루의 수입금지 및 제한 품목

항목	주요 내용	비고
수입 금지	· 5년 이상의 중고 승용차 및 중고 자동차 부품	-
	· 중고 타이어, 중고 의류, 중고 신발류 등	-
	·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을 포함한 식품류	-
	· 방사능 폐기물 등 기타 위험 폐기물	-
	· 염소 화합 살충제 및 그 부산물	-
	· 영국 등 유럽산 육류	-
	· 식음료제품	위생검사 필
수입 제한	· 무선통신장비	교통통신부 사전 허가 필
	· 전쟁물자가 아닌 민수용 무기 및 탄약, 폭발물	내무부 허가 필
	· 코카인 추출 및 제조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화학 제품 및 화학 원료	상공부 사전 허가 필
	· 해산물 및 어패류	수산물검사소(CERPER)의 위생 적합 증명서 필요
	· 식물 또는 동물을 원료로 한 완제품 및 반제품	신고 필요
	· 수의학과 관련된 의약품	신고 필요
· 종자, 동식물, 축산물	수출국 발행의 검역증명서 필요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나. 관세체제

페루의 관세체제는 기본세율, 잠정세율, 개별관세, 부당염매관세·상계관세, 중남미통합연합(ALADI) 양허세율로 분류된다.

① 기본세율

기본 세율은 일반적으로 0%, 4%, 7%, 12%, 20%의 5단계로 분류되지만, 4%, 12%, 20%의 일부품목은 과징금 5%가 적용되어 실질상 세율체계는 9%, 17%, 25%를 추가한 8단계로 분류된다.

<표 5-3> 페루의 관세구조(2008년, 총 6,994개 품목)

관세율(%)	품목 수	비중(%)
25	316	4.5
20	759	10.9
17	48	0.7
12	2,730	39.0
4	7	0.1
0	3,134	44.8

자료 : 페루 세관

2007년 1월, 자본재 등 세율 4%의 2,894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어 평균 관세율은 10.1%에서 8.3%로 하락하였다. 대상품목은 화학제품(847개), 전기기기·엔진·재생기(845개), 금속가공제품(335개) 등이다.

② 잠정세율

안데스공동체(CAN) 가맹국 이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특정화물에 대한 잠정세율을 일정기간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다.

콜롬비아 및 베네수엘라산 1511.90.00, 1516.20.00, 1517.90.00의 수입관세에 과징금 29%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가 그 사례이다.

③ 개별관세

쌀, 우유, 설탕(지정품목 및 관련품목) 등의 농산품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가격대에 준하여 추가세율을 부과 또는 감세하고 있다. 단 추가세율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WTO 양허세율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부당염매관세·상계관세

부당염매관세는 수출국이 특정 상품을 국내가격보다 대폭 인하하여 수출함으로써 이를 수입한 국가의 산업이 손해를 입는 경우를 보호하기 위해 부과하는 할증관세이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특정 수출산업에 대해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여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경우 수입국이 그 수입상품에 대해 보조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부과하는 관세이다.

⑤ 중남미통합연합(ALADI) 양허세율

중남미통합연합(ALADI) 가맹국 및 별도로 체결하고 있는 경제보완협정을 기반으로 특혜세율이 적용된다.

다. 특혜관세

페루는 2006년 1월 1일 안데스공동시장(Andean Common Market, ANCOM)과 역내관세를 철폐한 데 이어 남미공동시장(MERCOSUR), 칠레, 멕시코, 쿠바 등과 경제보완협정을 체결, 품목별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페루는 2006년 1월, EU의 GSP+(Enhanced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에 가입하여 대EU 농업 수출의 약 85%를 관세 없이 수출하고 있다.

라. 관세평가제도

페루의 관세평가는 그동안 종전 수출국에서의 선적 전 검사제도 결과에 의한 수출가격에 준하여 실시해왔으나, 2004년 5월 동 제도를 폐지, 세관 당국의 자체적인 가격평가기준에 의거하여 과세하고 있다. 관세는 최근 페루에 유입된 동일 품목의 수입가격 데이터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고 있으며, 자동차를 비롯한 일부 고가제품 및 가격 파악이 용이한 제품의 경우, 모델별로 관세부과 기준이 정해져 있다.

관세부과액은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는 선임, 보험료뿐 아니라 수입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기까지의 비용, 즉 커미션, 수수료 등을 포함하고 있다.

마. 관세환급제도

페루의 가공수출산업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원자재 수입 시 관세를 지불하고 원제품 수출 시 이를 환급받는 관세환급제도가 운용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와 유

사한 두 가지 제도가 운용되고 있는데, 우선 재수출을 전제로 1년 한도 내(동일기간 1회 연장가능) 일시 반입한 경우, 관세부과가 잠정 연기되며, 재수출 시 관세납부 의무가 말소된다. 동 제도는 보세가공을 위한 생산 장비·원료 등의 수입 시 활용하고 있다. 동 법이 부여하는 기한 내, 보세반입물품이 재수출되지 않을 경우 관련 물품을 몰수하며, 보세물품의 사전 신고 없이 제3자에 양도하였을 경우, 관세의 3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한편, 수출을 전제로 수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세가 부과된 수입물품 구매자가 물품을 생산·수출하였을 경우, 관세 환급이 이루어진다. 단, 현금이 아닌 일종의 유가증권 형태로 환불이 이루어지고, 수출업자는 여타 물품의 수입 시 관세를 동 유가증권으로 지불할 수 있다.

4. 시사점

페루정부는 ‘국가소규모어업발전계획(Plan Nacional de Desarrollo Pesquero Artesanal)’을 수립하고, 수산업의 발전을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발전계획의 가장 큰 목적은 페루에서 광산업 다음으로 크고 중요한 산업인 수산업의 기반이 되고 있는 엔초비 자원의 보호이다. 어분과 어유의 주원료가 되는 엔초비 자원은 페루의 전통적인 수출효자 상품이다. 특히 엔초비를 이용한 어분산업은 생산금액이 연간 10~17억불, 관련 종사자는 경제활동인구의 2%, 전체 수출비중의 11~16%를 차지하는 등 페루의 대표적인 산업이다.

페루 정부가 엔초비 자원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또 다른 이유는 엔초비가 먹이사슬의 말단에서 페루해역의 수산자원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초비 자원의 남획은 홉볼트 해류의 생태계에서 보호종인 펭귄, 바다 조류, 바다표범, 고래 등의 먹이 사슬을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주요 수산물인 가다랑어, 정어리, 고등어, 전갱이 등의 자원을 연쇄적으로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페루정부는 수산정책의 핵심을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에 맞추고, 어선당 최대 어획 한도를 설정해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수산물 생산량 증대와 어민의 소득창출을 위해 양식업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다. 페루는 해안의 사막지역, 안데스 산맥의 고산지역, 아마존강 유역의 밀림지역 등 지역적 특성이 상이하여 각각 지역적 특성에 맞는 양식업을

시도하고 있다. 해안지역에서는 새우, 가리비, 넙치, 틸라피아 양식을 시도하고 있으며, 내륙 및 고산지대에서는 송어 중심의 양식을, 아마존강 유역에서는 파이체(Paiche), 관상어, 기타 아마존 어종 등을 대상으로 양식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페루 생산부는 2011년 10월 6일 자이언트 오징어 조업과 관련하여 어업법¹⁵⁾을 개정·공포하였다. 페루의 개정 어업법에 따르면 자국 어선의 보호차원에서 자국 어선에 자이언트 오징어 쿼터를 우선 배정하고, 잉여분이 있는 경우에만 외국 국적 어선에 공개 입찰하여 쿼터를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자이언트 오징어의 조업에 있어서도 엔초비와 같이 페루 국적 선단만이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미 페루 정부는 일본과 스페인 국적선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국적선에는 협력사업 추진이 미진하다는 이유로 입어를 거부하여 우리 국적선들이 공해에서 조업하고 있으며, 개정 어업법에 따르면 우리 국적선이 페루 영해에서 자이언트 오징어를 조업하는 것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우리나라 정부는 한·페루 FTA 발효 이후 2년 내에 페루와 수산부문 협력사업을 위한 약정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페루 정부의 수산부문에 대한 주요 관심사를 사전에 파악하고, 협력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선제적인 제안이 절실한 시점이다.

15) Reglamento de Ordenamiento Pesquero, Supreme Decree, Decreto Supremo 014-2011

제2절 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현황

1. 개요

페루 수산업이 소규모 관행 어업에서 현대적 대규모 어업으로 발전한 것은 어분산업의 발전과 함께 최근 7년 동안 이루어졌다. 1930년대 수산 통조림 가공과 함께 처음으로 수산업의 산업화가 시작되었고, 1940년대까지 소규모로 진행되었다. 국립 냉동실(Frigorífico Nacional)의 건립과 함께 냉동수산업이 시작되었으나 실패하고 이차세계대전(WWII)으로 통조림의 수요가 증가하고 염장품의 수요가 증가한 반면, 이차대전 이후 수요의 감소로 통조림 이외엔 수산가공업이 위기에 봉착한다. 미국 자본의 유입으로 통조림 가공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냉동공장도 미국시장 때문에 지속되었다. 엔초비 어분산업의 성장은 새로운 수산가공업의 지평을 열었다. 1950년대에 엔초비가공업은 어분과 어유생산으로 전문화되었고, 이후 엔초비는 세계 어분생산의 절반을 차지하게 된다. 1955-1963년에 페루는 세계 최대의 어분생산국이 된다. 1960년대에 페루는 생산량에 있어서 세계의 선두국가가 되고, 어분생산공장이 총 154개까지 증가하여 정점을 이루었다. 1964년에 세계 총 어획량의 18%, 세계 어분 생산량의 40%를 생산하고, 총수출 수입의 25-30%가 수산물에서 차지하게 된다. 엔초비의 99%가 어분 생산에 사용되며, 60년대 중반이후, 북부와 중부해안에서 남획이 되기 시작되면서 어획경주와 어획선에 대한 과잉 투자가 이뤄졌다. 엔초비의 어획과 가공량은 1,600만 톤에 이르고 100,000명의 고용이 이뤄지게 된다. 대부분이 수출됨에 따라 대규모 수출가공공장과 소규모 내수공장으로 수산업의 이원화가 이루어졌다.

수산업, 특히 해양 수산업은 페루의 외화 벌이에서 광산업 다음으로 주요 산업이다. 페루 수산업은 엔초비를 이용한 어분과 어유의 생산과 수출이 중심축을 이룬다. 엔초비 이외에도 총 736종의 해산어종이 서식하고 있으나 상업화된 어종은 소수이다. 해안선이 1,400마일이나 되고, 북쪽과 중앙이 남쪽 해안보다 어종의 서식에 적합하여 주요 어장이 북쪽과 중앙에 위치한다. 주요 수산항구인 파이타와 칼라오를 중심으로 40개 이상의 항구를 통해 50여개 이상의 어종이 상업용으로 어획·출하되고 있다.

어획량기준으로 페루는 세계 수산물 생산량의 10%를 포획하며, 차가운 험볼트 기류의 영향으로 대해양 어류의 풍부한 서식지가 제공된다. 페루의 엔초비 생산량은 단

일 어종으로는 세계 최고의 어획량이며, 엔초비의 가공을 통한 어분과 어유 산업은 페루에서 제일 중요한 수산업이다. 그러나 엔초비는 험볼트 대해양 생태계에 서식하나 7년 내지 14년 주기로 나타나는 엘니뇨현상으로 어획량이 크게 변동하는 위험을 지니고 있다.

최근의 페루의 정치적 경제적 안정은 무역의 안정적 지원과 해외투자의 유치를 통해 최근의 빠른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빠른 경제성장 속도는 페루의 수산업과 양식업을 비롯한 전반적인 부분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페루 수산 어획량의 전반적인 감소추세는 수산업의 과잉어획 능력으로 인한 남획의 결과로서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하여 멸치, 어분과 어유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졌다. 양식업 생산은 2000년 까지 완만한 성장세 보이다 그 이후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향후 페루 수산업의 미래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해 크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2000년대 이후 어분과 어유의 가격상승의 수요측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는 중국 양식업의 성장과 어분 및 어유에의 의존도이고, 둘째는 엘니뇨로 대변되는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써 이는 멸치를 비롯한 페루 수산어획량에 큰 변화를 미치고 있다. 앞으로 어분과 어유의 가격상승은 중국의 양식업의 발전과 함께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페루 어분과 어유산업에 극히 긍정적이다. 지난 2000년대 중국의 어분과 어유의 수입은 400~500% 증가하였다. 더 싼 사료인 콩으로의 전환이 이뤄지고는 있으나 어유는 육식성 양식어의 오메가-3지방산이나 아미노산을 주요 사료로 사용되고 있어 어유의 수요는 더 나은 생화학 기술의 개발이 없인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주로 버려져서 오염원이 되고 있는 어유의 가공에 주요 동기를 제공할 것이다. 험볼트 대해양 생태계에 서식하는 어류에대한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와 예측은 이로인한 어획량의 너무 지나친 변동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현재 페루 수산업 정책은 매우 느슨하여 이는 향후 페루 수산어선과 가공업의 규모의 증가로 이어져 수산업과 수산 가공업의 투자의 비효율성과 과잉 어획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2. 수산업 생산구조

1) 전체 생산

FAO의 통계에 따르면, 세계의 수산물 생산량은 2009년 총 1억 5,948만 톤이었다. 이 중에서 페루의 수산물 생산량은 696만 톤으로 세계에서 4번째로 수산물을 많이 생산한 국가였다.

<표 5-4> 세계의 수산물 생산량 순위

단위 : 천 톤, %

순위	국가	1999	2003	2007	2009	예년평균 (07-09)	연평균 증감률	비중 (예년)
1	중국	41,807	48,263	56,161	60,475	58,154	3.8	36.5
2	인도네시아	4,894	5,920	8,177	9,815	8,951	7.2	5.6
3	인도	5,687	6,037	6,972	7,845	7,589	3.3	4.8
4	페루	8,437	6,108	7,261	6,964	7,225	-1.9	4.5
5	일본	6,637	6,095	5,668	5,196	5,493	-2.4	3.4
6	필리핀	2,922	3,618	4,718	5,083	4,924	5.7	3.1
7	베트남	1,798	2,824	4,144	4,833	4,521	10.4	2.8
8	미국	5,310	5,535	5,295	4,710	4,954	-1.2	3.1
9	칠레	5,587	4,528	4,938	4,703	4,817	-1.7	3.0
10	러시아	4,239	3,400	3,568	3,949	3,676	-0.7	2.3
11	미얀마	1,011	1,596	2,840	3,545	3,185	13.4	2.0
12	노르웨이	3,282	3,286	3,357	3,486	3,374	0.6	2.1
13	한국	2,909	2,502	3,287	3,199	3,282	1.0	2.1
14	태국	3,646	3,914	3,675	3,138	3,339	-1.5	2.1
	기타	34,149	36,159	36,022	35,939	35,994	-1.5	22.6
	합계	132,316	139,784	156,081	162,882	159,478	2.1	100.0

주 : 비중은 예년 평균으로부터 작성

자료 : FAO, Fishstat

이전 기록을 보면, 페루는 수산물 생산량에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권을 유지하던 국가였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인도네시아와 인도에게 2, 3위권의 자리를 넘겨주었다. 그러나 여전히 세계 5위권 내의 수산물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4.5%에 달한다.

단, 페루의 수산물 생산량은 1999년 이후 2009년까지 매년 1.9%씩 줄어들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세계의 수산물 생산량이 같은 기간 동안 매년 2.1%씩 늘어난 것과 상위권에 위치한 국가들, 인도네시아, 인도, 필리핀, 베트남 등이 개발도상국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아 페루의 수산물 생산량은 현재의 수준에서 뒤쳐질 가능성이 있다.

즉, 페루에게 있어서 과거의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어업 생산 구조를 파악하여 한계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페루의 어업구조를 어업별 생산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2) 어업별 생산

일반적으로 어업별 생산은 크게 어선어업(어선어업, 채취어업)과 양식어업(양식어업)으로 구분한다. 페루의 생산량 중에서 어선어업의 비중은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양식어업의 연평균 증가율이 17.6%이어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페루의 어선어업의 생산량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양식어업의 성장은 산업 현장에서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이다.

이에 반해 세계의 어업별 수산물 생산량은 어선어업의 생산량이 정체 내지는 감소하는 가운데 양식어업의 생산량은 동기간에 걸쳐 매년 6.3%씩 늘어나고 있다. 어선어업의 비중도 1999년에는 70.1%이었던 것이 2009년에는 55.2%에 그치면서 양식어업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즉, 페루의 수산업 생산량은 여전히 어선어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세계의 수산업이 어선어업에 대한 규제 강화, 연안 수산자원의 자국화 등에 따라서 어선어업의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양식어업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는 반면에 페루는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미 앞의 페루 수산관련 정책에서 보았듯이 페루는 국제적인 어업 규제와 자원 관리에 맞추어 국내법 내지는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이는 곧 어선어업의 생산량을 감소시켰고, 어업 구조상에서 양식어업에 대한 생산 구조가 거의 없던 페루는 전체적인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표 5-5> 페루의 어업별 생산량 추이(대세계 비교)

단위 : 천 톤, %

연도	세계				페루			
	합계	어선어업	기르는 어업	어선어업 비중	합계	어선어업	기르는 어업	어선어업 비중
1999	132,316	92,713	39,603	70.1	8,437	8,429	8.8	99.9
2003	139,784	89,474	50,310	64.0	6,108	6,094	13.6	99.8
2007	156,081	91,163	64,919	58.4	7,261	7,221	39.5	99.5
2009	162,882	89,837	73,045	55.2	6,964	6,920	44.3	99.4
연평균 증감률(%)	2.1	-0.3	6.3	-2.4	-1.9	-2.0	17.6	-0.1

자료 : 전계서

따라서 페루의 수산업 생산량 확대를 위해서는 앞으로 양식어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3) 품종별 생산

(1) 어선어업

페루의 어선어업 생산량은 2008년 기준으로 약 738만 톤으로 2000년의 1억 658만 톤에 비해 약 30.8% 줄어들었다. 어선어업의 생산량 급감은 어선어업의 비중이 높은 페루의 수산업에 있어서 성장 감소를 의미한다.

<표 5-6> 페루 '어선어업'의 어종별 생산량 추이

단위 : 천 톤, %

어종	2000	2006	2007	2008		연평균 증감률
				생산량	비중(%)	
안초비	9,576	5,935	6,160	6,258	84.8	-5.2
자이언트오징어	54	434	428	533	7.2	33.1
전쟁이	297	278	254	170	2.3	-6.7
고등어	73	102	62	93	1.3	3.1
방어류	11	33	35	49	0.7	20.5
버니토우	0.4	13	10	43	0.6	79.4
민대구(Hake)	83	29	32	35	0.5	-10.2
기타 내수면 어류	19	31	29	31	0.4	6.3
가리비	12	19	25	20	0.3	6.6
송어류	26	4	11	16	0.2	-5.9
기타	508	143	175	129	2.0	-15.7
합계	10,659	7,021	7,221	7,377	100.0	-4.5

자료 : FAO, Fishstat

페루의 어선어업 생산량을 어종별로 보면, 일부 어종에 어획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획량이 가장 많은 안초비의 생산량은 많을 때는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84.8%를 차지하고 있다. 안초비는 주요 어분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어 페루가 세계 최대의 어분 수출국이 된 기반 원료이다. 뒤를 이어 자이언트 오징어는 2008년에 약 53만 톤을 생산하여 7.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갱이는 17만 톤으로 2.3%, 고등어는 9만 톤으로 1.3%를 차지한다. 이들 4대 어종이 페루의 어선어업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5.6%에 달한다.

2000년에서 2008년까지의 페루의 어선어업 어종별 생산 동향을 보면, 자이언트오징어(연평균 증감률 33.1%), 버니투우(79.4%), 방어류(20.5%) 등의 생산량은 매년 크게 늘고 있다. 반면, 안초비(-5.2%), 전갱이(-6.7%), 민대구(-10.2%) 등은 어획량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양식어업

페루의 양식어업은 2000년대 들어 크게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초기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2008년의 생산량은 4만 3,103톤에 지나지 않고 있다.

<표 5-7> 페루 ‘양식어업’의 어종별 생산량 추이

단위 : 톤, %

어종	2000	2006	2007	2008	비중 (%)	연평균 증감률(%)
가리비	3,916	12,337	18,518	14,802	34.3	18.1
흰다리 새우	614	9,257	11,657	13,314	30.9	46.9
무지개 송어	1,928	5,794	6,997	12,497	29.0	26.3
틸라피아	47	494	1,741	1,714	4.0	56.8
콜로소마 ¹⁾	14	344	414	540	1.3	57.9
기타 내수면 어류	-	89	89	125	0.3	50.9 ²⁾
Pacu ³⁾	26	38	34	71	0.2	13.4
기타 남미 열대어	11	12	15	25	0.1	10.8
잉어	6	11	13	15	0.0	12.1
합계	6,596	28,393	39,531	43,103	100.0	26.4

주 : 1) 콜로소마는 카차마(Cachama)라고도 하며 남미 아마존의 담수어로 마리당 30kg

2) 2001년부터 2008년까지의 연평균 증감률임(2000년 양식실적은 없음)

3) Pacu는 남미 아마존의 담수어로 마리당 30kg 정도임

자료 : FAO, Fishstat

양식어업에서 가장 많은 생산량을 보이는 것은 가리비로 2000년의 3,916톤에서 매년 18.1%의 성장을 보이면서 2008년에는 1만 4,802톤을 생산하였고, 전체 양식어업 생산량

의 34.2%를 차지하고 있다. 뒤를 이어 흰다리 새우는 2008년에 1만 3,314톤을 생산하였고, 2000년부터 매년 46.9%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무지개 송어는 페루의 내수면에서 양식되고 있으며, 2008년에 1만 2,497톤을 생산하여 2000년부터 매년 26.3%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 세 어종이 페루의 양식어업 생산량의 94.2%를 차지하고 있다.

이 외의 양식어업의 어종은 대부분이 내수면에서 양식하고 있으며, 아마존의 어류들이다. 이들 어종은 양식어업에서 차지하는 생산 비중이 매우 낮으며, 남미권에서 교역이 약간 이루어지고 있는 정도이다.

3. 수산물 수급구조

1) 수산물 수급

전 세계 수산물 생산량¹⁶⁾은 2007년에 1억 3,556만 톤이었다. 2006년의 재고량이 이월되면서 수산물의 지역공급량은 1억 3,914만 톤에 달했다. 이 중에서 식용으로 이용된 수산물은 78.9%에 해당하는 1억 985만 톤에 달했으며, 비식용으로 이용된 수산물은 21.1%에 해당하는 2,923만 톤에 달했다. 세계적으로 수산물 수입은 5,485만 톤이었고, 수출은 5,262만 톤이었다.

<표 5-8> 페루의 수산물 수급(2007년)

단위 : 천 톤

국가	생산	수입	수출	지역 공급량	식용	비식용*			
						합계	Seed	Feed	기타
세계	135,559	54,849	52,620	139,144	109,851	29,293	379	23,663	5,251
페루	7,248	59	6,168	1,139	609	530	-	-	-

주 : 수산물에서 해조류와 해양 포유류는 제외

* 페루의 비식용 수산물 중 Seed, Feed, 기타로 이용된 수량은 알 수 없음

자료 : FAO, FAOSTAT

페루의 2007년 수산물 생산량¹⁷⁾은 725만 톤으로 세계 제2의 수산물 생산국이었다. 지역공급량(내수)은 114만 톤이었으며, 이 중에서 식용으로 이용된 수산물은 53.5%에 해당하는 61만 톤이었다. 페루의 수산물 교역규모는 수입과 수출이 각각 6만 톤과

16) 어패류만을 포함하여, 해조류와 해면 포유류는 제외함

17) 1)과 같음

617만 톤이었으며, 수출 대비 수입 비중은 1.0%였다. 즉, 페루는 수산물의 순 수출국인 것이다. 자국 수산물을 대부분 국내산으로 충당하는 공급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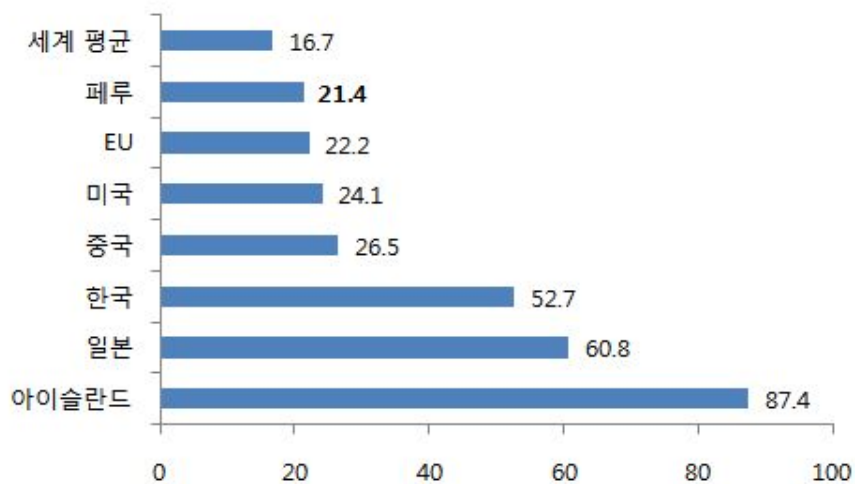
첫째, 페루는 세계 평균에 비해 비식용 수산물의 이용 비중이 높았다. 이는 절대적인 안초비 생산량에 따른 어분 등으로의 이용률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 페루는 수산물의 순 수출국이라는 점이다.

2) 수산물 소비

FAO가 발표한 2009년에¹⁸⁾ 공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세계의 연간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16.7kg이었다. 아이슬란드가 87.4kg으로 수산물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였고, 우리나라는 52.7kg으로 세계 5대 수산물 소비대국에 포함되어 있다. 페루는 세계 2위권의 수산물 생산량을 기록하고는 있지만 수출량이 많아 소비량은 상위권에 들지는 못하고 세계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인 21.4kg/인/연을 기록했다.

<그림 5-3> 세계의 주요 국별 연간 1인당 수산물 소비량(20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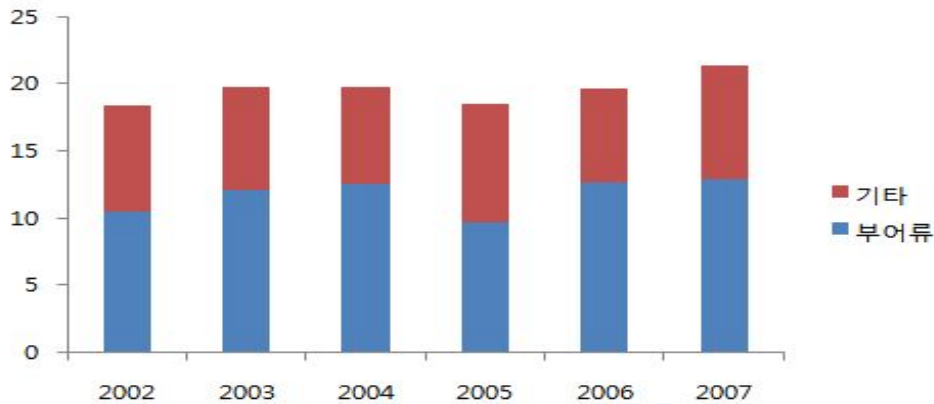


주 : 수산물에 해조류 및 해양포유류는 제외함

자료 : FAO, Fishstat

18) FAO의 Food Balance Sheet의 최신판은 2009년이며, 2009년 내에 집계된 최근 자료는 2007년임.

<그림 5-4> 페루의 연간 1인당 수산물 소비량(kg/인/년) 추이



주 : 수산물에 해조류 및 해양포유류는 제외함

자료 : FAO, Fishstat

페루인들의 수산물 소비에서 주목할 것은 소비량이 늘고 있다는 점이며, 2002년 대비 2007년의 소비량은 16.3%가 증가했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페루 경제가 급성장(GDP)하면서 주축했던 수산물 소비량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향후 자원수출을 근간으로 한 페루의 경제성장이 지속 가능하다면, 수산물 소비량은 소득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페루산 엔초비는 페루에서 가장 주요한 어종으로 총 수산 생산량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총 어획량의 오직 15.4%(1.1 Million MT)만이 식용으로 쓰이는 반면, 84.6%(5.8 Million MT)가 어분과 어유생산으로 이용되고 있다. 수산물의 직접소비에 있어서 엔초비의 경우는 80%가 통조림으로 소비되는 반면, seafood의 경우 88%가 냉동형태로 소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9> 2008년 페루 수산업의 총어획량과 소비

단위 : 천 톤

어종	총어획량	사료 및 간접소비	직접 인간 소비				
			전체	신선어	통조림	냉동	Dried /Salted
전체	7,363	6,166	1,196	321	200	647	28
엔초비	6,258	6,159	99	0.3	79	12	7
기타어종	504	7	497	249	119	108	21
Seafood	601	-	601	72	3	526	0.06

4. 수산물 가공 및 유통 실태

1) 수산물 가공¹⁹⁾

페루의 수산가공업을 우리나라와의 연계성 차원에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페루의 자이언트오징어 어업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다. 동시에 한국에 가공용 오징어(진미채, 조미오징어 등)의 원료가 되는 페루의 자이언트오징어 가공업체는 주로 한국인이 운영하는 기업들이다. 따라서 페루의 수산가공업은 우리나라와 관련이 높은 자이언트오징어 어업과 이를 원료로 반가공하여 한국에 수출하는 현지 한국인 수산가공업체의 현황을 살펴본다.

가. 페루의 자이언트오징어 어업

① 자이언트오징어의 개황

페루의 자이언트오징어는 우리나라의 연근해에서 어획되는 살오징어와는 크기와 용도 면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어종이자 상품이다. 우리나라의 살오징어는 보통 40~50cm 정도의 길이인 반면에 페루에서 어획되는 오징어(일명 자이언트오징어)는 그 길이가 보통 수 미터에 이르는 것도 있다.

<그림 5-5> 자이언트오징어의 크기



자료 : NEWSIS

우리나라의 연근해에서 어획되는 살오징어는 일반적으로 활오징어와 물오징어(신선·냉장)로 주로 소비되고 있는 반면에 자이언트오징어는 조미오징어나 진미채 등의 원료로만 사용되고 있다. 한국으로 수입되는 자이언트오징어는 대부분이 조미하기 좋거나 진미채로 찢기 편하도록 가공된 반가공 원료로 수입되고 있다.

19) 현지 한국인 수산가공업체는 자이언트오징어를 반가공하여 한국, 중국, 일본, 스페인 등에 수출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페루 현지의 한국인 수산가공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음.

페루의 자이언트오징어(어업+유통+가공업)는 주로 자국 어민들에 의해서 어획되고 있는데, 소형낚시어선에 의해 어획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반가공 원료 공급에 한계가 있다. 자이언트오징어를 어획하는 어민들은 소규모 영세어업자들이 대부분이며, 30톤 이내(주로 10~15톤)의 어선에서 외출낚시로 어획하고 있기 때문에 육지에서 50해리 밖으로 나가서 조업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림 5-6> 자이언트오징어 주요 산지인 파이타의 소규모 어선들



파이타의 소규모 목선(10~15톤급)

출어를 포기한 파이타의 목선들

자이언트오징어의 어획 성수기는 11월부터 익년 7월로, 8월부터 익년 10월까지는 비수기로 접어든다. 자이언트오징어는 페루의 소형어선들이 주로 어획하기 때문에 냉동처리가 되지 않아 신선 자이언트오징어를 공급받아 가공하고 있는 상태이며, 업체간의 자이언트오징어 원료 쟁탈전이 치열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자이언트오징어 가공 원료를 비성수기를 고려하여 가공공장 내 냉동냉장창고에 보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가공 작업은 항상 신선 자이언트오징어로 하며, 가공이 끝난 자이언트오징어를 냉동냉장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바이어 주문에 대응하고 있다.

② 자이언트오징어의 최근 어획 동향

자이언트오징어 어업은 주로 페루의 북부지역인 파이타(Paita), 탈나라(Talara)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냉수화를 일으키는 기후변화인 라니냐로 인해 자이언트오징어의 생산량이 급감하였다. 자이언트오징어는 주로 19~20℃의 수온층에서 어장을 형성하는데, 페루 연안으로 라니냐의 영향을 받은 냉수성 조류가 들어오면서 자이언트오징어 어장이 50~200해리까지 밀려나간 상태이다. 여기에 50해리 이외로 조업을 나가기 어려운 페루의 어선들이 조업을 포기하면서 자이언트오징어의 어획량이 크게

줄어든 것이고, 현지 조사 시점인 2010년 10월 말에는 평년 성어기임에도 불구하고 어획량이 거의 없었다.

자이언트오징어 자원과 밀접한 기후변화 요인은 엘니뇨 현상²⁰⁾으로 현재 페루 연안 50마일 외부로 밀려 있는 19~20℃의 수온층이 엘니뇨가 발생할 경우에 페루 연안으로 밀려오면서 자이언트오징어 어장이 연안에 인접하게 된다. 엘니뇨 현상은 페루에서 시작되는데 최근 엘니뇨 현상의 발생 빈도를 보면, 1984~1985년, 1997~1998년에 일어났다. 약 13~15년 주기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NOAA(National Ocean and Atmosphere Administration, 미국해양대기국)에서는 지속적인 인공위성 관측을 통해 동 주기를 고려할 경우에는 2012~2013년 정도에 페루에서 엘니뇨가 시작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이언트오징어 자원이 한동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엘니뇨 현상 이후에는 페루 연안에 서식하는 수산자원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지 어업인 및 관계자들의 경험상, 늘어나는 자원은 정착성 어패류로 게류와 패류(바지락류)이며, 이는 엘니뇨의 후반기에 주로 나타난다. 이에 반해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수산자원의 수와 양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 현재가 엘니뇨가 일어나기 전인 라니냐 시기이기 때문에 수산자원이 열악한 상태이다.

2) 수산물 유통

가. 중간상인 주도의 유통구조

① 산지의 거래 방식

페루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수산업협동조합이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소형어선을 대상으로 산지에서 생산자가 어획한 수산물을 상인(객주)이 수집·구매하고 있다. 과

20) 엘니뇨 현상은 태평양 동부 적도 해역(4°S-4°N, 150°W-90°W)의 월평균 해수면 온도 편차의 5개월 이동 평균값이 약 6개월 이상 계속해서 +0.5C 이상이 되는 현상을 의미함. 엘니뇨 현상이 지구 곳곳에 기상 이변을 일으키는 재앙으로만 생각하기 쉬우나 엘니뇨 현상이 나타나면 세계 최대 수산업 국가 중 하나인 페루는 그야말로 축재 분위기에 젖어드는데, 그 이유는 평상 시에는 나타나지 않던 열대 난류성 어자원들이 대량 나타나 어업이 활기를 띠고, 다시 엘니뇨 현상이 사라질 때가 되면, 깊은 바다로부터 순환되는 차가운 해류가 올라오며 새로운 심해 수산자원들이 올라와 어업이 더욱 활기를 띠게 된다는 것임(즉, 엘니뇨 현상은 주로 12월 크리스마스쯤에 나타나기 시작하므로 페루인들에게 豊漁를 가져다주는 ‘엘니뇨 현상’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로 대변되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의미하게 된 것이며, ‘엘니뇨’라고 명명됨)

거 우리나라의 수산물 산지유통에서 문제가 된 전기적 상업자본(객주)이 만연해 있는 페루의 산지 유통에서는 이들 객주가 생산자(어민)에게 출어자금을 전대금 형식으로 빌려 주고, 어획한 수산물로 돌려받는 형태가 일반적인 수산물 유통 거래 방식이다.

따라서 페루의 수산물 산지 유통은 객주들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30톤급 이하 소형어선에 대한 상업자본의 지배구조가 만연해 있다.

② 소비지의 거래 방식

페루의 전통적인 수산물 중간유통은 유통인들이 자발적으로 형성한 도매시장에 근거하고 있으며, 경매제도가 아닌 도매상과 수요자 개별 거래를 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이들 자발적 수산물 도매시장의 열악한 시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원을 투입하고 있어서, 향후 페루의 수산물 도매시장의 근대화가 추진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재원 투입은 황무지와 같은 곳에 지붕과 차단막을 설치하는 정도로 우리나라와 같은 현대적인 도매시장 체계로의 이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1) 리마의 수산물 도매시장

페루의 최대 소비지역인 리마 시에는 3만 3,000m² 정도의 수산물 도매시장이 2개소가 있으며, 시설은 매우 열악하다. 수산물 도매시장이라고는 하지만, 도매 전용 시장은 아니며 도소매의 구분이 없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5-7> 리마의 수산물 도소매시장



현지 방문 시, 수산물 거래되던 수산물 종류는 약 20~30여 종이었으나 계절적으로 어종이 한정적이며, 페루인들이 즐겨 먹는 요리인 세비체(어류나 조개류를 샐러드, 레몬즙 등과 섞어서 먹는 음식)의 재료로 사용되는 새우, 오징어 등의 어패류와 패류(꼬막, 가리비 등), 고등어, 병어, 상어 등의 판매량이 많았다.

도매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산물은 저장 및 냉동냉장 운반 시설이 열악하여 소비지까지 운반되어 오는 과정에서 신선도가 상당히 저하되고 있었다.

수산물 가격은 자연산에 비해 양식산이 약 20% 정도 높았는데, 이는 양식 수산물의 생산량이 자연산에 비해 미미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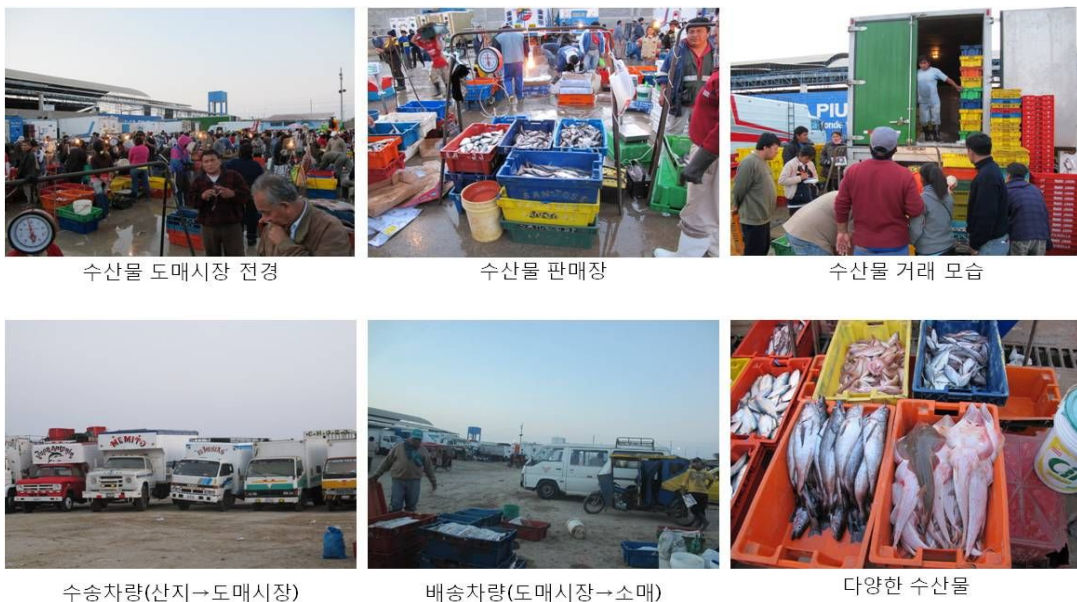
(2) 지방의 수산물 도매시장(피우라)

피우라의 수산물 도매시장은 1개소가 있으며, 자연적으로 조성된 도매시장으로 시설이 매우 낙후되어 있었다.

피우라의 수산물 도매시장도 리마와 같이 자연적으로 조성된 시장으로 바닥은 황무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고, 이 시장 옆에서 피우라 지자체가 지원하는 도매시장 건물이 건립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설 역시 현대적인 도매시장이라기보다는 비, 바람, 먼지 등을 막아주는 단순한 구조의 도매시장으로 설계되었다.

산지로부터 수산물을 수송해 온 차량은 20피트 컨테이너 규모의 차량들이었고, 컨테이너 상태에서 팔고 있었으며, 이들 차량은 대부분 냉동냉장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그림 5-8> 피우라의 수산물 도매시장



수산물 도매시장 전경

수산물 판매장

수산물 거래 모습

수송차량(산지→도매시장)

배송차량(도매시장→소매)

다양한 수산물

대략 150여 도매상들이 시장에서 수산물을 팔고 있었는데, 리마에 비해서는 어종이 다양했으며, 선도는 리마에 비해 좋은 편이다. 특히, 우리나라 서해에서 어획되는

어종인 병어의 거래량이 많았지만 우리나라의 병어에 비해 사이즈가 작아 시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업자 인터뷰에서 “페루는 고등어, 전갱이에 대한 수요가 많다. 특히, 내륙 고산지역에 염장 처리되어 많이 팔린다. 최근 페루의 고등어, 전갱이 어획량이 줄어서 칠레로부터 수입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었는데, 페루에서 고등어, 전갱이를 우리나라 수출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그렇다고 우리의 고등어를 수출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낮다는 한계가 있다.

(3) 대형소매점의 소매기구 확산

페루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식품 소비자유통은 재래시장 중심에서 대형소매점(대형마트 등)으로 전환되고 있다. 페루 리마의 시민들은 과거 재래시장에서 수산물을 구입해 왔으나 최근 페루의 경제 성장에 따라 외국 소매자본이 국내로 유입되어 대형소매점에서 식료품 등을 구입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수도인 리마에 국한된 이러한 대형소매점은 우리나라의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개별 점포의 규모보다도 큰 것으로 판단된다.

대형소매점(마트)에서 판매하는 수산물 가격은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입가격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초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엔초비 수입 가격이 평균 3.3달러인 것에 비해 페루 마트에서는 2.41달러로 우리나라 수입가격의 73% 수준에서 팔리고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이 먹는 엔초비와는 다른 품종으로 선어나 냉동 형태로 수입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문어의 경우는 우리나라 수입 문어의 평균가격이 3.89달러인데 반해 페루의 소매 가격은 4.86달러로 나타나 우리나라로의 물류비 등을 감안할 경우에 수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어의 경우에는 페루에서 고가의 어종을 팔리고 있으며, 인접한 연어 생산 대국인 칠레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고가의 어종으로 판매되고 있다.

<그림 5-9> 페루 대형소매점에서의 수산물 소매가격



어류 필렛(원화 6,766원)



안초비(2,760원)



문어(원화 5,564원)



연어(원화 15,983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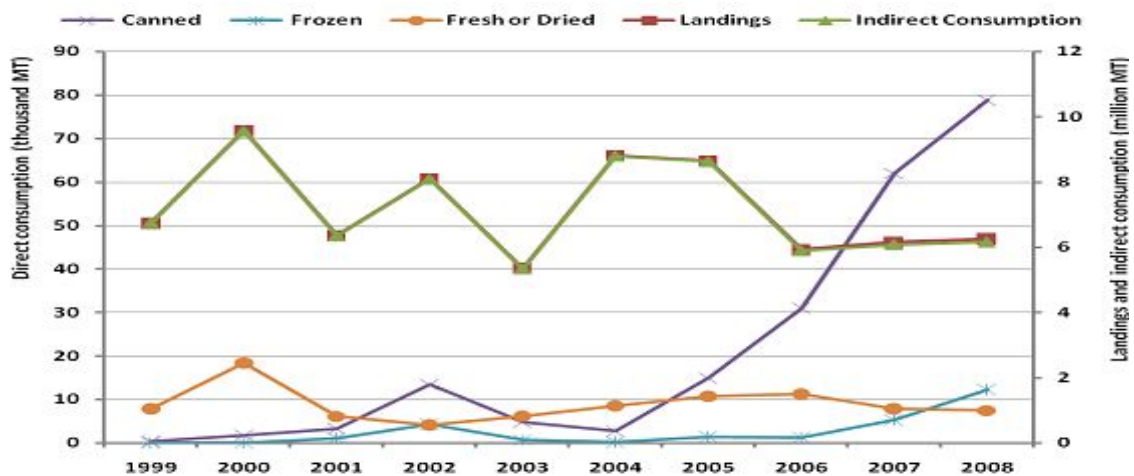
5. 엔초비산업(Engle and Wui, 2010)

1) 생산과 소비

페루산 엔초비는 페루 수산업의 90% 이상을 설명하는 단일 주요 산업으로써 보다 세부적인 설명을 필요로 한다. 2008년 페루 총 수산물 생산액 7.4백만 톤의 85%가 엔초비이고, 엔초비 가공산업인 어분과 어유가 총 간접소비의 99.9%를 차지한다. 총 엔초비 어획량의 1.6%(99천 톤)만이 식용으로 쓰이고 그중 대부분인 79천 톤이 통조림 생산으로 사용되고 있다.

어분이나 어유등 사료용이나 간접소비량은 대체로 6-8백만 톤 범위에서 다소의 변동을 보이고 있는 반면, 직접소비인 식용으로는 통조림의 생산이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10> 페루의 엔초비 가공 현황(1999~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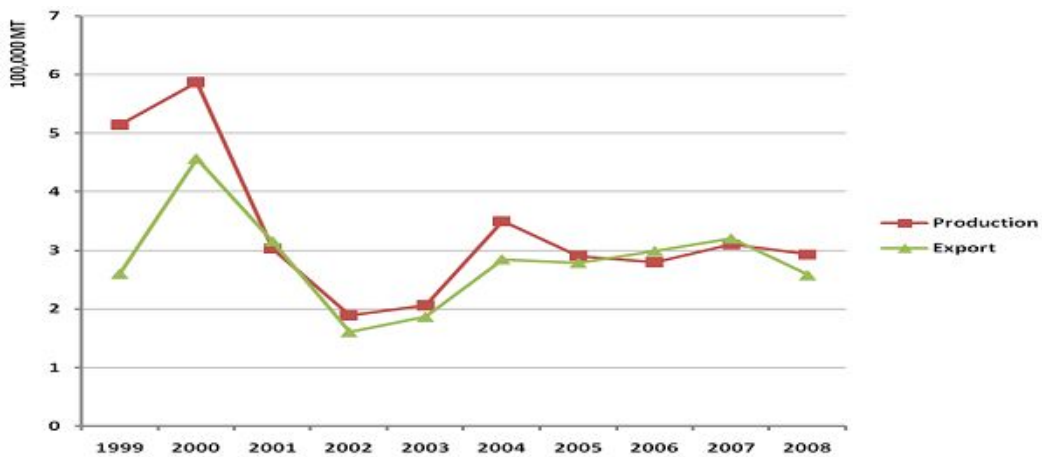
대부분의 어분은 수출되고 있으며, 어분의 수출량은 2백만 톤에서 1.5백만 톤으로 감소하였다. 대부분의 차이는 단지 재고의 차이정도로 보인다.

<그림 5-11> 페루의 어분의 생산과 수출(1999~2008)



대부분의 생산된 어유도 어분처럼 수출되고 있다. 생산량은 2000년에 60만 톤에서 2008년 30만 톤으로 감소하였고, 이는 엔초비 어획량의 감소와 통조림 생산량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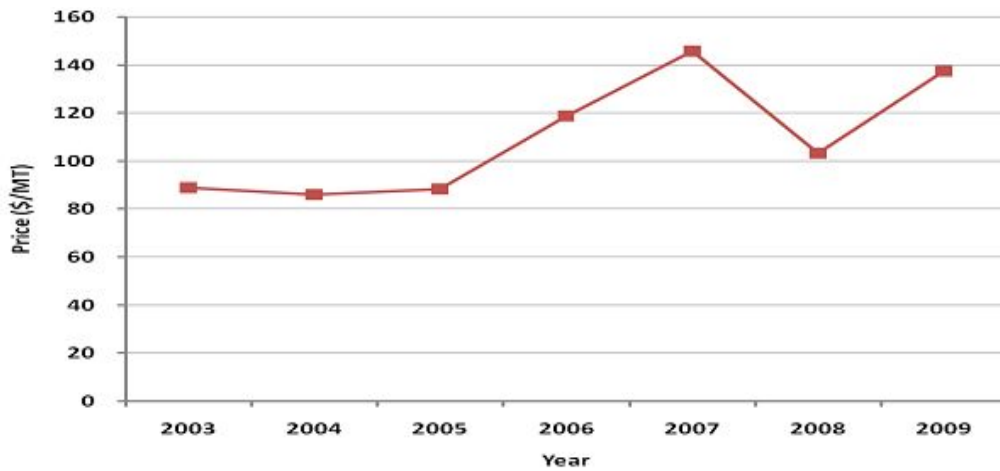
<그림 5-12> 페루의 어유의 생산과 수출(1999~2008)



2) 시장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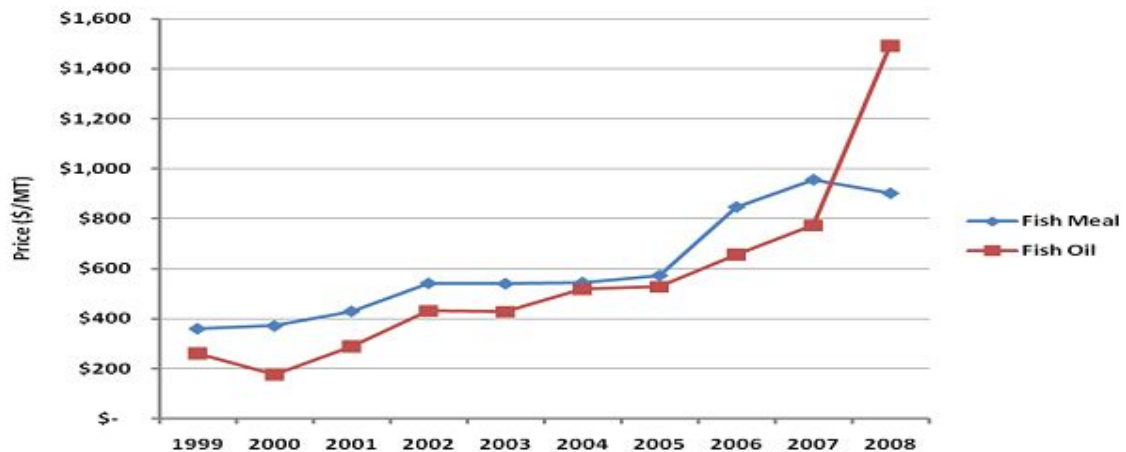
엔쇼비의 수출가격은 2003년에 톤당 \$90에서 2009년도에 \$140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가격상승은 엔쇼비 어획량의 감소 때문이며, 이는 결국 어분과 어유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졌다.

<그림 5-13> 페루산 엔쇼비의 국제가격(2003~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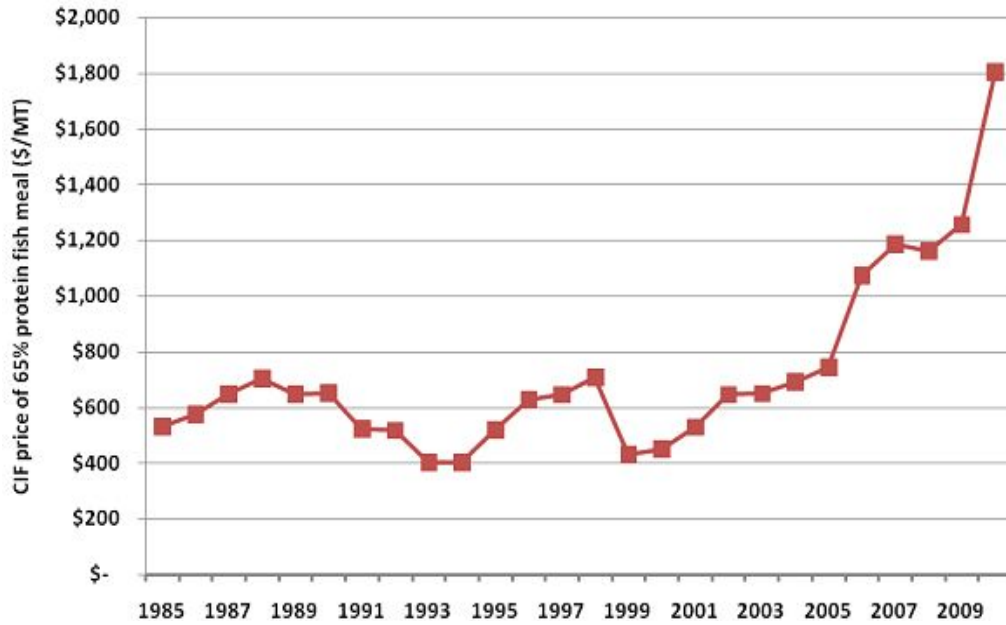
페루산 어분의 FOB 수출가격은 1999년에 톤당 \$360에서 2008년에 \$903로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 어유는 동기간 동안 톤당 \$262에서 \$1,494로 훨씬 큰 상승폭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큰 폭의 가격상승은 부분적으로 어분과 어유의 공급량 감소에 기인하고 있다.

<그림 5-14> 어분과 어유의 FOB 수출가격(1999~2008)



2008년 이후 어분의 국제가격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15> 페루산 65% 단백질 어분의 CIF 수출가격



출처 : IMF, <http://www.indexmundi.com/commodities/?commodity=fish-meal&months=300>

제3절 주요 조업국의 협력사업 추진 현황

1. 개요

OECD/DAC의 통계에 따르면, 페루는 원조 수혜국으로서 2006년에 7억 8백만 달러를 원조 받았다. 이 중에서 DAC 회원국으로부터 89.1%, 다각적 원조가²¹⁾ 10.9%를 차지하고 있다. 2009년에는 8억 7천만 달러의 원조를 받았으며, 그 비중은 DAC 회원국으로부터의 원조가 82.5%, 다각적 원조가 17.5%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즉, 2006년에서 2009년 동안 전체적으로 페루의 수혜금액은 매년 7.1%씩 늘어났다. 단, 2007년과 2008년에는 2006년에 비해 줄어든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이유는 우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페루의 경제가 풍부한 자원을 수출하는 것을 기반으로 크게 성장하면서 OECD의 DAC 회원국들이 페루에 대한 투자 환경을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적 지원이 ODA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표 5-10> 페루의 ODA 수혜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합계	DAC회원국		다각적	
		원조금	비중(%)	원조금	비중(%)
2006	708	630	89.1	77	10.9
2007	489	421	86.2	67	13.8
2008	628	613	97.7	15	2.3
2009	870	718	82.5	152	17.5
연평균 증감율(%)	7.1	4.4	-2.5	25.3	16.9

자료 : OECD

21) 다각적 원조란 세계의 관련 기관을 통해 받은 원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IBRD, 각 UN 기관 등이 이에 포함된다.

2. 국가별·분야별 원조

OECD/DAC 회원국 23개국 중에서 페루에 ODA를 지원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덴마크는 2006년~2009년 동안 페루에 대해 ODA를 지원한 내력이 없으며, 이 외에 22개국은 페루에 ODA를 지원하고 있다.

<표 5-11> 페루에 ODA를 지원한 국가별 지원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국가 (순위)	2006	2007	2008	2009	평균 (06-09)	연평균 증가율(%)	주요 조업국
미국	335.182	161.263	151.237	140.079	196.940	-25.2	
스페인	65.132	103.150	102.809	160.118	107.802	35.0	주요
일본	77.416	15.725	83.993	220.740	99.469	41.8	주요
독일	80.036	40.222	147.018	93.378	90.164	5.3	
벨기에	13.472	25.149	28.138	23.494	22.563	20.4	
프랑스	25.666	11.585	15.944	17.009	17.551	-12.8	
스위스	9.883	16.170	24.519	18.476	17.262	23.2	
캐나다	3.222	6.189	21.001	16.801	11.803	73.4	
한국	4.635	14.785	7.935	5.221	8.144	4.1	주요
이탈리아	6.234	3.891	11.368	9.173	7.667	13.7	
스웨덴	1.537	4.511	3.509	1.146	2.676	-9.3	
룩셈부르크	1.184	4.100	2.103	1.687	2.268	12.5	
네덜란드	2.000	3.173	2.455	1.239	2.217	-14.8	
핀란드	0.831	1.533	3.198	2.891	2.113	51.5	
노르웨이	0.999	3.551	2.457	1.277	2.071	8.5	
영국	0.560	1.837	3.516	1.910	1.956	50.5	
아일랜드	0.654	2.131	1.217	0.769	1.192	5.5	
오스트리아	0.541	1.179	0.743	0.692	0.789	8.6	
뉴질랜드	0.854	0.788	..	0.036	0.559	-65.3	
호주	0.244	0.171	0.032	1.583	0.507	86.4	
그리스	0.012	0.219	0.131	0.128	0.123	117.7	
포르투갈	0.002	0.064	0.002	0.045	0.028	162.7	
합계	630.298	421.386	613.325	717.891	595.725		

주 : 상기의 국가는 DAC 회원국, 단, 덴마크는 동기간 동안 페루에 지원하지 않았음

자료 : OECD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06년에는 무려 전체 지원금 중 53.2%가 미국으로부터 나왔다. 미국을 제외한 국가 중에는 스페인과 일본이 뒤를 잇고 있으며, 동기간 중에 각각 평균적으로 18.1%와 16.7%를 점유하고 있다. 한국은 1.4%를 차지하고 있는데, 스페인과 일본과 비교하면 각각 1/13과 1/12에 지나지 않는다.

우선 페루와의 협력사업의 주요 펀딩 루트로서 ODA를 살펴보았는데, 앞에서 살펴본 기간 동안에 페루에 지원된 전체 ODA 자금에서 어업분야에 지원된 비중은 평균 1% 정도에 지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페루의 전체 ODA 수혜는 동기간에 걸쳐 늘어나고 있지만, 어업분야는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12> 페루의 어업분야 ODA와 전체 비교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평균	연평균 증감율
전체	630.3	421.4	613.3	717.9	595.7	4.4
어업	13.0	0.9	5.9	2.8	5.6	-40.4
비중	2.1	0.2	1.0	0.4	0.9	

자료 : 전계서

앞에서 페루가 원조 받은 국가별로 살펴 본 결과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원조를 페루에 하고 있는 국가는 스페인과 일본으로 나타났다. 이들 두 국가는 세계적인 어업 조업국일뿐만 아니라 페루의 주요 수산자원 중에 하나인 자이언트오징어와 관련한 오징어의 주요 생산-수입국이기도 하다.

즉, 이들 스페인과 일본은 페루의 풍부한 수산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어업분야와 관련한 다양한 ODA를 지원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관련 국가들도 어업 분야에 ODA와 관련한 지원을 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어업분야에 DAC 회원국 중에서 지원한 사례가 있는 국가들을 보면, 24개국 중에서 7개국이 포함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동 기간 동안에 꾸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국가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세계적인 어업국인 일본과 스페인이 2개 국가이다. 또한 프랑스는 2008년에 들어 어업분야의 지원을 늘리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반해 한국은 2006년 백만 달러 이하의 실적을 낸 적인 한 번 있을 뿐, 페루에 대한 어업 분야의 ODA 관련 지원은 없었다. 일본은 2006년에 1,200만 달러 이상을 지원한 후에 지원 금액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3년 동안 4십만 달러 이상씩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스페인은 2006년 4십만 달러를 지원한 이후 지속적으로 지원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표 5-13> 페루의 어업분야 ODA 수혜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평균	
전 체	630.3	421.4	613.3	717.9	595.7	
어업 분야 합계	13.0	0.9	5.9	2.8	5.6	
DAC 회원국	소계	13.0	0.9	5.9	2.8	5.6
	일본	12.5	0.4	0.3	0.4	3.4
	프랑스	-	-	3.3	1.2	2.2
	스페인	0.4	0.5	1.7	1.2	1.0
	캐나다	-	-	0.5	-	0.5
	이탈리아	0.1	-	-	-	0.1
	한국	0.0	-	-	-	0.0
	핀란드	-	-	0.0	-	0.0
다각적	0.0	-	-	-	0.0	

자료 : 전계서

3. 수산협력 사업의 사례

일본은 페루와의 양자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수산부문을 포함한 8개 분야에 대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고 원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이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ODA 9개 분야는 빈곤감소, 물공급과 위생개선, 사회적불균형 시정, 경제기반시설 조성, 농업원조, 수산원조, 환경보존,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부문 등이다. 일본은 페루와의 양자협력과 관련하여 단일 사안에 대한 개별적 접근이 아닌 패키지형태로 협력과제를 제시하고 부문별 과제를 발굴하여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1) 빈곤감소

전체 인구의 30%가 절대 빈곤 상태에 있는 페루는 빈곤해결이 가장 중요한 핵심 정책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일본은 페루정부의 빈곤해결을 위해 모두 7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① 아마존 관광 개발 프로젝트 예비조사
- ② 카자마르카(Cajamarca) 지역의 소규모 영세농민의 소득증대 프로젝트
- ③ 소규모 영세 어업인의 책임 있는 어업을 위한 훈련 프로젝트

- ④ 한 지역·한 상품(OVOP, One Village One Product)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지문 프로젝트
- ⑤ 빈곤감소 부문의 훈련프로그램
- ⑥ 농업분야의 농민 보조금 지급
- ⑦ 전기 공급 확대 프로젝트

2) 물 공급과 위생개선

페루는 인구의 2/3 정도가 연안 사막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만 페루 물자원의 약 2%만이 개발된 상황이다. 또한 물의 공급은 페루 전체의 76%에 불과하며, 하수처리 시설은 57%에 불과하여 남미 평균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따라서 식수공급과 하수처리를 통한 위생개선은 페루의 중요한 정책대상이다. 따라서 일본은 이 부문에 ODA 사업으로 8개 프로젝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 ① 물 공급과 하수처리시설의 최적화를 위한 사전 조사
- ② 페루 수자원 공사(SEDAPAL)의 비영리 수자원 공급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젝트
- ③ 북부지역의 물 공급과 하수처리시설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프로젝트
- ④ 카자마르카(Cajamarca) 지역의 물 공급과 하수처리 시설 개선 및 연장 프로젝트
- ⑤ 인퀴토스(Inquitos) 지역에서의 하수처리 시설 개선과 연장 프로젝트
- ⑥ 북부 리마 도심지역의 물 공급과 하수처리 시설 최적화 프로젝트
- ⑦ 지방도시 지역의 물 공급과 하수처리 시설 개선과 연장 프로젝트
- ⑧ 리마 한계지역의 위생시설 개선 프로젝트

3) 사회적불균형 시정

페루 정부는 초창기에 중앙도시의 개발정책의 일환으로서 빈곤퇴치 사업을 진행하였고, 이제는 정책방향이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불균형 시정을 위한 사업을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하고 있다. 일본이 추진하는 사회적 불균형 시정 사업으로는 8개 프로젝트가 있다.

- ① 폭력 피해자를 위한 통합보건서비스 강화 프로젝트
- ② 사회적 불균형 시정을 위한 3개 그룹 훈련 프로그램
- ③ 사회적 불균형 시정을 위한 일본해외협력사업 봉사자 1명 운영
- ④ 노약자를 돌보기 위한 선임 무료봉사자 1명 운영

- ⑤ 사회적 불균형 시정을 위한 2개의 JICA 파트너십 프로젝트 추진
- ⑥ 사회재생을 위한 국가기구 설립
- ⑦ 보건부문 농민 보조금으로 8명 지원
- ⑧ 생계와 교육부문의 농민 보조금 2명 지원

4) 경제기반시설 조성

페루 정부는 도시와 지방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낙후지역이 자생할 수 있도록 해당지역에 기초적인 경제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한 정책 관심사이다. 따라서 일본은 ODA 사업으로 6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 ① 디지털 지상 텔레비전 설치를 위한 자문
- ② 산업기반시설 부문의 13개 그룹의 훈련 프로그램 마련
- ③ 관광 부문 일본해외협력단 봉사자 2명 지원
- ④ 산업기반시설 조성부문 선임급 봉사자 1명 지원
- ⑤ New Marcara international bridge 건설
- ⑥ 전기 공급지역 연장 프로젝트

5) 농업원조

2000년 이후부터 농업은 연 4%씩 성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성장은 수출, 연안지역에서의 대규모 집약 농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사막지역에서의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산업적 발전을 위해서는 물 자원 확보를 통한 관개시설이 매우 중요하다. 사막지역의 관개시설 확충은 페루 농업정책의 매우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일본은 ODA 사업을 통한 농업지원에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① 농업부문 국제협력을 위한 전문가 파견
- ② 농업원조를 위한 훈련과정 마련(3개)
- ③ 농업원조를 위한 JICA 파트너십 프로그램 마련(3개)
- ④ 농업분야에서 3명에 대한 보조금 지급
- ⑤ 국가농업대학의 장비개선 프로젝트
- ⑥ 관개부문 프로젝트

6) 수산원조

페루는 세계 4대 수산물 생산국이며, 이 분야에서 일본은 자국 선박을 통한 수산자 원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페루로부터 막대한 양의 수산물을 수입하고 있으며, 엔초비는 일본의 수입수산물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수산업에 대한 원조사업에 크게 관심을 갖고 있다.

또한 수산업은 페루에서 광업 다음으로 2번째 큰 산업이지만 생산성과 현대화가 크게 낙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소규모 영세어업인은 산업구조의 최하층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페루정부는 어항의 건설, 기술 지도를 통한 생산성 향상, 수산업의 지속성을 담보하여 어업인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원조사업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정부는 ODA 사업으로 3가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 ① 소규모 어선어업자를 위한 책임 있는 어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 ② 수산부문 원조프로그램으로 2개의 훈련과정 운영
- ③ 안데스 고산지대에서의 식용을 위한 수산물 개발 및 증진 프로젝트

7) 환경보존

1980년대 이후 도시지역으로의 인구유입으로 인한 도시팽창은 다양한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된 오염 배출수는 농업용수를 오염시키거나 강과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 페루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ODA 사업으로 8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 ① 지열에너지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작성
- ② 폐광산 조사능력 강화를 위한 연구
- ③ 쓰레기 재생 진작을 위한 배출관리
- ④ 환경보존 프로그램 부문의 8개 그룹 훈련과정 마련
- ⑤ 환경보존 프로그램 청년리더 교육프로그램 마련
- ⑥ 환경보존 교육을 위한 봉사자 파견(2명)
- ⑦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통한 클린에너지 도입 프로젝트
- ⑧ 산림보존 프로그램

8)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

페루지역은 환태평양 조산대의 가운데 위치해 있어서 지진 등의 재해가 많으며, 엘리뇨 현상에 따른 기상이변도 많아서 페루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위해가 되고 있다. 따라서 재해에 대한 예방과 복구지원이 매우 중요한 페루정부의 과제이다. 일본은 재해예방과 복구를 위해 ODA 사업으로 4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 ① 저지대 침수지역 및 피해가능 지역에 대한 홍수 대응 프로그램 마련
- ② 재해예방 프로그램 부문의 5개 그룹 훈련과정 마련
- ③ 지진과 해일피해 경감기술 강화 프로젝트
- ④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마련

제6장 브라질 수산업과 수산협력 현황

제1절 수산정책 현황

제2절 수산업의 생산 및 소비 현황

제3절 주요 조업국의 협력사업 추진 현황

제6장 브라질 수산업과 수산협력 현황

제1절 수산정책 현황

1. 개요

브라질의 수산분야의 정책 목표는 크게 5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첫째, 어선어업과 양식어업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고 국내 공급을 증강하며, 고용 창출 증대를 통해 수입을 늘리는 것이다.

둘째, 어선어업과 양식어업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과학적·기술적 지식과 경험을 현장에 이전하는 것이다.

셋째, 브라질 수산물의 품질, 건강성, 안전성을 확보하여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다.

넷째, 소규모 영세어업(양식어가 포함)의 환경적·경제적·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다섯째, 수산물 소비의 확대를 촉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브라질의 수산정책의 5대 목표는 결국 브라질 수산업의 성장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 5대 목표의 특징은 다른 여러 국가들이 그러하듯이 수산업을 단순히 산업적 차원에서 경제분야로서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분야로서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수산정책의 목표 하에 브라질의 관련부처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전략을 취하고 있다.

첫째, 브라질 EEZ와 공해에서 어선어업에 대한 확대와 현대화

둘째, 외해, 천해, 내수면의 양식어업 촉진

셋째, 주요 연근해어업의 자원 회복과 합리화

넷째, 소규모 영세어업(영세 양식어가 포함) 지원

다섯째, 수산 관련 신기술과 상업적 대안의 도입

여섯째, 수산분야에 대한 새로운 협상 및 투자 개방 등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일곱째, 내수시장에 대응한 상품화 증대

여덟째, 수산업에서 경쟁과 지속성의 개념 확립

2. 주요 수산 관련 기관

브라질의 수산관련 정부 기관은 농축산부(MINISTÉRIO DA AGRICULTURA)이며, 수산분야의 정책 도입과 실행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수산분야에는 단순히 경제적 분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분야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도입과 시행에 있어서 수산관련 부처 단독으로 정책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즉, 수산분야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산관련 부처는 물론이거니와 과학기술부, 노동부, 법무부, 해군, 투자청 등 다양한 기관들이 상호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수산분야에 있어서 보다 활동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관리 혁신을 통한 부처간 메커니즘의 합리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브라질 수산업의 잠재성에 대한 다른 정부 부처의 인식을 제고시키는 환경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

브라질의 농축산부에서 수산관련 분야는 Department of Fisheries and Aquaculture가 담당하며, 산하에 Fishing Coordination, Aquaculture Coordination, Coordination of Processing and Distribution, Coordination of Control of the Fishing Activities로 구분되어 있다.

정부 기관 외에 관련 연구기관 등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DPA, APEX(수출대행 기관), CNPq(정부 연구위원회), INCRA(지역 개발 기구), CONEPE(국가 수산분야 위원회)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공공 및 민간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다양한 기관들을 배경에 두고, DPA는 제도와 기관의 통합뿐만 아니라 상호 경쟁을 통해 수산분야의 자극제 및 촉진제와 같은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3. 수산관련 정책 및 제도

1) 연근해 어업 정책

연근해 어업은 복잡한 환경 여건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내·외부 영향을 정책적으로 다루어야 하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충분한 정책적 이해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수생 환경(어업 자원의 서식 등)은 다양한 요인(기후, 해양 변화)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어 수산업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어선어업의 경우에는 어획노력량에 따라 수산자원이 민감하게 변하기 때문에 환경적·사회적·경제적 문

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환경 영향, 오염, 맹그로브 파괴, 과잉어획 등은 자연의 생산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영향들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다. 예를 들어 정어리 어업의 경우에 매년 어획량 변동 폭이 크게 변하고 있는데, 이는 환경 변화에 따른 서식지 및 산란장의 변화와 자원 가입량이 급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근해의 어선어업 정책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고 있다.

- 어선 등의 어획노력량의 재배치를 통해 합리적인 어획 도모
- 어획물에 대한 원산지와 적합한 인증제 도입
- 어획노력량의 절감
- 과잉 어획 지역에 대한 관리
- 부수 어획 및 어획물 손실에 대한 관리와 절감
- 연안 지역 관리에 수산업 포함

2) 내수면 어업 정책

담수 및 기수역을 포함한 내수면 어업은 소규모 영세어업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어업 분야이다. 내수면의 어선어업 생산량은 브라질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약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내수면 어획량의 대부분은 아마존 유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주요 어종은 메기 등을 포함한 토속어종들이다. 북동 지역의 하천에서는 틸라피아가 주요 어종이다. 중서부의 하천 지역에서는 메기를 주요 어종으로 하며, 생산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남서부 및 남부 지역의 어업은 저수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생산량이 적다.

현재 내수면 어업을 확장하는 것은 환경(댐, 오염, 토양 오염, 산호초 파괴, 과잉 어획 등) 과 관련된 법적 제한에 걸려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브라질의 내수면 어업에서는 제한과 성장이라는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는 있지만, 이와 관련한 별도의 제도가 필요한 상태이다.

3) 양식어업 정책

브라질의 양식어업은 브라질의 수산물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이며, 여전히 개발이 미미하여 잠재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브라질은 틸라피아, 새우, 패류를 집중적으로 양식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이 외에 생산 잠재력이 크다고 판단되는 어종에는 송어를 비롯한 토속 담수어류(surubim and pirarucu)가 있다. 예를 들어 천해 새우 양식의 생산량은 2000년에 3만 톤에서 2003년에는 10만 톤까지 생산할 수 있었다. 틸라피아는 같은 기간 동안 5만 톤에서 10만 톤을 생산했다. 이 외에 패류에서는 홍합과 가리비가 주요 대상 어종이다.

브라질은 양식어업에 적당한 환경과 기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양식어업은 브라질의 수산물 생산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브라질 정부는 다음과 같은 관련 정책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양식어업 분야의 수요에 맞는 제도의 채택
- 공공 수역 및 연방정부 지역에서 업무 조정과 조직화
- 상업적 양식과 소규모 영세 양식에 대한 적정 지역 선정과 특성화
- 기술 및 시장 전략에 투자하는 기업 발굴
- 국가 차원의 개발 프로그램에 통합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 국제적으로 상업화된 양식 수산물 생산 촉진
- 인적 자원의 육성
- 양식어업 분야에 대한 전략적 정보를 확산할 수 있는 방안 도입

4. 시사점

브라질은 수산업의 잠재력에 비해 수산물 생산량이 적다. 따라서 수산물 생산증대를 통한 자국의 수산물 공급확대를 위한 정책을 주로하고 있다. 그러나 브라질은 급격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도시지역과의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는 어촌지역의 영세어업자들의 생계유지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경제적·사회적 통합을 유도하는 수산업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아마존강 유역을 기반으로 하는 내수면 어업의 활성화와 양식어업의 생산량 증대는 브라질의 수산부문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맞는 정책적·제도적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우선 어선어업 부문의 주요 정책은 어선의 재배치를 통한 합리적 어획도모, 어획물에 대한 원산지과 적합한 인증제 도입, 어획노력량 절감, 과잉 어획지역 관리, 부수 어획 및 어획물 손실에 대한 관리와 절감 등 다양한 자원관리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내수면 어업에 대해서는 환경을 고려한 제한정책과 성장정책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의 수산물 생산량 증강을 위해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인식되는 양식어업 부문은 투자 기업 발굴, 외국인 투자 유치 등 적극적인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

제2절 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 현황

1. 개요

브라질의 수산업은 2009년 현재 1.24 백만 톤이고 2011년은 1.43 백만 톤으로 15% 정도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서양의 긴 해변을 소유한 브라질은 어류가 중요한 식량원이 되고 있다. 특히 염장대구(Salted cod)는 가장 중요한 영양원이다. 브라질은 어획량의 충분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산이 소비에 미치지 못해 남미의 최대의 수산물 수입국으로써 수입액이 2008년 현재 24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반면 수출액은 5천 4백만 달러에 불과하다. 또한 브라질 수산물 일인당 소비량은 9.03 kg으로 전세계 평균보다 낮으며 FAO 권장 소비량인 12kg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의 적극적인 소비촉진으로 향후 지속적인 수산물 소비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2008년 한해에 만도 수산물 판매량은 6%이상 증가하였다.

브라질의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수산업의 GDP 비중은 약 0.4% 정도로 우리나라의 0.2~0.3%와 전체 경제 규모 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브라질의 수산업 관련 종사자는 직접종사자(어업 생산자)가 약 790,000명에 간접 종사자(가공업, 유통업, 육상노동자 등)가 250,000명으로 전체 종사자 수는 1,040,000에 달한다.

브라질 수산업의 특징은 넓은 육지 면적만큼이나 바다와 접하는 면적이 넓을 뿐만 아니라 아마존이라는 세계 최대의 내수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산물을 생산하기에 알맞은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의 수산물 생산량과 이에 따른 소비량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흥 개발 국가를 의미하는 BRIC's에 포함될 정도로 최근의 경제 성장은 국민 소득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곧 수산물에 대한 소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수산물 생산은 최근까지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양식어업의 수산물 생산량 증가는 연간 10%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다.

최근의 브라질 경제의 빠른 성장은 소득수준의 향상과 가계소비의 증가와 함께 수산업 및 양식업의 빠른 성장을 가져왔다. 향후 이러한 추세는 석유가격의 유지와 브라질 경제의 지속적 성장전망과 함께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식업분야의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의 지리적인 넓은 해양면적과 긴 강은 다양한 수

산어종과 함께 향후 수산업 발전의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수산부문 잠재력을 실질적 생산 확대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성에 있어서 보다 많은 진보가 필요하다. 현재 브라질 연방정부는 상업적 양식업을 위해 새로운 어종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전히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의 국제기준치보다 낮은 소비량을 갖고 있으며, 그 대부분이 수입에 의해서 소비되고 있어 양식업은 큰 정책적 전략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브라질 정부에 의해 전략적으로 선정된 주요 어종으로는 새우, 역돔(tilapia), 이미패류(bivalve mollusks) 등이 있고, 그 외에도 송어, 피라루쿠(pirarucu) 등이 있다. 양식업의 발전과 함께 브라질은 세계최대의 수산양식생산국중의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향후 브라질 수산업은 중국의 경제성장 등 세계 경제의 추세와 엘니뇨 등 지구 온난화의 환경적 요인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이러한 대내외 환경 변화 및 자연여건의 변화도 고려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수산업 생산구조

1) 전체 생산

브라질의 수산업은 대규모 산업구조와 소규모 영세업이 공존하면서 브라질 가계의 영양과 소득의 중요한 근원이 되고 있다. 브라질 수산업 정책은 다음 두 가지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첫째, 외국 어선의 임대 시설을 갖춘 해양어업 육성, 둘째, 지리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는 내륙 및 해양 양식업의 발전이다.

FAO의 통계에 따르면, 브라질의 2009년 수산물 생산량은 약 116만 톤으로 우리나라의 328만 톤에 약 1/3 수준이다. 그러나 1999년부터 2009년까지의 수산물 생산량의 추이를 보면, 세계 평균 수산물 생산량 증가율인 2.1%보다 높은 5.2%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0%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브라질은 1999년에 세계 수산물 생산량 대비 비중이 0.6%에서 2009년에는 0.8%로 늘어났다. 즉, 브라질의 수산물 생산 규모는 다른 국가나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장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1990년 이후 수산물 어획량은 2009년까지 년 평균 1.5% 성장한 반면, 양식어 생산량은 연 평균 17.2% 성장하고 있다. 동일한 성장률을 유지할 경우, 2014년에는 양식업 생산량이 수산어획량을 능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6-2> 세계의 수산물 생산량 순위

단위 : 천 톤, %

국가		1999	2003	2007	2009	연평균 (07-09)	연평균증감률 (%)
세계		132,316	139,784	156,081	162,882	159,478	2.1
한국	생산량	2,909	2,502	3,287	3,199	3,282	1.0
	비중	2.2	1.8	2.1	2.0	2.1	-
브라질	생산량	745	985	1,072	1,241	1,157	5.2
	비중	0.6	0.7	0.3	0.8	0.7	-

자료 : FAO, Fishstat.

2) 어업별 생산

일반적으로 어업별 생산은 크게 어선어업(어선어업, 채취어업)과 양식어업(양식어업)으로 구분한다. 브라질의 수산물 생산량을 어업별로 구분하면, 2009년을 기준으로 어선어업이 66.5%, 양식어업이 33.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어업별 생산량의 성장세를 보면, 2000년대에 들어서 양식어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브라질의 어선어업 어획량은 1999년 60만 톤에서 2009년 약 83만 톤까지 매년 3.2%씩 성장한 셈이다. 이에 반해 양식어업은 같은 기간 동안에 매년 11.4%씩 늘어나 2009년에는 약 42만 톤을 생산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어선어업의 비중은 81.1%에서 66.5%까지 14.6%p 떨어진 반면에 양식어업은 14.6%p 올랐다.

<표 6-3> 브라질의 어업별 생산량 추이(대세계 비교)

단위 : 천 톤, %

연도	세계				브라질			
	합계	어선어업	기르는 어업	어선어업 비중	합계	어선어업	기르는 어업	어선어업 비중
1999	132,316	92,713	39,603	70.1	745	604	141	81.1
2003	139,784	89,474	50,310	64.0	985	712	273	72.3
2007	156,081	91,163	64,919	58.4	1,072	783	289	73.0
2009	162,882	89,837	73,045	55.2	1,241	825	416	66.5
연평균 증감률(%)	2.1	-0.3	6.3	-2.4	5.0	3.2	11.4	-2.0

자료 : 전게서

이러한 브라질의 어업별 생산량의 변화는 브라질의 수산정책에서 양식어업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도 브라질은 계속해서 양식어업의 생산량 증대에 정책적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브라질은 광활한 육지면적에 기반을 둔 긴 해안선과 넓은 EEZ 면적으로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마존이라는 세계 최대의 내수면 여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어업별 생산 동향 외에 해수면과 내수면의 수산물 생산량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 어업생산 구조를 보다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브라질의 수산물 생산량은 1999년에 59.8%가 바다에서 생산되었다. 그러나 2009년에는 53.5%가 바다에서 생산되어 동기간에 걸쳐 매년 약 6.5%p 떨어졌다. 이에 반해 내수면에서는 1999년 40.2%였던 수산물 생산량이 2009년에는 46.5%로 6.4%p 상승했다. 물론 해수면 및 내수면의 수산물 생산량 모두 증가세를 보였지만, 특히 내수면의 수산물 생산량의 증가세가 해수면보다 높았다. 연평균 증감율을 보더라도 내수면의 어획량 증가세가 6.8%로 해수면의 4.1%에 비해 2.7%p 높았다. 즉, 최근 브라질의 수산물 생산량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원인 중에는 내수면의 수산물 생산량 증가에 의한 것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된다.

<표 6-4> 브라질의 생산 환경별 수산물 생산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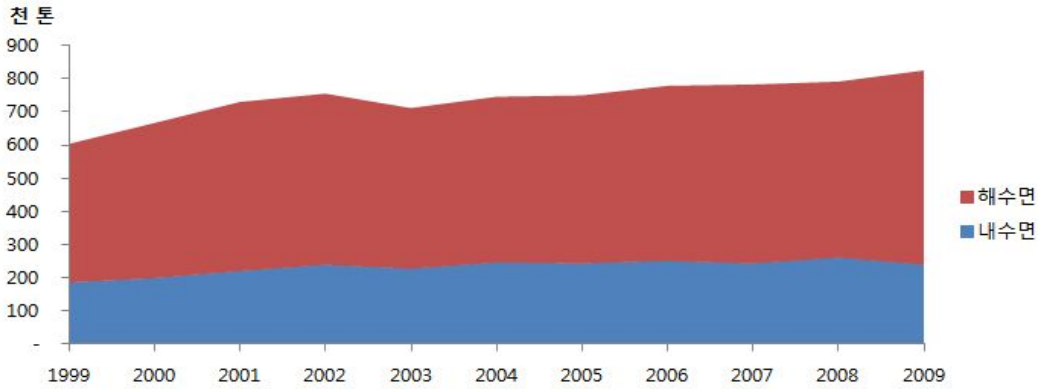
단위 : 톤, %

연도	합계	내수면		해수면	
		생산량	비중	생산량	비중
1999	744,598	299,614	40.2	444,984	59.8
2003	985,412	399,816	40.6	585,596	59.4
2007	1,072,225	453,853	42.3	618,372	57.7
2009	1,241,048	576,835	46.5	664,213	53.5
연평균증감율	3.2	6.8	1.5	4.1	-1.1

자료 : 전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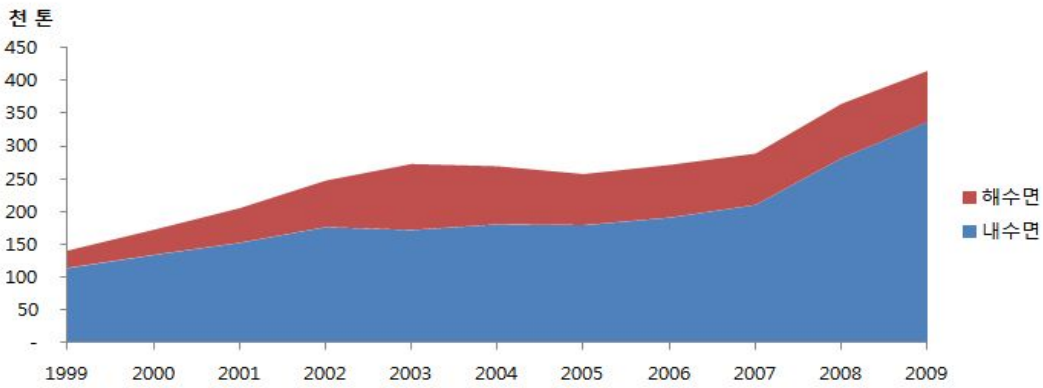
이를 어선어업과 양식어업으로 구분해서 보면, 어선어업은 주로 해수면에서의 생산량 증가가 내수면에 비해 높지만, 반대로 양식어업 비중은 내수면에 집중되어 있으며, 해수면과 내수면 모두 증가세가 어선어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림 6-1> 브라질 어선어업의 어업 구역별 생산량 추이



자료 : 전게서

<그림 6-2> 브라질 양식어업의 어업 구역별 생산량 추이



자료 : 전게서

따라서 브라질의 수산물 생산량이 2000년대에 들어와 급속히 성장한 가장 큰 이유는 내수면을 중심으로 한 양식어업의 성장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3) 품종별 생산

브라질의 어종별 생산량을 파악하기 위해 여기서는 FAO의 어종 분류에 기준을 두었다.

(1) 어선어업

브라질의 어선세력은 연안어선 1,630척, 원양어선 100여척, 외국 임대어선 60여척이 조업하고 있다. 또한 23,00척의 소규모 어선들도 함께 어업중이다. 이들 어선들에

의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어종 수는 2009년을 기준으로 153개 어종 이상이다. 생산량의 상위 80%까지의 어종 수가 58종 이상으로 인근 남미 국가인 페루 등과 비교해 볼 때, 상위품목 생산 집중률은 낮은 편이다. 다시 말해 상대적으로 다양한 어종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다.²²⁾

단일 어종으로 브라질 어선어업에서 가장 많이 어획하고 있는 것은 브라질 정어리로 2009년에 83,286톤을 생산했는데, 이는 1999년부터 매년 12.6%씩 늘어난 결과이다. 다음으로는 대안이석태(민어과의 어종)으로 2009년에 45,750톤을 생산했으며, 동기간에 매년 7.6%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타 해면 및 기타 담수 어류는 동기간에 걸쳐서 연평균 증가율이 -4.2%, -5.6%로 나타나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브라질이 2009년에는 다른 인접 국가에 비해 다양한 어종을 생산하고는 있지만, 브라질 자체로 볼 때는 잡는 어종 수가 약간씩 집중화되고 있다.

<표 6-5> 브라질 어선어업의 어종별 생산량

단위 : 톤, %

구 분		1999	2009	비중	누적 비중	연평균 증감율
브라질 정어리	대서양	25,518	83,286	10.1	10.1	12.6
대안이석태 ¹⁾	대서양	21,926	45,750	5.5	15.6	7.6
기타 해면어류	대서양	65,016	42,129	5.1	20.7	-4.2
담수 메기류	내수면	20,647	35,596	4.3	25.0	5.6
바다 메기류	대서양	28,482	33,170	4.0	29.1	1.5
Prochilodus nei ²⁾	내수면	33,544	27,356	3.3	32.4	-2.0
Laulao 메기	내수면	22,087	23,676	2.9	35.3	0.7
가다랑어	대서양	23,188	23,307	2.8	38.1	0.1
Acoupa 민어	대서양		22,102	2.7	40.8	-
기타 담수어류	내수면	34,074	19,129	2.3	43.1	-5.6
송어류	대서양	10,886	18,919	2.3	45.4	5.7
기타 멸치	대서양	7,527	18,508	2.2	47.6	9.4
대서양 새우	대서양	9,964	16,168	2.0	49.6	5.0
Flagtail Prochilodus ³⁾	내수면		15,813	1.9	51.5	-
노랑메기	내수면	14,280	13,835	1.7	53.2	-0.3
기타	해수+내수	286,802	386,668	46.8	100.0	3.0
합계		603,941	825,412	100.0		3.2

주 : 1) 민어과, 2) 관상용 어류, 3) 국내 관상어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비봉'이라고 불림
자료 : 전계서

22) 페루는 정어리가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

(2) 양식어업

브라질의 양식어업이 본격적으로 생산에 돌입한 것은 1990년대 말부터이다. 2009년 기준으로 브라질의 양식어업에서 생산하는 어종은 총 24종(FAO 기준)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틸라피아로 양식어업 생산량의 32.0%를 차지하고 있다. 뒤를 이어 잉어가 19.5%, 흰다리새우가 15.7%, 캐차마(토속어류)²³⁾ 11.2%로 이들 5개 어종이 양식어업 생산량의 78.3%를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메기류, 담수 대하, 무지개 송어 등을 양식하고 있는데, 흰다리새우, 남미 홍합, 굴, 남미 가리비(사자발이라고도 함)의 4종만 해면에서 양식하고 나머지 20여 종은 모두 내수면 양식어종이다.

<표 6-6> 브라질 양식어업의 어종별 생산량

구 분		단위 : 톤, %				
		1999	2009	비중	누적 비중	연평균 증감율
틸라피아	내수면	27,104	132,957	32.0	32.0	17.2
잉어	내수면	49,254	80,895	19.5	51.5	5.1
흰다리새우	해면	16,054	65,188	15.7	67.1	15.0
캐차마	내수면	6,201	46,454	11.2	78.3	22.3
기타	해수면+내수면	42,026	90,142	21.7	100.0	7.9
합계		140,639	415,636	100.0		11.4

주 : 1) 민어과, 2) 관상용 어류, 3) 국내 관상어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비봉’이라고 불림
 자료 : 전계서

4) 지역별 생산

브라질의 지역별 생산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북부지역의 경우 주로 어류와 갑각류를 생산하고 있으며, 잠재적인 어획량은 연간 385~485천 톤으로 추정되며, 이 중 235천 톤이 해양어종 (pelagic species)이고 저서어종(demersal species)이 150~240천 톤 정도로 추정된다. 북동부 지역의 경우는 넓은 해안에도 불구하고 브라질과 남부적도의 뜨거운 바다물로 인하여 어업이 활발하지 못하다. 잠재적인 어획량은 연간 200~275천 톤으로 해양어종이 100천 톤과 저서어종 100~175천 톤 정도이다. 남동부지역은 카보 프리오(cabo Frio)와 일하 그란데 지역 사이는 계절 용승 (seasonal upwelling)으로

23) 피라냐를 닮은 남수어류로 브라질 북부 아마존에서 식용으로 소비

주요한 1차 산물의 생산지이다. 잠재적 어획량은 년산 265~290천 톤으로 추정된다. 남부지역은 말비나스와 브라질 조류가 만나는 곳으로 잠재적 어획량은 550~660천 톤으로 추정된다. 주요 어종은 정어리(sardine), 민어(corvine), 돔(snapper), 동갈 민어(croakers), 바다가재(lobsters), 새우(shrimps), 참치류(tunas) 등이다. 마지막으로 내륙어업은 주로 소규모 영세어업으로써 8백만km²의 아마존 강이나 호수에서 연간 600천 톤 정도를 어획할 수 있다. 주요어종으로는 Curimata, Pira-mutaba, Bagres, Surubin, 민물돔(tilapia), Triara, Tambaqui, Pacu 등이다. 대부분의 내륙어업은 아마존 분지에서 휴농철에 주로 이뤄지고 있다.

3. 수산물 수급구조

1) 수산물 수급

전 세계 수산물 생산량²⁴⁾은 2007년에 1억 3,556만 톤이었다. 2006년의 재고량이 이월되면서 수산물의 지역공급량은 1억 3,914만 톤에 달했다. 이 중에서 식용으로 이용된 수산물은 78.9%에 해당하는 1억 985만 톤에 달했으며, 비식용으로 이용된 수산물은 21.1%에 해당하는 2,923만 톤에 달했다. 세계적으로 수산물 수입은 5,485톤이었고, 수출은 5,262만 톤이었다.

브라질의 2007년 수산물 생산량은²⁵⁾ 107만 톤이었고, 지역공급량(내수)은 138만 톤이었다. 즉 국내 수산물 공급량을 국내 생산량으로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수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공급량 중에서 식용으로 이용된 수산물은 94.3%에 해당하는 131 톤이었다. 브라질의 수산물 교역을 보면, 수산물 순수입국으로 2007년에 42만 톤을 수입하고 10만 톤을 수출했다.

즉, 브라질은 국내 수요량을 국내 생산으로는 충당시키지 못하고 수입을 통해 수산물 수급을 맞추고 있다. 브라질의 국내 공급량 중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²⁶⁾ 30.0%에 달한다.

24) 어패류만을 포함하여, 해조류와 해면 표유류는 제외함.

25) 1)과 같음.

26) 수입하여 재수출하는 것은 없다는 가정

<표 6-7> 브라질의 수산물 수급(2007년)

단위 : 천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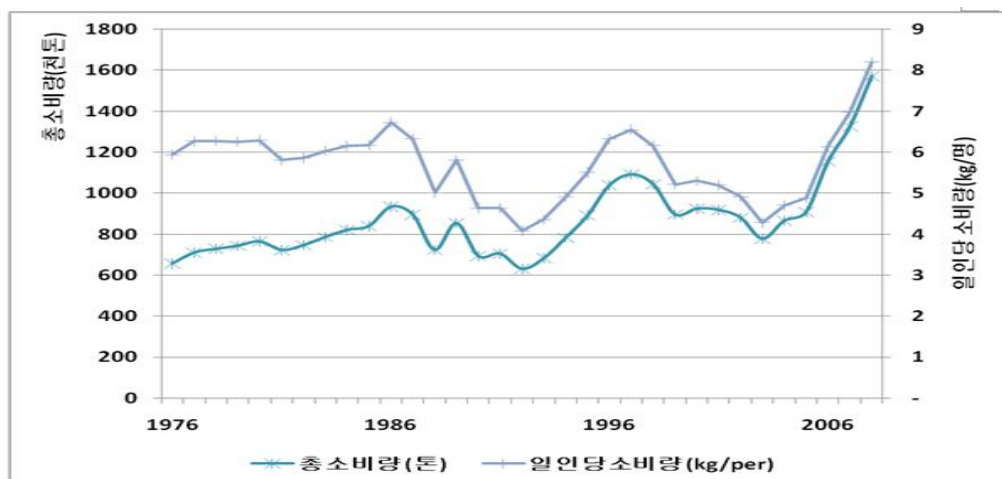
국가	생산	수입	수출	국내 공급량	식용	비식용*			
						합계	Seed	Feed	기타
세계	135,559	54,849	52,620	139,144	109,851	29,293	379	23,663	5,251
브라질	1,072	416	104	1,384	1306	78	-	77	1

주 : 수산물에서 해조류와 해양 포유류는 제외
 자료 : FAO, FAOSTAT

2) 수산물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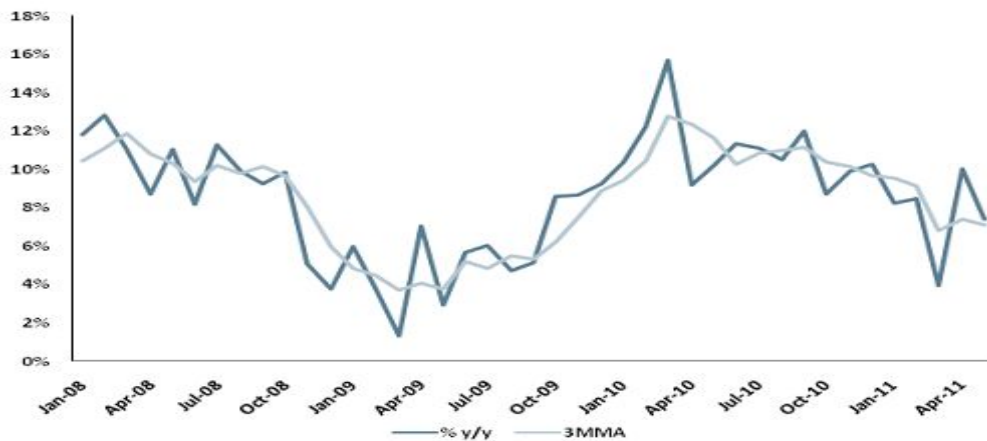
브라질의 수산물 총 소비량은 위의 어획량과 양식생산량, 수입량을 합한 총량에서 수출량을 제함으로 계산되었고 일인당 소비량은 그 총 소비량을 총 인구로 나누어서 계산되었다. 총소비량은 1976년 이후 60만 톤에서 100만 톤의 변동과 함께 점진적인 증가를 보이다가 2003년 80만 톤에서 시작하여 2008년 157천 톤으로 연평균 15%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1인당 소비량도 1992년과 2003년에 4.1kg과 4.2kg으로 매우 낮았으나 2008년 현재 8.19kg까지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FAO 추천 일인당 소비량인 12kg에는 못 미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2003년 이후 년 14%의 증가추세가 지속된다면 2011년에는 이미 그 국제 기준치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6-3> 브라질의 수산물 총 소비량과 1인당 소비량(1976~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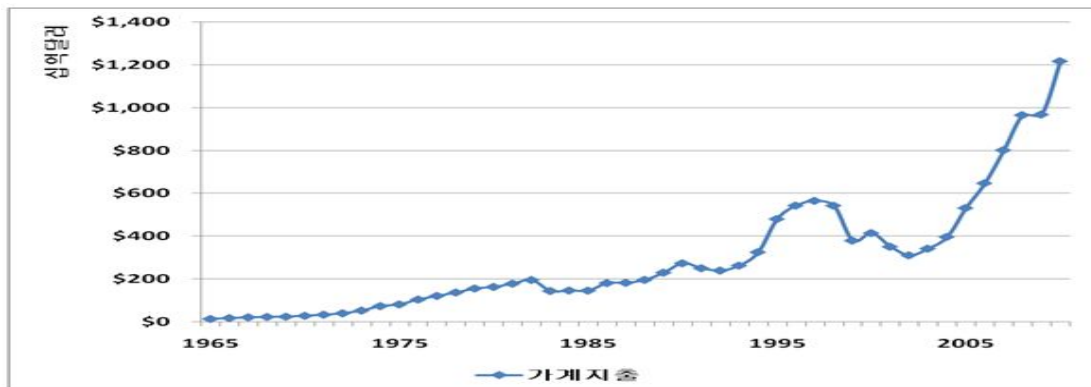
브라질에서 소매상과 음식업 산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8년 경제위기에도 브라질의 소비산업은 2010년과 2011년에도 8%에서 10%의 증가율과 함께 계속 증가 추세이다. 브라질의 총가계지출액이 2008년에 주춤한 것 이외에는 2002년 이후 년 평균 19%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소비증가가 음식업의 증가의 주요 원인이다. 아시아 식품의 소비가 주요 슈퍼에서 구입 가능한 스시를 중심으로 수산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쌍파울로(Sao Paulo)와 파라나(Parana)에 집중되어 있는 일본 이민자에 의한 수산물 수요의 증가는 주요 관심사가 될 수 있다. 또한 브라질 식품지출의 24%가 외식비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수산물 소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그림 6-4> 브라질의 소매상소비 증가율 추세(2008년~2011년)



자료: IBGE and RGE, <http://www.roubini.com/email/newsletter/focus/159368.php>

<그림 6-5> 브라질의 총가계지출액 추이(1965년~2010년)



자료: World Bank national accounts data, and OECD National Accounts data files.

4. 수산물 가공 및 유통 실태

1) 수산물 유통

브라질의 수산물 유통과 수산가공업에 대한 문헌 정보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브라질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앞서 국내 공급이 우선되며, 국내 소비자들은 신선한 수산물을 주로 원하고 있기 때문에 신선·냉장 수산물 혹은 칠드 수산물이 유통된다. 이외의 것은 해당 시장에서 일부 가공되거나 해외로 수출된다.

소규모 영세어업자가 양륙한 수산물은 산지에서 직접 소비된다. 연안의 상업적 어업에서 생산한 수산물은 주로 통조림 원료 등으로 공급되기 위해 수산가공공장이나 원료 보관을 위한 냉동냉장창고에 보관된다. 수출을 위한 수산물은 필렛이나 두절 수산물로 유통 과정에서 가공되며, 일부가 국내 시장에 공급된다. 근해의 상업적 어업은 생산한 수산물을 신선냉장, 냉동의 형태로 수출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으로는 공급하는 수산물은 소량이다.

즉, 브라질의 상업적 어업들은 주로 수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연안의 소규모 영세어업인들은 국내 시장에 생산한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브라질의 어업 종사자는 총 104만 명 정도이며, 이 중에서 어업 생산에 직접 관여하는 어업자는 790,000여 명이다. 즉 어업생산자의 수에 비해 어업 생산량이 매우 부족한 상황인 것이다. 어선어업 및 양식어업의 구분 없이 전체 수산물 생산량을 직접 어업 종사자별 생산량을 보면, 직접 어업 종사자 1인당 연간 1.57톤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브라질의 수산물 수급에서 보면, 전체 국내 생산량 중에서 수출량은 10만 톤(9.7%)에 불과했다. 브라질의 연근해 상업적 어업의 생산 목적이 대부분 수출이라고 본다면, 상업적 어업에 의한 어업 생산량은 10만~15만 톤 수준이라고 추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면에서 브라질의 수산물 생산은 대부분이 연안의 소규모 영세어업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식어업에서는 주로 원어 소비용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체계적인 유통 경로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대부분의 생산자들이 생산하자마자 어떠한 상품화 과정 없이 바로 판매를 하고 있다.

내수면 어류의 생산 비중이 높은 브라질에서는 내수면 어종에 대한 유통 및 가공 과정에 특징을 보이고 있다. 생산한 내수면 어종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주로 내장 제거, 훈제, 필렛 등으로 가공한다.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양식 흰다리새우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가공산업이 존재하고 있다. 연체동물(오징어류, 패류 등)은 일반 어류와 비슷한 방식으로 생산 및 유통되지만, 판매 시에는 요리하기에 편하도록 가공된다.

2010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브라질 현지 조사에 따르면, 브라질의 수산물 소매 가격은 매우 높은 편으로 분석되었다. 브라질 최대 도시인 상파울로 시의 중앙농수산물 시장, 대형소매점, 한인 소매점 등의 수산물 가격을 조사하였다.

Central Mercadao는 상파울로시가 운영하는 농수축산청과물시장으로 대형소매점보다 수산물 가격이 저렴하며, 연어, 새우, 홍합, 대구(냉동, 건어물), 틸라피아, 참돔, 넙치, 문어, 오징어, 송어, 송어, 기타 브라질 고유어종 등이 판매되고 있다. 15개 내외의 수산물 취급 상점이 입점해 있고, 이들 중에는 생선회 시식 및 매장도 겸하고 있는 상점이 있다.

한편 대형소매점에는 수산물 종류 및 취급량이 재래시장이나 도매시장에 비해 현저하게 적었다. 취급 어종은 연어, 틸라피아(선어, 필렛), 대구(필렛), 새우, 홍합 등이며, 틸라피아의 경우 선어보다는 필렛 가격이 2배 정도 비쌌다. 신선도를 유지하는 상태가 한국보다는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해조류는 판매하지 않았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마트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산 및 중국산 어종을 취급하고 있었다. 어류 및 패류 등은 냉동만 취급하며 간고등어, 갈치, 조기, 냉동 바지락, 냉동 홍합 등이 주요 판매 어종이다. 이 외에 마른김 및 조미김, 미역, 다시마 등의 해조류도 소량 판매하고 있었다. 현재 상파울로 시내 한인 마트는 8개 정도가 있다.

브라질의 수산물 도매가격과 우리나라의 수산물 도매가격을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브라질의 도매가격이 더 높은 어종도 나타나고 있다. 물론, 국가마다 선호하는 수산물에 따라 가격 차이를 보이는 하지만, 브라질의 수산물 가격은 브라질의 1인당 GDP 수준(8,000~9,000달러)에 비해 크게 높은 것이 사실이다.

즉, 모자란 국내 공급량에 의해 수산물 가격이 매우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국 수산물 생산량을 늘리지 않고서는 FAO이 수산물 권장 소비량인 17kg/인을 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표 6-8> 브라질과 한국의 수산물 도매가격 비교

단위 : 원/kg

품종	Central Mercadao 가격		우리나라 가락시장 가격	
	헤알	원화 기준	거래가격	가락시장 가격 기준
큰새우	95	62,700	20,200	대하 상품
대구필렛	52	34,300	8,700	대구 상품
문어	45	29,700	12,600	큰 크기
농어	38	25,100	25,700	큰 크기
연어	30	19,800	11,000	상품
각굴 7개	20	13,200	13,000	큰 크기
조기	15	9,900	9,400	참조기 상품
삼치	10	6,600	3,300	냉동 상품
민어	9	5,600	17,000	상품
틸라피아	8	5,300	-	-
정어리	7	4,500	700	경락 단가
바지락	4	2,600	11,700	간바지락 상품

주 : (1헤알 = 660원 기준, 십원 단위 반올림 / 가락시장은 9월 평균 가격)

2) 수산가공

브라질의 어업관련 단지에는 약 300개의 기업이 다양한 가공라인을 가동하여 상품을 생산하고 주로 수출을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얻고 있다. 이 가공 단지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의 수산물 가공공장에 비해 새로운 설비를 도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수준의 HACCP를 달성하고 있다.

브라질의 북부와 북동지역에서는 수출을 위한 냉동 수산물 관련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다. 여기서는 주로 수출용으로 랍스터, 어류 필렛, 새우, 다랑어류를 취급하고 있다. 남부와 남동지역은 정어리와 다랑어 통조림 산업, 냉동 필렛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 대부분은 국내 시장에 가공된 수산물을 공급한다. 주로 눈다랑어와 황새치를 취급한다.

제3절 주요 조업국의 협력사업 추진 현황

1. 개요

브라질은 1967년에서 1978년에 어업개발계획(The Fisheries Development Program : PNUD-FAO)을 통해 연안의 주요 상업적 어종, 어구와 시장과 관련한 중요한 지원을 받았다. 당시에 Infopesca를²⁷⁾ 통해서도 많은 어업 관련 기술, 상업적·과학적 정보와 자료를 제공 받았다. 이후 1982년에서 1987년 동안에는 the Banco Interamericano de Desarrollo가 브라질의 어업 지원 프로그램(Fishing Support Program)으로 약 1억 3천만 달러를 지원했다. 이 프로그램은 크게 어선 현대화, 어업 인프라 개선을 위한 어업 터미널(어항, 물양장 등) 구축, 어업과 양식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센터 및 양식 거점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1998년 겨울부터는 브라질의 어선어업과 양식어업을 위해 FAO와 협력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어선어업과 양식어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관 구조 강화를 기술적·방법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고용과 수입 창출 및 식량 안보를 위해 필요한 수산분야의 정보를 만들어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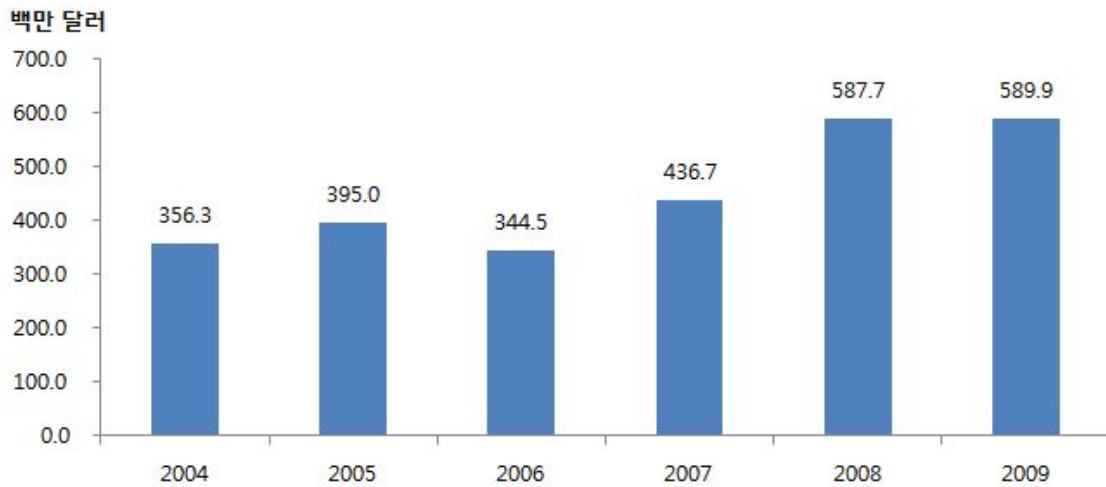
2. 국가별·분야별 원조

브라질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총 2,710백만 달러의 ODA를 받았다.²⁸⁾ 이를 동기간의 추세로 보면, 2004년의 356백만 달러에서 2009년 590백만 달러로 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7) www.infopesca.org를 참조 바람. 영어권 국가에서는 Infofish로 통합

28) 지불금액 기준임

<그림 6-6> 브라질의 ODA 수혜실적



자료 : OECD/DAC

브라질이 받은 ODA에서 어업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2009년 누적 합계 기준으로 0.5% 정도로 브라질 GDP에서 어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거의 동일하다. 브라질의 ODA 수혜가 늘고 있는 추세이지만, 어업분야는 크게 줄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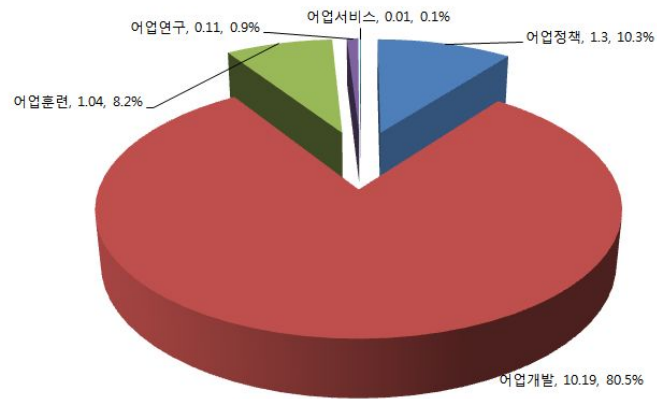
개별 어업분야를 5개로 구분해서 보면, 어업훈련과 어업연구를 제외한 어업정책, 어업개발은 모두 ODA 수혜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어업 서비스는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4년~2009년 동안의 어업분야별 누적 수혜 실적 비중을 보면, 어업개발에 80% 이상이 투입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6-9> 브라질의 ODA 어업분야 수혜 실적

구 분	단위 : 백만 달러, %						누적 합계	연평균 증감율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체ODA	356.27	395.00	344.50	436.65	587.74	589.88	2,710.04	10.6
어업합계	2.71	1.89	3.15	3.00	1.06	0.83	12.65	-21.0
어업비중	0.76	0.48	0.91	0.69	0.18	0.14	0.5	-28.6
어업정책	0.33	0.31	0.22	0.22	0.13	0.09	1.30	-22.8
어업개발	2.27	1.50	2.93	2.74	0.49	0.25	10.19	-35.7
어업훈련	0.09	0.08	-	-	0.41	0.45	1.04	38.9
어업연구	0.01	-	-	0.03	0.03	0.04	0.11	30.3
어업서비스	0.01	-	-	-	-	-	0.01	-

자료 : OECD/DAC

<그림 6-7> 브라질의 수산물 소비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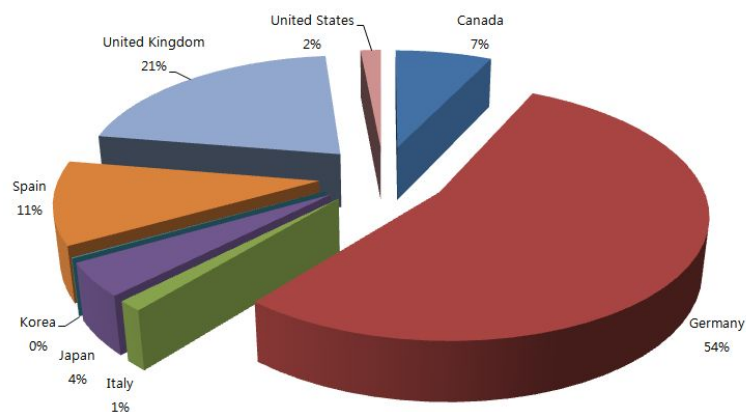


자료 : OECD/DAC

즉, 브라질 어업분야의 ODA 수혜는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개발 사업이 줄면서 어업훈련과 연구 쪽에 ODA가 투입되고 있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브라질의 어업분야에 ODA를 공여한 실적이 있는 국가는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스페인, 영국, 미국의 8개국이다. 이들의 동기간에 걸친 대브라질 어업분야 ODA 실적을 보면, 독일이 53.9%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영국이 20.9%, 스페인이 10.9%, 캐나다가 7.1%, 일본이 4.3% 등의 순이다.

<그림 6-8> 브라질의 어업분야 국가별 수혜 실적(%)



자료 : 전게서

이들 국가들 중에서 남미 어장에서 우리나라와 경쟁 관계에 놓여 있는 국가는 일본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브라질과의 역사적 문화적 관계에 비해 어업분야에 있어서 ODA 공여 실적 비중은 매우 작은 편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본 원양어업의 해외 진출에 대한 전략이 다양해지면서, 브라질에 다랑어 연승 입어를 위해 어업훈련을 활용한 사업이 추진된 바 있다.

3. 수산협력 사업의 사례

일본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식량난 속에서 국민을 남미로 대거 이주시킨 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재에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등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기반을 조성해 왔다. 수산분야에서도 이러한 기류는 마찬가지로 남미와의 수산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일본은 해외어업협력재단을 통해 브라질에 다랑어연승어업을 위한 선원 양성 프로그램을 종료했다.

일본의 다랑어 원양연승어업에 있어서 새로운 어장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과제이다. 그러나 연안국들은 자국의 EEZ 내에서 수산자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원양어업국 어선의 선적 및 경영형태를 바꾸지 않은 채로 해당 연안국의 수역에 단순입어를 하여 조업할 수 있는 어장은 국제적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 또한 연안국을 대상으로 다랑어 어업을 발전시키려는 일본의 대책이 단순히 일본의 원양어선의 단순입어를 인정토록 하는 경향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대서양다랑어보존국제위원회(ICCAT) 수역의 참다랑어,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의 남방참다랑어의 어획할당량이 삭감되고, 인도양 수역의 어획 수준이 저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말리아 해역에서의 해적 출몰에 의한 북서부 인도양 수역으로의 출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랑어 자원과 관련한 새로운 어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상태인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은 다랑어·가다랑어어업협동조합(이하, 다랑어조합)은 수년에 걸쳐서 어선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다랑어조합 소속의 다랑어 원양연승어선을 브라질의 EEZ 수역 내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브라질 관계 정부와 협상을 지속해 왔다. 이 노력은 결국 2010년 10월에 맺어지게 되었다. 브라질 정부는 공대 모집을 거쳐서 현지의 수산기업인 'Atlantic Tuna' 기업에 대해 일본 어선을 빌려서 조업

하는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일본의 다랑어 연승어선 16척이 브라질의 EEZ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었다.

이 배경에는 브라질의 다랑어 연승어업을 더 발전시켜 브라질 선원의 고용을 촉진하고, 어획한 수산물을 일본에 수출하여 외화를 획득하고자 하는 브라질 정부와 관련 업계의 바람이 들어 있었다. 특히 대형 눈다랑어와 황다랑어를 주 대상으로 하는 심해 연승어업 기술을 브라질의 관련 업계에 전수하라는 브라질 정부의 강력한 요청이 포함되어 있었다.

브라질의 EEZ 면적은 370만km²이며, 해안선은 7,400km에 달한다. 대서양의 중서위도 해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랑어류 자원은 여전히 개발이 미진한 상태이며, 자원량도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연중조업이 가능한 수역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일본의 다랑어 원양연승어선은 1980년대에 소규모의 합작 방식이나 개별 입어 방식으로 이 수역에서 조업을 한 실적은 있지만, 본격적인 연중조업을 위해 입어를 확보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었다. 1990년대에는 대만이 수십 척의 연승어선을 해당 수역에 보냈지만, 황새치 등을 어획 대상으로 하는 표층 연승 조업이어서 10년만에 모든 어선이 철수한 경우가 있다.

브라질에도 다랑어를 주요 어획 대상으로 하는 어업이 존재하고는 있지만, 그 규모가 매우 영세하며, 표층 연승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눈다랑어나 황다랑어의 어획량은 극미한 수준이다. 브라질의 EEZ 수역은 세계의 EEZ 중에서도 다랑어 어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다랑어 연승어업의 어장으로서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예상들을 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가 다랑어조합에 요청한 기술 이전의 내용은 일본의 원양 다랑어 연승어업 기술을 브라질 EEZ 수역에 입어하는 일본 어선에 승선한 브라질 선원에게 훈련 및 지도하라는 것이었다. 이 훈련 프로그램 실시는 브라질 선원이 승선하기 전부터 진행되는데, 이번 일본 어선의 브라질 EEZ 입어가 인정되는 기본적인 요구 사항이기도 했다. 브라질 정부의 요청을 받은 다랑어조합은 다랑어 원양연승어업에 정통한 전문가 2명을 공동 프로젝트의 기지인 ‘리오그란데 도 노르테’ 주도인 나탈 시에 파견해 줄 것과 이들로 하여금 연승어선의 선원을 육성하기 위한 훈련 및 지도 프로그램을 실시해 달라는 요청을 해외어업협력재단에 요청했다.

<그림 6-9> 나탈 시의 어항



자료 : 일본해외어업협력재단

나탈 시는 브라질 육지에서 대서양으로 도출한 가장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 수산거점이자 기능성이 좋은 어항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Atlantic Tuna'의 본사 소재지이기도 하다. 해외어업협력재단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일본 원양어업자의 신규 어장 확보에 기여할 것이며 지금까지 남아공 및 모로코에서 실시한 경험이 이번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다랑어조합의 요청을 허락하고 전문가 2명을 브라질의 나탈 시에 파견했다.

나탈 시의 상공회의소 산하의 SENAI(공업분야의 직업훈련센터)에서 2011년 1월 31일~2월 12일까지 제1차(1주간) 훈련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당시 훈련 대상자는 브라질 국내의 어선과 브라질 EEZ 수역 내에서 조업을 하는 외국 어선에 승선한 경험이 있는 브라질 국적의 32명이었다. 또한 2011년 2월 14일~3월 5일까지의 3주간에 제2차 훈련 프로그램이 실시되었고, 훈련생들은 1회차와 같은 조건에 27명이었다.

훈련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눈다랑어와 황다랑어를 대상으로 한 심해 연승 어업의 기본 기술
- 어선의 항해 및 운용의 개요
- 어획물의 처리 방법
- 일본 어선의 선원 구성 및 안전 확보의 요령
- 어선 내에서의 생활 습관 및 일본어 기초 회화 강의

여기에 덧붙여서 훈련기간 중에는 나탈 시에 입항한 일본 어선을 방문해서 어로장 및 갑판장으로부터 어로설비 및 장비에 대한 실시 지도를 받았다. 훈련생의 대부분은 기간 중에 매우 열의를 보이며 모든 과정을 이수했다. 한편, 브라질의 연방정부를 시

작으로 해서 리오그란테 도 노르테 주의 정부, 브라질 선원조합을 포함한 어업관계자, 상공회의소 및 미디어도 일본 어선의 브라질 EEZ 수역 내 입어 및 할당량의 구체적인 내용과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였다. 일본 어선이 브라질의 EEZ 수역에서 조업하기 위해서는 HACCP 검사를 포함한 다양한 위생 및 안전에 대해 브라질 감독관청 및 해군의 검사에 합격을 받아야만 한다. 조업 개시 때에는 우선 입항지인 나탈 시 어항에서 1주 정도 정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기간 동안에 브라질 연방정부를 대표해서 2011년 1월에 취임한 어업·양식담당 장관이 일본 어선을 시찰하기도 했다. 이러한 내용이 브라질 현지 미디어에도 보도될 정도였다. 또한 현지의 미디어 관계자는 모두 5주간에 걸쳐서 동 프로그램 취재를 위해 동행하였으며, 브라질 전국에 보도되었다.

제1회차의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브라질 훈련생 중 20명은 2011년 3월 5일까지 브라질의 EEZ 수역에 입어한 일본 어선에 각각 어선 당 4명씩 갑판원의 자격으로 승선했다. 나머지 이수자들은 이 후 입어하는 일본 어선에 나누어서 승선했다. 브라질 측의 관계자는 하나 같이 훈련 및 지도 프로그램을 매우 높이 평가했으며, 앞으로도 동 프로그램이 지속해서 실시되기를 희망했다. 브라질 EEZ 수역에서의 조업을 개시한 일본어선에서의 브라질 선원에 대한 평가는 갑판원으로서 충분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제7장 수산협력 추진전략 및 결론

제1절 한·남미 수산협력 기본방향

제2절 한·페루 협력사업 추진전략

제3절 한·브라질 협력사업 추진전략

제4절 결론 및 기대효과

제7장 수산협력 추진전략 및 결론

제1절 한·남미 수산협력 기본방향

남미지역은 경제적 관점에서 여전히 개발도상국이다. 하지만 역내에 분포하는 다양한 개발 국가들 사이에는 빈국과 부국의 차이가 엄격히 존재한다. 현재 국부가 탄탄한 브라질과 같은 국가가 있는 반면, 이와는 대조적으로 도시 빈민 및 어촌 마을 공동체(Barrio)의 심각한 빈곤 상태로 세계의 발전 흐름에서 소외된 가난한 국가들이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OECD/DAC 가입국으로서 한·남미 수산협력사업의 출발점을 남미지역 개도국에 대한 원조사업의 이행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전제로 남미의 풍부한 수산자원 이용과 가공 산업 진출 및 투자활성화를 방안 도출하여 한국이 남미지역과 협력 사업을 통해 공동성장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남미 지역 수산협력은 협력대상국과의 상호주의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우리나라 수산분야의 민관협력 추진을 통한 협력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수원국 중심의 사업발굴 및 지원, 협력 네트워크 사업 강화 등 협력 파트너와의 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한·중남미 수산협력 사업의 원칙을 기반으로 사업추진을 크게 3가지 형태로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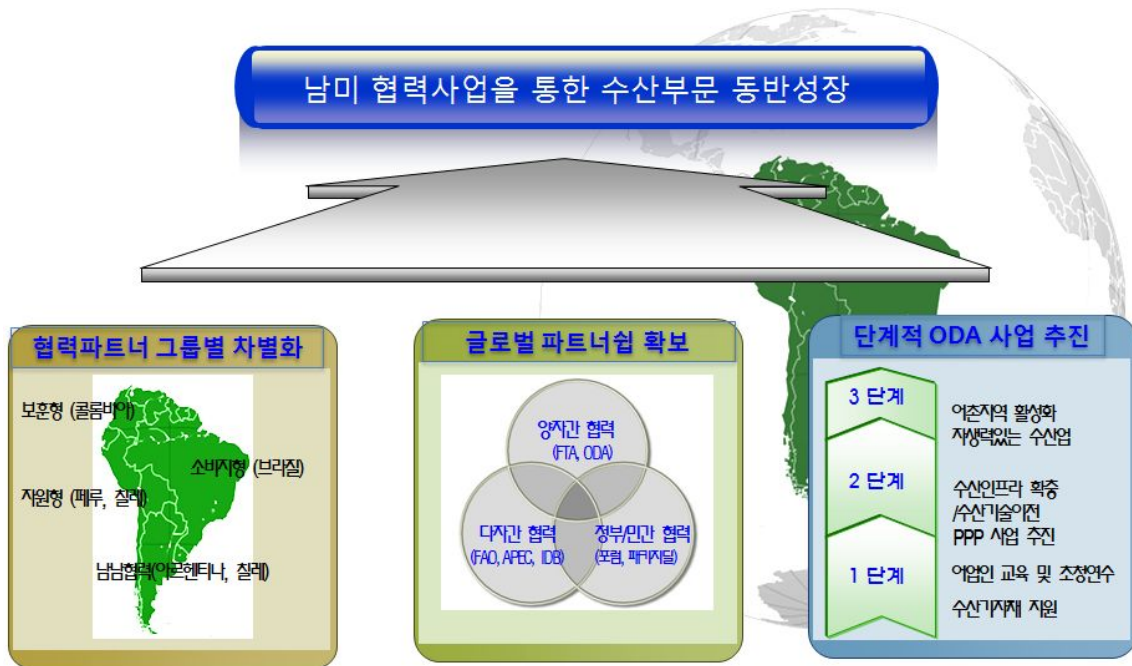
첫째, 남미의 국가별 특성에 맞추어 협력 파트너 그룹별 차별화 전략을 수립한다. 페루와 칠레는 수산자원부국으로서 자원형 협력파트너 국가의 개념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브라질은 수산물 소비국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어 소비지형 협력파트너의 개념으로 추진하고, 콜롬비아는 보훈형 협력사업으로 집중 지원한다.

둘째, 한·남미 수산협력사업은 남미의 개도국의 수산부문 협력사업 수요를 파악하여 이들 수요 중 어업인 교육, 수산자원관리, 수산기자재 지원 등은 무상원조사업으로 추진하고,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수산인프라 확충 및 배후단지 개발 등과 같은 사업은 EDCF 유상차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남미지역은 수산 기술이 낙후된 국가들이 많으므로 협력 사업으로서 대상 국가에서 요구하는 수산 기술을 이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ODA 협력사업의 실

현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현지 진출기업과 연계하여 기술이전을 추진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한다. 셋째, 현지투자 및 진출 활성화를 위해 우리와의 FTA 체결 국가인 칠레, 페루 등은 FTA를 활용하여 투자진출에 이용하고,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같은 국가들은 남미공동시장(MERCOSUR), 남미국가연합(UNASUR)을 이용하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남미지역은 양식산업과 수산물의 유통·운반업, 가공업이 발전하지 못한 국가들이 많으므로 관련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그림 7-1> 한·남미 협력사업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제2절 한·페루 협력사업 추진전략

1.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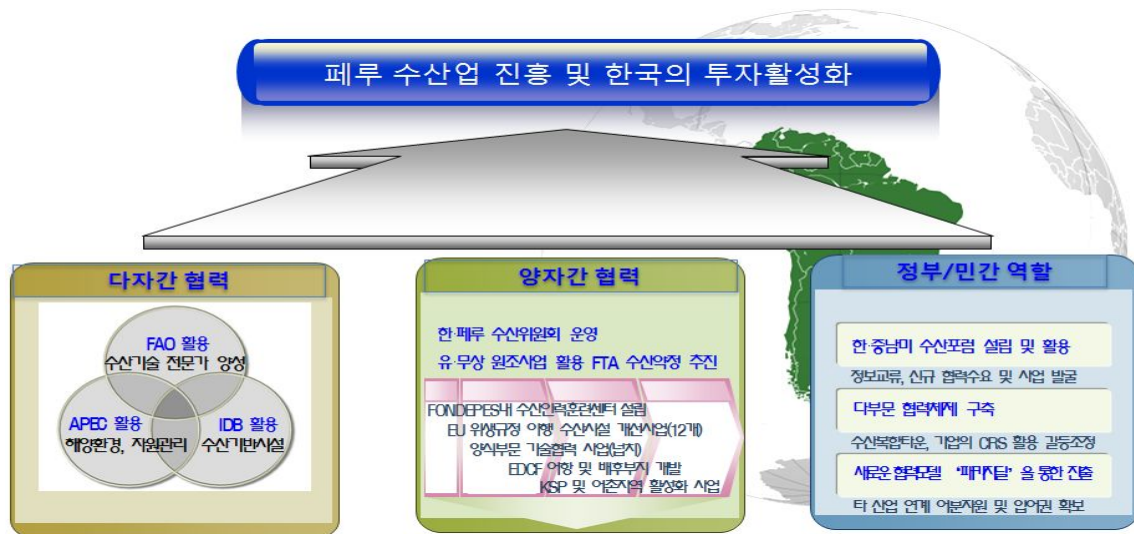
한·페루 수산부문 협력사업의 목표는 페루의 수산업 진흥을 유도하는 한편, 한국의 수산부문 진출 및 투자활성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의 기본방향으로 주체별로 사업을 구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부차원에서 국제기구(다자간)를 활용한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페루와 연관된 국제기구로는 APFC이 있으며, 남미지역을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2005년에 가입한 미주개발은행(IDB)을 활용하여 협력사업 및 투자진흥책을 추진한다.

둘째, 양자간 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우리나라는 페루와 FTA를 체결하였고, 2011년 발효된 상태이다. 한·페루 FTA 협정서에는 제20.5조(수산업 및 양식업 협력)가 있어 협정 발효 후 협상이 시작될 수산협력 약정을 통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하고 최적화된 활용을 증진할 것을 명문화 하였다. 따라서 FTA의 수산약정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이들 사업은 주로 ODA사업을 통해 추진하도록 한다.

셋째, 정부와 민간이 역할 분담하여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부문은 네트워크 구축, 자금지원, 제도 및 협력이다.

<그림 7-2> 한·페루 수산협력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2. 추진전략

1) 다자간 협력

가. FAO를 활용한 수산인력 교육

최근 FAO는 세계 지역사무소를 통해 수산인력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수산인력을 수원국 현지에서 교육시킬 수 있는 수산 기술전문가 양성과정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농림부 또는 KOICA)와 FAO가 매칭펀드 형태로 페루지역에 대해서 수산기술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다면 사업의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는 FAO의 수많은 전문가를 페루 교육프로그램에 투입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페루에 현지교육 프로그램에는 한국 쪽 운영 관리인 또는 기술자를 파견하여 사업에 직접 관여할 수도 있다.

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활용 자원조사 및 관리

APEC은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1989년 설립되어 현재 21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포럼이다. 이들 회원국으로 남미지역은 칠레, 페루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페루의 수산부문 협력사업은 APEC 수산부문 워킹그룹의 사업으로서 추진할 수 있다. APEC에서는 지금까지 엘리뇨에 따른 수산자원의 관리 방안, 친환경 수산기술 마련, 다양한 수산기술 협력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또한 남미지역은 해양환경 오염 및 엘리뇨 현상, 자원남획 등에 따른 수산자원관리 및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페루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관리 부문의 사업은 한국이 주도하여 APEC을 통해 페루 정부의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적합할 것이다.

다. 미주개발은행(IDB) 신탁기금 활용

2005년 미주개발은행 가입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IDB에 총 3개의 신탁기금인 빈곤 감소기금(KPRF), 지식협력기금(KPKF), 중소기업 육성자금(IIC KSDF)에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출연한 지식공유 및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한 신탁기금 등을 활용해 페루와의 수산기술협력을 도모하는 방안 마련할 수 있다. 또한 IDB는 대규모 민간 사회간접자본개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정부의 보증없이 또는 부분보증방식으

로 대출을 실시하고 있어 중남미에 진출하는 우리기업들이 IDB 차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선 IDB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지 IDB 사무소와의 소통을 통한 사업발굴을 추진해야 한다.

2008년 10월 일본의 미쓰비시 상사는 IDB와 중남미 지역에서 CSR 활동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CSR 협력사업 발굴, 우수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IDB와의 전략회의 개최, CSR 성공사례의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전수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기업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경우처럼 IDB와 협력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 강화를 전개할 수도 있다. 점차 환경보호의 이슈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기업 단독으로 추진하는 각종 CSR 활동을 IDB와 연계해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는 방법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림 7-3> 한-페루 다자협력사업 추진전략



2) 양자협력

한·페루 양자협력은 한·페루 FTA에 명시된 수산약정의 협상을 통해 마련하고,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ODA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가. 한-페루 수산협력위원회 운영

한-페루 FTA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민·관·산·학 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한-페루 수산협력위원회(안)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는 다양한 부문과의 소통을 통해 협력 사업을 발굴해 내야 한다. 페루 지역전문가, 페루 진출 업계, 학계의 인사가 참여하여 페루의 투자환경 분석, 양국간 세

미나를 통한 교류 증진 방안 모색, 기업의 투자 증진 방안 등을 도출해 내야 할 것이며, 정부 부처는 기업 투자에 대한 안전과 신뢰성 제고 및 정부간 투자 환경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하는 등 합심하여 상생의 원리에 입각한 협력모델을 발굴해 나가야 한다.

중국은 페루와 양 국가의 주요 기업인들 중심으로 ‘제 5차 라틴 비즈니스회의 (Cumbre Empresarial China-America Latina)’를 매년 중국과 중남미 양 지역에서 개최하고 있다(El Comercio지 2011년 5월 17일). 이번 페루 모임은 ‘포용적인 성장 : 중국-라틴아메리카 관계의 새로운 단계(Crecimiento Inclusivo : Una nueva etapa en las relaciones China-America Latina)’으로 설정하고 페루 투자청(ProInversion)과 더불어 교류를 증진하고 있다. 중국은 브라질과 칠레에 있어 최대 수출시장이고 페루,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쿠바에 있어서는 두 번째의 시장이나 향후 중국의 중남미 시장 공략은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도 차별화된 협력모델을 운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페루와의 FTA를 통해 현재의 광물 등 원자재 위주에서 앞으로는 식품, 농산품, 수산물 등 비전통산품의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KOICA 유무상 원조사업을 활용한 수산약정 사업 추진

① 페루수산개발기금(FONDEPES) 내에 수산인력훈련센터 설립

수산인력 육성 사업 지원은 가장 좋은 투자요, 협력모델이 될 수 있다. 페루는 재정 부족으로 인해 인적자원 양성이 항상 후순위 과제이다. 또한 페루수산개발기금은 어업인 교육수요가 많으나 수요자의 절반 정도만을 교육시키고 있으며, 수업용 최신 기자재의 부족으로 현장 중심의 현실성 높은 교육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페루수산개발기금으로는 연간 교육 수요의 45%만 교육이 가능하다. 페루 수산업의 잠재력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수산인력 육성을 통한 기술 인력 배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칭 ‘수산기술훈련센터’ 혹은 ‘수산기술학교’ 설립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자금 역시 KOICA의 ODA 자금내지 IDB 신탁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독립된 형태의 수산인력훈련센터는 설립이 어려우므로 현재 페루수산개발기금이 실시하고 있는 인력훈련 과정을 훈련센터로 확대개설하고 여기에 인적·물적 투입하는 것이 사업 추진의 용이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미 해양연구원에서 개별 해양수산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페루 신정부 이후 사업추진이 어려워 포기되었지만 이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다시 새롭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② EU 위생규정 이행을 위한 수산시설 개선 사업

페루와의 협력사업은 페루 정부가 우선적으로 원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협력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상호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중 시급을 요하는 사업 중 하나는 수산시설 개선사업이다. 페루의 수산물 가공공장 등 수산시설들은 EU의 위생규정 이행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이 필요하지만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 추진이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 수산시설물 변경이 필요한 11개 지역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림 7-4> EU 위생규정 이행을 위한 페루 11개 지역 시설개선 희망 사업

지역	위생법규 제안으로 수산시설 변경 요구 사항
관사스	부두복구, 해저방사기구 배치, 위생서비스 확대, 얼음 생성기 구매 등
뉴로	수도물 소독 처리 시설 설치, 집기 및 탈의실 세정실 마련 등
딸라라	해수 및 담수 집수 파이프 잠금 개조, 세면대 중대, 집기 세정장소 마련
파이타	산업유출수 처리 시스템 재설계, 수도물 및 해수처리 시스템 설치
파라지페	냉장실 주차장 경사면 보수, 수도물 저장 물탱크 마련, 얼음생성기 마련
짐보페	펌프실 유지, 사전작업 및 판매공간 유지, 해수 물탱크, 탈의실 건설 등
모로사마	유출수 처리 시스템 조절, 집기 세정공간 마련, 용수배출시스템 재설계
일로	소독실 개선, 산업용수 처리시스템 마련, 운영인력을 위한 탈의실 마련, 소독시스템 설치
엘파로마따리	작업공간 및 인도 포장 건설, 산업유출수 처리 시스템, 담수 및 해수 물탱크 유지
라구니아스	산업유출수 처리 시스템 마련, 임시 저장공간 건설 및 조절, 운영인력을 위한 탈의실 개선
라분피아	일반 전기 전봇대 유지, 용수배출 시스템 재설계 등

③ 지역특성별 양식기술 협력

페루정부는 수산물의 생산량 증대와 어민의 소득확대를 위해 양식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페루는 해안의 사막지역, 안데스 산맥의 고산지역, 아마존강 유역의 밀림지역으로 구분되어 이들 특성에 맞는 양식품종 개발 및 보급을 위해 각 지역별 연구소를 두고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해안지역은 새우, 가리비, 넙치, 틸라피아 양식을 시도하고 있으며, 내륙 및 고산 지역은 송어양식, 아마존강은 파이체 등 관상어 등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사업을 페루의 FONDEPS, IMARPE와 기술협력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페루에서 필요로 하는 수산기술은 넙치, 전복의 양식기술, 방류용 치어의 생산, 사료 개발, 양식어류 부화장 설계, 순환여과식 양식시스템 개발, 대형조류 모종 생산 및 상업용 대형조류 생산 등이 있다. 우리 정부는 양식부문 기술협력사업 실시

앞서 이들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차적으로 기술협력사업을 실시하면 페루 수산업 발전에 기여할뿐만 아니라 OECD/DAC의 새천년개발목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넙치 양식기술의 이전은 우리나라 기업이 이미 진출하여 있으므로 이 기업과 연계한 사업추진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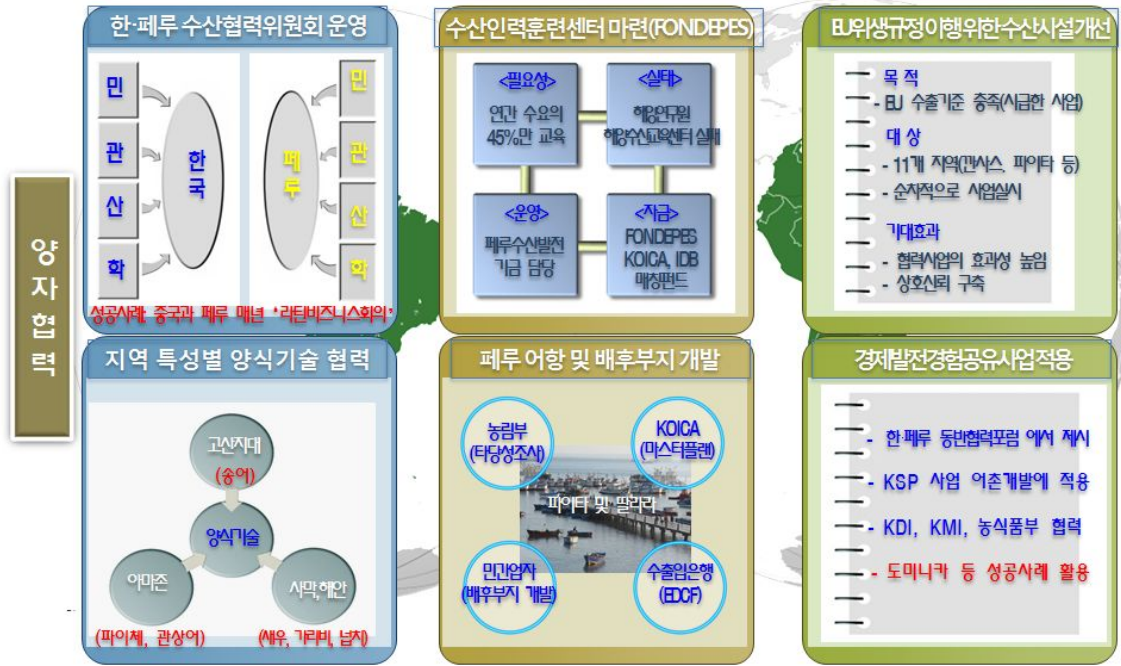
④ 페루 어항 및 배후부지 개발 사업

페루와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페루와의 EDCF 사업은 한건도 추진되고 있지 않다. 이는 우리 측의 사업 발굴 노력 부족 탓도 있겠지만 페루 측에서 타이드 론(tied loan) 성격의 EDCF를 기피했던 것도 작용한다. 향후 ODA 사업의 일환으로 EDCF 차관사업으로 페루에 어항건설에 참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페루는 남미 국가 중 우리나라의 전략적 ODA 지원대상국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페루에 대한 ODA는 주로 병원 건설 등 빈곤층 문제 해결에 집중되어 왔지만, 향후 진출 기업들이 ODA기금을 활용하여 페루의 수산업의 핵심이 되는 어항건설 사업의 시행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뿐더러 페루 경제의 근간이 되는 수산업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⑤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적용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개도국에 경제발전 전략수립의 정책자문을 통해 지원해주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을 페루에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미 도미니카 공화국 등과 다른 대륙에서의 실적이 있는 만큼 페루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발전경험을 공유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 농어촌체험마을, 수산업클러스터 운용 등의 사업이 협력 부문이 될 수 있다.

<그림 7-5> 한-페루 양자협력 사업 추진전략



3)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가. 한-중남미 수산포럼 활용

정부는 페루의 제도 및 동향 자료를 제공하고, 수산업 현황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현지 조사를 지원한다. 반면 민간부문에서는 현지 전문가와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한·중남미 수산포럼을 활용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새로운 협력 수요 및 신규 사업들을 발굴한다.

나. 다부문 협력 체제 구축 및 운용

페루 진출 수산기업들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는 치안불안, 자금조달, 입찰과정 불투명, 인력 수급, 숙련노동력 확보, 원주민 사회와의 갈등 등을 지적하고 있다. 치안 불안에 대해서는 진출 지역을 산업단지공단으로 지정받아 독립된 수산복합타운으로 조성해 나가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을 정부측에서 추진하고, 기업에서는 지역사회 및 원주민 사회와의 갈등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이해관계자 -지역 NGOs, 지역 관공서, 지역협력업체, 원주민 등-와의 소

통 개선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한다. 숙련노동자 수급 관련해서는 진출 지역 내 대학과 연계하여 고급인력 확보 및 야간 기술훈련 과정을 운용하여 자체 적으로 종업원을 숙련노동자 층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좋다.

다. 새로운 협력모델 ‘패키지딜’을 통한 진출 방안 마련

수산부문의 투자에 있어서 최근 새로운 협력모델로 사용되는 ‘패키지딜’을 통한 진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페루정부가 FTA 추진시 수산부문의 개발에 매우 큰 관심을 보였으므로, 타산업과 수산부문을 결합한 투자방식으로 진출한다면 효과가 클 것이다. 최근 자원개발과 인프라 또는 플랜트 건설을 연계시키는 ‘패키지형’ 진출 방식은 취약한 자금력과 정보력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자원개발 진출 전략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 페루에서는 정부간 협정 체결 시 수의계약 입찰이 가능하므로 관·민 협동 방식이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한국 IPTV 컨소시엄은 IT사업과 광물자원 수입(輸入)을 연계한 패키지 진출 전략을 시도하였다. 2009년 4월 3년간 페루 전역에 유무선 IPTV망을 구축하고 현지 교육콘텐츠를 개발해 인적자원 교육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페루 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10억 달러에 달하는 프로젝트의 투자비용 전액을 페루 현지 광물(구리, 아연, 몰리브덴 등)로 받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한국 IPTV 컨소시엄은 페루 광물개발 기업인 SCI그룹 등과 주요 광물 지급 조건에 대해서도 협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방법은 난공불락의 확보가 어려운 엔초비 자원과 자이언트 오징어 입어의 새로운 활로로 모색될 수 있다.

<그림 7-6> 한-페루 정부와 민간 역할분담 추진전략



제3절 한·브라질 협력사업 추진전략

1. 기본방향

1) 브라질의 입장

브라질은 향후 ‘남미의 중국’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국가이다. 풍부한 자원, 최근의 경제 성장 정도, 북미 및 EU와의 물리적·역사적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경제적으로 남미와의 협력에 주요 거점이 되기에 충분한 국가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국민소득이 8,000~9,000달러인 정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제 발전에 따라서 구매력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수산분야에서는 이러한 브라질의 일반적인 협력의 필요성 외에도 다음과 같은 협력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첫째, 브라질은 향후 수산물 생산을 증대시켜야 한다. 브라질의 수산물 수급에서도 볼 수 있듯이 브라질은 수산물 순수입국으로 국내 생산만으로는 국내 공급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둘째, 수산 생산 관련 기술력의 증강이 필요하다. 어선어업의 경우, 브라질은 어종에 따른 다양한 어구어법의 기술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중층이나 저층에 서식하는 어종에 대한 어획 능력이 충분하지 못해 국제적으로도 부가가치가 높은 다랑어류 등의 자원량은 높다고 평가되고 있지만, 어획량은 현저히 낮다.

셋째, 양식산업의 육성을 위해 양식 기술의 확보와 관련산업 유치가 필요하다. 브라질의 양식산업에서 생산하는 어종은 30% 이상이 틸라피아로 집중되어 있다. 내수면 어종으로서 비교적 완전양식의 초보적 단계에서 생산할 수 있는 어종이다. 수산물의 내수 시장을 확보하고 수출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양식어종을 선정하여 집중적인 생산 규모를 확보해야 한다.

넷째, 어선어업 개발을 위한 인적 능력의 배양이 필요하다. 브라질의 어선어업은 대부분 연안의 소규모 영세어업에 집중되어 있다. 어선어업의 외연적 확대 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수산물을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어업자가 80만 명에 달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연안에서 소규모 어선에서 어획을 하고 있어 규모화된 어선에서의 조업 능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들은 어선과 바다

라는 환경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규모화된 어선을 통한 근해조업에 대한 훈련을 쉽게 이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브라질의 수산물 생산량 중에서 소규모 영세어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해 지역적으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개발 지원이 필요하다. 브라질의 광대한 국토 면적에 따른 긴 해안은 물론이거니와 발달된 내수면 환경에 의해 브라질 지역 곳곳에는 연안을 포함한 소규모 영세어업자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브라질 경제의 지속적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지역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지역의 기반 산업으로 어업이 존재하고 있다.

2) 한국의 입장

우리나라는 원양어업을 중심으로 남미국가의 연안에 진출하여 오징어를 주요 대상으로 어획하여 국내에 반입했고, 최근에는 중국 등에 가공원료로서 수출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남미국가들은 모두 EEZ 선포와 함께 자국 수산자원관리를 엄격하게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남미로 진출한 우리 원양업계의 지속적인 조업을 보장할 수 없는게 현실이다.

국제적으로는 남미에 대한 수산분야의 진출이 우리나라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면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는 글로벌 수산기업을 선두로 하여 현지의 기업에 합작 혹은 자본 참여를 하여 생산, 양륙, 가공, 유통, 판매 등의 수직적 통합을 도모해 왔다. 뿐만 아니라 일본과 브라질의 수산협력에서 보듯이, 브라질 수역에서 외국인들이 전혀 입어하기 못했던 다랑어 어업에 대해 상호 협력(일본-기술, 브라질-자원)하여 일본이 브라질 해역에서 다랑어를 입어 조업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브라질은 신흥개발도상국으로서 향후 남미의 중국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현저할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과 많은 인구에 따라 중산층이 확대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현지 시장으로서도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동시에 브라질은 북미와 EU와 전통적으로 경제 협력을 지속해 왔다는 점에서 이들 시장으로 접근하는 우회 경로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우리 원양어업의 남미 조업에 대한 불확실성과 브라질 등 남미 국가에 대한 국제적인 수산분야의 접근 방안을 강구할 때, 브라질은 남미의 떠오르는 대체어장

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선어업 분야 외의 우리 수산분야의 진출도 도모할 수 있는 기회의 국가가 될 수 있다.

특히,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우리 수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얻어진 경험과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선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현재 브라질의 수산분야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브라질과 일본의 다랑어 연승어업 협력 프로그램에서와 같이 브라질은 자국의 수산분야 성장을 위한 협력을 제공하는 국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주의에 입각한 수산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브라질의 수산분야 정책과 현황을 살펴본 결과, 브라질 수산분야의 최우선적 과제는 ‘국내 생산 증가를 통한 수산물 공급량의 확대’이다. 이를 통한 고용 창출의 기회를 늘리고 소득 수준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브라질의 사회·경제적 현황을 보면, 1인당 국민소득이 8,000달러 이상에 최근에는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아프리카나 동남아와는 차별적인 수산협력의 방향이 필요하다. 즉, 아프리카나 동남아는 MDG's와 같은 빈곤해소가 가장 큰 과제이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수산협력’이라는 명목 하에 ODA를 지원하는 협력이 되고 있다. 인도주의적 수산협력은 수산협력을 통해 수혜국으로부터의 직접적인 반사급부를 공여국은 누리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언급한 바와 같이 브라질의 경우는 수산분야에 다소 발달 정도가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뒤떨어져 있지만, 전체적인 경제 규모는 빈곤이 국가 전반에 창궐해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브라질과의 수산협력을 통해서 수산분야에 있어서 ‘상호주의적 수산협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즉, 브라질의 수산분야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생산력 확보에 우리와 협력하면, 수산분야에서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항을 건립해 줄 경우에, 이러한 사업이 우리 원양업계에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를 충분히 따져보아야 하며, 이에 대해 브라질과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브라질과의 수산협력은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브라질의 수산물 공급력 확대에 기여”라는 점이다. 즉, 이러한 기본 방향에 부합하기 위한 추진전략은 총 10개로 구성되는데, 협력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한·브라질 수산협력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상호 협력을 제안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7-7> 한·브라질 수산협력의 기본방향



2. 추진전략

1) 어업기술교육을 통한 입어권 확보

브라질의 수산분야 실태와 정책 내용을 살펴본 결과, 내수면을 중심으로 한 수산 자원에 대해서는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면 어종에 대해서도 어업 기술의 한계로 인해 특히 근해 수산자원에 대한 상업적 이용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기초 연구의 부재로 인해서 산업적으로 최적의 수준에서 어선어업의 생산량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선 기본 방향에서 설정한 내용과 같이 브라질의 수산물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 수산자원의 분포, 수산자원량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수산물이 자연재생산 자원에 속하지만, 자원 감소에 영향을 주는 요인(오염, 과잉어획노력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될 경우에는 자원 감소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생산량이 늘어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생산량 증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브라질의 근대화 이후 수십 년 동안 수산자

원에 대한 조사는 부분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파악되어 브라질 수산물 생산의 적정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 단계로서 개별 수산자원에 대한 자원 조성 사업과 관리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자원을 조성하는 사업은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대상 어종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생태, 환경 등의 연구 조사가 필요하며, 자원의 유지 관리를 위한 방안도 브라질의 수산생태 및 수산업에 적절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 수산자원의 감소로 인해 연근해 수산물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2000년대에 들어 수산자원관리 정책을 강화하면서 2000대 중반부터는 300~350만 톤의 안정적인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산자원의 회복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바다목장화 정책 등과 같은 세계적으로 수산자원관리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했다. 뿐만 아니라 국립수산과학원을 중심으로 주요 어종에 대한 꾸준한 자원량 조사를 시행에 오면서 수산자원관리와 관련한 전문인력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 협력은 브라질과의 수산협력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협력사업 중에서 어선어업으로부터 생산량을 늘리는 협력사업들의 효과를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표 7-3> 브라질과의 수산자원관리 협력형 사업의 내용

구 분	내용	한국측 담당기관
자원 조사 사업	어종별 자원량 조사 및 측정	국립수산과학원
자원 조성 사업	바다목장화 사업, 인공어초, 바다 숲 사업 등	국립수산과학원
자원 관리 정책	TAC, IQ 등 관리기법의 도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 : 홍현표 외(KMI, 2010)을 재구성

수산자원관리 협력사업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자원조사 사업, 자원조성 사업, 자원관리 정책 도입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자원조사 사업은 협력 상대국의 어종별 자원량을 조사 측정하여 MSY 수준 등을 분석하는 것으로 주로 한다. 자원조성 사업은 자원량 측정 사업을 통해 자원이 감소하거나 고갈되는 것을 방지하고 늘리는 사업으로서 바다목장화(인공어초, 바다 숲 조성 등 다양한 자원관리 기법 포함) 사업 등을 도입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원관리 정책 도입 사업은 TAC 등 우리나라 자원관리 정책을 협력 상대국에 도입하는 것이다.

2) 아마존강 활용 내수면 양식산업 진출

브라질의 양식어업은 주로 내수면을 대상으로 담수나 기수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수면에서의 양식어업 생산은 성장하기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브라질은 여전히 양식어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풍부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브라질의 주요 양식 어종은 틸라피아와 일부 토속어종들로 이들 대부분이 담수 어종이다. 해수면에서는 주로 새우, 홍합 등을 양식하고 있는데, 이들의 생산량은 틸라피아 등 담수 어종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브라질의 양식어업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 넓은 해안선과 발달한 내수면 자원(호수, 하천 등) 등 양식 적지가 풍부하다는 점이다. 둘째, 브라질의 경제 성장과 유리한 시장 접근성(북미, EU 등)은 양식어업을 통해 생산한 수산물을 수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셋째, 주로 내수면에서는 토속어종을 대상으로 한 양식어업이 발달해 있는데, 이를 통해 내수 시장 진작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브라질은 양식어업을 스스로 발전시켜 오면서 생산량 증대라는 일정 수준의 성과를 내놓고는 있지만, 브라질의 수산물 가격은 여전히 높아서 수산물 소비량이 크게 늘고 있지는 않다. 또한 관할 당국에서는 다수의 목표를 설정하여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양식 기술과 경험의 부족으로 기대치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브라질과의 수산협력에서 가장 주목을 받을 분야가 바로 양식분야이다. 이러한 이유는 향후 세계적으로 수산물의 생산 공급은 어선어업에서 양식분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고, 브라질의 입장에서는 해수면과 내수면이 모두 발달하여 수산물 생산량 증대에 효과적이어서 내수 및 수출 상품으로의 선택이 확장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양식의 역사는 1960~70년대부터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면서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원양 및 연근해 생산량 감소를 회복하기 위해 양식분야가 급속도로 발전해 왔다. 이러한 결과로서 일부 어종(넙치, 전복, 김, 미역 등)에 대한 완전 양식 기술은 세계 최고의 수준에 이르렀고, 천해 양식에 집중되던 것도 외해양식에까지 확장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축양, 종묘 배양, 사료, 육종 등 양식어업과 관련한 전방위 산업이 함께 성장해 있다.

이러한 우리의 양식어업 분야가 브라질과 협력을 하게 된다면, 특히 세부 목표와 관련하여 브라질의 수산물 공급량 증대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소득 수준 향상에도 기

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양식과 관련한 우리 기술의 제공으로 국격 제고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양식 관련 민간업체의 브라질 진출도 고려할 수 있다.

양식어업 협력사업에서는 양식어장 관리, 양식기술 개발, 외해양식 등에서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양식어장 관리는 육상이 아닌 수면(해수, 담수)에서 양식을 할 경우에 대상 수역에 대한 정비 및 휴식년제 도입

둘째, 양식기술 개발은 양식종묘 개발, 양성 기술 등을 포함

셋째, 외해양식은 외해가두리 양식산업을 육성(특히, 브라질의 근해 다량어자원은 그 생산 잠재력이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넷째, 식품안전성은 양식과 관련하여 질병체제 구축 및 약제 관리와 관계

<표 7-4> 브라질과의 양식어업 협력형 사업의 내용

구 분	내용	비고
양식어장 관리	양식어장 정비와 관련한 내용	휴식년제 등
양식기술 개발	양식 종묘 개발, 양성 기술 등	
외해양식	외해가두리 양식산업의 육성	
식품안전성	양식수산물의 질병관리 체계 구축	항생제 등
상업화 협력	양식어업협력의 전제조건, 판매와 유통	시장성 확보

자료 : 전게서

이러한 분야가 양식어업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한데, 양식어업의 협력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숙고해야 한다.

첫째, 양식한 수산물의 상업화 및 시장화 문제이다. 양식 기술을 전수하는 것은 이미 다수의 국가에서 원조국들이 수행해 왔지만, 일반적으로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그러한 가장 큰 이유가 양식 기술과 유지관리와 시장성의 괴리에 있었다. 즉, 양식한 수산물에 대한 경영 관리의 부재가 양식어업의 협력 지속성과 효과성을 떨어뜨린 것이다. 따라서 양식어업 협력사업에서는 대상 어종에 대한 시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유지 관리를 위한 Capacity Building을 충분히 감안한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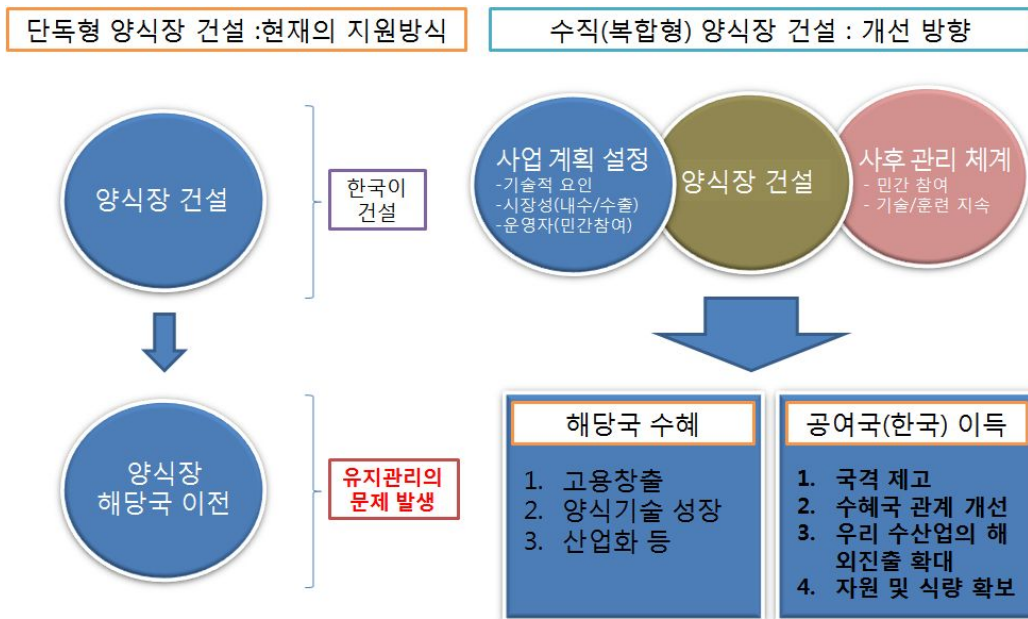
둘째, 앞의 내용에 덧붙여 관리 주체의 문제이다. 생산한 양식 수산물의 상업화와 시장화를 위해서 가장 적절한 주체는 누구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수원국의 정부, 원조

국의 기술 전수 기관은 실제 양식 수산물의 시장화에 대해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결국 양식 수산물의 상업화를 통해 협력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필요한 것이다.

셋째, 양식어업의 관련 사업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의 여부이다. 양식 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은 단순히 양식장, 양식 어업인으로만은 불가능한 일이다. 관련된 사료의 생산 혹은 공급은 제대로 되는지, 관련 설비(발전소 등)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등이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양식어업 협력은 기술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여러 사항이 고려되지 않을 시에는 이전의 다른 원조국들의 실패사례를 되풀이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림 7-8> 양식어업 협력사업의 수직적 통합 연결의 사례



3) 어선어구 현대화 사업을 통한 수산연관산업 진출

브라질의 연근해 어선어업은 소규모 영세어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어업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어업의 외연적 확대’라는 산업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근해 수산자원의 미개발·미이용의 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브라질과 일본의 다랑어 연승어업 협력사업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근해 다랑어 자원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저층연승 기술을 브라질은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일부 연근해에서 상업적으로 규모화된 어선들이 조업을 하고는 있지만, 그 생산량은 10만~20만 톤 정도에 머물러 브라질 전체 수산물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미만이다. 물론 브라질의 어선어업 생산량의 주류인 소규모 영세어업자의 어선 및 어구에 대해서도 충분한 현대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브라질의 수산물 생산을 효율적으로 늘려주는 것 외에 어로 과정에서 있어서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산업 재해를 줄이는 성과와도 연결된다.

따라서 브라질의 수산물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획노력량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어선어구의 현대화와 규모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사업은 첫 번째로 제안된 수산자원관리 협력사업에서 자원 조사에 따른 자원 관리에 입각한 어획노력량 투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어선어구의 현대화와 규모화는 어획노력량에 심각한 과잉 상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는 곧 자원 고갈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원관리를 위한 안전 및 불법 조업에 대한 지도 및 단속 체제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숙제에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획 노력량과 관련하여 일정 수준의 현대화와 규모화가 추진되었다. 국제적으로도 우리의 어선 세력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우수한 국가에 속한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어선과 어구를 생산하는 관련 산업 역시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990년대말에서부터 우리나라는 연근해 자원에 대해 어선어업을 중심으로 과잉어획노력량을 규제해 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어선어업 구조조정에 따른 어선 감척이다. 이 정책은 구조조정 대상의 어선을 정부가 보상하여 폐선시키는 사업이다. 여전히 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자본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이러한 대상 어선 및 어구를 활용하여 브라질과의 어선어구 현대화 사업에 투입한다면, 자본의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어선어구 현대화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선 현대화 사업은 연근해 및 내수면의 어선어업에 적합한 현대화를 추진한다. 우리의 어선 건조 기업의 수출 내지 현지 진출이 가능하며, 브라질은 수산물 생산량의 증가와 어업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둘째, 감척사업 대상 어선의 브라질 공여 사업은 우리나라의 감척 대상 어선 중에서 조업이 가능한 어선에 대해 브라질에 공여하여 어업 자본의 재활용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셋째, 어구 현대화 사업은 특히 근해 조업과 연계하여 표적 어종에 대해 가장 적절한 어구를 현대 기술로 제작하여 투입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의 어구 관련 기업의 수출이나 현지화(합작, 자본 참여 등)가 가능할 것이다.

넷째, 어선 리스 사업은 우리나라의 원양업체의 어선을 브라질의 관련 정부, 협회, 수산기업이 리스나 Charter 형식으로 빌려주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 어선원은 국내 어선원을 승선시키는 방법 등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는 브라질 관련 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단, 일본의 대브라질 다랑어 연승어업에서 이와 같은 방법이 2010년에 이어 2011에도 추진되고 있다.

다섯째, 현대화된 어선어구에 따른 어획노력량에 대한 어업관리 정책을 컨설팅하는 사업이다. 즉, 안전 및 불법 조업에 대한 지도 단속 체제 강화, 어선 보험 도입, 적정 허가 건수 등과 관련한 정책분야에 우리의 정책 노하우를 컨설팅하는 것이다.

<표 7-5> 브라질과의 어선어구 현대화 사업

구 분	내용	비고
어선 현대화 사업	· 연근해 및 내수면에 적합한 어선 건조	
감척사업 연계	· 우리의 감척 어선의 브라질에 투입	안전성 등 고려
어업관리 정책 컨설팅	· 안전 및 불법조업 지도 단속 체제 강화 · 어선 보험 등의 정책 컨설팅 · 적정 허가 등에 대한 정책 컨설팅	
어구 현대화	· 우리 어구기업의 브라질 현지화(합작 등)	
어선 리스 사업	· 어선 리스 및 charter 사업	

자료 : 전게서

4) 어업 인프라 사업협력을 통한 건설부문 진출 및 어업기지화

브라질과의 수산협력 기본방향은 브라질의 수산물 공급량의 증대에 기여하면서 이에 따른 필요 자본, 정책, 수단에서 우리의 수산분야 자원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상호 이익을 수산분야에서 올릴 수 있는 것이다. 즉,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수산물의 공급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생산과 유통에 대한 인프라가 조성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80년대 어업 생산량의 증가에 발맞추어 산지에서는 늘어나는 어선세력과 수산물을 수용하기 위한 산지 위판장(어항+위판장) 인프라가 연안을 줄지어 설립되었다. 이 산지 위판장은 어항을 중심으로 수산물의 양륙시설, 부대시설(제빙 및 저빙), 유류 공급시설, 판매 관련 시설 등이 건립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인프라는 수십 년 동안 연근해 수산업의 생산을 담당하는 주요 시설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에는 어항과 산지 위판장을 중심으로 단순한 수산물 생산 인프라의 기능 외에 지역 경제의 기반으로서의 역할과 관광 및 정주 여건의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 즉, 수산업을 주요 산업으로 하는 지역에서 도심과 차별화된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기반 시설이 되고 있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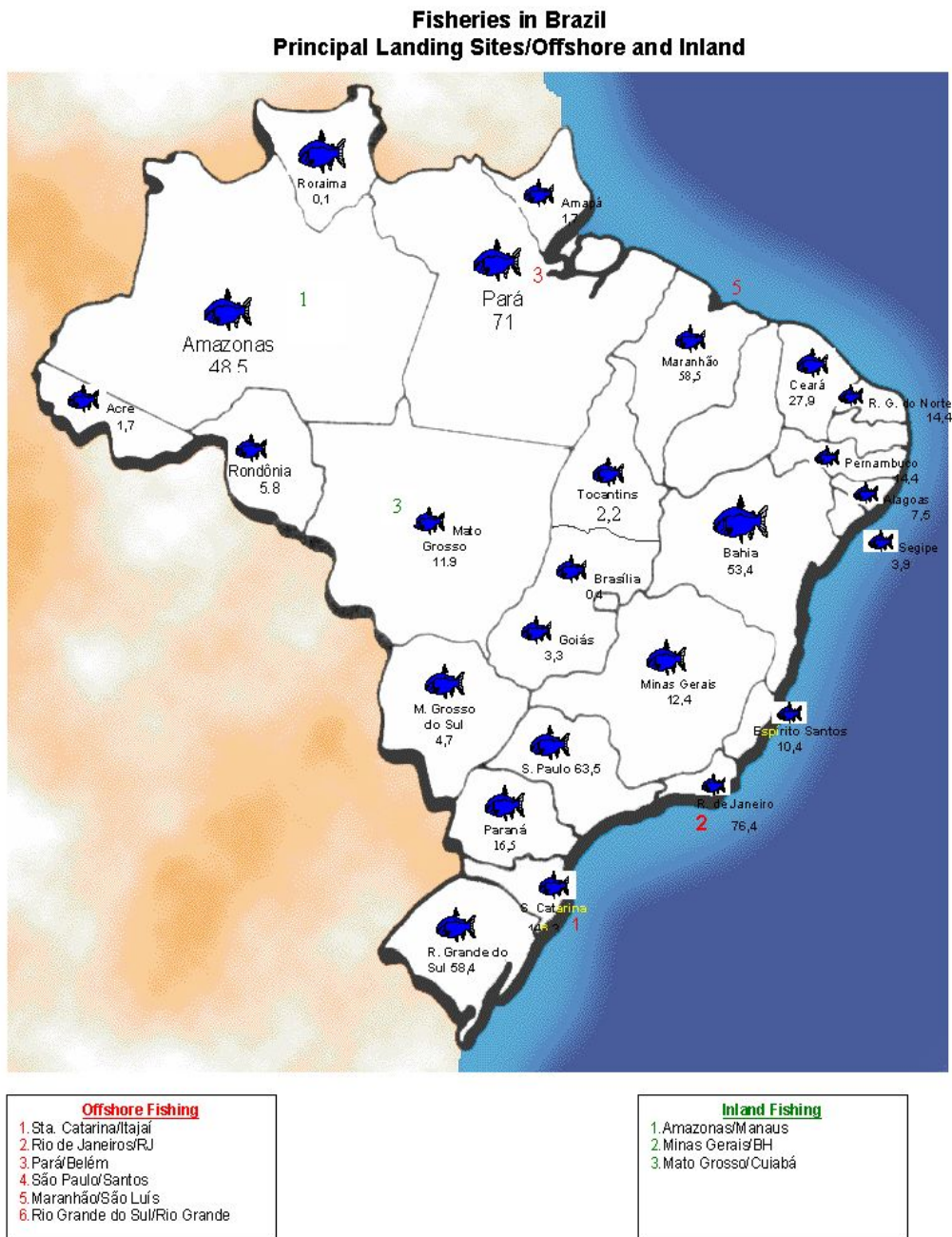
<표 7-6> 브라질의 주요 양륙지역 및 양륙량(2000)

주명	지역명	양륙량(천 톤)	비고
Itajaí	Santa Catarina	146	연안
Rio de Janeiro	Rio de Janeiro	76	연안
Belém	Pará	71	연안
Santos	São Paulo	64	연안
São Luíz	Maranhão	59	연안
Rio Grande	Rio Grande do Sul	58	연안
Manaus	Amazonas	49	내수면
Belo Horizonte	Minas Gerais	12	내수면
Cuiabá	Mato Grosso	12	내수면

자료 : FAO(www.FAO.org)

브라질은 소규모 영세어업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연근해에 상업적 어선어업도 다수 분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마존 지역에서는 하천을 따라 어업을 기반으로 한 도시가 존재하고 있다. 브라질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역에 어업 생산을 증대하고 지역 경제 기반의 기능을 수행하는 어항과 산지 위판장 시설을 현대적으로 설립할 필요가 있다.

<그림 7-9> 브라질의 주요 양륙지역과 양륙량



자료 : 전게서

이러한 사업이 한국과 추진될 경우에 한국은 어항 및 위판장 관련 건설 사업과 관련한 2차 산업으로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동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7-7> 브라질과의 어업 인프라 협력사업

구 분	내용	비고
어항 건설 및 개선	· 어항 관련 설계 및 건립 사업	우리 건설사업 연계
산지 위판장 사업	· 산지 위판장 건립 · 산지 위판장 운영 건설팅	
배후부지 개발 사업	· 어항 및 산지위판장의 배후부지에 관련사업의 개발 · 냉동냉장창고, 가공, 유통, 물류, 관련산업의 유치 가능(우리 수산분야 진출 가능)	

자료 : 전게서

5) 수산가공 협력을 통한 북미, EU 우회기지 마련

수산가공업은 2차 산업(제조업)으로서 일반적으로는 기업에 의해서 영위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수산가공 협력형은 민간의 참여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질 분야이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지만, 발전 단계상 이보다는 앞서 있다. 일반 기업의 수산가공업 외에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자 단체인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산지공동가공공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²⁹⁾ 동시에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기업들로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서 있다.³⁰⁾ 따라서 소규모 수산가공에서부터 대규모 수산가공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다룰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수산가공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브라질과의 수산가공 협력은 브라질의 지역적 소규모 영세 가공(가내수공업)에서 기업화된 수산가공 분야를 아우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리 수산기업들이 브라질과의 수산가공협력을 통해 현지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브라질 현지 진출을 통해 지금까지 우리 수산가공산업이 진출하기 어려웠던 북미와 EU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우회기지를 만들 수 있다. 물론 브라질의 입장에서는 수산가공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수산물의 다양한 활용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고용 창출을 통한 국민의 소득을 제고할 수 있다.

29) 제주특별자치도의 4개 수협은 각각의 가공물류센터를 가지고 어업인이 직접 가공을 하고 있으며, 경북 영덕의 강구에서도 오징어 할복 공장을 어업인을 위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30) 동원산업, 신라교역, 사조오양, 한성기업 등

이러한 배경들을 바탕으로 수산가공 협력은 다음의 세 가지 방법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 브라질의 수산가공업의 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브라질의 수산가공업은 크게 2개 지역으로 구분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 지역들을 협력 거점으로 하여 맞춤형 가공산업의 진출을 도모하고, 동시에 주요 수산물 산지에 대한 어항 및 산지 위판장 협력사업과 연계하여 산지에서의 수산가공업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브라질의 북부 및 북동부 지역은 수출을 목적으로 한 가공산업이 설립되어 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규모 있는 수산가공기업의 진출을 현지의 관련 기업과의 합작이나 자본 참여의 형태로 도모해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 우리나라가 지원할 수 있는 분야는 민간의 진출이기 때문에 제약적이다. 정책적 지원으로서는 가공공장이나 단지에 대한 공공시설(오폐수 처리, 구획 설정, 공동물류센터 등)을 지원하여 우리 기업 및 합작(자본참여) 기업의 생산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남부와 남동부 지역에 대해서는 브라질 내수 시장을 목표 시장으로 하는 우리 기업의 진출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이 지역에서는 다량어 통조림 산업이 발달해 있어 이와 관련된 기업체의 진출을 고려할 수 있다.

<표 7-8> 브라질과의 어업 인프라 협력사업

구분	내용	비고
지역별 맞춤형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부 : 수출가공기업의 진출(우회생산기지) <li style="padding-left: 20px;">- 공공시설에 대한 지원 · 남부 : 내수 시장 진출 협력(다량어 포함) <li style="padding-left: 20px;">- 공공시설에 대한 지원 	민간 주도
산지수산가공업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어항 및 위판장 대상 <li style="padding-left: 20px;">- 어항+위판장+배후가공단지의 연계 사업 · 공동물류센터 지원을 통한 공동경비의 절감 	정부 주도

자료 : 전개서

셋째, 마지막으로 산지 가공은 우리 정부가 브라질과의 수산가공협력에서 직간접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분야이다. 어항, 산지 위판장과 더불어 배후부지에 가공공장을 입지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물론 가공공장은 민간의 참여가 필수이지만, 이를 위한 제반 인프라 시설(발전소, 냉동냉장창고, 구획 설정 등)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공동의 물류센터를 지원하여 현지의 어업인이 생산한 수산물에 대한 유통가공(포장, 라벨링, 필렛 등)을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6) 어촌지역 개발 프로그램을 통한 어촌활성화

브라질의 수산업은 주로 소규모 영세어업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연안뿐만 아니라 아마존 등과 같은 조건불리지역에서의 어업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어업 자체가 경제의 기반은 물론이거니와 지역 사회의 구심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업을 기반으로 한 보다 적극적인 어촌지역 개발을 도모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한 어촌지역개발에 대해 어촌종합개발 사업을 다녀간 추진해 오면서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고, 현장에 도입해 왔다. 이러한 사업은 어촌관광, 어촌복지, 어촌종합 개발 등 다양한 형태도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어촌지역 개발 사업이 남미와의 수산협력 사업으로서 추진된다면, 특히 브라질의 어촌지역에서 나타나는 자국 내의 상대적 빈곤 해소에 큰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판단된다.

<표 7-9> 브라질과의 어촌지역개발 협력형 사업의 내용

구 분	내용	비고
어촌종합 개발	산업 및 생활 편의 시설 간 융복합형 공간 조성	
어촌관광 개발	어촌체험 마을, 어촌관광단지	관광객 대상
어촌 복지	병원, 학교 등 복지관련 시설 복합	

자료 : 전게서

7) 소비지 수산물 시장 현대화 사업협력

우리나라의 수산물 생산량 증대는 국민으로의 단백질 공급 원천에 크게 이바지했다. 특히, 수산물 산지는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수산물의 소비를 위해서는 산지와 소비지에서의 집하 기능은 물론 소비자로의 분산 기능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중앙도매시장 제도를 도입하여 주요 도시(혹은 거대 소비지)에 수산물 중앙도매시장을³¹⁾ 다수 설립하여 운영해 왔다. 이러한 중앙도매시장은 전국에서 급격하게 생산이 늘어나는 수산물을 소비지에 밀어

31) 서울의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노량진 수산시장,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산의 감천국제수산물도매시장 등

널 때, 소비지에서 수산물의 댐 기능을 수행하였다. 즉, 집하와 분산에 드는 개별 생산자나 유통업자의 유통비용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수산물 유통에서 나타나는 국가적·개인적 손실 비용을 최소화했다. 이러한 도매시장은 최근에 와서는 기존의 유통 거래 기능 외에 물류센터로서의 역할은 물론 지역 사회와의 공존을 설립 개념에 포함시키면서 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산물 도매시장은 일본, 스페인 등 주요 수산물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유통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브라질의 경우도 리오데자네이로, 상파울로 등 거대 도시에 거대 수요가 존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브라질의 수산물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의 협력 전략도 브라질의 수산물 생산량을 늘리는 것에 본 보고서에서는 목적으로 두고 있다. 따라서 늘어날 수산물에 대한 유통 과정에서의 합리적이며, 신속한 처리를 통한 손실분을 줄이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단, 동 사업은 브라질과의 협력사업의 성과와 브라질의 수산물 생산량의 증가세를 주목하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으로 다른 사업에 비해 개시가 늦어질 수 있다.

<표 7-10> 브라질과의 소비지 수산물 시장 현대화 사업

구 분	내용	비고
현대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수산물 시장에 대한 현대화 개발 - 기존의 시장에 대해 물류, 지역과의 공존 등을 고려한 새로운 현대화 사업을 추진 - 물류 기능 및 안전성 강화 - 지역 관광에 활용 	생산량 증가세와 관계없이 추진
소비지 수산물 시장 건립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상황을 고려한 수산물 도매시장 건립 - 늘어나는 수산물 공급량에 대응 - 수산물 유통의 사회적·경제적 비용 절감 - 수산물 물류센터의 개념 도입 	생산량 증가세를 고려한 사업추진

자료 : 전계서

8) 수산정책 개발 협력을 통한 진출 로드맵 마련

수산정책 개발은 협력 상대국의 수산분야 정책을 개발하는 분야로서 이전 협력사업과는 직접적인 협력 대상이 현지국의 정부라는 차이가 있다. OECD/DAC의 원조형태에서도 어업정책이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협력 양국의 정부간 정책 협력은 협력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우리나라의 수산행정은 다수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산정책 개발에 있어서도 국책 연구소(KMI, NFRDI 등)와의 협력 등으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러한 수산정책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브라질 관할 부처와 협력에 활용할 수 있다면, 브라질과의 수산협력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7-11> 브라질과의 수산정책협력 사업(컨설팅 위주)

구 분	내용	비고
인력·기술 개발	- R&D 개발 : 수산기술 전수 및 신기술 개발 - 인력 육성 : 어선원 교육 및 훈련, 양식기술 이전 및 보급, 수산관련 교육 기관 양성	
공동체 조직 구성	어업생산자의 공동체 조직화(수협, 어촌계 등)	자율어업화
수산금융	재해 보험 및 신용 관리 등	어업생산형과 연계
어업협력/협정	공동어장 관리, 어업협정 및 체계 구축	
정책 개발	중장기 마스터 플랜 협력	
수급 정보 공급	수산업 관측사업 등 협력	
컨설팅	전문인력의 파견 등	

자료 : 전게서

9) 수산분야 기술훈련 협력(Capacity Building)

지금까지 구성한 협력전략들은 대부분이 하드웨어(어항, 인프라 등)나 소프트웨어(기술, 시장, 거래 등)를 고려한 전략들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협력사업은 주로 한국이 브라질에게 공여하고, 브라질로부터 이에 합당한 입어 등의 반대급부를 직접적으로 제공받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은 바로 인적 자원의 개발이며, 수산분야에 인적 자원이 전문화

될 때, 비로소 수용 능력이 발생하게 되어 지속적이며 합리적인 수산협력이 펼쳐질 수 있다.

지금까지 수산분야의 기술훈련 협력은 제외국의 수산관련 공무원을 연수 형태로 초청하여 현장 방문 및 시찰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최근에 들어서는 해외의 ODA 수혜국의 공무원을 한국의 수산 관련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주는 교육 과정도 생기고 있지만, 그 과정이 6개월 정도로 매우 짧다. 이러한 연수협력은 현상을 유지하면서 보다 강화된 기술 협력 인재를 육성하는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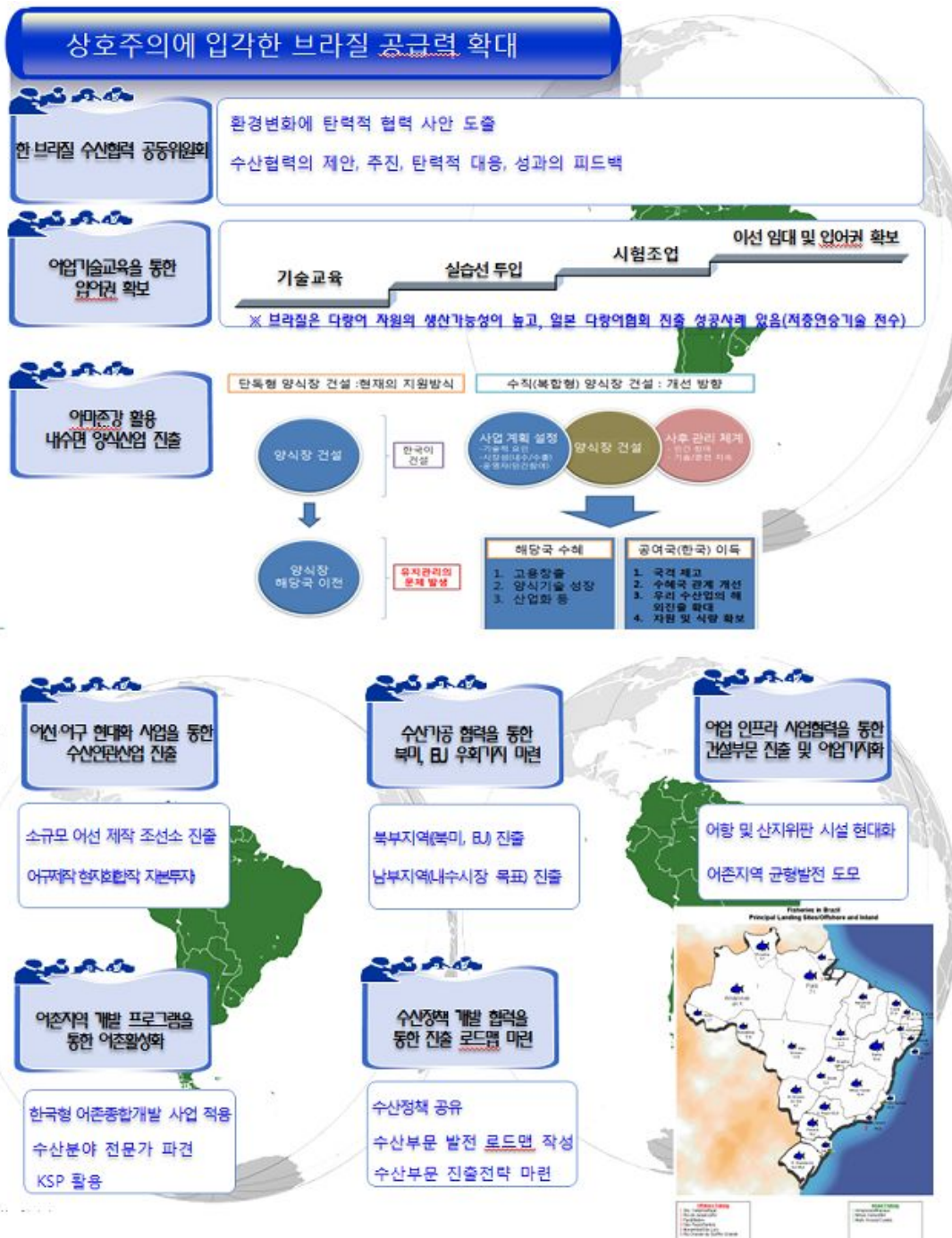
즉, 브라질과의 수산협력에서는 다양한 분야를 수용할 수 있는 휴먼웨어, 즉 인적 자원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브라질에 협력을 해주는 방식이지만, 실제 브라질과의 수산협력에서 우리 측에 제공하는 기술 및 경험 노하우를 교육해줄 인재를 육성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이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된 협력 전략별로 우리 측 전문가 인재 풀을 육성하고, 브라질의 현황 및 수산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훈련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이들을 기반으로 하여 브라질의 인적 자원을 전략별로 육성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10) 한·브라질 수산협력 공동위원회 구성

지금까지 제안된 다양한 수산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브라질과 한국 간의 수산협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창구의 역할이다. 물론 앞에서 다양한 수산협력을 제안하고는 있지만, 환경 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인 협력 사안이 도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협력사업의 추진에 따른 성과의 평가에 대해서도 피드백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한·브라질 수산협력 공동위원회(가칭)를 설립하여 수산협력의 제안, 추진, 탄력적 대응, 성과의 피드백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위원회는 양국의 정부 관계자들이 주요 구성원이 되고, 필요에 따라서 전문가들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주로 수산분야의 공공 연구기관(KMI, NFRDI, 부경대 등), 민간 전문가, 관련 단체(한국원양산업협회 등) 등을 자문위원으로 구성하여 전문화된 수산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브라질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림 7-10> 한-브라질 협력사업 추진전략



제4절 결론 및 기대효과

1. 결론

중남미 지역은 모두 33개국이며 남미 12개국, 중미 8개국, 카리브해 13개국을 포함하여 모두 5억9천만 명의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다. 중남미의 총 GDP는 4.9조 달러에 달해 아프리카의 3배이다. 따라서 세계에서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이지만 여전히 전체 인구의 3분의 1은 하루 생활비 2달러 이하의 인구가 공존하는 지역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남미 지역에 새천년개발계획을 달성하는 원조 공여국으로서의 역할,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자원 확보 차원에서의 노력과 소비지로서의 진출 전략을 모두 고민해야 하는 지역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협력은 상생과 공존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미 지역 중 수산업 부문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페루와 브라질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페루의 경우에는 한·페루 FTA 발효 이후 수산 약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착수하여 2년 내에 페루와의 수산부문 협력사업의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페루의 수산업 현황과 관련 제도, 법, 사회, 문화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이들 국가가 처한 경제현실 및 전망을 통해 신규 협력사업 발굴 및 협력사업 추진 전략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2013년 세계 5대 경제대국으로 부상될 것으로 전망되는 브라질에 대해서는 수산물 소비지 시장으로서의 접근 가능성을 고려해 협력사업 및 투자진출 가능성을 타진하여 협력사업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다. 현재까지도 브라질은 수산부문에 대한 투자가 적고, 수산업 생산량이 소량에 불과한 국가이다. 그러나 브라질은 넓은 해역에도 불구하고 연간 수산물 생산량이 12십만 톤에 불과한 국가이다. 그러나 어선어업뿐만 아니라 양식어업 측면에서도 수산업 잠재력이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여기에 수산물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브라질의 중산층 증가와 가계소비의 증가로 인해 소비량이 기아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이다. 특히 브라질의 민간소비는 국가 GDP의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이 브라질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수산부문 소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칠레에 이어서 페루와의 FTA도 발효되었다. 또한 콜롬비아와는 FTA 협상 중에 있으며,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포함된 메르코수르와는 FTA 공동연구 및 여건조성 중이다. 이와 같이 한국은 이들 FTA를 중남미 진출, 시장 선점, 자원 확보 등을 위한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FTA 이외에도 KOICA를 통한 원조협력사업, 국제기구, 미주은행 등을 통한 협력사업 및 진출방안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제대로 된 협력사업이 도출되고, 남미 진출의 성공가능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한·중남미 수산협력을 추진하는 이유는 다음의 6가지 정도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첫째, OECD/DAC 가입국으로서 수산부문 개도국 원조사업 이행, 둘째, 한국 국적선의 입어권 확보 및 지속적 기지 이용, 셋째, 수산업 양식기술 협력을 통한 양식 부문 진출, 넷째, 남미지역 수산부문 가공업 진출 및 확대, 다섯째, 한국 양식산업의 지속적 확대를 위한 어분 확보 필요, 여섯째, 수산물 소비가 확대되는 남미 시장에 대한 진출 필요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진출 필요성으로 인해 우리는 정부차원의 협력과 민간차원의 현지 투자 및 진출을 통해 ‘남미 협력사업을 통한 수산부문 공동성장’을 비전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ODA 사업은 수원국의 수요를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양식, 가공, 어업기술 등의 수산기술 이전은 진출 사업과 연계하여 협력사업의 차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전체 사업 추진은 정부와 민간이 공조하여 추진하는 체계가 합리적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미 남미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여러 가지 애로 사항으로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애로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특히, 페루에 진출한 넙치 양식업자는 직원 의무고용 문제, 넙치 알 수입의 어려움, 기자재 반입시 통관, 관세의 불명확, 적조 위험성 무방비 등의 문제들이 있었다. 또한 페루에 진출한 자이언트 오징어 가공업체와 봉장어 가공업체 들은 원료확보와 어려움과 어기집중에 따른 운영비 확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러한 문제가 양자협력 사업 추진을 통해 고려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남미 수산협력사업과 수산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페루와 브라질에 대한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를 통해서 페루와 브라질에 대해서 각각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페루의 협력사업 추진전략은 크게 다자간 협력을 활용한 사업, 양자간 협력을 활용한 사업,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을 통한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다자간 협력을 통해서도 FAO 수산인력 교육사업,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FCC)의 수산부문의 기후변화 대응 등의 사업, 미주개발은행 신탁기금을 이용하는 사업을 추진하면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페루와의 양자협력은 수산 약정 협상을 통해 마련하고, 이들 사업은 주로 ODA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인 양자협력사업을 위해서는 중국과 페루의 협력사업에서 성공적인 것으로 알려진 ‘라틴 비즈니스회의’와 같은 한·페루 수산협력위원회를 운영하여 다양한 부문과의 소통을 통해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페루 정부가 희망하는 ODA 사업 수요를 통해 수산인력훈련센터 설립, EU 위생규정 이행을 위한 수산시설 개선 사업, 양식부문 기술협력 사업, 페루 어항 및 배후부지 개발사업, 기재부의 KSP사업 등이 추진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맞추어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민간이 역할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한·남미 수산포럼을 활용한 정보 교류 및 새로운 협력 수요 발굴이 필요하며, 다부문 협력체제 구축 및 운용을 통한 수산복합타운을 조성하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통해 원주민과의 소통 개선하는 등 사업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수산부문의 투자에 있어서 새로운 협력모델인 ‘패키지딜’을 통한 진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둘째, 브라질의 경우 수산협력사업의 목표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브라질의 수산물 공급력 확대기여’에 두고, 이를 통해 고용 창출의 기회를 늘리고, 소득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한·브라질 수산협력 공동위원회를 두고 수산자원관리 협력, 기르는 어업협력, 어선어구 현대화 협력, 어업인프라 협력, 수산가공 협력, 어촌 지역 개발협력, 소비지 수산물 시장 현대화 협력, 수산정책 개발협력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2. 기대효과

남미지역에 대한 수산협력사업과 추진전략을 통해서 다음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다.

첫째, 국제사회 위상 제고 및 남미의 풍부한 천연자원의 확보가 용이할 것이다. 우선 ODA 사업을 통해 남미지역에 OECD/DAC의 새천년개발목표를 실현하여 한국의 국격을 제고하는 한편, 남미 33개국의 지지를 확보하여 국제기구에서의 발언권이 확대될 것이다. 또한 남미의 풍부한 천연자원 확보할 수 있는 자원외교로서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수산부문의 협력사업을 통해 점차 입어규정이 까다로워지는 남미 해역에서의 지속적 입어권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수산물 소비가 많아지는 남미지역에 대한 전략어종의 생산 현지화가 가능할 것이다.

셋째, 남미의 열악한 수산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어선건조, 어구제조업 등 관련산업 진출이 용이하여 국내 수산관련 연관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넷째, 남미지역 협력사업을 통해 북미와 EU시장을 겨냥한 생산·가공기지를 마련하고, 남미 수산물 소비확대에 대응할 수 있으며, 원양어업 생산기지의 지속적 이용이 가능할 것이다.

<그림 7-11> 남미 양자협력사업의 기대효과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 박창현. 2010. 「중남미 국가의 위기대응능력 개선 배경과 향후 과제」. 《해외경제정보》 제2010-15호
- 이성형. 2009. 「글로벌 금융위기와 라틴아메리카: 각국에 미친 충격과 대안 논의」. 주요국 제문제분석,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 이현주, 2008. “한국의 대중남미 무상원조방안 연구”, 한국국제협력단(KOICA)
- 한국은행. 1999. 『아르헨티나의 통화위원회제도 운용경험 및 Dollarization 논의』.
- Albrieu, Ramiro and Jose Maria Fanelli. 2011. "The Global Crisis and its Implications for Latin America." Working Paper, Real Instituto Elcano.
- Bloomberg 온라인자료.
- CEPAL. 2010. Balanco preliminar das economias da America Latina e Caribe. Santiago: CEPAL.
- ECLAC. 2010. 2009-2010 Economic Survey of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 EIU 온라인자료.
- Fernandez-Arias, Eduardo and Peter J. Monitel. 2009. "Crisis Response in Latin America: Is the Rainy Day at Hand?". Interamerica Development Bank.
- Fitch. 2010.2. "Global Bank Ranking Trends Q4 2009".
- Foxley, Alejandro. 2010. “Market Versus State: “Post crisis Economics in Latin America.” Carnegie Endowment.”
- Global Insight 온라인자료.
- Harinder Kohli, Claudio M. Loser and Anil Sood. 2010. Latin America 2040: Breaking Away from Complacency: An Agenda for Resurgence, Sage Publications Pvt. Ltd
- Hinrichsen, Don. 1998. Coastal Waters of the World: Trends, Threats, and Strategies. Washington, DC: Island.
- IDB. 2011. One Region, Two Speeds?.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2001. Climate Change 2001: Mitigation, Impacts,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Summaries for Policymakers. Geneva: IPCC.
- IMF. 2010. Regional Economic Outlook: Western Hemisphere.

- IMF. 2009. Regional Economic Outlook: Western Hemisphere.
- IMF. 2009.12. "Fiscal Rules-Anchoring Expectations for Sustainable Public Finance".
- Izquierdo, Alejandro and Talvi, Ernesto. 2008. "All That Glitters May Not Be Gold: Assessing Latin America's Recent Macroeconomic Performance." Discussion Paper, April 2008.
- Kaltenbrunner, Annina, Juan Pablo Paineira. 2010. "New Forms of External Vulnerability: Brazil in the Global Financial Crisis".
- Kevin Hillstrom and Laurie Collier Hillstrom, 2004. Latin America & The Caribbean: A Continental Overview of Environmental Issues, California: ABC-CLIO. pp. 155-174
- Lustig, Nora. 2008. "Impactos de la crisis financiera global sobre America Latina y el Caribe,"http://home.gwu.edu/~nlustig/LUSTIG_CRISIS%20Y%20LAC_SEGIB_UNDP_V%20DIC%2022%2008.pdf
- Mauricio Cardenas. 2010. "What's Next for Latin America After the Global Crisis?." BROOKINGS.
- Oxford Analytica 홈페이지 자료.
- Population Action International. 2000. People in the Balance: Population and Natural Resources at the Turn of the Millennium. Washington, DC: PAI.
- Porzecanski, Arturo C.. 2009. "Latin America: The Missing Financial Crisis." Munich Personal RePEc Archive(MPRA).
- Roberto Fendt. 2004. "The Brasilia Consensus: A New Model of Development?." CIPE.
- Sheppard, Charles, ed. 2000. Seas at the Millennium: An Environmental Evaluation. 3 vols. Oxford: Pergamon.
- United Nations and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2. World Health Report 2002. New York: UN and WHO.
- UN Centre for Human Settlements. 2001. The State of the World's Cities Report 2001. Nairobi: UNCHS.
- UN Development Programme. 2002.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Meeting the Millennium Poverty Reduction Targets in Latin America. New York: UNDP.
- UN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2001. "The Sustainability of Development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2001."

- Report prepared for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Rio de Janeiro, October 23-24.
- UN Environment Programme. 2000. GEO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Environment Outlook. Mexico City: UNEP.
- UN Environment Programme. 2002. Global Environment Outlook 3(GEO-3). London: UNEP and Earthscan.
- UN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2001. The State of the World's Forests 2001. Rome: FAO.
- UN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2002. The 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 2002. Rome: FAO.
- Weber, Peter. 1993. Abandoned Seas: Reversing the Decline of the Oceans. Worldwatch Paper 116. Washington, DC: Worldwatch Institute.
- Wilkinson, Clive, ed. 2000. Status of Coral Reefs of the World: 2000. Townsville: Australian Institute of Marine Science.
- World Resources Institute. 2000. World Resources 2000-2001: People and Ecosystems: The Fraying Web of Life. Washington, DC: WRI.
- World Bank. 2010. "From Global Collapse to Recovery: Economic Adjustment and Growth Prospect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 World Bank. 2010. "Natural Resources and Development Strategy after the Crisis."Economic Premise.
- OECD. 2010. Latin American in 2011: How middle-class is Latin America